

ETHER LIBRARY

002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에밀리 브론테

Emily Brontë · 1847

문학 · 소설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에밀리 브론테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Wuthering Heights

지은이 에밀리 브론테(1818~1848)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47년, 런던 토머스 코틀리 뉴비 출판사에서 '엘리스 벨'이라는 필명으로 펴냈다. 이 책은 1847년 초판 계열의 본문을 영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을 영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소설은 1847년 12월 런던의 토머스 코틀리 뉴비 출판사에서 '엘리스 벨'이라는 필명으로, 동생 앤 브론테의 『애그니스 그레이』와 함께 세 권짜리 책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1847년 초판 계열의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초판은 둘째 권에서 장 번호를 다시 1장부터 매겼지만, 저본은 1장부터 34장까지 번호를 이어 붙였고 이 책도 그것을 따랐습니다.

서른네 장, 원문 1,942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두 화자

이 소설은 상자 속의 상자입니다. 바깥 상자는 1801년 겨울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빌려 든 런던 신사 **록우드의 일기**이고, 그 안에 그레인지의 가정부 **넬리 딘**이 록우드에게 들려주는 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이저벨라의 편지, 하녀 질라의 수다, 히스클리프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 **록우드의 일기**는 해라체로 옮겼습니다. 그날 겪은 일은 과거형으로, 일기를 쓰는 지금의 느낌과 풍경은 현재형으로 적어서 한 문단 안에 두 시제가 섞입니다. 거드름 피우는 한자어와 문어도 이 사람의 몫입니다.
>
> **넬리의 이야기**도 해라체로 옮겼습니다. 록우드가 제15장에서 밝히듯, 우리가 읽는 넬리의 이야기는 그가 「그 부인의 말 그대로, 다만 조금 줄여서」

일기장에 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넬리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록우드에게 직접 말을 거는 문장만은 「나리」라고 부르며 해요체로 옮겨, 고개를 들어 듣는 이를 보는 순간이 말끝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같은 해라체라도 넬리의 말은 살림의 낱말과 속담으로, 록우드의 말은 거창한 낱말로 갈립니다.

이야기 속 인물이 길게 들려주는 이야기(이저벨라, 질라, 캐시, 히스클리프)는 큰따옴표 안에 두고, 그 안에서 또 인용하는 말은 작은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여러 문단에 걸친 구술은 원문대로 마지막 문단에서만 따옴표를 닫았습니다.

두 캐서린

원문에는 캐서린이 둘 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자란 **캐서린 언쇼**와, 그 딸 **캐서린 린턴**입니다. 원문은 두 사람을 모두 Catherine이라 부르고, Cathy라는 애칭도 둘 모두에게 씁니다.

그러나 넬리는 제17장에서 딸은 언제나 Cathy라고 불렸고 그것으로 어머니와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 구별을 끝까지 밀고 나가, 원문의 표기와 상관없이 **어머니는 「캐서린」, 딸은 「캐시」**로 옮겼습니다. 히스클리프가 어머니 캐서린을 Cathy라고 부르는 자리도 「캐서린」으로 옮겼습니다. 제16장에서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캐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1~3장의 록우드는 딸의 이름을 아직 몰라서 「히스클리프 부인」, 「안주인」이라고만 부릅니다.

예외는 이름 그 자체가 뜻을 갖는 자리입니다. 제3장 창턱에 새겨진 세 이름 「캐서린 언쇼」, 「캐서린 히스클리프」, 「캐서린 린턴」은 어머니의 이름이고, 딸을 온 이름으로 부르는 몇 자리(「캐서린 린턴」)에는 바로 곁에 「캐시」를 두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지프의 말

늙은 하인 조지프는 짙은 요크셔 사투리를 씁니다. 원문 독자도 반쯤만 알아듣는 말이지만 뜻은 늘 분명합니다. 이 책은 조지프를 한국의 어느 지방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실제 지역 방언을 흉내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겄-」, 「-구먼」, 「-소」 같은 몇 가지 말끝과 「쥔 양반」, 「허나」, 「죄다」 같은 낱말만 정해 두고 끝까지 그것만 써서, 쉽게 읽히는 시골 노인의 말로 옮겼습니다. 문법은 깨지 않았고 뜻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투리를 몇 낱말 섞어 쓰는 헤어턴과 질라에게는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주었고, 헤어턴의 말에서는 이야기 끝 무렵 그 표지가 사라집니다.

제목에 관하여

wuthering은 록우드가 제1장에서 풀이하듯 이 고장 사투리로, 폭풍이 불 때 높은 자리가 고스란히 맞는 대기의 소란을 이르는 형용사입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휘몰아치는 소리와 기세가 함께 담긴 말입니다. 한국어 제목은 오래 불려 온 「폭풍의 언덕」을 그대로 썼고, 본문에서 집을 가리킬 때는 이름의 소리대로 「워더링 하이츠」라고 적었습니다.

그 밖의 것

옮긴이 주는 두 개만 달았습니다(제3장 「일흔 번씩 일곱 번」, 제9장 밀로). 그 밖의 낯선 말은 본문 안에서 풀어 읽히게 했습니다.

연도와 거리·돈·무게, 분 단위 시간은 「1801년」, 「4마일」, 「1파운드」, 「5분」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나이와 햇수, 시각, 사람 수는 「열여섯 살」, 「스무 해」, 「아홉 시」처럼 한글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으며, 말이 끊긴 자리만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원문의 기울임 강조는 대부분 강조 표시로 살렸습니다.

원문이 가린 욕은 가리지 않고 옮겼고, 사랑과 증오의 거친 말도 순화하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의 모습만 적었습니다. 두 집안의 이름이 서로 엇갈려 쓰이니 읽다가 헷갈리면 이 쪽을 펴 보십시오.

워더링 하이츠의 언쇼 집안

언쇼 씨 · 워더링 하이츠의 옛 주인. 어느 여름 리버풀에 다녀오다 외투에 싸인 아이 하나를 데려온다.

언쇼 부인 · 그의 아내.

힌들리 언쇼 · 맏아들.

캐서린 언쇼 · 딸. 이 책에서는 「캐서린」.

프랜시스 · 힌들리의 아내.

헤어턴 언쇼 · 힌들리의 아들. 워더링 하이츠 현관 위에 「1500」이라는 해와 함께 새겨진 이름을 물려받았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린턴 집안

린턴 씨, 린턴 부인 ·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옛 주인 내외.

에드거 린턴 · 아들.

이저벨라 린턴 · 딸.

캐시 · 에드거 린턴의 딸. 원문 이름은 Catherine Linton이지만, 이 책에서는 「캐서린」과 구별하려고 늘 「캐시」라고 부른다. 1801년 록우드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만나는 젊은 「히스클리프 부인」이다.

두 집 사이에서

히스클리프 · 언쇼 씨가 데려온 아이. 성도 이름도 아닌 하나뿐인 이름으로 불린다. 1801년에는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주인이다.

린턴 히스클리프 · 히스클리프의 아들. 흔히 「린턴」으로 불려서, 「린턴」이 에드거를 가리키는지 이 아이를 가리키는지는 앞뒤를 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하인들

록우드 · 1801년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빌려 든 런던 신사. 일기의 「나」.

넬리 딘 · 언쇼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란 하녀, 1801년에는 그레인지의 가정부. 이야기의 대부분을 들려준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 「 넬리 」, 「엘렌」, 「딘 부인」이 된다.

조지프 · 워더링 하이츠의 늙은 하인. 성경 구절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산다.

질라 · 뒷날 워더링 하이츠의 하녀.

케네스 · 기머턴 마을의 의사.

곳

워더링 하이츠 · 황야 높은 등성이에 선 언쇼 집안의 돌집. 줄여서 「하이츠」.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 · 골짜기 아래 영지 안에 있는 린턴 집안의 저택. 줄여서 「그레인지」. 두 집은 황야를 사이에 두고 4마일쯤 떨어져 있다.

기머턴 · 그레인지 가까이에 있는 마을. 교회와 예배당이 있다.

페니스톤 바위산 · 하이츠 너머의 바위 봉우리.

차례

제1장 12
제2장 19
제3장 32
제4장 49
제5장 59
제6장 64
제7장 73
제8장 87
제9장 99
제10장 121
제11장 144
제12장 159
제13장 177
제14장 192
제15장 204
제16장 215

제17장 222
제18장 246
제19장 259
제20장 265
제21장 274
제22장 297
제23장 306
제24장 317
제25장 330
제26장 336
제27장 342
제28장 359
제29장 369
제30장 377
제31장 386
제32장 394
제33장 409
제34장 420

제1장

1801년. 집주인을 찾아갔다가 방금 돌아왔다. 앞으로 내가 상대하며 성가실 이웃이라고는 그 사람 하나뿐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이다! 잉글랜드를 다 뒤져도 세상의 소란에서 이토록 말끔히 떨어진 자리를 골라낼 수는 없었으리라. 사람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낙원이고,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이 적막을 둘이서 나눠 갖기에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멋진 친구 아닌가! 내가 말을 타고 다가가자 그의 검은 눈은 의심스럽다는 듯 눈썹 밑으로 쑥 물러났고, 내가 이름을 대자 그의 손가락은 무엇 하나 내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작정한 듯 조끼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기울었는지 그는 꿈에도 몰랐으리라.

"히스클리프 씨입니까?" 내가 물었다.

대답은 고갯짓 한 번이었다.

"새로 든 세입자 록우드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서둘러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은, 제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빌려 달라고 끈질기게 졸라 대서 혹시 폐를 끼치지나 않았는지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어제 듣기로는 선생께서 다른 생각도 좀 하고 계셨다던데……"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는 내 것이오." 그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잘랐다. "막을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게 두지 않소. 들어오시오!"

그 '들어오시오'는 악문 이 사이로 새어 나왔고, '꺼져 버려!'라는 속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가 기대선 문짝조차 그 말에 맞장구치듯 열려 주지 않았는데, 아마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초대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다. 나보다도 더 지나치게 말을 아끼는 듯한 사내에게 흥미가 일었다.

내 말의 가슴팍이 빗장을 정말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손을 내밀어 사슬을 풀었고, 그러고는 시무룩하게 앞장서서 돌 깔린 길을 올라갔고, 마당에 들어서자 소리쳤다. "조지프, 록우드 씨 말을 받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좀 가져오고."

"하인이라고는 저 사람 하나가 전부인 모양이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키는 명령을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판석 사이로 풀이 자라고, 소 말고는 산울타리를 다듬는 이가 없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조지프는 나이가 지긋한, 아니 늙은 사내였다. 몹시 늙었을지도 모르지만 기운이 정정하고 힘줄이 단단해 보였다. "주여, 우릴 도우소서!" 내 말을 받아 가면서 그는 짜증스럽고 못마땅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웅얼거렸다. 그러는 동안 어찌나 시큼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던지, 나는 저 노인이 먹은 저녁을 삭이려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고 그 경건한 탄식은 뜻밖에 들이닥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고 너그럽게 짐작해 주기로 했다.

워더링 하이츠는 히스클리프 씨가 사는 집의 이름이다. '워더링(wuthering)'은 이 지방 말로, 폭풍이 불 때 그 높은 자리가 고스란히 맞는 대기의 소란을 이르는 뜻깊은 형용사다. 저 위에서는 정말이지 사철 맑고 상쾌한 바람을 쐬고 살 것이다. 집 끝머리에 선 키 작은 전나무 몇 그루가 지나치게 비스듬히 기운 것을 보면, 그리고 앙상한 가시나무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해에게 동냥이라도 비는 듯 모두 한쪽으로만 가지를 뻗은 것을 보면, 산마루를 넘어 불어오는 북풍의

힘이 어떠한지 짐작할 만하다. 다행히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튼튼하게 지었다. 좁은 창은 벽 속 깊숙이 박혀 있고, 모서리는 툭 튀어나온 큼직한 돌로 단단히 감쌌다.

문턱을 넘기 전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집 앞면, 특히 정문 둘레에 아낌없이 새겨 놓은 기괴한 조각들을 감상했다. 정문 위에는 허물어져 가는 그리핀들과 부끄러운 줄 모르는 벌거숭이 꼬마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턴 언쇼'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몇 마디 감상을 늘어놓고, 무뚝뚝한 주인에게 이 집의 내력을 짧게나마 들려 달라고 청하고 싶었다. 그러나 문가에 선 그의 태도로 보아 얼른 들어오든지 아예 돌아가든지 하라는 것 같았고, 나는 이 집의 지성소를 들여다보기도 전에 그의 조바심을 돋우고 싶지 않았다.

한 걸음 들어서자 바로 식구들이 모여 지내는 방이었다. 현관이나 복도 같은 것은 따로 없었다. 이곳에서는 이 방을 특별히 '큰방'(the house)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부엌과 응접실을 겸하는 방이지만,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부엌이 아예 다른 구석으로 밀려난 모양이다. 적어도 저 안쪽 깊은 곳에서 수다 떠는 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커다란 벽난로 둘레에는 굽거나 삶거나 빵을 구운 흔적이 하나도 없었으며, 벽에 반짝이는 구리 냄비나 양철 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방 한쪽 끝에서는 커다란 참나무 찬장 위에 거대한 백랍 접시들이 은 주전자며 큰 맥주잔들과 섞여 한 줄 또 한 줄 천장까지 솟아 있어서, 빛과 열을 눈부시게 되쏘고 있었다. 천장에는 반자를 대지 않아 그 뼈대가 캐묻는 눈앞에 송두리째 드러나 있었다. 귀리 과자와 소다리·양다리·햄 덩이를 주렁주렁 매단 나무 시렁이 가린 곳만 빼고 말이다. 벽난로 위에는 험상궂은 낡은 총 몇 자루와 기병용 권총 한 쌍이 걸려 있었고, 장식이랍시고 요란하게 칠한 깡통 세 개가 선반을 따라 놓여 있었다. 바닥은 매끄럽고 흰 돌이었다. 의자는 등받이가 높고 투박하게

짠 것들로 초록색을 칠했고, 육중한 검은 의자 한두 개가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찬장 밑 아치 안에는 간 빛깔의 커다란 암캐 포인터 한 마리가 낑낑대는 강아지 떼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고, 다른 구석구석에도 다른 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방이며 세간이며, 고집스러운 얼굴에 튼튼한 다리를 무릎 바지와 각반으로 보기 좋게 감싼 수수한 북쪽 농부의 것이라면 별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팔걸이의자에 앉아 둥근 탁자 위에 거품이 이는 맥주잔을 놓고 있는 모습은, 저녁을 먹고 난 알맞은 때에 가기만 하면 이 언덕 지대 어디서든 오륙 마일만 돌아다녀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는 그가 사는 집과도, 그의 살림살이와도 묘하게 어긋난다. 생김새는 살갗이 검은 집시인데 옷차림과 몸가짐은 신사다. 그러니까 이 근방 시골 지주들 대다수만큼은 너끈히 신사다. 좀 칠칠맞을지는 몰라도 꼿꼿하고 잘생긴 몸매 덕에 그 무심함이 흉하지 않고, 꽤나 침울하다. 어떤 이들은 그를 두고 배운 데 없이 오만하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와 함께 울리는 줄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일러 준다. 나는 본능으로 안다. 그가 말을 아끼는 것은 감정을 요란하게 드러내는 일, 서로 친절을 주고받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도 미움도 똑같이 감춰 두고, 남에게서 사랑이나 미움을 돌려받는 것을 일종의 주제넘은 짓으로 여길 사람이다. 아니, 내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내 성질을 그에게 너무 후하게 덧씌우고 있다. 히스클리프 씨가 사귀어 보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감추는 까닭은 나를 움직이는 까닭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 내 체질이 거의 나만의 별난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내가 결코 편안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리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여름 나는 그런 가정을 누릴 자격이 조금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다.

바닷가에서 한 달 동안 좋은 날씨를 즐기던 중에 나는 더없이 매혹적인 여인과 어울리게 되었다. 그 여인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동안만큼은 내 눈에 진짜 여신이었다. 나는 '사랑을 입 밖에 내어 말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눈빛에 말이 있다면, 어지간한 바보라도 내가 그 여인에게 홀딱 빠졌다는 것을 알아챘으리라. 마침내 여인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눈빛으로 답해 주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눈빛이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던가? 부끄럽지만 털어놓겠다. 나는 달팽이처럼 얼음같이 차갑게 제 껍데기 속으로 움츠러들었고, 여인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더 차갑게, 더 멀리 물러나기만 했다. 마침내 그 가엾은 순진한 아가씨는 제 감각을 의심하게 되었고, 제가 착각했다고 여겨 어쩔 줄 모르다가 어머니를 졸라 그곳을 떠나 버렸다.

이 별난 기질 탓에 나는 일부러 매정하게 군다는 평판을 얻었다. 그 평판이 얼마나 억울한지는 나 혼자만이 안다.

나는 집주인이 걸어가는 쪽의 맞은편, 화로 앞 판석 끝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는 틈을 메우려고 어미 개를 쓰다듬어 보려 했다. 어미 개는 새끼들 곁을 떠나 늑대처럼 살금살금 내 다리 뒤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입술을 말아 올리고 흰 이빨에 침을 흘리며 덥석 물 기회를 노리는 참이었다. 내가 쓰다듬으려 하자 개는 목구멍 깊은 데서 길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개는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요." 히스클리프 씨가 개와 한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발로 한 대 쥐어박아 더 사나운 짓을 막았다. "응석받이로 자란 놈이 아니오. 애완용으로 기르는 게 아니란 말이오." 그러고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가서 다시 소리쳤다. "조지프!"

조지프가 지하실 깊은 데서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게 웅얼거렸지만 올라올 기척은 없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찾아 아래로 내려가 버렸고, 나는 그 불한당 같은 암캐와 험상궂은 털북숭이 양치기 개 두 마리와

마주 앉게 되었다. 개 세 마리는 내 몸짓 하나하나를 시샘하듯 함께 지켜보았다. 그 송곳니에 닿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말없는 모욕쯤이야 개들이 알아듣겠느냐 싶어서, 불행하게도 세 마리를 향해 눈을 찡긋거리고 얼굴을 찌푸려 보였다. 내 얼굴의 어떤 움직임이 그 마님의 비위를 몹시 거슬렀던지, 암캐가 갑자기 성을 내며 내 무릎으로 뛰어올랐다. 나는 개를 밀쳐 내고 얼른 탁자를 사이에 두었는데, 그 바람에 온 벌집을 쑤신 꼴이 되고 말았다. 크기도 나이도 제각각인 네발 달린 악마 여섯 마리가 숨은 굴에서 기어 나와 한가운데로 몰려들었다. 개들은 유난히 내 발뒤꿈치와 외투 자락을 노렸다. 나는 부지깽이를 휘둘러 큰 놈들을 있는 힘껏 막아 내면서, 평화를 되찾게 누구든 좀 도와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그의 하인은 약이 오를 만큼 태연하게 지하실 계단을 올라왔다. 화롯가가 물고 짖는 소리로 그야말로 폭풍이 일었는데도 두 사람이 평소보다 단 일 초라도 빨리 움직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행히 부엌에 있던 사람이 더 서둘러 주었다.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팔을 드러낸 채 불기에 볼이 벌겋게 달아오른 건장한 아낙이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우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 무기와 혀를 어찌나 요긴하게 썼던지 폭풍은 마법처럼 가라앉았고,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큰바람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가슴을 들썩이는 그 아낙만 남아 있었다.

"대체 무슨 난리요?" 그가 물으며 나를 훑어보았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뒤라 그 눈길은 도저히 참아 넘기기 어려웠다.

"대체 무슨 난리냐니요!" 나는 웅얼거렸다. "귀신 들린 돼지 떼라도 선생 댁 짐승들보다 더 고약한 귀신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낯선 사람을 호랑이 새끼 떼 속에 내버려 두시는 편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덤비지 않소." 그가 내 앞에 병을 놓고 밀려난 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말했다. "개들이 경계하는 건

옳은 일이오. 포도주 한 잔 하겠소?"

"아니요, 됐습니다."

"물리지는 않았겠지요?"

"물렸다면 문 놈에게 제 도장을 꽝 찍어 주었을 겁니다." 히스클리프의 얼굴이 풀어지며 씩 웃음이 번졌다.

"자, 자." 그가 말했다. "놀라셨구려, 록우드 씨. 자, 포도주 좀 드시오. 솔직히 털어놓자면 이 집에는 손님이 워낙 드물어서 나도 내 개들도 손님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오. 건강을 위하여 들겠소?"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잔에 답했다. 똥개 떼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뿌루퉁하게 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친구의 기분이 그쪽으로 돌았으니, 나를 놀림감 삼아 더 즐기게 해 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아마 좋은 세입자의 비위를 건드려 봐야 어리석은 일이라는 실속 있는 계산에 마음이 기울었던 듯, 대명사며 조동사를 툭툭 잘라 먹던 그 짤막한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내가 흥미를 느끼리라 여겼는지, 내가 지금 물러나 사는 이곳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다룬 화제마다 그는 무척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 덕에 나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내일 또 찾아오겠다고 자청할 만큼 용기를 얻었다. 그가 내가 다시 쳐들어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그래도 나는 갈 것이다. 그와 견주어 보면 내가 얼마나 사교적인 사람인지 놀라울 지경이다.

제2장

어제 오후는 안개가 끼고 추워서, 히스 덤불과 진창을 헤치고 워더링 하이츠까지 가느니 서재 난롯가에서 오후를 보낼까 하는 마음이 반쯤 들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위층으로 올라와 보니(덧붙여 둔다. 나는 열두 시에서 한 시 사이에 점심을 먹는다. 이 집에 딸린 붙박이 세간처럼 집과 함께 넘겨받은 가정부는 듬직한 부인인데, 다섯 시에 식사를 차려 달라는 내 부탁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알아듣지 않으려 했는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게으른 마음을 품고 계단을 올라 방에 들어서 보니, 하녀 하나가 솔이며 석탄 통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앉아 잿더미를 퍼부어 불을 끄면서 지옥 같은 먼지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 광경에 나는 곧장 쫓겨나듯 물러났고, 모자를 집어 들고 4마일을 걸어서 히스클리프의 정원 문 앞에 닿았을 때 마침 눈보라의 첫 깃털 같은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해 가까스로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 황량한 언덕 꼭대기의 땅은 검은 서리에 꽁꽁 얼어 있었고, 공기는 온 팔다리가 덜덜 떨리도록 차가웠다. 사슬을 풀 수가 없어서 나는 문을 뛰어넘었고, 제멋대로 자란 구스베리 덤불이 늘어선 판석 길을 달려 올라가 들여보내 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손가락 마디가 얼얼해지고 개들이 울부짖을 때까지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한심한 사람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렇게 무례하게 손님을 박대하다니, 너희는 인간이라는 동족에게서 영영 떨어져 외따로 살아도 싸다. 나라면 적어도 대낮에 이렇게 문에 빗장을 질러 두고 손님을

내쫓지는 않겠다. 상관없다. 들어가고 말 테다!" 그렇게 마음먹고 걸쇠를 움켜쥐고 세차게 흔들고 있으려니, 식초를 마신 듯한 얼굴의 조지프가 헛간의 둥근 창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

"뭣 하러 왔소?" 그가 소리쳤다. "쥔 양반은 저 아래 가축 우리에 있구려. 쥔한테 할 말이 있으면 헛간 끝으로 돌아가 보시오."

"안에서 문을 열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소?" 나도 소리 질러 대답했다.

"안엔 마님밖에 없소. 댁이 밤이 되도록 그 요란한 난리를 쳐 봐야 마님은 문을 안 열어 주겄소."

"어째서요? 내가 누군지 부인께 좀 알려 줄 수 없겠소, 조지프?"

"난 싫소! 그런 일엔 손도 안 대겄소." 머리가 그렇게 웅얼거리더니 쑥 사라졌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손잡이를 움켜잡았는데, 그때 웃옷도 걸치지 않고 쇠스랑을 어깨에 멘 젊은 사내가 뒤뜰에 나타나 따라오라고 나를 불렀다. 우리는 빨래하는 곳을 지나고, 석탄 헛간과 펌프와 비둘기장이 있는 돌 깔린 마당을 지나, 마침내 지난번에 나를 맞았던 그 크고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 이르렀다. 석탄과 토탄과 장작을 섞어 지핀 엄청난 불길이 방을 기분 좋게 밝히고 있었고, 넉넉한 저녁상이 차려진 식탁 가까이에서 나는 반갑게도 그 '마님'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집에 있으리라고는 그때까지 짐작조차 못 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앉으라고 권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부인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 꼼짝도 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 없었다.

"날씨가 사납습니다!" 내가 말을 꺼냈다. "히스클리프 부인, 하인들이 하도 느긋하게 시중을 드는 바람에 애꿎은 문만 그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안에서 제 소리를 듣게 하느라고 꽤나 애를 먹었거든요."

부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빤히 쳐다보았고, 부인도 빤히 쳐다보았다. 어쨌든 부인은 차갑고 무심한 눈길을 내게서 떼지 않았는데, 그 눈길이 어찌나 거북하고 불쾌하던지 나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랐다.

"앉으시오." 젊은 사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곧 들어올 거요."

나는 시키는 대로 앉았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고 그 악당 주노를 불렀는데, 주노는 두 번째 만남이라고 황송하게도 꼬리 끝을 아주 살짝 움직여 나를 알아본다는 표시를 해 주었다.

"아름다운 짐승입니다!" 나는 다시 말을 붙였다. "새끼들은 남에게 주실 생각이십니까, 부인?"

"내 개들이 아니에요." 상냥하신 안주인이 대답했다. 히스클리프 본인이라도 그보다 더 쌀쌀맞게 대꾸하지는 못했으리라.

"아, 그럼 부인께서 아끼시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군요?" 나는 고양이 같은 것이 가득 들어 있는 듯한 어둑한 구석의 방석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별난 걸 아끼는군요!" 부인이 비웃듯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죽은 토끼 더미였으므로,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 화롯가로 바싹 다가앉으며, 오늘 저녁 날씨가 참으로 사납다는 말을 아까 한 그대로 되풀이했다.

"나오지 말았어야죠." 부인이 일어나 벽난로 선반에서 색칠한 깡통 두 개를 내리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아까는 부인이 앉은 자리가 빛을 등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몸매와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호리호리했고 겉보기에 소녀 티를 갓 벗은 듯했는데, 몸매가 훌륭했고 얼굴은 내가 여태 보는 즐거움을 누린 얼굴 가운데 가장 앙증맞고 고왔다. 이목구비는 자그마했고 살결은 아주 희었으며, 아마빛이라기보다 금빛이라 해야 할 고수머리가 가냘픈

목덜미에 풀어진 채 늘어져 있었다. 눈은, 표정만 상냥했더라면 누구도 견디지 못했을 눈이었다. 쉽게 반하는 내 마음으로서는 다행하게도, 그 눈에 드러난 감정이라고는 경멸과 일종의 절망 사이를 오가는 것뿐이었는데, 그런 감정이 그런 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은 기이할 만큼 부자연스러웠다. 깡통은 부인의 손이 잘 닿지 않는 데 있었으므로, 내가 거들려고 몸을 움직이자, 부인은 금화를 세는 수전노가 누가 거들겠다고 나서면 그러듯이 홱 돌아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부인이 톡 쏘았다. "나 혼자 내릴 수 있어요."

"이거 실례했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차 마시라고 초대받았어요?" 부인이 단정한 검은 옷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찻잎을 한 숟가락 떠서 주전자 위에 든 채로 서서 따지듯 물었다.

"한 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초대받았느냐고요?" 부인이 되풀이해 물었다.

"아니요." 나는 반쯤 웃으며 말했다. "초대해 주실 분이 바로 부인이시지요."

부인은 숟가락째 찻잎을 도로 내던지고 토라져서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이마에는 주름이 잡히고 빨간 아랫입술은 막 울음을 터뜨리려는 아이처럼 삐죽 나와 있었다.

그사이 젊은 사내는 누가 봐도 낡아 빠진 웃옷을 몸에 걸치고는 불길 앞에 꼿꼿이 서서, 꼭 우리 사이에 아직 갚지 못한 철천지원수라도 있는 것처럼 눈꼬리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저 사내가 하인인지 아닌지 나는 슬슬 의심스러워졌는데, 옷차림도 말씨도 모두 거칠었고 히스클리프 씨 내외에게서 엿보이는 품위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숱 많은 갈색 고수머리는 손질 한 번 안 해 부스스했고, 구레나룻은 곰처럼 뺨을 덮어 들어왔으며, 손은 막일꾼처럼 햇볕에 그을려 있었는데, 그런데도

몸가짐은 거리낌이 없다 못해 거의 거만했고, 안주인을 시중드는 하인다운 부지런함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신분을 알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그 별난 행동은 못 본 척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섯 분쯤 지나 히스클리프가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이 거북한 처지에서 어느 정도 놓여났다.

"보십시오, 약속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쾌활한 척하며 외쳤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반 시간쯤 발이 묶일 것 같으니, 그동안만이라도 이 댁에서 눈보라를 피하게 해 주실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반 시간?" 그가 옷에 묻은 흰 눈송이를 털어 내며 말했다. "하필 눈보라가 한창인 때를 골라 산책을 나오다니 놀랍구려. 늪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하오? 이 황야를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들도 이런 저녁에는 곧잘 길을 잃는다오. 그리고 장담하는데 지금으로선 날씨가 바뀔 가망이 전혀 없소."

"그럼 댁의 일꾼 가운데 길잡이를 하나 얻을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은 아침까지 그레인지에서 묵어 가면 될 테고요. 한 사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내주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 슬기에 맡기는 수밖에요."

"흥!"

"차 끓일 거야, 말 거야?" 낡은 웃옷 차림의 사내가 사나운 눈길을 내게서 젊은 아가씨에게로 옮기며 따졌다.

"*저 사람*도 줘야 해요?" 부인이 히스클리프에게 물었다.

"준비나 해, 알았어?" 하는 대답이 어찌나 사납게 튀어나왔던지 나는 흠칫 놀랐다. 그 말투에는 꾸밈없는 못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나는 이제 히스클리프를 멋진 친구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다. 준비가 다 되자 그가 "자, 의자를 당겨 앉으시오" 하고 권했고,

그 시골뜨기 젊은이까지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식사하는 내내 엄숙한 침묵만이 흘렀다.

내가 이 먹구름을 몰고 왔다면 그것을 걷어 내려고 애쓰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했다. 설마 저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음산하고 말없이 앉아 있을 리는 없었다.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사람들이라 해도, 모두가 얼굴에 덮어쓰고 있는 저 한결같은 찌푸림이 그들의 평소 얼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신기한 일입니다."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다음 잔을 받는 사이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습관이 우리의 취향과 생각을 그렇게 빚어 낸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클리프 씨? 선생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귀양살이하듯 사는 삶에도 행복이 깃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할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가족에 둘러싸여 지내시는 데다 상냥하신 부인께서 이 댁과 선생의 마음을 두루 다스리는 수호신으로 계시니……"

"상냥하신 부인이라!" 그가 거의 악마 같은 비웃음을 띠며 말을 끊었다. "어디 있소, 그 상냥하신 부인이?"

"히스클리프 부인 말입니다. 선생의 부인이요."

"아,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내 아내의 육신은 떠났어도 그 영혼이 보살펴 주는 천사 노릇을 맡아 워더링 하이츠의 운수를 지켜 준다는 뜻이구려. 그런 말이오?"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바로잡으려 했다. 사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부부일 것 같지 않다는 것쯤은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다. 한 사람은 마흔쯤이었는데, 마흔은 정신이 한창 굳센 나이라서 그 나이의 사내가 처녀들이 사랑 때문에 자기와 결혼한다는 착각을 품는 일은 드물다. 그런 꿈은 늘그막의 위안으로 남겨 두는 법이다. 다른 한 사람은 열일곱 살도 안 되어 보였다.

그때 퍼뜩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 옆에서 대접에 차를 따라 마시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집어 먹는 이 촌뜨기가 저 부인의 남편일지도 모른다. 물론 히스클리프 2세겠지. 산 채로 묻혀 사는 결과가 이것이다. 세상에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저 무지렁이한테 제 몸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참 딱하다. 내가 저 부인이 제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 마지막 생각은 자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내 옆 사람은 거의 혐오스러울 지경으로 보였고, 나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내가 꽤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내 며느리요." 히스클리프가 내 짐작을 굳혀 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부인 쪽으로 묘한 눈길을 던졌는데, 그것은 증오의 눈길이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남들의 근육과는 달리 영혼의 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아주 비뚤어진 근육이 아니라면 말이다.

"아, 물론이지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 너그러운 요정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시는 분이 바로 댁이시군요." 나는 옆 사람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나빴다. 젊은이는 얼굴이 시뻘게지더니 누가 봐도 한 대 칠 작정인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린 듯, 나를 두고 거칠게 욕을 한마디 웅얼거리는 것으로 그 폭풍을 눌러 삼켰고, 나는 그 욕을 못 들은 척하느라 꽤 신경을 써야 했다.

"짐작이 영 빗나갔소." 집주인이 말했다. "우리 둘 다 댁이 말하는 그 착한 요정을 차지하는 복은 누리지 못하오. 그 짝은 죽었소. 내 며느리라고 했잖소. 그러니 내 아들과 결혼했을 수밖에."

"그럼 이 젊은이는……"

"내 아들은 분명히 아니오."

히스클리프가 다시 웃었다. 저 곰 같은 녀석의 아비 노릇을 자기에게 떠맡기다니 농담치고는 지나치게 대담하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내 이름은 헤어턴 언쇼요." 젊은이가 으르렁거렸다. "그 이름을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거요!"

"무례하게 군 적 없소."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그가 제 이름을 밝힐 때 보인 그 대단한 위엄에 속으로 웃음을 참았다.

그가 나를 노려보는 눈길은 내가 마주 쳐다보고 싶은 시간보다 오래 이어졌는데, 더 오래 마주 보다가는 그의 따귀를 갈기고 싶어지거나 웃음소리를 내고 말 것 같았다. 이 즐거운 가족 모임에서 내가 영락없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음울한 정신의 기운이 내 둘레를 감싼 따뜻한 몸의 안락을 짓누르고도 남았고, 나는 저 서까래 밑에 세 번째로 발을 들일 때는 단단히 조심하리라 마음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무도 정다운 말 한마디 하지 않자, 나는 날씨를 살피러 창가로 다가갔다. 서글픈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캄캄한 밤이 때이르게 내려앉고 있었고, 하늘과 언덕은 사나운 바람과 숨 막히는 눈이 한데 엉켜 몰아치는 쓰라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로 뒤섞여 있었다.

"이젠 길잡이 없이는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외쳤다. "길은 벌써 눈에 묻혔을 테고, 설령 드러나 있다 해도 지금 같아서는 한 발짝 앞도 분간하기 어렵겠습니다."

"헤어턴, 저 양 열두 마리를 헛간 처마 밑으로 몰아넣어라. 밤새 우리에 두면 눈에 파묻히겠다. 앞에 널빤지도 하나 대 놓고."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점점 화가 치밀어 말을 이었다.

내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둘러보니 조지프가 개들에게 줄 죽을 한 통 들고 들어오고, 히스클리프 부인이 불 위로 몸을 숙이고서 성냥 한 묶음을 태우며 노닥거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성냥은 부인이

찻잎 깡통을 제자리에 올려놓다가 벽난로 선반에서 떨어뜨린 것이었다. 조지프는 짐을 내려놓더니 방 안을 꼬치꼬치 살피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꽥꽥 내질렀다. "남들은 죄다 밖에 나갔는데 어찌 그리 빈둥빈둥 서 있을 맘이 드는지 모르겠구먼! 허나 넌 쓸모없는 것이니 말해 봐야 소용없지. 그 못된 버릇은 평생 못 고치고 네 에미처럼 곧장 마귀한테 가겠지!"

나는 잠깐 이 웅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고, 몹시 화가 나서 그 늙은 악당을 문밖으로 걷어차 낼 작정으로 성큼 다가갔는데, 히스클리프 부인의 대꾸가 나를 멈춰 세웠다.

"이 고약한 늙은 위선자!" 부인이 대꾸했다. "마귀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산 채로 끌려갈까 봐 겁나지도 않아? 경고하는데 날 약 올리지 마. 안 그러면 특별히 부탁해서 영감을 잡아가게 할 테니까! 잠깐! 이것 좀 봐, 조지프." 부인은 선반에서 길고 시커먼 책 한 권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내 흑마술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줄게. 머지않아 이 집을 말끔히 비워 버릴 수 있을 거야. 붉은 암소가 그냥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영감의 류머티즘도 하늘이 내린 시련이라고 쳐 주기는 어려울걸!"

"오, 사악해라, 사악해!" 노인이 숨을 헐떡였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 이 타락한 늙은이! 영감은 버림받은 자야. 꺼져, 안 그러면 혼쭐을 내 줄 테니까! 너희를 모조리 밀랍과 진흙으로 빚어 놓을 거야! 내가 정한 금을 맨 먼저 넘는 놈은…… 무슨 꼴을 당할지는 말 안 할래. 하지만 두고 봐! 가, 내가 지켜보고 있어!"

꼬마 마녀는 아름다운 두 눈에 꾸민 악의를 담았고, 조지프는 진심으로 겁에 질려 떨면서 기도를 하고 "사악해"를 외치며 허둥지둥 나갔다. 부인의 행동은 일종의 음울한 장난에서 나왔으리라고 나는

생각했고, 이제 둘만 남았으니 내 곤경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 주기를 바라며 말을 걸었다.

"히스클리프 부인." 나는 간곡하게 말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얼굴을 하신 분이라면 마음씨가 착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알아볼 만한 표지를 좀 일러 주십시오. 지금 저는 부인께서 런던 가는 길을 모르시는 만큼이나 저도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왔던 길로 가세요." 부인이 촛불 하나를 켜 놓고 그 긴 책을 앞에 펼친 채 의자에 푹 파묻히며 대답했다. "짧은 충고지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 중에선 제일 쓸 만한 충고예요."

"그럼 제가 늪이나 눈이 가득 찬 구덩이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셔도, 그게 얼마쯤은 부인 탓이라고 양심이 귓가에 속삭이지는 않겠습니까?"

"어째서요? 난 바래다줄 수 없어요. 정원 담장 끝까지도 못 가게 할걸요."

"*부인*이요! 이런 밤에 제 편하자고 부인께 문턱을 넘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가 외쳤다. "저는 길을 *일러* 달라는 겁니다. *보여* 달라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히스클리프 씨께 길잡이를 하나 붙여 주시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시든지요."

"누구를요? 여기엔 그 사람과 언쇼, 질라, 조지프, 그리고 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데려가시겠어요?"

"농장에 사내아이들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묵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집주인하고 정하세요. 난 상관없어요."

"이번 일로 이 언덕에서 다시는 무모하게 나다니지 않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소." 부엌 어귀에서 히스클리프의 엄한 목소리가 외쳤다. "여기서 묵는 거라면, 난 손님을 재울 방을 따로 두지 않소. 굳이 묵겠다면 헤어턴이나 조지프하고 한 침대를 써야 할 거요."

"이 방 의자에서 자도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안 되오, 안 되오! 부자건 가난뱅이건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이오. 내가 지키지 않는 사이에 누가 이 집 안을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소!" 그 무례한 작자가 말했다.

이 모욕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나는 역겹다는 말을 한마디 내뱉고 그를 밀치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서두르다가 그만 언쇼와 부딪쳤다. 어찌나 캄캄한지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동안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점잖게 대하는지 보여 주는 견본을 하나 더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젊은이가 내 편을 들어 줄 것 같았다.

"영지 어귀까지 같이 가 주겠소." 그가 말했다.

"같이 지옥에나 가라!" 그의 주인인지, 그와 무슨 사이인지 모를 사람이 소리쳤다. "그럼 말은 누가 돌보고, 응?"

"말을 하룻저녁 덜 돌보는 것보다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누구든 가야 해요." 히스클리프 부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네가 시켜서는 안 가!" 헤어턴이 쏘아붙였다. "저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걸."

"그럼 저분 유령이 너한테 들러붙기나 해라.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는 그레인지가 폭삭 무너져 폐허가 될 때까지 다시는 세입자를 못 얻었으면 좋겠어." 부인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들어 봐, 들어 봐, 저 계집애가 저주를 퍼붓는구먼!" 내가 그쪽으로 가던 조지프가 웅얼거렸다.

조지프가 말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 등불을 켜 놓고 소젖을 짜고 있었으므로, 나는 체면 차릴 것 없이 그 등불을 낚아채고는 내일 돌려보내겠다고 외치며 가장 가까운 쪽문을 향해 냅다 달렸다.

"쥔 양반, 쥔 양반, 저 사람이 등불을 훔쳐 가오!" 노인이 내 뒤를 쫓아오며 소리쳤다. "이놈, 내셔! 이놈아! 울프, 붙잡아라, 붙잡아!"

작은 문을 열자마자 털북숭이 괴물 두 마리가 내 목을 노리고 날아들어 나를 쓰러뜨리고 등불을 꺼 버렸고, 히스클리프와 헤어턴이 한데 어울려 터뜨린 웃음소리가 내 분노와 굴욕에 마지막 갓돌을 얹었다. 다행히 짐승들은 나를 산 채로 뜯어 먹기보다는 앞발을 쭉 뻗고 하품을 하고 꼬리를 흔드는 데 더 정신이 팔린 듯했지만, 내가 일어나는 것만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서, 나는 그 심술궂은 주인들이 구해 주고 싶어질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모자도 없이 분노로 떨며, 그 못된 것들에게 나를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나를 단 1분이라도 더 붙잡아 두었다가는 각오하라고 했고, 복수하겠다는 앞뒤 없는 협박도 몇 마디 늘어놓았는데, 그 독기가 끝 모르게 깊어서 리어왕의 냄새가 났다.

너무 흥분한 탓에 코피가 줄줄 쏟아졌다. 그래도 히스클리프는 웃었고, 그래도 나는 호통을 쳤다. 나보다 좀 더 이성적이고 집주인보다는 더 인정 많은 사람이 하나 곁에 없었더라면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바로 건장한 가정부 질라였다. 질라는 마침내 무슨 소동인지 알아보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누군가가 내게 손찌검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주인에게 덤빌 수는 없었으므로 입으로 퍼붓는 대포를 젊은 악당 쪽으로 돌렸다.

"아이고, 언쇼 도련님." 질라가 소리쳤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벌이려우? 이젠 우리 집 문간 돌계단에서 사람까지 죽일 참이우? 이 집은 영 나하고는 맞지 않겠구려. 저 가엾은 젊은이 좀 봐요, 숨이

넘어가겠네! 쉿, 쉿, 그러면 못써요. 들어와요, 내가 고쳐 줄게요. 자, 가만히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질라는 느닷없이 얼음장 같은 물 한 됫박을 내 목덜미에 끼얹고는 나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다. 히스클리프 씨가 뒤따라 들어왔는데, 어쩌다 터져 나온 그의 웃음은 금세 늘 그렇던 침울함 속으로 사그라들고 말았다.

나는 몹시 메스껍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의 지붕 밑에서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질라에게 내게 브랜디 한 잔을 주라고 이르고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질라는 내 딱한 꼴을 안쓰러워하며 그가 시킨 대로 브랜디를 주었고, 그 덕에 내가 조금 기운을 차리자 나를 잠자리로 안내했다.

제3장

질라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가며 촛불을 가리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일렀는데, 주인이 나를 재우려는 그 방을 두고 별난 생각을 품고 있어서 누구든 그 방에서 묵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까닭을 묻자 질라는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이 집에 산 지 겨우 한두 해밖에 안 되었고 워낙 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집이라 하나하나 궁금해하기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역시 너무 멍해서 궁금해할 기운도 없었으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가 어디 있나 둘러보았다. 세간이라고는 의자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위쪽에 마차 창처럼 네모난 구멍을 뚫어 놓은 커다란 참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 물건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식구마다 방을 하나씩 따로 가질 필요가 없게끔 아주 요령 있게 짜 놓은 별난 옛날식 침상이었다. 사실 그것은 작은 벽장 꼴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감싸인 창턱이 탁자 노릇을 했다.

나는 판자를 댄 옆문을 밀어 열고 촛불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다시 닫았고, 그러자 히스클리프의 감시로부터도, 다른 누구의 눈길로부터도 안전해진 느낌이 들었다.

촛불을 놓은 창턱 한구석에는 곰팡이 슨 책이 몇 권 쌓여 있었고, 창턱의 칠 위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긁혀 있었다. 그런데 그 글씨는 크고 작은 온갖 글꼴로 되풀이해 쓴 이름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캐서린 언쇼*,

군데군데 *캐서린 히스클리프*로 바뀌었다가 다시 *캐서린 린턴*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멍하니 맥이 빠진 채 창에 머리를 기대고 캐서린 언쇼, 히스클리프, 린턴을 한 자 한 자 되풀이해 읽다가 눈이 감겼다. 그런데 눈을 붙인 지 5분도 안 되어 어둠 속에서 흰 글자들이 유령처럼 생생하게 번쩍 튀어나왔고, 허공에 캐서린들이 우글거렸다. 나는 끈덕지게 달라붙는 그 이름을 떨쳐 내려고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 촛불 심지가 옛 책 한 권 위에 쓰러져 송아지 가죽 타는 냄새를 온 방에 풍기고 있었다.

나는 심지를 잘라 끄고, 추위와 가시지 않는 메스꺼움 때문에 몹시 불편한 몸을 일으켜 앉아 그을린 책을 무릎에 펼쳤다. 가는 활자로 찍은 신약 성경이었고 지독한 곰팡내가 났는데, 면지에는 '캐서린 언쇼의 책'이라는 글귀와, 스물다섯 해쯤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책을 덮고 다른 책을, 또 다른 책을 집어 들어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살펴보았다.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의 장서는 골라 모은 것이었고, 낡아 해진 꼴로 보아 꽤나 손을 탄 것이 분명했다. 다만 늘 본디 쓰임새대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 펜과 잉크로 단 주석, 적어도 주석처럼 보이는 글이 인쇄공이 남겨 둔 빈자리를 한 조각도 남김없이 덮고 있어서, 그것을 피한 장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 따로 떨어진 문장도 있었지만, 다른 곳은 아직 덜 여문 어린아이의 글씨로 휘갈겨 쓴 어엿한 일기 꼴을 하고 있었다. 덧붙은 빈 쪽 맨 위에는(처음 그 빈 쪽을 찾아냈을 때는 아마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으리라) 내 친구 조지프를 그린 훌륭한 풍자화가 하나 있었는데, 거칠지만 힘차게 그린 그림이어서 나는 크게 즐거웠다. 이름 모를 캐서린에게 당장 흥미가 일어서, 나는 곧바로 그 빛바랜 상형 문자를 풀어 읽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일요일." 그림 아래 단락은 이렇게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힌들리는 아버지 대신으로는 정말 밉살스럽다.

히스클리프한테 하는 짓이 끔찍하다. H와 나는 반란을 일으킬 작정이고, 오늘 저녁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온종일 비가 퍼부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지프가 기어이 다락방에 신도를 모아 예배를 보겠다고 나섰다. 힌들리와 그 아내가 아래층 아늑한 난롯가에서 볕 쬐듯 늘어져 있는 동안(성경 읽는 것 말고는 무슨 짓이든 하고 있었을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히스클리프와 나와 그 불쌍한 쟁기질 소년은 기도서를 들고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곡식 자루 위에 나란히 앉아 끙끙대고 덜덜 떨면서, 조지프도 떨기를 바랐다. 그러면 자기 몸을 위해서라도 설교를 짧게 해 줄 테니까. 헛된 생각이었다! 예배는 꼭 세 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오빠는 뻔뻔하게도 '뭐야, 벌써 끝났어?' 하고 소리쳤다. 일요일 저녁이면 시끄럽게만 굴지 않으면 놀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키득거리기만 해도 구석으로 쫓겨난다.

"'너희가 여기 주인이 있다는 걸 잊었나 보지.' 폭군이 말한다. '누구든 내 비위를 건드리는 놈은 맨 먼저 박살을 내 주겠어! 다들 얌전히 입 다물고 있어. 야, 이 녀석! 방금 너였지? 프랜시스, 여보, 지나가는 길에 저놈 머리끄덩이 좀 잡아당겨.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났어.' 프랜시스는 히스클리프의 머리를 힘껏 잡아당기더니 남편 무릎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둘이서 아기 둘처럼 몇 시간이고 입을 맞추고 시시한 소리를 지껄였는데, 우리라면 부끄러워서 못 할 바보 같은 수다였다. 우리는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찬장 밑 아치 안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앞치마 두 장을 이어 붙여 커튼 삼아 막 걸어 놓았을 때, 마구간에 볼일을 보러 갔던 조지프가 들어온다. 조지프는 내 솜씨를 찢어 내리고 내 따귀를 때리더니 까마귀처럼 꺽꺽거린다.

"'쥔 어른을 묻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안식일도 아직 안 끝났고 복음 소리가 아직 귀에 쟁쟁할 텐데 감히 장난질이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앉아, 이 못된 것들! 읽기만 하면 좋은 책은 싸고 쌨으니 앉아서 네 영혼이나 생각해라!'

"그러면서 조지프는 우리를 억지로 똑바로 고쳐 앉혀서, 멀리 있는 불에서 흐릿한 빛줄기라도 받아 그가 떠안긴 잡동사니 책의 글자를 볼 수 있게 했다. 나는 그 일을 견딜 수가 없었다. 꾀죄죄한 책의 등을 잡아 개집에 내던지며 좋은 책 따위는 질색이라고 맹세했다. 히스클리프도 제 책을 같은 곳으로 걷어찼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쥔 나리!' 우리 전속 목사님이 고함을 질렀다. '쥔 나리, 이리 와 보시우! 캐서린 아가씨가 「 구원의 투구 」 등짝을 뜯어 놨고, 히스클리프 놈은 「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 첫째 권을 발로 짓밟았구려! 이렇게 제멋대로 놀게 두다니 참말 끔찍한 일이우. 에잇! 돌아가신 영감님이었으면 아주 단단히 매질을 했을 텐데, 허나 그분은 가셨으니!'

"힌들리가 난롯가의 낙원에서 허둥지둥 달려와, 우리 하나는 멱살을, 하나는 팔을 잡고 둘 다 뒷부엌으로 내던졌다. 조지프는 우리가 살아 있는 것만큼이나 틀림없이 '늙은 마귀'가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단언했고, 그런 위로를 받고서 우리는 마귀가 오기를 기다리며 각자 따로 구석을 하나씩 찾아 들어갔다. 나는 선반에서 이 책과 잉크병을 꺼내고, 빛이 들게 큰방 문을 살짝 열어 놓고 20분 동안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내 짝꿍이 안달이 나서, 젖 짜는 아주머니의 외투를 빌려 그걸 뒤집어쓰고 황야로 뛰쳐나가 한바탕 달리자고 한다. 좋은 생각이다. 게다가 그 심술궂은 노인이 들어오면 자기 예언이 맞았다고 믿을 테고. 빗속에 있어 봤자 여기보다 더 축축하거나 더 춥지는 않을 거다."

◆

캐서린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모양이다. 다음 문장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눈물 바람이 되어 있었다.

"힌들리가 나를 이렇게 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캐서린은 이렇게 썼다. "머리가 아파서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인데, 그래도 울음을 그칠 수가 없다. 불쌍한 히스클리프!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떠돌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앉지도, 같이 먹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히스클리프와 나는 같이 놀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자기 명령을 어기면 히스클리프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을러댄다. 힌들리는 아버지가 H를 너무 너그럽게 대했다고 아버지 탓을 하고 있고(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히스클리프를 제 분수에 맞는 자리로 끌어내리겠다고 맹세한다……"

◆

나는 흐릿한 쪽 위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내 눈은 어느새 손글씨에서 인쇄된 글자로 옮겨 갔다. 붉은 꽃무늬로 꾸민 제목이 보였다. 「일흔 번씩 일곱 번[1], 그리고 일흔한 번째의 첫째. 기머든 개울 예배당에서 제이베즈 브랜더럼 목사가 행한 경건한 설교」. 제이베즈 브랜더럼이 이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반쯤 넋이 나간 채 머리를 짜내 짐작하는 사이에, 나는 침대 위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아, 고약한 차와 고약한 성미가 이런 결과를 낳다니! 그것 말고 무엇이 나를 그토록 끔찍한 밤을 보내게 했겠는가? 고통을 느낄 줄 알게 된 뒤로 그날 밤과 조금이라도 견줄 만한 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어디 있는지 미처 잊기도 전에 꿈이 시작되었다. 아침이 된 것 같았고, 나는 조지프를 길잡이 삼아 집으로 가는 길에 올라 있었다. 길에는 눈이 몇 야드나 쌓여 있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나아가는

동안, 길동무는 내가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쉴 새 없이 나무라서 나를 지치게 했다. 그게 없으면 결코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면서, 머리가 묵직한 몽둥이 하나를 자랑스럽게 휘둘러 보였는데, 나는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지팡이라는 물건이라고 알아들었다. 잠깐은 내 집에 들어가는 데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니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새로운 생각이 번뜩 스쳤다. 나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제이베즈 브랜더럼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는 구절로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고, 조지프든 그 목사든 나든 누군가가 '일흔한 번째의 첫째' 죄를 지어서 공개적으로 폭로되고 파문당할 참이었다.

우리는 예배당에 이르렀다. 산책길에 실제로 두세 번 그 앞을 지나간 적이 있다. 예배당은 두 언덕 사이의 우묵한 땅, 그것도 높은 데 있는 우묵한 땅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가까이 늪이 있어서 그 늪의 토탄 습기가 그곳에 묻힌 몇 안 되는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 그만이라는 말이 있다. 지붕은 아직까지 성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목사의 봉급이라고는 한 해에 20파운드와 방 두 칸짜리 집 한 채뿐이고, 그 집마저 머지않아 방 한 칸짜리가 될 판이라, 어느 성직자도 목자 노릇을 맡으려 들지 않는다. 더구나 그곳 신도들은 제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내서 목사의 살림을 늘려 주느니 차라리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제이베즈의 회중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차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는 설교를 했다. 맙소사! 그게 무슨 설교였던가. *사백아흔* 대목으로 나뉘었는데, 대목마다 보통 설교단에서 하는 설교 한 편과 맞먹었고, 대목마다 저마다 다른 죄를 하나씩 다루었다! 그 많은 죄를 어디서 찾아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그 구절을 저 나름대로 풀이했는데, 그 풀이대로라면 형제는 그때마다

다른 죄를 지어야 하는 모양이었다. 그 죄들은 몹시도 기괴해서, 전에는 상상도 해 본 적 없는 별난 허물들이었다.

아, 얼마나 지루했던가. 나는 얼마나 몸을 비틀고 하품을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던가! 얼마나 나를 꼬집고 찌르고 눈을 비비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고, 조지프를 쿡쿡 찔러 저 설교가 *언제* 끝나기는 하는 거냐고 물었던가! 나는 *끝*까지 다 들어야 하는 벌을 받았다. 마침내 그가 '*일흔한 번째의 첫째*'에 이르렀을 때, 그 고비에서 갑자기 나에게 영감이 내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어느 그리스도인도 용서할 필요가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 바로 제이베즈 브랜더럼이라고 고발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목사님." 내가 외쳤다. "저는 이 네 벽 안에 앉아 단숨에 목사님 설교의 사백아흔 대목을 견디고 용서했습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 저는 모자를 집어 들고 떠나려 했고, 일흔 번씩 일곱 번 목사님은 터무니없게도 저를 도로 앉혔습니다. 사백아흔한 번째는 너무합니다. 순교자 동지 여러분, 저자를 치시오! 끌어내려 산산조각을 내시오. 그를 알던 자리가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하도록!"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제이베즈가 엄숙하게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설교대의 방석 위로 몸을 숙이며 외쳤다. "일흔 번씩 일곱 번 너는 입을 벌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일흔 번씩 일곱 번 나는 내 영혼과 의논하였다. 보라,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이니 이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흔한 번째의 첫째가 왔다. 형제들이여, 기록된 심판을 그에게 집행하라.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이런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 말과 함께 회중 전체가 순례자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한 덩어리가 되어 나를 에워싸고 달려들었고, 몸을 지킬 무기가 없던 나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납게 덤비는 조지프와 그의 지팡이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다. 사람들이 한데 몰리는 통에 몽둥이 여러 개가

엇갈렸고 나를 겨눈 매가 엉뚱한 머리통에 떨어졌는데, 이윽고 온 예배당이 두드리고 맞받아 두드리는 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저마다 이웃에게 손을 들었고, 브랜더럼도 가만있기 싫었던지 설교단 널빤지를 요란하게 두드려 대며 열성을 쏟아부었다. 널빤지가 어찌나 따닥따닥 날카롭게 울리던지, 마침내 그 소리에 나는 잠이 깼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안도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소란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 난리 속에서 제이베즈 노릇을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고작 전나무 가지 하나였다. 돌풍이 울부짖으며 지나갈 때마다 그 가지가 내 격자창을 건드리며 마른 솔방울을 유리창에 달그락달그락 부딪쳤던 것이다! 나는 잠깐 미심쩍어하며 귀를 기울였고, 소란을 피운 범인을 알아내고는 돌아누워 다시 졸다가, 할 수만 있다면 앞의 꿈보다 더 불쾌한 꿈을 또 꾸었다.

이번에는 내가 참나무 상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세찬 바람 소리와 휘몰아치는 눈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전나무 가지가 성가신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도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제대로 그 가지 탓으로 돌렸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도 거슬려서 할 수만 있다면 멈추게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래서 일어나 여닫이창의 걸쇠를 풀려고 애썼던 것 같다. 걸쇠는 고리에 납땜이 되어 있었는데, 깨어 있을 때보아 두고도 그만 잊어버린 일이었다. "그래도 저 소리는 멈추게 해야겠다!" 나는 웅얼거리며 주먹으로 유리를 깨고, 그 성가신 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내뻗었다. 그런데 가지 대신 내 손가락에 잡힌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작은 손의 손가락이었다!

악몽의 지독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팔을 도로 빼려 했지만 그 손은 내 팔에 매달려 놓지 않았고, 더없이 구슬픈 목소리가 흐느꼈다.

"들여보내 줘, 들여보내 줘!"

"누구냐?" 나는 물으면서도 손을 빼내려고 버둥거렸다.

"캐서린 린턴." 그 목소리가 덜덜 떨며 대답했다(내가 왜 *린턴*을 떠올렸을까? *언쇼*는 린턴보다 스무 번이나 더 읽었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황야에서 길을 잃었었어요!"

그 목소리가 말하는 동안 창 너머로 들여다보는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공포가 나를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떨쳐 내려 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 손목을 깨진 유리창 위로 끌어당겨 피가 흘러내려 이불을 흠뻑 적실 때까지 이리저리 문질렀다. 그래도 그것은 "들여보내 줘!" 하고 울부짖으며 끈질기게 붙든 손을 놓지 않았고, 나는 무서워서 미칠 것만 같았다.

"어떻게 들여보내!" 마침내 내가 말했다. "들여보내 주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놔!"

손가락이 풀렸다. 나는 내 손을 구멍에서 홱 빼내고, 서둘러 책을 피라미드처럼 쌓아 구멍을 막고는 그 구슬픈 애원이 들리지 않게 귀를 틀어막았다.

귀를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 15분은 넘은 것 같았다. 그런데 다시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구슬픈 울음소리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꺼져!" 내가 소리쳤다. "스무 해를 빌어도 절대로 들여보내 주지 않겠다."

"스무 해예요." 목소리가 슬피 울었다. "스무 해. 스무 해 동안 떠돌았어요!"

그러자 바깥에서 무언가 힘없이 긁어 대기 시작했고, 쌓아 둔 책 더미가 누가 앞으로 미는 것처럼 움찔 움직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팔다리 하나 꼼짝할 수가 없어서 겁에 질려 미친 듯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당황스럽게도 그 비명은 꿈속의 비명이 아니었다. 다급한 발소리가 내 방 문으로 다가오더니 누군가가 힘센 손으로 문을 밀어젖혔고, 침대

위쪽의 네모난 구멍들 사이로 불빛이 어른거렸다. 나는 여전히 덜덜 떨면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앉아 있었다. 들어온 사람은 망설이는 듯하더니 혼자 뭐라고 웅얼거렸다.

마침내 그가 대답을 바라지 않는 게 분명한 목소리로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누가 여기 있나?"

내가 여기 있다고 털어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히스클리프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들었고, 내가 가만있으면 그가 더 샅샅이 뒤질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돌아앉아 판자 문을 열었다. 내 그 행동이 일으킨 결과를 나는 쉬 잊지 못할 것이다.

히스클리프는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문간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촛농이 손가락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은 등 뒤의 벽만큼이나 하얗게 질려 있었다. 참나무 문이 처음 삐걱하는 소리에 그는 전기에 감전된 듯 소스라쳤다. 초가 그의 손에서 튀어 몇 피트 밖으로 날아갔고, 그는 어찌나 정신없이 허둥대는지 그것을 제대로 주워 들지도 못했다.

"선생 댁 손님일 뿐입니다." 나는 그가 겁먹은 꼴을 더 드러내는 창피를 면하게 해 주고 싶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무서운 악몽을 꾸다가 그만 잠결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무시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 빌어먹을, 록우드 씨! 차라리 당신이 지옥에나……" 집주인이 말을 꺼내다 말고 초를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초를 똑바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이 방으로 데려왔소?" 그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움켜쥐고, 턱이 떨리는 것을 누르려고 이를 갈면서 말을 이었다. "누구였소? 당장 그놈을 집에서 내쫓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오!"

"선생 댁 하녀 질라였습니다." 나는 바닥으로 뛰어내려 서둘러 옷을 다시 걸치며 대답했다. "히스클리프 씨, 내쫓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싸니까요. 아마 이 방에 귀신이 나온다는 증거를 하나 더 얻고 싶었나 본데, 하필 저를 제물 삼았지요. 그래요, 귀신이 나옵니다. 유령이며 도깨비가 우글거립니다! 장담하건대 선생께서 이 방을 닫아 두시는 데는 다 까닭이 있었군요. 이런 소굴에서 눈을 붙이게 해 줬다고 고마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요?" 히스클리프가 물었다. "그리고 지금 뭘 하는 거요? *기왕* 여기 있으니 누워서 남은 밤이나 마저 보내시오. 하지만 제발 그 끔찍한 소리는 다시 내지 마시오. 누가 목을 따는 게 아니라면 그런 소리는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 되오!"

"그 꼬마 악마가 창으로 들어왔더라면 아마 저를 목 졸라 죽였을 겁니다!" 내가 맞받았다. "선생의 손님 대접 좋은 조상님들한테 또 시달리는 일은 참지 않겠습니다. 제이베즈 브랜더럼 목사가 외가 쪽 친척이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그 말괄량이, 캐서린 린턴인지 언쇼인지 뭐라고 불렸든 간에, 그 아이는 분명히 요정이 바꿔치기한 아이였을 겁니다. 못된 작은 영혼 같으니! 지난 스무 해 동안 이 땅을 헤매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살아서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이겠지요, 틀림없이!"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책 속에서 히스클리프의 이름과 캐서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던 것을 떠올렸다. 이렇게 다시 깨어날 때까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경솔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 실례를 더 의식하는 티를 내지 않고 서둘러 덧붙였다.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초저녁을……" 여기서 나는 또 말을 멈추었다. '그 옛 책들을 읽으며'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책에 인쇄된 내용뿐 아니라 손으로 쓴 내용까지 안다는

것이 드러날 터였다. 그래서 말을 바로잡아 이렇게 이어 갔다. "저 창턱에 긁어 새긴 이름을 한 자 한 자 읽으며 보냈습니다. 숫자를 세거나 하는 것처럼 지루해서 잠이 오게 만드는 일이지요, 아니면……"

"도대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무슨* 뜻이오!" 히스클리프가 사납게 벼락같이 고함쳤다. "어떻게, 어떻게 감히 내 집 지붕 밑에서! 하느님! 저자가 미쳤구나, 저런 소리를 하다니!" 그러고는 분에 못 이겨 제 이마를 쳤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화를 내야 할지 설명을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몹시 격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서 가엾은 마음에 꿈 이야기를 이어 갔다. '캐서린 린턴'이라는 이름은 그전에 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 이름을 자꾸 되풀이해 읽었더니 그 인상이 남아 있다가 내가 더는 상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사람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차츰 침대 그늘 쪽으로 물러나더니, 마침내 거의 침대 뒤에 몸을 숨기다시피 하고 주저앉았다. 그러나 고르지 못하게 끊어지는 숨소리로 보아 그가 북받치는 격한 감정을 이겨 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몸부림을 내가 들었다는 것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몸단장을 계속하고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밤이 길다고 혼잣말을 했다. "아직 세 시도 안 됐군! 여섯 시는 됐을 거라고 맹세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고여 있는 것 같아. 분명 여덟 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겨울에는 늘 아홉 시에 자고 네 시에 일어나오." 집주인이 신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팔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내 생각에는 눈에서 눈물을 훔쳐 내는 것 같았다. "록우드 씨." 그가 덧붙였다. "내 방으로 가도 좋소. 이렇게 일찍 아래층에 내려가 봐야

걸리적거리기만 할 거요. 그리고 당신이 어린애처럼 질러 댄 고함 덕에 내 잠은 마귀한테 날아가 버렸소."

"제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마당을 거닐다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또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골이건 도시건 사람들 사이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던 병은 이제 깨끗이 나았으니까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만으로도 넉넉한 벗을 삼을 수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참 즐거운 벗이로군!" 히스클리프가 웅얼거렸다. "초를 들고 가고 싶은 데로 가시오. 나도 곧 따라가겠소. 그런데 마당에는 나가지 마시오. 개들이 풀려 있소. 그리고 큰방은…… 주노가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고…… 아니, 계단이나 복도에서나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겠구려. 아무튼 어서 나가시오! 2분 뒤에 가겠소!"

나는 시키는 대로 방을 나가기는 했다. 그러나 좁은 복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고, 그 바람에 겉보기에는 분별 있는 집주인이 묘하게도 그 분별과 어울리지 않는 미신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지켜보게 되었다. 그는 침대 위로 올라가 격자창을 비틀어 열더니, 창을 잡아당기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터뜨렸다. "들어와! 들어와!" 그가 흐느꼈다. "캐서린, 제발 와. 아, 제발, 한 번만 *더*! 아! 내 사랑, 내 마음의 사랑!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 줘, 캐서린, 이번만은!" 유령은 유령다운 변덕을 부렸다. 거기 있다는 기척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과 바람이 창으로 세차게 휘몰아쳐 들어와 내가 선 자리까지 닿더니 촛불을 꺼 버렸다.

그 헛소리와 함께 쏟아진 슬픔에는 어찌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던지, 나는 가엾은 마음에 그 어리석음을 못 본 척 넘어가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엿들은 것이 반쯤 화가 나고, 그토록 괴로워할 줄 알았더라면 우스꽝스러운 악몽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언짢아하며 그

자리를 물러났다.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나는 조심조심 아래층으로 내려가 뒷부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불씨를 한데 그러모아 둔 화덕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서 촛불을 다시 붙일 수 있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얼룩덜룩한 회색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는데, 고양이는 잿더미 속에서 기어 나와 투정하듯 야옹 하고 인사했다.

반원 꼴로 휜 긴 의자 두 개가 화덕을 거의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그 하나에 몸을 뻗고 누웠고, 회색 고양이는 다른 하나에 올라갔다. 우리 둘 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의 은신처에 들이닥쳤다. 조지프였다. 그는 천장의 뚜껑 문 속으로 사라지는 나무 사다리를 발을 질질 끌며 내려왔다. 아마 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인 듯했다. 그는 내가 화덕 쇠살 사이에서 살살 꾀어 피워 놓은 작은 불꽃을 음흉하게 노려보더니, 고양이를 높은 자리에서 쓸어내리고 그 빈자리에 제 몸을 앉혔다. 그리고 3인치짜리 파이프에 담배를 쑤셔 넣는 작업을 시작했다. 자기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뻔뻔한 짓으로 여기는 게 분명했다. 그는 말없이 파이프를 입에 물고 팔짱을 낀 채 뻐끔뻐끔 연기를 뿜었다. 나는 그가 그 사치를 방해받지 않고 누리게 내버려 두었고, 그는 마지막 연기 고리를 빨아들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들어올 때처럼 엄숙하게 일어나 나가 버렸다.

다음에는 좀 더 탄력 있는 발소리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안녕하시오'라고 인사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끝내 인사를 못 하고 도로 다물었다. 헤어턴 언쇼가 눈 더미를 파헤칠 삽이나 가래를 찾아 한구석을 뒤지면서, 손에 닿는 물건마다 욕을 한마디씩 퍼붓는 것으로 나지막이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긴 의자 등받이 너머로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흘끗 쳐다보았는데, 나와 인사를 나눌

생각은 내 동무인 고양이와 인사를 나눌 생각만큼도 없어 보였다. 그가 채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밖에 나가도 되겠다고 짐작한 나는 딱딱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려는 몸짓을 했다. 그는 그것을 알아채고 삽 끝으로 안쪽 문을 쿡 밀어젖히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서 내가 자리를 옮기려면 저기로 가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그 문은 큰방으로 통했는데, 여자들은 벌써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다. 질라는 커다란 풀무로 불꽃을 굴뚝 위로 날려 보내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불빛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부인은 불의 열기와 제 눈 사이에 손을 대고 책 읽기에 푹 빠져 있는 듯했는데, 하녀가 불똥을 자기한테 튀긴다고 나무라거나 이따금 너무 버릇없이 얼굴에 코를 들이미는 개를 밀어낼 때만 책에서 눈을 뗐다. 그곳에 히스클리프도 있어서 나는 놀랐다. 그는 나를 등지고 불 옆에 서서 가엾은 질라와 한바탕 폭풍 같은 장면을 막 끝내는 참이었는데, 질라는 하던 일을 자꾸 멈추고 앞치마 귀퉁이를 걷어 올리며 분하다는 듯 끙끙 신음했다.

"그리고 너, 이 쓸모없는……" 내가 들어서자 그가 며느리에게로 돌아서며 내뱉었다. 오리나 양처럼 해롭지 않은 말이지만 흔히 줄표로 가려 적는 그런 욕이었다. "너는 또 거기서 빈둥빈둥 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제 밥벌이를 하는데 너는 내 자선으로 먹고살잖아! 그 쓰레기는 치우고 할 일이나 찾아. 네가 영원히 내 눈앞에 붙어 있는 이 골칫거리 값을 치르게 해 주마. 알아들어, 이 저주받을 계집?"

"쓰레기는 치울게요. 내가 싫다고 해도 당신은 억지로 치우게 할 수 있으니까." 젊은 부인이 책을 덮어 의자 위로 내던지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혀가 빠지도록 욕을 퍼부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손을 쳐들자 부인은 그 손이 얼마나 매운지 잘 아는 듯 안전한 거리로 훌쩍 물러났다. 개와 고양이의 싸움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므로, 나는 화롯불의 온기를 함께 쬐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리고 중간에 끊긴 말다툼 따위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활기차게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 다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출 만큼의 예의는 있었다. 히스클리프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두 주먹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을 비죽이며 멀찍이 떨어진 자리로 걸어가 앉더니, 내가 머무는 동안 내내 석상 노릇을 하며 아까 한 말을 지켰다. 그 시간도 길지는 않았다. 나는 함께 아침을 들자는 말을 사양하고, 첫 새벽빛이 비치자마자 틈을 타서 바깥의 자유로운 공기 속으로 빠져나갔다. 공기는 이제 맑고 고요했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원 끝에 이르기도 전에 집주인이 멈추라고 소리쳐 부르더니 황야를 건너는 길을 함께 가 주겠다고 나섰다. 그가 그렇게 해 준 것이 다행이었다. 언덕배기 전체가 물결치는 하나의 흰 바다였고, 그 오르내리는 물결은 땅의 높낮이와 들어맞지 않았다. 적어도 움푹한 구덩이 여럿이 평평하게 메워져 있었고, 채석장에서 나온 돌무더기 둔덕이 줄줄이 늘어선 것도, 어제 걸으며 내 머릿속에 그려 둔 지도에서 송두리째 지워져 있었다. 길 한쪽에는 예닐곱 야드 간격으로 똑바로 선 돌이 한 줄로 이 황무지 끝까지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아 두었다. 그 돌들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눈이 내려 양쪽의 깊은 늪과 단단한 길을 분간할 수 없게 될 때 길잡이가 되라고 일부러 세우고 석회를 칠해 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저기 지저분한 점 하나가 위로 비죽 솟은 것 말고는 그 돌들이 있었던 흔적이 모두 사라져 버려서, 나는 길이 굽은 대로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길동무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고 자주 일러 주어야 했다.

우리는 말을 거의 주고받지 않았고, 그는 스러시크로스 영지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여기서부터는 길을 잃을 리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작별 인사는 급히 고개를 한 번 숙이는 것으로 끝났고, 나는 내 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문지기 집에는 아직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대문에서 그레인지까지는 2마일인데,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목까지 눈에 파묻히고 하는 사이에 나는 그 거리를 4마일로 늘려 놓은 것 같다. 그런 곤경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안다. 어쨌든 얼마나 헤맸든 간에 내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시계가 열두 시를 쳤는데, 그러니 워더링 하이츠에서 오는 보통 길로 치면 1마일에 꼭 한 시간씩 걸린 셈이었다.

집에 딸린 붙박이 세간인 가정부와 그 졸개들이 나를 맞으러 달려 나와, 내가 살아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완전히 버렸다고 저마다 떠들썩하게 외쳤다. 다들 내가 어젯밤에 죽었으리라 짐작하고, 내 유해를 어떻게 찾아 나서야 할지 궁리하던 참이었다. 나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았으니 이제 조용히 하라고 이르고는, 뼛속까지 얼어붙은 몸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몸의 온기를 되찾으려고 30~40분 동안 이리저리 서성인 뒤 서재로 옮겨 갔는데, 새끼 고양이처럼 기운이 없어서 하인이 나를 위해 마련해 둔 따뜻한 불과 김이 오르는 커피를 즐길 기운조차 거의 없었다.

---

1. 마태복음 18장 21~22절.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답한 데서 나온 말이다. 브랜더럼의 설교는 이 사백아흔 번을 넘긴 다음 죄, 곧 용서받지 못할 '일흔한 번째의 첫째' 죄를 다룬다.

제4장

우리는 얼마나 덧없는 바람개비인가! 세상 사람들과의 온갖 교제에서 벗어나 홀로 서리라 마음먹고, 그런 교제가 거의 불가능한 곳을 마침내 찾아냈다고 내 운수에 감사하던 나, 이 나약하고 한심한 인간은 해 질 녘까지 울적함과 외로움에 맞서 버티다가 끝내 깃발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살림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는 핑계를 대고, 딘 부인이 저녁을 들고 들어왔을 때 내가 먹는 동안 앉아 있으라고 청했다. 부인이 이름난 수다쟁이여서, 그 이야기로 나를 생기 돌게 하든지 아니면 스르르 잠들게 하든지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 꽤 오래 살았지요?" 내가 말을 꺼냈다. "열여섯 해라고 하지 않았소?"

"열여덟 해예요, 나리. 마님께서 혼인하실 때 시중들러 따라왔고, 마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주인 나리께서 저를 가정부로 남겨 두셨어요."

"그렇군요."

잠시 말이 끊겼다. 아무래도 부인은 수다쟁이가 아닌 듯해서 걱정스러웠다. 제 신상 이야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내게 별 흥미가 없을 터였다. 그런데 부인은 두 무릎에 주먹을 하나씩 얹고 불그레한 얼굴에 생각의 구름을 드리운 채 한참 궁리하더니, 불쑥 이렇게 외쳤다. "아, 그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어요!"

"그렇겠지요." 내가 말했다. "변하는 것을 꽤 많이 보았겠지요?"

"그럼요. 궂은일도 많이 봤고요." 부인이 말했다.

"아, 이야기를 집주인 집안 쪽으로 돌려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머리로 삼기에 좋은 주제다! 그리고 그 예쁘장한 소녀 과부, 그 여자의 내력을 알고 싶다. 이 고장 태생인지, 아니면 그보다 그럴듯하게, 저 무뚝뚝한 토박이들이 일가로 쳐 주지 않는 외래종인지." 그런 생각으로 나는 딘 부인에게 히스클리프가 왜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세놓고 그보다 훨씬 못한 자리와 집에서 사는 쪽을 택했는지 물었다. "영지를 잘 꾸려 갈 만큼 넉넉하지 못한 겁니까?" 내가 물었다.

"넉넉하냐고요, 나리!" 부인이 되받았다. "그 사람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해마다 불어나고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도 남을 만큼 부자예요. 하지만 지독한 구두쇠예요. 손이 아주 꽉 막혔지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옮겨 올 생각이 있었다 해도, 좋은 세입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몇백 파운드를 더 벌 기회를 놓치는 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혼자뿐인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니, 이상한 노릇이지요!"

"아들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지요?"

"네, 하나 있었지요. 죽었어요."

"그럼 그 젊은 부인, 히스클리프 부인이 아들의 미망인이오?"

"네."

"그 부인은 본래 어디서 온 사람이오?"

"어머나, 나리, 우리 돌아가신 주인 나리의 따님이에요. 처녀 적 이름은 캐서린 린턴이었어요. 제가 그 아가씨를 길렀답니다, 가엾은 것! 히스클리프 씨가 이리로 옮겨 오기를 정말 바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뭐라고요! 캐서린 린턴?" 나는 깜짝 놀라 외쳤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니 그 아가씨가 내 유령 캐서린일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말을 이었다. "나보다 앞서 이 집에 살던 사람의 성이 린턴이었소?"

"그랬지요."

"그럼 그 언쇼라는 사람은 누구요?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사는 헤어턴 언쇼 말이오. 친척이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돌아가신 린턴 부인의 조카예요."

"그럼 그 젊은 부인과는 사촌 사이겠군요?"

"네. 그리고 그 아가씨의 남편도 사촌이었어요. 하나는 외가 쪽, 하나는 친가 쪽이지요. 히스클리프가 린턴 나리의 누이와 결혼했거든요."

"워더링 하이츠의 집을 보니 정문 위에 '언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오래된 집안이오?"

"아주 오래됐지요, 나리. 그리고 헤어턴이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우리 캐시 아가씨가 우리 집안, 그러니까 린턴 집안의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요. 워더링 하이츠에 가 보셨어요? 이런 걸 여쭈어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꼭 듣고 싶어요!"

"히스클리프 부인 말이오? 건강해 보였고 무척 아름다웠소. 하지만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군요."

"아이고, 그럴 테지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거친 친구더군요, 딘 부인. 본래 그런 성격이오?"

"톱날처럼 거칠고 차돌처럼 단단하지요! 그 사람과는 얽히지 않으실수록 좋아요."

"저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된 걸 보면 살면서 부침을 꽤 겪었겠군요. 그 사람 내력을 좀 아시오?"

"뻐꾸기 같은 내력이지요, 나리. 저는 다 알아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만 빼고요. 그리고 헤어턴은 깃털도 안 난 바위종다리 새끼처럼 둥지에서 쫓겨났는데도, 이

교구에서 자기가 얼마나 속았는지 짐작조차 못 하는 사람은 그 불운한 젊은이 하나뿐이에요."

"자, 딘 부인, 내 이웃들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그야말로 자선을 베푸는 셈이 될 거요. 잠자리에 들어 봐야 쉬지 못할 것 같으니, 수고스럽겠지만 한 시간쯤 앉아서 이야기 좀 해 주시오."

"아, 그럼요, 나리! 바느질거리를 좀 가져오고 나서 원하시는 만큼 앉아 있을게요. 그런데 감기에 걸리셨네요. 떨고 계신 걸 봤어요. 감기를 몰아내려면 죽을 좀 드셔야겠어요."

그 착한 부인이 부산하게 나가자 나는 불 쪽으로 바싹 웅크리고 다가앉았는데, 머리는 뜨겁고 몸의 나머지는 으슬으슬했으며, 게다가 신경과 머리가 거의 어리석다 싶을 만큼 흥분해 있었다. 그 때문에 불편하다기보다는 오늘과 어제 겪은 일이 무슨 큰 탈을 낳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지금도 그렇다). 부인은 곧 김이 오르는 대접 하나와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돌아와 대접을 화덕 선반에 올려놓더니, 내가 이렇게 말 상대를 반기는 것이 몹시 기쁜 눈치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

"내가 이리 와서 살기 전에는" 하고 부인은 더 청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거의 늘 워더링 하이츠에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헤어턴의 아버지인 힌들리 언쇼 도련님의 유모였던 터라 나는 그 집 아이들과 노는 게 몸에 배었고, 심부름도 하고 건초 만드는 일도 거들면서, 누가 무슨 일을 시키든 할 채비를 하고 농장 언저리를 맴돌았다. 어느 화창한 여름 아침, 기억하기로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옛 주인인 언쇼 씨가 길 떠날 차림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주인 어른은 그날 할 일을 조지프에게 일러 준 뒤, 힌들리와 캐서린과 나에게로 돌아섰다. 나도 그 아이들과 함께 앉아 죽을 먹던 참이었다. 주인 어른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 귀여운 사내야, 오늘 리버풀에 다녀올 텐데 뭘 사다 줄까? 갖고 싶은 걸 골라 보렴. 다만 작은 걸로 해라. 오가는 길을 다 걸어야 하니까. 가는 데만 60마일, 오는 데 또 60마일이니 아주 먼 길이야!" 힌들리가 바이올린을 대자 주인 어른은 캐서린 아가씨에게 물었고, 겨우 여섯 살이었지만 마구간의 어떤 말이든 탈 줄 알았던 아가씨는 채찍을 골랐다. 주인 어른은 나도 잊지 않았다. 가끔 엄하기는 해도 마음씨가 고운 분이었던 주인 어른은 내게 사과와 배를 주머니 가득 사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잘 있으라고 인사한 뒤 길을 떠났다.

주인 어른이 집을 비운 사흘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길게 느껴졌고, 어린 캐서린은 아버지가 언제 오시느냐고 자꾸만 물었다. 언쇼 부인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식사 때쯤 남편이 오려니 하고 기다리며 저녁을 한 시간 또 한 시간 미루었지만,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도 마침내 대문까지 뛰어 내려가 내다보는 데 지쳐 버렸다. 그러다 날이 저물었다. 마님은 아이들을 재우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더 깨어 있게 해 달라고 애처롭게 졸랐고, 열한 시쯤 되었을 때 문 걸쇠가 조용히 들리더니 주인 어른이 들어섰다. 주인 어른은 웃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다가 하며 의자에 털썩 몸을 던지고는, 거의 죽을 뻔했으니 다들 물러서 있으라고 했다. 세 왕국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혼비백산할 일을 당하다니!" 주인 어른은 두 팔에 둘둘 말아 안고 있던 커다란 외투를 펼치며 말했다. "이것 좀 봐요, 여보! 내 평생 무엇에 이렇게 진땀을 뺀 적은 없었소. 그래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오. 꼭 마귀한테서 온 것처럼 시커멓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르르 주위로 몰려들었고, 나는 캐서린 아가씨의 머리 너머로 지저분하고 누더기를 걸친 검은 머리의 아이를 엿보았다. 걷기도 하고 말도 할 만큼은 큰 아이였는데, 사실 얼굴은 캐서린보다 나이 들어 보였다. 그런데 바닥에 세워 놓자 그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자꾸자꾸 되풀이하기만 해서, 나는 겁이 났고 언쇼 부인은 당장이라도 그 아이를 문밖으로 내던질 기세였다. 마님은 정말로 벌컥 화를 내며, 먹이고 돌봐야 할 제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집시 새끼를 집 안에 들일 생각을 했느냐고, 저걸 데려다 어쩔 셈이냐고, 정신이 나간 것이냐고 따졌다. 주인 어른은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정말로 지쳐서 반쯤 죽은 사람 같았고, 마님의 꾸지람 사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리버풀 거리에서 그 아이가 굶주리고 집도 없이 벙어리나 다름없는 꼴로 있는 것을 보고 데려와서 주인을 수소문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 아이가 누구네 아이인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돈도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으니 거기서 헛돈을 쓰느니 당장 집으로 데려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튼 결말은 마님이 투덜거리다 지쳐 잠잠해지는 것이었고, 언쇼 씨는 내게 그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 아이들과 함께 재우라고 일렀다.

힌들리와 캐서린은 집안이 조용해질 때까지 쳐다보고 귀 기울이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다음에는 둘 다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찾으려고 아버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힌들리는 열네 살 먹은 사내아이였는데도 외투 속에서 산산조각으로 짓뭉개진, 한때 바이올린이었던 것을 꺼내 들고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캐서린은

아버지가 낯선 아이를 돌보느라 자기 채찍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그 멍청한 꼬맹이에게 이를 드러내고 침을 뱉으며 심술을 부렸는데, 그 수고의 대가로 버릇을 고치라는 아버지에게 호되게 한 대 얻어맞았다. 두 아이는 그 애를 자기들 침대에 들이기는커녕 자기들 방에 두는 것조차 한사코 마다했고, 나도 더 나은 분별이 없었으므로 이튿날이면 사라져 주기를 바라며 그 애를 계단참에 내려놓았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주인 어른의 목소리를 듣고 끌렸는지, 그 애는 언쇼 씨의 방문 앞으로 기어갔고, 주인 어른은 방을 나서다가 거기서 그 애를 발견했다. 그 애가 어떻게 거기 가 있었는지 캐묻는 통에 나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비겁하고 몰인정하게 군 벌로 집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히스클리프가 이 집안에 처음 들어온 내력이다. 며칠 뒤 돌아와 보니(나는 내가 영영 쫓겨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애에게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어려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고, 그 뒤로 그 이름은 그 애의 세례명이자 성 노릇을 해 왔다. 캐서린 아가씨와 그 애는 이제 무척 친해져 있었다. 그러나 힌들리는 그 애를 미워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도 그랬다. 우리는 그 애를 부끄러울 만큼 괴롭혔다. 나는 내가 부당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철이 들지 못했고, 마님은 그 애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 애 편을 들어 한마디 거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애는 시무룩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 같았다. 아마 학대에 이골이 나서 굳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힌들리에게 얻어맞아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내가 꼬집어도 저 혼자 실수로 다쳤고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다는 듯이 그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눈을 크게 뜰 뿐이었다. 언쇼 어른은 아들이 그 '가엾은 아비 없는 아이'를, 주인 어른은 그렇게 불렀는데,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애가 그렇게 참는 모습에 더욱 노발대발했다. 주인 어른은 이상하리만큼 히스클리프를

아껴서 그 애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믿었고(하기야 그 애는 말이 아주 적었고 하는 말은 대개 참말이었다), 너무 장난이 심하고 제멋대로여서 귀염받는 아이가 되지 못한 캐서린보다 훨씬 더 그 애를 귀여워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 애는 집안에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채 두 해도 안 되어 언쇼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무렵, 젊은 도련님은 아버지를 친구라기보다 억압하는 사람으로, 히스클리프를 아버지의 사랑과 제 특권을 가로챈 찬탈자로 여기게 되어 있었고, 그 상처들을 곱씹느라 마음이 비뚤어져 갔다. 나도 한동안은 도련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홍역에 걸려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며 갑자기 어른 여자의 짐을 떠맡아야 했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히스클리프는 위태로울 만큼 앓았는데, 가장 심할 때는 나를 늘 베갯머리에 붙잡아 두려 했다. 내가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준다고 느꼈던 모양인데, 내가 하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짐작할 머리는 없었다. 그래도 이것만은 말씀드려야겠어요, 나리. 그 애는 유모가 돌본 아이 가운데 가장 얌전한 아이였어요. 그 애와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다르다 보니 나도 편애를 덜 할 수밖에 없었다. 캐서린과 그 오빠는 나를 지독하게 들볶았는데, *그 애*는 어린 양처럼 불평 한마디 없었다. 다만 그 애가 말썽을 별로 부리지 않은 것은 순해서가 아니라 독해서였다.

그 애는 병을 이겨 냈고, 의사는 그게 대부분 내 덕분이라며 잘 돌봤다고 나를 칭찬했다. 나는 그 칭찬에 우쭐해져서 그 칭찬을 받게 해 준 아이에게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렇게 해서 힌들리는 마지막 남은 편을 잃었다. 그래도 나는 히스클리프를 귀애할 수가 없었고, 우리 주인 어른이 그 뚱한 아이에게서 무엇을 보고 그리도 대견해하는지 자주 의아했다. 내 기억으로 그 애는 주인 어른이 베푼 사랑에 고마워하는 기색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 은인에게 버릇없이 굴지는 않았다. 그저 무감각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인 어른의 마음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 잘 알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온 집안이 제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 예로, 언젠가 언쇼 씨가 교구 장터에서 망아지 두 마리를 사 와서 사내아이들에게 한 마리씩 준 일이 생각난다. 히스클리프는 가장 잘생긴 놈을 차지했는데, 그 망아지가 얼마 안 가 절름발이가 되자 그것을 알아챈 그 애는 힌들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랑 말을 바꿔. 내 말은 마음에 안 들어. 안 바꾸면 이번 주에 네가 나를 세 번 때린 걸 너희 아버지한테 이르고, 어깨까지 시퍼렇게 멍든 내 팔을 보여 줄 거야." 힌들리는 혀를 날름 내밀고 그 애의 따귀를 갈겼다. "당장 바꾸는 게 좋을걸." 그 애는 현관으로 달아나면서도 고집을 부렸다(두 아이는 마구간에 있었다). "결국 바꾸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 매질 얘기를 하면 넌 이자까지 쳐서 도로 맞을 거야." "꺼져, 이 개야!" 힌들리가 감자와 건초를 다는 데 쓰는 쇠 추를 쳐들어 을러대며 소리쳤다. "던져 봐." 그 애가 꼼짝 않고 서서 대꾸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날 문밖으로 내쫓겠다고 네가 큰소리친 것까지 일러바칠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당장 너부터 쫓아내지 않나 두고 보자고." 힌들리가 추를 던졌다. 추는 그 애의 가슴에 맞았고 그 애는 쓰러졌지만, 숨을 헐떡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금세 비틀비틀 일어났다. 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 애는 그 꼴 그대로 주인 어른에게 가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넌지시 비치며 제 몰골이 대신 하소연하게 해 단단히 앙갚음을 했을 것이다. "그럼 내 망아지 가져가, 이 집시야!" 젊은 언쇼가 말했다. "그리고 그 망아지가 네 목이나 부러뜨리기를 빌겠다. 가져가, 그리고 지옥에나 떨어져, 이 거렁뱅이 같은 침입자 놈아! 아버지를 구슬려서 아버지 것을 몽땅 빼앗아 봐. 그다음에 네가 어떤 놈인지 아버지한테 보여 드리라고, 이 사탄의 새끼야. 그리고 이거나 받아라. 그 망아지가 네 골통을 차 버렸으면 좋겠다!"

히스클리프는 망아지를 풀어 제 칸으로 옮기러 가서 그 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힌들리는 그 애를 망아지 발밑으로 떠밀어 넘어뜨리는 것으로 제 말을 끝맺고는, 제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멈춰서 살펴보지도 않고 냅다 달아나 버렸다.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침착하게 몸을 추스르고 하려던 일을 계속하는지 보고 놀랐다. 그 애는 안장이며 무엇이며 다 바꿔 얹고 나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건초 더미에 앉아 세게 얻어맞아 생긴 메스꺼움을 가라앉혔다. 멍든 것을 망아지 탓으로 돌리자고 하자 그 애는 쉽게 내 말을 따랐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으니 무슨 이야기가 나돌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그 애는 이런 소동이 있어도 불평하는 일이 워낙 드물어서, 나는 정말로 그 애가 앙심을 품는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감쪽같이 속았다는 걸 나리도 곧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제5장

세월이 흐르면서 언쇼 씨는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다. 늘 부지런하고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기운이 빠져 버렸고, 화롯가 구석에 갇혀 지내게 되자 몹시 짜증스러워졌다. 주인 어른은 하찮은 일에도 역정을 냈고, 누가 자기 권위를 깔본다는 의심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이것은 누가 그의 귀염둥이를 속이려 들거나 그 애 위에 군림하려 할 때 특히 눈에 띄었다. 주인 어른은 누가 그 애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봐 안쓰러울 만큼 시샘하며 지켰는데, 자기가 히스클리프를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애를 미워하고 그 애에게 해코지를 하려 벼른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힌 듯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손해였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주인 어른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아서 그 편애를 그대로 받아 주었고, 그렇게 받아 준 것이 아이의 오만과 시커먼 성깔을 기름지게 살찌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두세 번은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힌들리가 대놓고 경멸을 드러내는 바람에 노인이 노발대발해서, 지팡이를 움켜쥐고 아들을 때리려 했다가 그럴 기운이 없어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기도 했다.

마침내 우리 부목사가(그때 우리에게는 린턴 집안과 언쇼 집안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손바닥만 한 땅을 손수 부쳐 생계를 꾸리던 부목사가 있었다) 그 젊은이를 대학에 보내라고 권했다. 언쇼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나마 그러자고 했다. "힌들리는 쓸모없는 놈이야. 어딜 떠돌아다니든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주인 어른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야말로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주인 어른이 당신의 선행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늙고 병든 사람의 불만이 집안 불화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 주인 어른도 그렇다고 우겼으니까. 하지만 사실은요, 나리, 그건 기울어 가는 몸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캐서린 아가씨와 하인 조지프였다. 저 위에서 그 사람을 보셨겠지요. 그 사람은 성경을 샅샅이 뒤져 복된 약속은 제 몫으로 긁어모으고 저주는 이웃에게 내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지긋지긋하고 독선적인 바리새인이었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설교하고 경건한 말을 늘어놓는 재주로 조지프는 언쇼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고, 주인 어른이 약해질수록 그의 입김은 세졌다. 조지프는 영혼의 일을 걱정하라고, 자식들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사정없이 주인 어른을 들볶았다. 힌들리를 타락한 놈으로 여기도록 부추겼고, 밤이면 밤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을 헐뜯는 이야기를 꼬박꼬박 길게 늘어놓았는데, 언제나 주인 어른의 약한 데를 살살 긁어 주려고 가장 무거운 허물은 캐서린에게 덮어씌웠다.

하기야 캐서린 아가씨에게는 내가 그전에 어떤 아이에게서도 본 적 없는 버릇들이 있었다. 하루에 쉰 번도 넘게 우리 모두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고, 아래층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아가씨가 무슨 말썽을 부리지 않을까 마음 놓을 수 있는 때가 단 1분도 없었다. 기운은 늘 밀물처럼 넘쳐흘렀고, 혀는 쉴 새 없이 놀려서 노래하고 웃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들볶았다. 거칠고 못된 계집아이였지만, 이 교구에서 눈이 가장 예쁘고 웃음이 가장 사랑스럽고 발걸음이 가장 가벼운 아이이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나쁜

뜻은 없었다고 나는 믿는다. 정말로 누구를 울리고 나면, 아가씨는 거의 언제나 곁에 붙어 앉아서 우는 사람이 울음을 그치고 오히려 자기를 달래 주게 만들었으니까. 아가씨는 히스클리프를 지나치게 좋아했다.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그 애와 떼어 놓는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아가씨는 그 애 때문에 우리 누구보다 더 꾸중을 들었다. 놀 때는 꼬마 안주인 노릇을 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손찌검도 서슴지 않고 동무들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했다. 나한테도 그랬지만 나는 얻어맞고 명령받는 걸 참지 않았고, 아가씨에게 그렇다고 똑똑히 알려 주었다.

그런데 언쇼 씨는 자식들에게 늘 엄하고 근엄하기만 해서 자식들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 캐서린은 캐서린대로, 아버지가 한창때보다 병든 지금 왜 더 역정을 내고 참을성이 없어졌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짜증 섞인 꾸지람은 아가씨 속에 아버지를 약 올리고 싶은 못된 즐거움을 일깨웠다.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꾸짖고 아가씨가 대담하고 건방진 눈빛과 거침없는 말솜씨로 우리에게 맞설 때만큼 아가씨가 행복한 때는 없었다. 아가씨는 조지프의 경건한 저주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나를 약 올리고,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골라 했다. 아버지가 진짜라고 믿는 아가씨의 꾸민 건방짐이 아버지의 다정함보다 히스클리프에게 더 큰 힘을 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짓이었다. 그 애는 무슨 일이든 *아가씨*가 시키면 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제 마음이 내킬 때만 했던 것이다. 아가씨는 온종일 할 수 있는 한 고약하게 굴다가도 밤이면 가끔 아양을 떨며 화해하러 왔다. "안 된다, 캐서린." 노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너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넌 네 오빠보다 더 고약하다. 가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라, 얘야. 네 어미와 내가 너를 기른 걸 후회하게 될까 봐 걱정이구나!" 처음에는 그 말에 아가씨가 울었지만 자꾸 내쳐지다 보니

차츰 마음이 굳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라고 하면 웃어 버렸다.

그러나 마침내 이 세상에서 언쇼 씨가 겪던 괴로움을 끝내는 때가 왔다. 어느 시월 저녁, 주인 어른은 난롯가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거센 바람이 집 둘레를 사납게 휘몰아치며 굴뚝 속에서 으르렁거렸는데, 소리는 거칠고 사나웠지만 춥지는 않았고,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나는 화로에서 조금 떨어져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었고, 조지프는 탁자 가까이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그 무렵에는 하인들도 일이 끝나면 대개 큰방에 앉아 있었다). 캐서린 아가씨는 앓고 난 뒤라 얌전했다. 아가씨는 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아가씨 무릎을 베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주인 어른이 선잠에 빠지기 전에 아가씨의 고운 머리칼을 쓰다듬던 모습이 기억난다. 아가씨가 얌전한 모습을 보는 것이 주인 어른에게는 드문 기쁨이었다. "넌 왜 늘 착한 아이로 있지 못하니, 캐서린?" 주인 어른이 그렇게 말하자 아가씨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고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왜 늘 좋은 분으로 있지 못하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언짢아하는 것을 보자마자 아가씨는 아버지 손에 입을 맞추고, 노래를 불러 재워 드리겠다고 했다. 아가씨가 아주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윽고 주인 어른의 손가락이 아가씨의 손가락에서 스르르 미끄러지고 고개가 가슴께로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에게 주인 어른이 깨지 않게 조용히 하고 꼼짝하지 말라고 일렀다. 우리는 꼬박 반 시간 동안 생쥐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고, 조지프가 읽던 장을 다 읽고 일어나서 주인 어른을 깨워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시게 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그러고 있었을 것이다. 조지프는 앞으로 나서서 주인 어른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건드렸지만 주인 어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지프는 촛불을 들고 주인 어른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촛불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조지프는 아이들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속삭였다. "냉큼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오늘 저녁엔 너희끼리 기도해라. 난 할 일이 좀 있구먼."

"아버지께 먼저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드릴래요." 캐서린이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말릴 새도 없이 아버지 목에 팔을 둘렀다. 가엾은 것은 곧바로 잃은 것을 알아차렸다. 아가씨는 비명을 질렀다. "아, 돌아가셨어, 히스클리프! 돌아가셨어!" 그러고는 둘이서 가슴이 찢어지게 울기 시작했다.

나도 그 아이들과 함께 목 놓아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조지프는 하늘나라에 간 성인을 두고 그렇게 울부짖다니 무슨 생각들이냐고 나무랐다. 그는 내게 외투를 걸치고 기머턴으로 달려가 의사와 목사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그때는 둘 중 누가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비바람을 뚫고 가서 의사 한 사람만 데리고 돌아왔고 목사는 아침에 오겠다고 했다. 사정을 설명하는 일은 조지프에게 맡기고 나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자정이 넘었는데도 아이들은 아예 눕지도 않은 채였다. 그래도 한결 차분해져서 내가 달래 줄 필요는 없었다. 그 어린 영혼들은 내가 생각해 낼 수 있었을 어떤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세상 어느 목사도 그 아이들이 천진하게 나누는 이야기만큼 아름답게 천국을 그려 보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흐느끼며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가 모두 함께 그곳에 무사히 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6장

힌들리 도련님이 장례를 치르러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이웃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도련님이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련님은 끝내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아마 내세울 만한 돈도 가문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련님이 아버지에게 혼인을 그렇게 꽁꽁 숨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여자는 제 탓으로 집안을 크게 어지럽힐 사람은 아니었다. 그 여자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눈에 띄는 물건마다, 둘레에서 벌어지는 일마다 다 즐거워하는 것 같았는데, 장례 준비와 조문객들만은 예외였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하는 짓을 보고 나는 그 여자가 반쯤 모자라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는 아이들 옷을 입혀야 했는데도 그 여자는 제 방으로 달려가면서 나를 끌고 들어갔고, 거기 앉아 덜덜 떨고 두 손을 움켜쥐며 "다들 갔어요?" 하고 몇 번이고 물었다. 그러더니 검은 옷을 보면 자기가 어떤 기분이 되는지 신경질적으로 북받쳐 늘어놓기 시작했고, 흠칫흠칫 놀라고 떨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죽는 게 너무 무섭다고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나만큼이나 죽을 것 같지 않았는데, 좀 마르기는 했지만 젊고 혈색이 좋았고, 눈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물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아주 가빠지고, 조금만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도 온몸을 떨고, 가끔 몹시 성가시게 기침을 한다는 것은 나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런 증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몰랐으므로 그 여자를 딱하게 여길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록우드 나리, 이 고장에서는 대개 외지 사람이 먼저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젊은 언쇼는 집을 떠나 있던 세 해 동안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더 여위었고 핏기를 잃었으며 말씨도 옷차림도 전혀 딴판이었는데, 돌아온 바로 그날 도련님은 조지프와 나에게 이제부터는 뒷부엌에서 지내고 큰방은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일렀다. 실은 남는 작은 방 하나에 양탄자를 깔고 벽지를 발라 응접실로 꾸밀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아내가 흰 돌바닥과 시뻘겋게 타오르는 커다란 벽난로, 백랍 접시와 도자기 진열장과 개집, 그리고 식구들이 늘 앉는 그 방에 마음껏 돌아다닐 만큼 넓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으므로, 도련님은 아내가 편히 지내는 데 응접실은 필요 없다고 여기고 그 생각을 접었다.

그 여자는 새로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시누이가 있다는 것도 반가워했다. 처음에는 캐서린에게 재잘재잘 말을 걸고, 입을 맞추고, 함께 뛰어다니고, 선물을 잔뜩 안겨 주었지만, 그 애정은 금세 시들해졌고, 그 여자가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자 힌들리는 폭군이 되었다. 아내가 히스클리프를 싫어하는 기색을 비치는 말 몇 마디만으로도 힌들리 속에서 그 애를 향한 옛 미움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힌들리는 그 애를 자기들 자리에서 몰아내 하인들 틈으로 보냈고, 부목사에게 배우는 것도 그만두게 했으며, 대신 바깥에서 일을 하라고 우겨, 농장의 다른 어느 일꾼 못지않게 고된 일을 시켰다.

히스클리프는 처음에는 그렇게 깎아내려진 처지를 꽤 잘 견뎠는데, 캐서린이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고 들판에서 함께 일하거나 놀아 주었기 때문이다. 두 아이는 둘 다 야만인처럼 거칠게 자랄 것이 뻔해

보였는데, 젊은 주인은 그 애들이 자기 눈앞에만 얼씬거리지 않으면 어떻게 굴든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일에 그 애들이 교회에 가는지조차 살피지 않았을 텐데, 다만 그 애들이 빠지면 조지프와 부목사가 주인의 무심함을 나무랐고, 그러면 주인은 그제야 생각이 나서 히스클리프에게는 매질을, 캐서린에게는 점심이나 저녁을 굶으라는 벌을 내렸다. 그러나 아침에 황야로 달아나 온종일 거기서 노는 것이 두 아이의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으니, 나중에 받는 벌은 그저 웃어넘길 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부목사가 캐서린에게 외우라고 성경을 몇 장씩 내주든, 조지프가 팔이 아플 때까지 히스클리프를 두들겨 패든, 두 아이는 다시 함께 있게 되는 순간, 적어도 무슨 짓궂은 앙갚음 계획을 짜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 애들이 날마다 더 무모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동무 하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아직 내가 쥐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힘마저 잃을까 봐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나는 혼자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른다. 어느 일요일 저녁, 그 애들은 떠들었다든가 그 비슷한 하찮은 잘못을 저질러 거실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러 가 보니 그 애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집 안을 위아래로, 마당이며 마구간까지 뒤졌지만 그 애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힌들리는 성이 나서 우리에게 문에 빗장을 지르라고 하고는, 오늘 밤 아무도 그것들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맹세했고, 식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 누울 수가 없었으므로, 그 애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금지령이고 뭐고 들여보내 주기로 마음먹고, 비가 오는데도 격자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귀를 기울였다. 얼마 뒤 길을 따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대문 사이로 등불 빛이 어른거리자, 나는 숄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 애들이 문을 두드려 언쇼

도련님을 깨우지 않도록 달려 나갔다. 거기 히스클리프가 혼자 서 있었다. 그 애가 혼자인 것을 보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캐서린 아가씨는 어디 있니?"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니겠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있어." 그 애가 대답했다. "나도 거기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더러 묵어 가라고 할 만큼 예의가 바르지 못해서." "그래, 너 이제 혼쭐나겠다!" 내가 말했다. "넌 쫓겨나기 전에는 만족을 모르겠지. 대체 무슨 일로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까지 헤매고 다녔니?" "젖은 옷부터 좀 벗고 나서 다 얘기해 줄게, 넬리." 그 애가 대답했다. 나는 주인을 깨우지 않게 조심하라고 일렀고, 그 애가 옷을 벗는 동안 내가 촛불을 끄려고 기다리고 있으려니 그 애가 말을 이었다. "캐서린하고 나는 빨래하는 데서 빠져나와 마음대로 쏘다녔는데, 그레인지 불빛이 언뜻 보이길래 린턴네 애들도 일요일 저녁이면 구석에 서서 덜덜 떨며 보내는지 가서 보자고 했어. 제 아버지 어머니는 난롯가에 앉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웃으며 눈알이 빠지도록 불을 쬐는 동안 말이야. 너는 그 애들이 그럴 것 같아? 아니면 설교문이나 읽고, 하인한테 교리 문답을 받고,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한 줄씩 외우라는 벌을 받을 것 같아?" "아마 아니겠지." 내가 대답했다. "그 애들은 틀림없이 착한 아이들이라, 네가 못되게 굴어서 받는 그런 대접은 받을 까닭이 없을 거야." "위선 떨지 마, 넬리." 그 애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하이츠 꼭대기에서 그레인지 영지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달렸어. 캐서린은 맨발이라 달리기에서 완전히 졌어. 내일 늪에서 그 애 신발을 찾아야 할 거야. 아무튼 우리는 부서진 산울타리 틈으로 기어 들어가 더듬더듬 오솔길을 올라가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응접실 창 밑 꽃밭에 자리를 잡았어. 덧문도 닫지 않았고 커튼도 반만 쳐져 있어서, 우리 둘 다 주춧돌 위에 서서 창턱에 매달리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본 건, 아!

정말 아름다웠어. 진홍색 양탄자를 깔고, 진홍색 덮개를 씌운 의자며 탁자가 있고, 금테를 두른 새하얀 천장 한가운데에서는 유리 방울이 은사슬에 매달려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작고 부드러운 촛불들이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으리으리한 방이었어. 린턴 영감 내외는 거기 없었고, 에드거하고 그 누이가 그 방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냐? 우리 같으면 천국에 있는 줄 알았을 거야!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 착한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맞혀 봐. 이저벨라는, 아마 열한 살일 거야, 캐서린보다 한 살 어리니까, 방 저쪽 끝에 드러누워 마녀들이 시뻘겋게 달군 바늘로 찌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악을 쓰고 있었어. 에드거는 난롯가에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탁자 한가운데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앞발을 털며 깽깽거리고 있었는데, 둘이 서로 상대 탓을 하는 걸 들어 보니 그 강아지를 둘이서 잡아당기다가 거의 두 동강을 낼 뻔했더라고. 바보들! 그게 그 애들 놀이였어! 따뜻한 털 뭉치를 누가 안느냐를 두고 다투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 놓고는 둘 다 안 갖겠다며 울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그 응석받이들을 보고 대놓고 웃었어. 정말 경멸스러웠어! 내가 캐서린이 갖고 싶어 하는 걸 갖겠다고 조르는 걸 네가 본 적 있어? 아니면 우리 둘이서 방 양쪽 끝에 떨어져 고함지르고 흐느끼고 바닥을 뒹굴며 노는 걸 본 적 있어? 천 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여기 내 처지를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에드거 린턴 처지와 바꾸지 않을 거야. 조지프를 제일 높은 박공에서 내던지고 집 앞벽을 힌들리의 피로 칠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 해도 말이야!"

"쉿, 쉿!" 내가 말을 끊었다. "그런데 히스클리프, 캐서린이 어쩌다 거기 남게 됐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잖아?"

"우리가 웃었다고 했잖아." 그 애가 대답했다. "린턴네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화살처럼 문으로 내달렸고, 잠깐 조용하더니

비명이 터졌지. '아, 엄마, 엄마! 아, 아빠! 아, 엄마, 이리 와 봐요. 아, 아빠, 아!' 정말로 그 비슷하게 울부짖었어. 우리는 그 애들을 더 겁주려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다가, 누가 빗장을 여는 소리가 나서 얼른 도망치는 게 낫겠다 싶어 창턱에서 뛰어내렸어. 내가 캐서린 손을 잡고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데, 갑자기 캐서린이 넘어졌어. '달려, 히스클리프, 달려!' 캐서린이 속삭였어. '저 사람들이 불독을 풀어놨는데, 그놈이 날 물고 놓지 않아!' 그 악마 같은 놈이 캐서린의 발목을 물고 있었어, 넬리. 그놈이 고약하게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캐서린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 그럼! 미친 소 뿔에 꿰였다 해도 캐서린은 비명 따위를 지르는 건 깔봤을 거야. 대신 내가 질렀지. 기독교 세계의 마귀란 마귀는 다 쓸어버릴 만큼 저주를 퍼부었어. 그리고 돌을 하나 집어서 그놈 턱 사이에 쑤셔 넣고, 목구멍으로 밀어 넣으려고 있는 힘을 다했어. 마침내 짐승 같은 하인 놈이 등불을 들고 다가오면서 외쳤어. '꽉 물어, 스컬커, 꽉 물어!' 하지만 스컬커가 무슨 사냥감을 물었는지 보더니 말투가 바뀌더라. 개는 목이 졸려 떨어져 나갔는데, 시퍼렇고 커다란 혀가 입 밖으로 반 피트나 늘어지고 축 처진 입술에서 피 섞인 침이 줄줄 흘렀어. 그 사내가 캐서린을 안아 올렸는데, 캐서린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파서였어, 틀림없이. 그 사내가 캐서린을 안고 들어갔고, 나는 저주와 복수를 웅얼거리며 따라 들어갔어. '뭘 잡았나, 로버트?' 린턴 영감이 현관에서 소리쳤어. '스컬커가 계집아이를 하나 잡았습니다, 나리.' 하인이 대답하더니 나를 와락 움켜쥐며 덧붙였어. '그리고 여기 사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지독한 놈 같습니다! 아마 도둑놈들이 다들 잠든 뒤에 이것들을 창으로 들여보내서 패거리한테 문을 열어 주게 하고, 우리를 마음 놓고 죽이려 했던 모양입니다. 입 닥쳐, 이 상스러운 도둑놈아! 넌 이 일로 교수대에 오를 거다. 린턴 나리, 총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래, 그래, 로버트.' 그

늙은 바보가 말했어. '그 악당들이 어제가 내 소작료 받는 날이란 걸 알고, 나를 감쪽같이 털어 갈 생각이었던 게지. 들어오너라. 내가 단단히 대접해 주마. 자, 존, 사슬을 걸어라. 제니, 스컬커한테 물 좀 줘라. 치안판사를 그것도 제 집에서, 더구나 안식일에 우롱하다니! 이놈들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셈인가? 아, 여보, 메리, 이리 와 봐요! 겁낼 것 없소, 사내아이일 뿐이오. 그래도 이 악당 녀석 얼굴에 저렇게 대놓고 험상궂은 기색이 드러나 있으니, 생김새뿐 아니라 하는 짓으로까지 제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당장 목을 매다는 게 나라를 위한 친절이 아니겠소?' 영감은 나를 샹들리에 밑으로 끌고 갔고, 린턴 부인은 안경을 코에 걸치더니 기겁을 하며 두 손을 쳐들었어. 그 겁쟁이 애들도 더 가까이 기어 왔는데, 이저벨라가 혀 짧은 소리로 말했어. '무서운 것! 지하실에 가둬요, 아빠. 내 길들인 꿩을 훔쳐 간 점쟁이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에드거?'

"그 사람들이 나를 살펴보는 동안 캐서린이 정신을 차렸어. 캐서린은 마지막 말을 듣고 웃었지. 에드거 린턴은 이것저것 캐묻는 눈으로 빤히 쳐다보더니, 그제야 정신을 좀 차렸는지 캐서린을 알아보더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를 보거든. 다른 데서는 거의 만나지 않지만. '저건 언쇼 아가씨예요!' 에드거가 제 어머니에게 속삭였어. '보세요, 스컬커가 어떻게 물었는지. 발에서 피가 흘러요!'

"'언쇼 아가씨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인이 외쳤어. '언쇼 아가씨가 집시하고 온 고장을 쏘다닌다고! 그래도 얘야, 이 애는 상복을 입고 있구나. 정말 그렇네. 평생 다리를 절게 될지도 모르겠어!'

"'제 오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심하다니, 탓할 일이로군!' 린턴 영감이 나한테서 캐서린 쪽으로 몸을 돌리며 외쳤어. '실더스한테 듣기로는'" (그건 부목사 이름이에요, 나리) "'그자가 누이를 그야말로 이교도처럼 자라게 내버려 둔다더군. 그런데 이건 누구냐? 어디서 이런 동무를 주워

왔지? 오호! 알겠다. 이 녀석은 돌아가신 내 이웃이 리버풀에 다녀오면서 얻어 온 그 이상한 아이로구나. 동인도 뱃사람의 새끼이거나, 미국이나 에스파냐에서 떠밀려 온 버려진 아이겠지.'

"'아무튼 못된 아이예요.' 늙은 부인이 말했어. '점잖은 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저 애가 하는 말 들었어요, 린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니 기가 막혀요.'

"나는 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 화내지 마, 넬리. 그랬더니 로버트한테 나를 끌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캐서린을 두고는 안 가겠다고 버텼지만, 그놈은 나를 정원으로 질질 끌고 나가서 등불을 내 손에 쑤셔 주고는, 내가 한 짓을 언쇼 씨한테 꼭 알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고 다시 문을 잠갔어. 커튼 한쪽 귀퉁이가 아직 걷혀 있어서 나는 다시 엿보는 자리로 돌아갔어. 캐서린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보내 주지 않으면, 그 커다란 유리창을 산산조각으로 부숴 버릴 작정이었거든. 캐서린은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 린턴 부인이 우리가 나들이 나올 때 빌려 입은 젖 짜는 하녀의 회색 외투를 벗겨 주면서 고개를 저으며 타일렀어. 아마 그랬을 거야. 캐서린은 아가씨니까 나하고는 대접을 달리한 거지. 그다음에는 하녀가 따뜻한 물을 한 대야 가져와서 캐서린의 발을 씻겼고, 린턴 영감은 따뜻한 포도주 음료를 한 잔 타 주었고, 이저벨라는 과자 한 접시를 캐서린 무릎에 쏟아 주었고, 에드거는 멀찍이 서서 입을 헤벌리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캐서린의 아름다운 머리칼을 말려서 빗겨 주고, 엄청나게 큰 슬리퍼를 신기고, 의자째 불 앞으로 밀어다 주더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는 캐서린을 두고 왔어. 캐서린은 먹을 것을 강아지하고 스컬커한테 나눠 주면서 스컬커가 먹을 때 코를 꼬집어 주었고, 린턴네 사람들의 멍한 파란 눈에 생기의 불씨를 지펴 주고 있었어. 캐서린의 매혹적인 얼굴이 희미하게 비친 그림자 같은

불씨였지. 그 사람들 눈에 멍청한 감탄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어. 캐서린은 그 사람들보다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나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나잖아, 안 그래, 넬리?"

"이 일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그 애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촛불을 끄며 대답했다. "넌 구제 불능이야, 히스클리프. 힌들리 도련님이 극단적인 수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두고 봐, 그러나 안 그러나." 내 말은 내가 바란 것보다 더 들어맞았다. 그 불운한 모험으로 언쇼는 노발대발했다. 게다가 린턴 씨가 일을 수습해 보겠다고 이튿날 몸소 우리 집을 찾아와, 젊은 주인에게 집안을 그런 꼴로 이끌어서야 되겠느냐고 어찌나 따끔하게 훈계를 했던지, 주인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둘레를 돌아보게 되었다. 히스클리프는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캐서린 아가씨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날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젊은 언쇼 부인은 시누이가 집에 돌아오면 알맞게 단속하는 일을 맡았는데, 힘이 아니라 꾀를 썼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었을 것이다.

제7장

캐서린은 크리스마스까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서 다섯 주를 머물렀는데, 그 무렵에는 발목도 말끔히 나았고 몸가짐도 몰라보게 나아져 있었다. 그동안 마님이 자주 찾아가서, 고운 옷과 칭찬으로 아가씨의 자존심을 북돋아 주는 데서부터 버릇 고치기 계획을 시작했는데, 아가씨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모자도 안 쓴 거친 꼬마 야만인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 우리 모두를 숨이 막히도록 끌어안는 대신, 잘생긴 검은 조랑말에서 아주 의젓한 아가씨가 사뿐히 내려섰다. 깃털 장식을 단 비버 모자 밑으로는 갈색 고수머리가 흘러내렸고, 길게 끌리는 모직 승마복은 두 손으로 치켜들어야 미끄러지듯 걸어 들어올 수 있었다. 힌들리가 아가씨를 말에서 안아 내리며 신이 나서 외쳤다. "아니, 캐서린, 너 정말 미인이 됐구나!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 이제 숙녀 같아. 이저벨라 린턴 따위는 견줄 데가 못 되겠어, 안 그래, 프랜시스?" "이저벨라는 타고난 바탕이 이 애만 못하죠." 아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거칠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엘렌, 캐서린 아가씨 옷 벗는 것 좀 거들어요. 가만있어, 아가씨, 고수머리 흐트러지겠어요. 모자 끈은 내가 풀어 줄게요."

내가 승마복을 벗기자 그 밑에서 화려한 체크무늬 비단 드레스와 흰 속바지, 반짝반짝 윤을 낸 구두가 빛을 냈다. 개들이 반기며 뛰어오르자 아가씨는 기뻐서 눈을 반짝이면서도, 개들이 그 멋진 옷에 달려들어 비벼 댈까 봐 감히 쓰다듬지도 못했다. 아가씨는 내게 살며시 입을

맞추기만 했는데, 나는 크리스마스 과자를 만드느라 온통 밀가루투성이여서 나를 끌어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히스클리프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힌들리 내외는 두 아이가 만나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는데, 그것을 보면 두 동무를 떼어 놓는 일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할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히스클리프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캐서린이 집을 비우기 전에도 그 애는 몸단장에 무심했고 아무도 돌봐 주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열 배나 더했다. 일주일에 한 번 더러운 녀석이라고 부르며 몸 좀 씻으라고 일러 주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조차 나 말고는 없었는데, 그 나이 또래 사내아이들은 본디 비누와 물을 즐기는 일이 드물다. 그러니 석 달 동안 진흙과 먼지 속에서 입고 지낸 옷이며 빗지도 않은 숱 많은 머리칼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과 손까지 칙칙하게 때가 덮여 있었다. 자기처럼 머리가 부스스한 짝패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토록 환하고 우아한 아가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으니, 그 애가 긴 의자 뒤로 숨어든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히스클리프는 여기 없어?" 아가씨가 장갑을 벗으며 물었는데, 드러난 손가락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 안에만 있었던 덕에 놀랍도록 하얘져 있었다.

"히스클리프, 앞으로 나와도 좋다." 힌들리 도련님이 그 애의 낭패를 즐기며, 그 애가 얼마나 볼썽사나운 꼬마 불한당 꼴로 나서야 할지 생각하니 흐뭇하다는 듯 소리쳤다. "다른 하인들처럼 캐서린 아가씨께 어서 오시라고 인사드려도 좋다."

캐서린은 숨어 있는 동무를 언뜻 보고는 껴안으려고 날아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애의 뺨에 일고여덟 번 입을 맞추고는 멈칫하더니, 몸을 뒤로 빼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새까맣고 뾰로통해 보이니! 게다가, 게다가 우습고 험상궂고! 하지만 그건 내가

에드거하고 이저벨라 린턴한테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그래, 히스클리프, 나를 잊었니?"

아가씨가 그렇게 물을 만도 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그 애의 얼굴에 겹으로 그늘을 드리워서, 그 애는 그 자리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악수해라, 히스클리프." 언쇼 씨가 선심 쓰듯 말했다. "가끔은 그래도 괜찮다."

"안 할 거예요." 그 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웃음거리가 되려고 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건 못 참아요!"

그러고는 둘러싼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캐서린 아가씨가 다시 그 애를 붙잡았다.

"너를 비웃으려던 게 아니야." 아가씨가 말했다.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히스클리프, 악수라도 해! 왜 뿌루퉁해 있어? 네가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랬을 뿐이야. 얼굴 씻고 머리 빗으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너 정말 더럽다!"

아가씨는 제 손에 쥔 거무튀튀한 손가락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았고, 그 애 옷에 닿은 탓에 드레스가 조금도 고와지지 않았을까 봐 걱정스러운 듯 제 드레스도 내려다보았다.

"나를 만지지 말았어야지!" 그 애는 아가씨의 눈길을 따라가더니 손을 홱 빼며 대꾸했다. "내 마음대로 더러울 거야. 나는 더러운 게 좋고, 앞으로도 더러울 거야."

그 말과 함께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뛰쳐나갔고, 주인 내외는 재미있다고 웃었지만, 캐서린은 자기가 한 말이 어째서 그런 고약한 성깔을 터뜨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몹시 당황했다.

새로 온 손님의 몸종 노릇을 해 주고, 과자를 화덕에 넣고, 크리스마스이브답게 큰방과 부엌에 불을 활활 지펴 환하게 꾸민 뒤,

나는 혼자 앉아서 캐럴이나 부르며 즐길 채비를 했다. 내가 고른 흥겨운 노래는 세속 노래나 다름없다는 조지프의 단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지프는 제 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힌들리 내외는 아가씨의 마음을 끌려고 린턴네 아이들에게 그동안의 친절에 대한 답례로 주라며 사 온 갖가지 앙증맞은 장신구를 내보이고 있었다. 내외는 린턴네 아이들을 이튿날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루를 보내라고 초대했고, 초대는 받아들여졌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다. 린턴 부인이 자기 귀염둥이들을 '욕이나 하는 그 못된 녀석'과는 조심스럽게 떼어 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형편이라 혼자 남은 나는 데워지는 향신료의 짙은 냄새를 맡으며, 반짝이는 부엌살림과 호랑가시나무로 꾸민 반들반들한 시계와, 저녁 때 데운 맥주를 채우려고 쟁반에 늘어놓은 은잔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특별히 공들여 돌보는 것, 박박 문질러 닦고 말끔히 쓴 티 한 점 없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그 하나하나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그러다 언쇼 어른이 모든 것이 정돈되고 나면 들어와서 나더러 야무진 계집애라고 부르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1실링을 손에 슬쩍 쥐여 주곤 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주인 어른이 히스클리프를 얼마나 귀애했는지, 당신이 죽고 나면 그 애가 푸대접을 받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금 그 가엾은 아이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어 나는 노래를 부르려던 마음을 바꾸어 울어 버렸다. 그러나 곧, 그 애가 당한 부당한 일들을 두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 일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편이 더 분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 그 애를 찾으러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 애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 애는 마구간에서 새 조랑말의 윤기 나는 털을 쓰다듬고, 늘 하던 대로 다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서둘러, 히스클리프!" 내가 말했다. "부엌이 아주 아늑하고, 조지프는 위층에 있어. 서둘러. 캐서린 아가씨가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말쑥하게 차려입혀 줄게. 그러면 둘이 같이 앉아 난롯가를 독차지하고 잘 때까지 실컷 수다를 떨 수 있잖아."

그 애는 하던 일을 계속할 뿐 내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자, 올 거야, 안 올 거야?" 내가 말을 이었다. "너희 둘 몫으로 작은 과자가 하나씩 있어. 거의 넉넉하게. 그리고 너는 옷을 차려입는 데 반 시간은 걸릴 거야."

나는 5분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어서 그 애를 두고 왔다. 그날 저녁 캐서린은 오빠 내외와 저녁을 먹었고, 조지프와 나는 한쪽은 꾸짖고 한쪽은 대드는 것으로 양념을 친 쌀쌀맞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 애 몫의 과자와 치즈는 밤새 요정들을 위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애는 아홉 시까지 일을 계속하더니 말 한마디 없이 뚱한 얼굴로 제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캐서린은 새 친구들을 맞을 준비로 챙길 일이 산더미 같아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데, 옛 친구에게 말을 걸려고 한 번 부엌에 들어왔지만 그 애는 이미 가 버린 뒤였고, 아가씨는 그 애가 왜 그러느냐고 묻기만 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그 애는 일찍 일어나, 휴일이라 제 언짢은 기분을 황야로 끌고 나갔고, 식구들이 교회에 간 뒤에야 다시 나타났다. 굶으며 생각을 한 덕에 마음이 좀 풀렸는지, 그 애는 한동안 내 곁을 서성이더니 용기를 짜내 불쑥 외쳤다. "넬리, 나를 점잖게 만들어 줘. 착하게 굴 거야."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히스클리프." 내가 말했다. "너 정말 캐서린을 *속상하게* 했어. 아마 집에 돌아온 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캐서린이 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네가 샘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

캐서린을 *샘낸다*는 생각은 그 애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캐서린을 속상하게 했다는 말은 똑똑히 알아들었다.

"캐서린이 속상하다고 했어?" 그 애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오늘 아침에 네가 또 나가 버렸다고 했더니 울더라."

"흥, *나*는 어젯밤에 울었어." 그 애가 맞받았다. "그리고 나는 캐서린보다 울 이유가 더 많았어."

"그래, 너는 자존심만 잔뜩 부풀린 채 빈 배로 잠자리에 든 이유가 있었지." 내가 말했다. "자존심 센 사람은 스스로 서러운 슬픔을 만들어 내는 법이야. 그래도 그렇게 토라진 게 부끄럽다면, 알겠지, 캐서린이 들어오면 용서를 빌어야 해. 다가가서 입을 맞추겠다고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할지는 네가 제일 잘 알겠지. 다만 진심으로 해. 캐서린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낯선 사람이 돼 버린 것처럼 굴지 말고. 자, 이제 나도 저녁 준비를 해야 하지만 틈을 내서 너를 꾸며 줄게. 네 옆에 서면 에드거 린턴이 꼭 인형처럼 보이게. 정말 그렇다니까. 너는 그 애보다 어리지만, 장담하는데 키는 더 크고 어깨는 두 배나 넓어. 눈깜짝할 사이에 때려눕힐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히스클리프의 얼굴이 잠깐 환해졌다가 다시 흐려졌고, 그 애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넬리, 내가 그 애를 스무 번 때려눕힌다 해도 그 애가 덜 잘생겨지거나 내가 더 잘생겨지지는 않잖아. 나도 머리칼이 밝고 살결이 희고, 그 애만큼 옷을 잘 입고 점잖게 굴고, 그 애가 앞으로 될 만큼 부자가 될 가망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걸핏하면 엄마를 찾으며 울고." 내가 덧붙였다. "시골 사내아이가 주먹만 쳐들어도 벌벌 떨고, 소나기 한 번에 온종일 집 안에만 처박혀 있고. 아, 히스클리프, 너 지금 참 못난 소리를 하는구나! 거울 앞으로 와 봐. 네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보여 줄게. 네 두 눈 사이에 있는 저 두 줄 주름이 보이니? 그리고 활처럼 휘어 올라가는 대신 가운데가 푹 꺼진 저 짙은 눈썹, 그리고 저 깊숙이 파묻힌 검은 악마 한

쌍, 창을 떳떳하게 활짝 여는 법 없이 마귀의 첩자처럼 그 밑에 숨어서 번득이는 저 눈. 저 시무룩한 주름을 펴고, 눈꺼풀을 시원하게 들어 올리고, 저 악마들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원수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늘 친구로 보는, 자신 있고 순진한 천사로 바꾸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 걷어차이는 게 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일 때문에 걷어찬 사람은 물론 온 세상을 미워하는 못된 똥개 같은 얼굴은 하지 마."

"다시 말해 에드거 린턴의 커다란 파란 눈과 반듯한 이마를 바라야 한다는 거구나." 그 애가 대답했다. "바라고 있어. 그런데 바란다고 그게 생기지는 않잖아."

"착한 마음씨가 있으면 고운 얼굴을 갖게 돼, 얘야." 내가 말을 이었다. "설령 네가 새까만 흑인이라 해도 말이야. 그리고 못된 마음씨는 가장 고운 얼굴도 못생긴 것보다 더 흉하게 만들어. 자, 이제 씻고 빗고 토라지는 것까지 다 끝났으니 말해 봐. 너 스스로 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변장한 왕자라 해도 손색이 없어. 네 아버지가 중국 황제였고 네 어머니가 인도 왕비였는지 누가 알아? 두 분 다 일주일 수입만으로 워더링 하이츠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한꺼번에 사들일 수 있는 부자였는데, 네가 못된 뱃사람들한테 납치당해서 잉글랜드로 끌려왔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너라면 내 출생을 아주 높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 하찮은 농사꾼의 구박쯤은 꿋꿋하고 의젓하게 견뎌 낼 용기가 생길 테니까!"

그렇게 내가 재잘재잘 떠드는 사이에 히스클리프는 차츰 찌푸린 얼굴을 펴고 제법 상냥한 얼굴이 되어 갔는데, 그때 갑자기 덜컹거리는 소리가 길을 따라 올라와 마당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이야기가 끊겼다. 그 애는 창으로, 나는 문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린턴네 두

아이가 외투와 털옷에 폭 파묻힌 채 집안 마차에서 내리고, 언쇼 집안 식구들이 말에서 내리는 참이었다. 겨울에는 말을 타고 교회에 가는 일이 많았다. 캐서린이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고 집 안으로 데려와 불 앞에 앉히자, 하얗게 질려 있던 그 애들 얼굴에 금세 핏기가 돌았다.

나는 이제 서둘러 가서 상냥한 얼굴을 보여 주라고 동무를 재촉했고 그 애도 기꺼이 따랐는데, 운수 사납게도 그 애가 부엌에서 큰방으로 통하는 문을 이쪽에서 여는 순간 힌들리가 저쪽에서 문을 열었다. 둘이 딱 마주쳤고, 주인은 그 애가 깨끗하고 밝은 얼굴을 한 것을 보고 약이 올랐는지, 아니면 린턴 부인과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그 애를 느닷없이 확 밀쳐 내고는 조지프에게 화난 목소리로 일렀다. "이 녀석을 방에 못 들어오게 해라.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다락방에 처넣어 둬. 잠깐이라도 혼자 두면 파이에 손가락을 쑤셔 넣고 과일을 훔쳐 먹을 놈이야."

"아니에요, 나리." 나는 대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애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리고 그 애도 우리처럼 맛있는 음식을 제 몫만큼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날이 저물기 전에 아래층에서 얼씬거리다 걸리면 내 주먹 맛을 제 몫으로 먹게 될 거다." 힌들리가 소리쳤다. "꺼져, 이 떠돌이야! 뭐야! 멋쟁이 흉내를 내 보겠다고? 그 우아한 머리채를 내가 붙잡기만 해 봐라. 조금 더 길게 늘여 줄 테니!"

"이미 충분히 긴데요." 린턴 도련님이 문간에서 빼꼼 내다보며 말했다. "저러고도 머리가 안 아프다니 신기해요. 꼭 망아지 갈기처럼 눈을 덮었어요!"

도련님은 모욕할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히스클리프의 사나운 성미는, 그때부터 이미 연적으로 미워하는 듯한 상대가 건방지게 구는 기색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애는 손에 맨 처음 잡힌

뜨거운 사과 소스 그릇을 움켜쥐고 말한 아이의 얼굴과 목에 정통으로 끼얹었고, 도련님은 당장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 소리에 이저벨라와 캐서린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언쇼 씨는 즉시 범인을 낚아채 제 방으로 끌고 갔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벌겋고 숨이 가빴던 것을 보면 거기서 분명 그 격정을 식힐 거친 처방을 내렸을 것이다. 나는 행주를 가져와 에드거의 코와 입을 좀 심술궂게 박박 닦아 주며, 괜히 참견하더니 꼴좋다고 했다. 누이동생은 집에 가겠다고 울기 시작했고, 캐서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모두를 대신해 얼굴을 붉히고 곁에 서 있었다.

"그 애한테 말을 걸지 말았어야죠!" 캐서린이 린턴 도련님을 나무랐다. "그 애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 당신 때문에 놀러 온 걸 망쳤어요. 그 애는 매를 맞을 거예요. 나는 그 애가 매 맞는 게 싫어요! 저녁도 못 먹겠어요. 왜 그 애한테 말을 걸었어요, 에드거?"

"안 걸었어요." 소년은 흐느끼며 내 손에서 빠져나가더니, 나머지 얼룩은 제 고운 삼베 손수건으로 마저 닦았다. "엄마한테 그 애하고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말 안 했어요."

"그래, 울지 마요." 캐서린이 경멸하듯 대꾸했다.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더는 말썽 피우지 말아요. 오빠가 와요. 조용히 해요! 쉿, 이저벨라! *너*는 누가 때리기라도 했니?"

"자, 자, 얘들아, 자리에 앉아라!" 힌들리가 부산하게 들어오며 소리쳤다. "그 짐승 같은 녀석 덕에 몸이 아주 잘 데워졌다. 다음번엔 말이다, 에드거 도련님, 네 주먹으로 직접 법을 집행해라. 그러면 입맛도 돌 거다!"

향긋한 잔칫상을 보자 작은 손님들도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아이들은 말을 타고 오느라 배가 고팠고 정말로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으니 쉽게 달래졌다. 언쇼 씨는 고기를 썰어 접시마다 푸짐하게 담아 주었고, 마님은 쾌활한 이야기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마님 의자

뒤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캐서린이 눈물 한 방울 없이 무심한 얼굴로 제 앞에 놓인 거위 날개를 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정 없는 아이 같으니."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옛 놀이 동무의 괴로움을 저렇게 가볍게 털어 버리다니. 저렇게 이기적인 아이인 줄은 몰랐어." 아가씨는 한 입 떠서 입으로 가져가다가 도로 내려놓았고, 두 뺨이 붉어지더니 그 위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가씨는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북받친 마음을 감추려고 얼른 식탁보 밑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아가씨를 정 없는 아이라고 오래 부르지 않았다. 아가씨가 온종일 연옥에 있는 듯 괴로워하며, 혼자 있을 기회나 주인이 가둬 버린 히스클리프를 찾아가 볼 기회를 애타게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 애가 갇혀 있다는 것은 내가 남몰래 음식을 좀 갖다주려다가 알게 되었다.

저녁에는 춤판이 벌어졌다. 캐서린은 이저벨라 린턴에게 짝이 없으니 이제 그 애를 풀어 달라고 졸랐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내게 떨어졌다. 우리는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울적한 기분을 모두 털어 버렸고, 열다섯 명이나 되는 기머턴 악단이 찾아와 우리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노래하는 사람들 말고도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바순, 호른, 그리고 커다란 저음 현악기까지 있었다. 악단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면 점잖은 집을 빠짐없이 돌며 사례를 받는데, 우리는 그들의 연주를 듣는 것을 최고의 대접으로 여겼다. 늘 부르는 캐럴을 다 부르고 나자 우리는 그들에게 노래와 돌림노래를 청했고, 마님이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악단은 아낌없이 들려주었다.

캐서린도 음악을 좋아했지만 계단 꼭대기에서 들어야 가장 아름답게 들린다면서 어둠 속을 올라갔고, 나도 뒤따랐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아래층에서는 우리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큰방 문을 닫았다. 아가씨는 계단 꼭대기에 머물지 않고 더 올라가, 히스클리프가 갇힌 다락방까지

가서 그 애를 불렀다. 그 애는 한동안 고집스럽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가씨가 끈질기게 부르고 또 불러서 마침내 둘은 널빤지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노래가 곧 끝나고 노래꾼들이 다과를 들러 갈 때가 되었다 싶을 때까지 가엾은 두 아이가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 나서 아가씨에게 알리려고 사다리를 기어 올라갔는데, 바깥에 있어야 할 아가씨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그 꼬마 원숭이가 한 다락방의 천창으로 기어 나가 지붕을 타고 다른 다락방의 천창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나는 아가씨를 다시 꾀어 나오게 하느라 이만저만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아가씨가 나올 때 히스클리프도 함께 나왔고, 아가씨는 그 애를 부엌으로 데려가라고 나를 졸랐다. 마침 동료 하인은 우리의 '마귀의 찬송가', 그가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그 소리를 피해 이웃집에 가고 없었다. 나는 너희의 장난을 부추길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갇힌 아이가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은 그 애가 힌들리 도련님을 속이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고 했다. 그 애가 아래로 내려가자 나는 불가에 걸상을 놓아 주고 맛있는 것을 잔뜩 내주었지만, 그 애는 속이 메스꺼워서 별로 먹지 못했고 그 애를 달래려던 내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다. 그 애는 두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두 손으로 턱을 괸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그 애는 심각하게 대답했다. "힌들리한테 어떻게 갚아 줄지 정하는 중이야. 끝내 갚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리든 상관없어. 그놈이 내가 갚아 주기 전에 죽지만 않으면 좋겠어!"

"부끄러운 줄 알아, 히스클리프!" 내가 말했다. "못된 사람을 벌하는 건 하느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

"아니, 하느님은 내가 맛볼 만족을 맛보지 못하실 거야." 그 애가 맞받았다. "가장 좋은 방법만 알면 좋겠는데! 나를 내버려 둬. 내가 다

계획해 놓을 테니까.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아프지가 않아."

그런데 록우드 나리, 이런 이야기가 나리께 재미있을 리 없다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어쩌자고 이렇게 끝도 없이 수다를 떨 생각을 했는지 속이 상해요. 죽은 식어 버렸고 나리는 졸려서 꾸벅꾸벅하시는데요! 히스클리프의 내력은 나리께서 들으셔야 할 것만 추리면 대여섯 마디로 다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

가정부는 그렇게 스스로 말을 끊고 일어서서 바느질거리를 치우려 했다. 그러나 나는 화롯가에서 꼼짝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졸기는커녕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그대로 앉아 계시오, 딘 부인." 내가 외쳤다. "제발 반 시간만 더 앉아 계시오. 이야기를 느긋하게 들려준 건 아주 잘한 일이오. 나는 그런 이야기가 좋소. 끝까지 같은 투로 들려줘야 하오. 부인이 이야기한 인물들 하나하나에게 나는 많든 적든 다 흥미가 있소."

"시계가 곧 열한 시를 칠 거예요, 나리."

"상관없소. 나는 한밤중에 잠자리에 드는 버릇이 없소. 아침 열 시까지 누워 있는 사람한테는 새벽 한두 시도 이른 거요."

"열 시까지 누워 계시면 안 되지요. 아침 가운데 가장 좋은 때는 그보다 훨씬 전에 지나가 버리는걸요. 열 시까지 하루 일의 절반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절반도 못다 하고 남기기 십상이에요."

"그래도 딘 부인, 다시 앉으시오. 내일은 밤을 오후까지 늘일 작정이니까. 적어도 고약한 감기쯤은 걸리리라고 나 스스로 예언하는 바요."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나리. 그럼 한 세 해쯤은 건너뛰게 해 주셔야겠어요. 그동안 언쇼 부인은……"

"아니, 아니, 그런 건 하나도 허락 못 하오! 혼자 앉아 있는데 눈앞의 깔개 위에서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핥고 있으면, 그 일을 어찌나 골똘히 지켜보는지 어미가 한쪽 귀를 빼먹기라도 하면 정말로 기분이 상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아시오?"

"지독하게 게으른 마음 상태라고 하겠네요."

"천만에, 지칠 만큼 부지런한 마음 상태요.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상태이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이어 가시오. 이 지방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지니는 값어치란, 지하 감옥의 거미가 오두막의 거미보다 각자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지니는 값어치와 같은 것 같소. 그렇다고 그렇게 깊어진 매력이 순전히 구경하는 사람의 처지 때문만은 아니오. 이곳 사람들은 정말로 *더* 진지하게, 더 제 안에서 살고, 겉모습이나 변화나 바깥의 시시한 일에는 덜 매여 사오. 한 해를 넘긴 사랑 따위는 절대로 믿지 않던 나인데도, 여기서라면 평생 가는 사랑도 거의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드오. 한쪽은 배고픈 사람 앞에 요리 한 접시만 놓아 주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은 입맛을 그 한 접시에 다 쏟아 제대로 맛볼 수 있지. 다른 쪽은 프랑스 요리사들이 차려 놓은 식탁 앞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과 같소. 어쩌면 그 사람도 전체에서 그만큼 즐거움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요리는 그 사람의 눈과 기억에 티끌 하나에 지나지 않을 거요."

"아! 여기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른 데 사람들과 똑같아요." 딘 부인이 내 말에 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실례지만" 하고 내가 대꾸했다. "나의 좋은 친구여, 부인이야말로 그 말이 틀렸다는 뚜렷한 증거요. 대수롭지 않은 사투리 몇 가지를 빼면, 부인에게는 내가 부인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으레 있다고 여겨 온

몸가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소. 부인은 틀림없이 보통 하인들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요. 시시한 일로 삶을 흘려보낼 기회가 없었으니 곰곰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딘 부인이 웃었다.

"제가 차분하고 분별 있는 축에 든다고는 저도 자부해요." 부인이 말했다. "꼭 언덕에 묻혀 살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같은 얼굴들만 보고 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걸 봐 와서 그런 건 아니고, 따끔하게 단련을 받은 덕에 지혜가 좀 생겼지요. 그리고 록우드 나리, 저는 나리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서재에서 나리가 펼쳐 보실 책 가운데 제가 들여다보고 뭐라도 얻어 내지 않은 책은 없을 거예요. 저기 저 그리스어 책하고 라틴어 책 줄, 그리고 프랑스어 책 줄만 빼고요. 그래도 그 책들이 어느 게 어느 건지는 구별할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의 딸한테 그 이상은 바라실 수 없겠지요. 아무튼 진짜 수다쟁이답게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면 어서 계속하는 게 좋겠네요. 세 해를 건너뛰는 대신 이듬해 여름, 그러니까 거의 스물세 해 전인 1778년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만족할게요."

제8장

어느 화창한 6월 아침, 내가 처음으로 맡아 기른 귀여운 젖먹이이자 유서 깊은 언쇼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태어났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밭에서 건초를 거두느라 바쁘던 참에, 늘 아침을 날라 오던 계집아이가 여느 때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풀밭을 가로지르고 오솔길을 달려 올라오며 나를 불렀다.

"아이고, 아주 훌륭한 아기야!" 그 애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세상에 태어난 사내아이 가운데 제일 잘난 아기야! 그런데 의사 말이 마님은 곧 가실 거래. 벌써 몇 달째 폐병을 앓고 계셨대. 의사가 힌들리 나리한테 그러는 걸 들었어. 이제는 마님을 붙잡아 둘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가실 거래. 너 당장 집에 가야 해. 네가 아기를 맡아 기르는 거야, 넬리. 설탕하고 우유를 먹이고, 밤낮으로 돌보고. 내가 너였으면 좋겠다. 마님이 안 계시게 되면 아기는 다 네 차지일 테니까!"

"그런데 마님이 그렇게 위중하셔?" 나는 갈퀴를 내던지고 모자 끈을 매며 물었다.

"그런가 봐. 그래도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셔." 계집아이가 대답했다.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서 볼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 아기가 워낙 예뻐서 기뻐 어쩔 줄을 모르셔! 내가 마님이라면 절대 안 죽을 거야. 케네스가 뭐라든 아기 얼굴만 봐도 나을 거야. 난 그 사람한테 정말 화가 났어. 아처 아주머니가 그 꼬마 천사를 큰방에 계신 나리한테 안고 내려갔는데, 나리 얼굴이 막 환해지려는 참에 그 불길한

소리만 하는 영감이 나서더니 이러는 거야. '언쇼 씨, 부인이 살아서 이 아들을 남기고 가게 되었으니 축복이오. 부인이 처음 왔을 때 나는 오래 붙들어 두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소. 그리고 이제 말해 두어야겠는데, 아마 이번 겨울이 부인의 끝이 될 거요. 너무 마음 쓰고 애태우지 마시오. 어쩔 수 없는 일이오. 게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갈대 같은 처녀를 고르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나리는 뭐라고 하셨어?" 내가 물었다.

"욕을 하신 것 같아. 하지만 난 나리는 신경도 안 썼어. 아기를 보려고 목을 빼고 있었거든." 그러고는 다시 아기 이야기를 황홀하게 늘어놓기 시작했고, 나도 그 애 못지않게 마음이 달아올라 내 눈으로 아기를 보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힌들리를 생각하면 몹시 슬펐다. 도련님의 마음에는 아내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둘을 모실 자리밖에 없었고, 도련님은 둘 다 끔찍이 아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숭배했으니, 그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견딜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워더링 하이츠에 닿으니 도련님이 현관에 서 있었다. 나는 들어가면서 "아기는 어때요?" 하고 물었다.

"벌써 뛰어다닐 기세야, 넬!" 도련님이 밝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럼 마님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 말로는 마님이……"

"의사 따위는 빌어먹으라지!" 도련님이 얼굴을 붉히며 말을 끊었다. "프랜시스는 멀쩡해. 다음 주 이맘때면 씻은 듯이 나을 거야. 위층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말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가겠다고 전해 줘. 도무지 입을 다물지 않길래 나와 버렸어. 그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 케네스 선생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해."

내가 그 말을 언쇼 부인에게 전하자 부인은 들뜬 기분인 듯 즐겁게 대답했다. "말은 거의 안 했어요, 엘렌. 그런데 저 사람이 벌써 두 번이나 울면서 나가 버렸지 뭐예요. 좋아요,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전해

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을 보고 웃지 말라는 약속까지 한 건 아니에요!"

가엾은 사람! 죽기 일주일 전까지 그 쾌활한 마음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의 건강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아니 미친 듯이 우겼다. 케네스가 병이 이 지경에 이르면 약은 소용이 없으니 더 이상 왕진하느라 돈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경고하자, 도련님은 이렇게 쏘아붙였다. "필요 없다는 건 나도 아오. 그 사람은 멀쩡하니까. 당신이 더 돌봐 줄 필요는 없소! 그 사람은 처음부터 폐병 같은 건 앓지도 않았소. 열병이었고, 그것도 이제 나았소. 지금은 맥박도 나만큼 느리고 뺨도 나만큼 서늘하오."

도련님은 아내에게도 같은 말을 했고 아내도 그 말을 믿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던 참에 아주 가벼운 기침이 터졌고, 남편이 아내를 두 팔로 안아 일으키자 아내는 두 손으로 남편의 목을 감쌌는데, 그러고는 얼굴빛이 변하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계집아이가 짐작한 대로 아기 헤어턴은 온전히 내 손에 맡겨졌는데, 언쇼 씨는 아기가 건강해 보이고 우는 소리만 들리지 않으면 아기에 관해서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도련님 자신은 자포자기에 빠졌는데, 그의 슬픔은 울며 하소연하지 않는 종류의 슬픔이어서, 울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저주하고 대들며 하느님과 사람을 욕하고는 앞뒤 가리지 않는 방탕에 몸을 내맡겼다. 하인들은 그의 포악하고 못된 짓을 오래 견디지 못했고, 끝까지 남은 것은 조지프와 나 둘뿐이었다. 나는 내가 맡은 아기를 두고 떠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나리, 저는 도련님과 한 젖을 먹고 자란 사이라서 남보다 도련님의 행실을 쉽게 눈감아 주었거든요. 조지프는 소작인과 일꾼들 위에서 호령하려고

남았고, 또 꾸짖을 못된 짓이 넘쳐나는 곳에 있는 것이 그의 천직이었기 때문에 남았다.

주인의 못된 행실과 못된 친구들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에게 참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히스클리프를 대하는 꼴은 성인이라도 악마로 만들기에 넉넉했고, 정말로 그 무렵 그 아이는 무언가 악마 같은 것에 씐 것처럼 *보였다*. 그 애는 힌들리가 구제할 길 없이 타락해 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았고, 날이 갈수록 사나운 뚱함과 흉포함으로 이름이 났다. 우리 집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나는 그 반도 말할 수 없다. 부목사도 발길을 끊었고, 마침내는 에드거 린턴이 캐서린 아가씨를 찾아오는 것을 예외로 친다면 점잖은 사람이라곤 아무도 우리 집 근처에 오지 않게 되었다. 열다섯 살에 캐서린은 견줄 사람 하나 없는 이 고장의 여왕이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오만하고 고집 센 아가씨가 되고 말았다! 털어놓자면, 젖먹이 때가 지난 뒤로 나는 아가씨를 좋아하지 않았고 아가씨의 거만함을 꺾어 보려다 자주 아가씨를 약 올렸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나를 싫어하게 된 적은 없었다. 아가씨는 옛정에 놀랍도록 한결같아서, 히스클리프조차 아가씨의 마음을 변함없이 붙잡고 있었고, 젊은 린턴은 그 모든 우월함을 갖추고도 그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기가 어려웠다. 그분이 돌아가신 제 주인 나리예요. 벽난로 위에 걸린 게 그분 초상화고요. 예전에는 한쪽에 그분 초상화가, 다른 쪽에 마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마님 것은 치워 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은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잘 보이세요?

딘 부인이 촛불을 들어 올리자 부드러운 이목구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이츠의 젊은 부인과 아주 닮았지만 표정은 더 생각에 잠기고 다정했다.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밝은 빛깔의 긴 머리칼이 관자놀이에서 살짝 말려 있었고, 눈은 크고 진지했으며, 몸매는

우아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였다. 캐서린 언쇼가 이런 사람 때문에 첫 친구를 잊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았으나, 이 생김새에 걸맞은 마음을 지닌 이 사람이 내가 그려 보는 캐서린 언쇼 같은 여자를 좋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몹시 놀라웠다.

"아주 보기 좋은 초상화로군요." 내가 가정부에게 말했다. "닮았소?"

"네." 부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생기가 돌 때는 더 보기 좋으셨어요. 저건 평소 얼굴이에요. 대체로 패기가 모자란 분이셨지요."

캐서린은 다섯 주 동안 린턴네 집에 머문 뒤로 그 집 사람들과 계속 사귀어 왔다. 그 집 사람들 앞에서는 거친 면을 드러낼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한결같이 공손한 대접을 받는 곳에서 무례하게 구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알았으므로, 아가씨는 재치 있게 상냥한 태도로 늙은 내외를 저도 모르게 감쪽같이 속이고, 이저벨라의 감탄을 사고, 그 오빠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다. 야심이 가득한 아가씨였으니 처음부터 그런 성과가 우쭐했을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속일 생각은 딱히 없으면서도 두 얼굴을 갖게 되었다. 히스클리프를 '천박한 꼬마 불한당',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곳에서는 그 애처럼 굴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집에서는 비웃음만 살 예의범절을 차리거나 아무 칭찬도 명예도 가져다주지 않을 때 제멋대로인 성미를 누를 마음이 별로 없었다.

에드거 도련님은 드러내 놓고 워더링 하이츠를 찾아올 용기를 좀처럼 내지 못했다. 도련님은 언쇼의 평판이 무서워서 그와 마주치기를 꺼렸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한 정중하게 맞았다. 주인도 도련님이 왜 오는지 알았으므로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고, 상냥하게 굴 수 없을 때는 아예 자리를 피했다. 내 생각에 캐서린은 도련님이 거기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달갑지 않아 했는데, 아가씨는 꾀를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고 교태를 부린 적도 없었지만, 두

친구가 아예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했다. 히스클리프가 린턴 앞에서 그를 깔보는 말을 하면 아가씨는 린턴이 없을 때처럼 맞장구를 칠 수가 없었고, 린턴이 히스클리프를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놀이 동무를 깎아내리는 것쯤은 자기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가씨가 쩔쩔매는 모습과 남몰래 끙끙 앓는 고민을 보며 나는 자주 웃었는데, 아가씨는 내가 놀리지 못하게 감추려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심술궂게 들리겠지요. 하지만 아가씨가 워낙 거만해서, 혼이 좀 나서 겸손해지기 전에는 아가씨의 괴로움을 딱하게 여기는 게 정말로 불가능했어요. 마침내 아가씨는 마음을 꺾고 내게 털어놓으며 의지하게 되었는데, 상담 상대로 삼을 만한 사람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힌들리 도련님이 집을 비우자, 히스클리프는 그것을 핑계로 제멋대로 쉬기로 했다. 그때 그 애는 열여섯 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목구비가 못나지도 않았고 머리가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나 겉으로나 사람을 밀어내는 인상을 풍기는 재주가 있었다. 지금의 모습에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 그 무렵 그 애는 어려서 받은 교육의 덕을 다 잃어버린 뒤였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는 고된 일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한때 지녔던 배움에 대한 호기심도, 책과 학문에 대한 애정도 모두 꺼져 버렸다. 언쇼 어른이 귀애해 준 덕에 어린 시절 몸에 배었던 우월감도 어느새 시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애는 오랫동안 캐서린의 공부를 따라잡으려고 애쓰다가 말없이 쓰라리게 아쉬워하며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 때는 아주 완전히 들어 버려서, 어차피 예전 수준보다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자 한 걸음이라도 위로 올라가 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생김새도 마음이 망가지는 데 맞장구를 쳐서, 걸음걸이는 구부정해지고 얼굴은 천해 보였으며, 본디

말이 없던 성미는 거의 바보스러울 만큼 지나치게 남과 어울리지 않는 뚱함으로 부풀었다. 그리고 그 애는 몇 안 되는 아는 사람들에게서 존경보다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데 음울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캐서린과 그 애는 그 애가 일을 쉬는 짬이면 여전히 늘 붙어 다녔다. 그러나 그 애는 더 이상 말로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뜻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가씨가 소녀답게 다정하게 굴면 자기에게 그런 애정의 표시를 아낌없이 베풀어 봐야 아무 즐거움도 없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난 의심을 품고 움찔 물러났다. 앞서 말한 그날, 내가 캐서린 아가씨의 옷매무새를 거들고 있을 때 그 애가 큰방으로 들어와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가씨는 그 애가 놀 생각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온 집을 혼자 차지한 줄로 여겨서, 어떻게 해서인지 에드거 도련님에게 오빠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려 놓고 맞을 채비를 하던 참이었다.

"캐서린, 오늘 오후에 바빠?" 히스클리프가 물었다. "어디 가?"

"아니, 비가 오잖아."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럼 왜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어?" 그 애가 말했다. "아무도 안 오겠지?"

"내가 알기로는 없어." 아가씨가 더듬거렸다. "그런데 히스클리프, 넌 지금 밭에 나가 있어야 하잖아. 점심때가 지난 지 한 시간이나 됐어. 나간 줄 알았는데."

"힌들리가 그 저주받을 얼굴을 우리 앞에서 치워 주는 일은 흔치 않잖아." 그 애가 말했다. "오늘은 더 일 안 할 거야. 너하고 같이 있을래."

"아, 하지만 조지프가 이를 거야." 아가씨가 넌지시 말했다. "가는 게 좋을걸!"

"조지프는 페니스톤 바위산 저편에서 석회를 싣고 있어. 날이 저물어야 끝날 테니 절대 모를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 애는 어슬렁어슬렁 불가로 가서 앉았다. 캐서린은 손님이 들이닥치기 전에 길을 닦아 둘 필요가 있다고 여겼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이저벨라하고 에드거 린턴이 오늘 오후에 들르겠다고 했어." 아가씨가 1분쯤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비가 오니까 안 올 것 같기는 한데, 올지도 몰라. 그러면 너는 괜히 혼만 날지도 몰라."

"엘렌한테 너 바쁘다고 전하라고 해, 캐서린." 그 애는 고집을 부렸다. "그 한심하고 멍청한 친구들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마! 가끔은 그 애들이…… 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아니, 안 할래……"

"그 애들이 뭐?" 캐서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애를 바라보며 외쳤다. "아, 넬리!" 아가씨가 내 손에서 고개를 홱 빼며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머리를 빗어서 컬이 다 풀렸잖아! 됐어, 그만 내버려 둬. 무슨 불평을 하고 싶다는 거야, 히스클리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 벽에 걸린 달력이나 봐." 그 애는 창 가까이 걸린 액자 속의 커다란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가위표는 네가 린턴네 애들하고 보낸 저녁이고, 점은 나하고 보낸 저녁이야. 보여? 하루도 빠짐없이 표시해 놨어."

"그래, 아주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그런 걸 신경 쓰기라도 하는 것처럼!" 캐서린이 짜증 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나*는 신경 쓴다는 걸 보여 주려고."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그럼 내가 늘 너하고만 앉아 있어야 해?" 아가씨가 점점 더 짜증을 내며 따졌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를 즐겁게 해 주려고 네가 하는 말이나 하는 짓을 보면, 너는 벙어리나 갓난아기라도 다를 게 없어!"

"내가 말이 너무 없다거나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 캐서린!" 히스클리프가 몹시 흥분해서 외쳤다.

"아는 것도 없고 하는 말도 없으면 같이 있는 게 아니지." 아가씨가 웅얼거렸다.

동무는 벌떡 일어섰지만 제 감정을 더 드러낼 틈이 없었다. 바로 그때 판석 위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살며시 두드리고 젊은 린턴이 뜻밖의 부름을 받은 기쁨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내며 들어섰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들어오고 다른 친구는 나가는 그 순간, 캐서린은 틀림없이 두 친구가 얼마나 다른지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그 차이는 황량한 산골 탄광 지대에서 아름답고 기름진 골짜기로 옮겨 갈 때 보는 차이 같았고, 목소리와 인사하는 품도 생김새만큼이나 정반대였다. 도련님은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말했고, 낱말 하나하나를 나리처럼 발음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덜 투박하고 더 부드럽게요.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지요?" 도련님이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나는 찬장 저쪽 끝에서 접시를 닦고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아니에요." 캐서린이 대답했다. "넬리, 거기서 뭐 해?"

"제 일이요, 아가씨." 내가 대답했다. (힌들리 도련님이 린턴이 따로 찾아올 때면 언제든 내가 세 번째 사람으로 끼어 있으라고 일러 두었던 것이다.)

아가씨는 내 뒤로 다가와 화난 목소리로 속삭였다. "걸레 들고 썩 나가. 집에 손님이 와 있을 때는 하인이 손님 있는 방에서 문지르고 닦고 하는 게 아니야!"

"주인 나리가 안 계시니 마침 좋은 기회잖아요."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리는 제가 당신 앞에서 이런 걸 만지작거리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에드거 도련님은 틀림없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만지작거리는 게 싫어." 아가씨가 손님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거만하게 외쳤다. 히스클리프와 조금 다툰 뒤로 아직 평정을 되찾지 못한 것이다.

"죄송하게 됐네요, 캐서린 아가씨." 나는 그렇게 대꾸하고는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아가씨는 에드거가 못 볼 거라고 여기고 내 손에서 걸레를 낚아채더니, 내 팔을 오래 비틀며 아주 악랄하게 꼬집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아가씨를 좋아하지 않았고 가끔 아가씨의 허영심을 꺾어 주는 걸 오히려 즐겼는데, 게다가 몹시 아팠으므로 나는 무릎을 펴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 아가씨, 그건 아주 못된 짓이에요! 아가씨가 저를 꼬집을 권리는 없어요. 저는 이런 건 참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를 건드리지도 않았어, 이 거짓말쟁이!" 아가씨가 다시 꼬집고 싶어 손가락을 근질거리며, 분노로 귀까지 빨개진 채 외쳤다. 아가씨는 북받친 감정을 감출 줄을 도무지 몰라서, 화가 나면 늘 이마에서 목덜미까지 온 얼굴이 활활 타올랐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아가씨의 말을 반박할 뚜렷한 보랏빛 증거를 내보이며 맞받았다.

아가씨는 발을 구르며 잠깐 머뭇거리다가, 속에 든 못된 기운에 떠밀려 어쩔 수 없다는 듯 두 눈에 눈물이 고일 만큼 얼얼하게 내 뺨을 철썩 때렸다.

"캐서린, 이런! 캐서린!" 린턴이 끼어들었다. 자기의 우상이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잘못을 한꺼번에 저지른 데 몹시 놀란 것이다.

"나가, 엘렌!" 아가씨가 온몸을 떨며 되풀이했다.

어디든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 헤어턴이 내 곁 바닥에 앉아 있다가, 내 눈물을 보고는 저도 울기 시작하더니 '못된 캐서린 고모'를

탓하며 흐느꼈고, 그 바람에 아가씨의 분노가 그 불운한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아가씨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가엾은 아이의 얼굴이 새파래지도록 흔들어 댔고, 에드거는 아이를 구하려고 무심코 아가씨의 두 손을 붙잡았다. 순식간에 한 손이 비틀려 빠져나왔고, 깜짝 놀란 젊은이는 농담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손찌검이 제 귀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도련님은 질겁해서 물러섰고, 나는 헤어턴을 안아 들고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다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지켜보고 싶어서 사이 문을 열어 두었다. 모욕당한 손님은 창백한 얼굴에 입술을 떨며 모자를 놓아 둔 자리로 갔다.

"옳지!" 나는 속으로 말했다. "정신 차리고 어서 가시라고요! 아가씨의 진짜 성미를 슬쩍이라도 보게 된 게 다행이에요."

"어디 가요?" 캐서린이 문으로 다가서며 따졌다.

도련님은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 했다.

"가면 안 돼요!" 아가씨가 힘주어 외쳤다.

"가야 해요. 갈 거예요!" 도련님이 억누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돼." 아가씨가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고집을 부렸다. "아직은 안 돼, 에드거 린턴. 앉아. 나를 이런 기분으로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러면 나는 밤새 비참할 거고, 너 때문에 비참해지기는 싫어!"

"당신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린턴이 물었다.

캐서린은 말이 없었다.

"당신 때문에 무섭고 부끄러워졌어요." 도련님이 말을 이었다.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어요!"

아가씨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게다가 일부러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도련님이 말했다.

"안 했어!" 아가씨가 다시 말문이 트여 외쳤다. "일부러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꺼져 버려! 이제 나는 울 거야. 앓아누울 때까지 울 거야!"

아가씨는 의자 옆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정말로 섧게 울기 시작했고, 에드거는 마당까지는 굳게 마음먹은 대로 나갔지만 거기서 머뭇거렸고, 나는 도련님을 부추겨 주기로 했다.

"아가씨는 지독하게 제멋대로예요, 도련님."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버릇없이 자란 어느 아이 못지않게 고약하시니까, 어서 말을 타고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가씨는 그저 우리 속을 태우려고 앓아누울 테니까요."

그 물러 터진 도련님은 창 너머로 곁눈질을 했는데, 고양이가 반쯤 죽인 쥐나 반쯤 먹은 새를 두고 떠날 수 있는 만큼밖에 도련님에게는 떠날 힘이 없었다. 아, 저 도련님은 구할 길이 없겠구나, 운명이 정해졌고 제 발로 그 운명을 향해 날아가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그랬다. 도련님은 홱 돌아서서 서둘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얼마 뒤 내가 언쇼가 미친 듯이 취해서 집을 통째로 무너뜨릴 기세로 돌아왔다고 알리러 들어갔을 때(그 꼴이 되면 늘 그런 기세였다), 나는 그 다툼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툼이 젊은 수줍음의 바깥 성벽을 허물어서, 두 사람은 우정이라는 탈을 벗어 던지고 서로 연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힌들리 도련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린턴은 서둘러 말에게로, 캐서린은 제 방으로 달아났다. 나는 어린 헤어턴을 숨기러 갔고, 미친 듯이 흥분하면 가지고 노는 버릇이 있어서 자기를 성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눈에 띄게 구는 사람은 누구든 목숨이 위태롭게 만드는 주인의 엽총에서 산탄을 빼냈다. 정말로 방아쇠를 당기는 데까지 가더라도 해를 덜 끼치게 산탄을 빼 두는 꾀를 냈던 것이다.

제9장

도련님은 듣기에도 끔찍한 욕설을 고래고래 내지르며 들어왔고, 내가 아들을 부엌 찬장 속에 숨기려던 참에 딱 들켜 버렸다. 헤어턴은 아버지의 짐승 같은 귀여움과 미친 사람 같은 분노 어느 쪽과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한쪽을 만나면 숨이 막히도록 끌어안기고 입맞춤을 당해 죽을 판이었고 다른 쪽을 만나면 불속에 내던져지거나 벽에 패대기쳐질 판이었으니, 가엾은 아이는 내가 어디에 두든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

"옳지, 드디어 찾아냈다!" 힌들리가 개를 끌듯 내 목덜미 살가죽을 잡아당기며 외쳤다. "하늘과 지옥에 맹세코, 너희가 짜고서 저 아이를 죽이기로 한 거지! 저 녀석이 왜 늘 내 눈앞에 안 보이는지 이제야 알겠지만,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기 써는 칼을 네 목구멍에 쑤셔 넣고 말 테다, 넬리! 웃을 일이 아니야. 방금 케네스를 블랙호스 늪에 거꾸로 처박아 놓고 왔으니까. 둘이나 하나나 마찬가지야. 너희 가운데 누구든 몇은 죽여야겠어. 그러기 전에는 쉴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고기 써는 칼이 싫은데요, 힌들리 나리." 내가 대답했다. "그걸로 훈제 청어를 썰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차라리 총을 맞을래요."

"차라리 지옥에나 떨어져라!" 도련님이 말했다. "그래, 떨어지게 해 주지. 잉글랜드의 어떤 법도 제 집을 깨끗이 지키겠다는 사람을 막지는 못해. 그런데 내 집은 엉망이야! 입 벌려."

도련님은 칼을 손에 쥐고 칼끝을 내 이 사이로 밀어 넣었지만, 나로서는 도련님의 미친 짓이 그다지 무섭지 않아서 퉤 뱉어 내고는 맛이 지독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먹겠다고 우겼다.

"아!" 도련님이 나를 놓아주며 말했다. "보아하니 저 흉측한 꼬마 악당은 헤어턴이 아니구나. 미안하게 됐다, 넬. 하지만 만약 헤어턴이라면 날 반기러 달려오지도 않고 내가 무슨 도깨비라도 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니 산 채로 가죽을 벗겨도 싸지. 이리 와, 이 천륜도 모르는 새끼야! 착하고 속아 넘어가는 아비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마. 그런데 이 녀석, 귀를 잘라 주면 더 잘생겨 보이지 않겠어? 개도 귀를 자르면 더 사나워지는데, 나는 사나운 게 좋거든. 가위 좀 가져와. 사납고 말쑥한 게 좋아! 게다가 귀를 애지중지하는 건 지옥 같은 허세야. 악마 같은 자만이지. 귀가 없어도 우린 이미 충분히 당나귀야. 쉿, 얘야, 쉿! 그래, 그래, 내 귀염둥이지! 뚝, 눈물 닦아라. 착하지. 뽀뽀해 줘. 뭐! 안 해? 뽀뽀해, 헤어턴! 빌어먹을, 뽀뽀하란 말이야! 맙소사, 내가 이런 괴물을 기를 줄이야!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새끼 목을 부러뜨리고 말 테다."

가엾은 헤어턴은 아버지 품에서 있는 힘껏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쳤고, 아버지가 저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가 난간 너머로 쳐들자 울음소리가 갑절로 커졌다. 나는 아이가 겁에 질려 경기를 일으키겠다고 외치며 아이를 구하러 달려갔는데, 내가 다다랐을 때 힌들리는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난간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도 거의 잊은 듯했다. "누구냐?" 누군가 계단 밑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도련님이 물었다. 발소리로 히스클리프라는 것을 알아들은 나도 더 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데, 내 눈이 헤어턴에게서 떨어진 바로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몸을 홱 튕겨 저를 붙잡고 있던 무심한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더니 아래로 떨어졌다.

공포로 오싹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 작은 것이 무사하다는 것을 보았다. 히스클리프가 바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밑에 다다라,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 세워 놓고는 누가 이런 사고를 냈는지 알아보려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당첨될 복권을 5실링에 팔아넘겼다가 이튿날 그 거래로 5천 파운드를 날렸다는 것을 안 구두쇠라도, 위층에 선 언쇼 씨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애가 지은 얼굴보다 더 멍한 얼굴을 짓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얼굴에는 제 손으로 제 복수를 망쳐 버린 데 대한 지독한 괴로움이 어떤 말보다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으니, 어두웠다면 아마 그 애는 헤어턴의 머리통을 계단에 내리찍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고, 나는 곧 그 소중한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아래층에 내려가 있었으며, 힌들리는 술이 깨고 머쓱해진 얼굴로 더 느릿느릿 내려왔다.

"네 탓이야, 엘렌." 도련님이 말했다. "아이를 내 눈에 안 띄게 했어야지. 나한테서 빼앗아 갔어야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다쳤냐고요!" 나는 화가 나서 외쳤다. "죽지 않았으면 바보가 될 거예요! 아! 이 애 엄마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리가 이 애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에요. 나리는 이교도보다 더하세요. 제 핏줄을 그런 꼴로 다루시다니!"

도련님이 아이를 만지려 했다. 아이는 내 품에 안긴 것을 알자 금세 울음을 그치고 무서움을 떨쳐 냈는데,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를 대자마자 아까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며 경기라도 일으킬 듯 버둥거렸다.

"이 애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말을 이었다. "이 애는 나리를 싫어해요. 다들 나리를 싫어하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행복한 집안을 두셨네요. 참 꼴좋게 되셨어요!"

"앞으로 더 꼴좋게 될 거다, 넬리." 그 길 잃은 사내는 다시 독한 기색을 되찾으며 웃었다. "지금은 너하고 그 애하고 썩 꺼져. 그리고 잘 들어, 히스클리프! 너도 내 손이 닿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데로 꺼져. 오늘 밤엔 너를 죽이지 않으마. 혹시 집에 불을 지르게 되면 모를까. 그건 내 기분에 달렸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도련님은 찬장에서 브랜디 한 병을 꺼내 큰 잔에 따랐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애원했다. "힌들리 나리,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리 자신은 아무래도 좋다 하시더라도 이 불운한 아이를 불쌍히 여기세요!"

"누가 맡든 나보다는 잘 기를 거다." 도련님이 대답했다.

"나리 영혼이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도련님 손에서 잔을 빼앗으려 애쓰며 말했다.

"싫다! 오히려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서 그걸 만든 이를 벌하는 게 아주 즐겁겠어." 그 불경한 사내가 외쳤다. "내 영혼이 흠뻑 저주받기를 빌며 건배!"

도련님은 술을 들이켜고는 어서 나가라고 성마르게 우리를 재촉했는데, 그 명령 끝에 되풀이하기도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저주를 줄줄이 덧붙였다.

"술로 제 목숨을 끊지 못하니 안됐군." 문이 닫히자 히스클리프가 저주를 메아리처럼 되받아 웅얼거리며 말했다. "있는 힘을 다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케네스 선생은 자기 암말을 걸고 내기해도 좋다더라. 무슨 예사롭지 않은 운 좋은 일이라도 저놈한테 닥치지 않는다면, 저놈은 기머턴 이쪽의 어떤 사람보다 오래 살아서 백발의 죄인이 되어 무덤에 갈 거라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내 어린 양을 재우려고 앉았다. 히스클리프는 내 생각에 헛간으로 나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는 긴 의자 저편까지만 가서 불에서 떨어진 벽 쪽 걸상에 몸을 던지고는 말없이 거기 있었다.

나는 헤어턴을 무릎에 올려 흔들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깊은 밤 아기들이 울었네, 흙 밑에 누운 어미가 그 소리를 들었네,

그때 제 방에서 그 소동을 듣고 있던 캐서린 아가씨가 고개를 들이밀고 속삭였다. "혼자야, 넬리?"

"네, 아가씨." 내가 대답했다.

아가씨는 들어와서 난롯가로 다가왔다. 나는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려나 보다 하고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의 얼굴은 어지럽고 근심스러워 보였고,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반쯤 벌어져 숨을 한 번 들이쉬었지만, 그 숨은 말 대신 한숨이 되어 새어 나왔다. 아가씨가 조금 전에 한 짓을 아직 잊지 않았으므로 나는 노래를 다시 이어 불렀다.

"히스클리프는 어디 있어?" 아가씨가 내 노래를 끊고 물었다.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 애는 내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아마 깜빡 잠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한참 말이 끊겼는데, 그사이 바닥에 앉은 캐서린의 뺨에서 눈물 한두 방울이 판석 위로 똑똑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부끄러운 짓을 한 게 미안한 걸까? 나는 속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처음 있는 일이지.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 마음대로 꺼내라지, 나는 거들어 주지 않을 테다! 아니었다. 아가씨는 제 일 말고는 어떤 일에도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아, 어쩌면 좋아!" 마침내 아가씨가 외쳤다. "나 너무 불행해!"

"안됐네요." 내가 말했다. "아가씨는 비위 맞추기가 어려우셔요. 친구는 그렇게 많고 걱정거리는 그렇게 적은데도 만족을 못 하시니!"

"넬리, 내 비밀 하나 지켜 줄래?" 아가씨가 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리 화를 낼 권리가 있어도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마는 그런 눈빛으로 매혹적인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킬 만한 비밀이에요?" 나는 아까보다 덜 뚱하게 물었다.

"응, 그 비밀 때문에 속이 타서 털어놓아야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 오늘 에드거 린턴이 나한테 결혼해 달라고 했고 나는 대답을 했는데, 내가 승낙했는지 거절했는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어느 쪽이었어야 하는지 말해 줘."

"정말이지, 캐서린 아가씨,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기야 오늘 오후 도련님 앞에서 보여 주신 그 구경거리를 생각하면 거절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그런 꼴을 보고도 청혼을 했다면 그 도련님은 구제 불능의 멍청이거나 무모한 바보일 테니까요."

"그렇게 말할 거면 더는 얘기 안 할래." 아가씨가 토라져서 일어서며 대꾸했다. "나는 승낙했어, 넬리. 빨리, 내가 잘못했는지 말해 줘!"

"승낙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와서 따져서 뭐 해요? 약속을 하셨으니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랬어야 했는지 말해 줘. 어서!" 아가씨가 두 손을 비비고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따져 볼 게 많아요." 나는 점잔을 빼며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에드거 도련님을 사랑하세요?"

"누군들 안 사랑하겠어? 물론 사랑하지."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에게 다음과 같이 교리 문답을 시켰는데, 스물두 살 처녀가 하는 문답치고는 제법 분별 있는 문답이었다.

"왜 도련님을 사랑하세요, 캐서린 아가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천만에요. 왜 그런지 말씀하셔야 해요."

"그야, 잘생겼고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나빠요!" 내가 토를 달았다.

"그리고 젊고 쾌활하니까."

"그것도 나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건 그저 그래요, 이제야 나오네요."

"그리고 부자가 될 테고, 나는 이 근방에서 제일가는 여자가 되는 게 좋을 테고, 그런 남편을 둔 게 자랑스러울 테니까."

"그게 제일 나빠요. 자,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남들이 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넌 바보 같아, 넬리."

"전혀요. 대답하세요."

"나는 그 사람이 딛고 선 땅도, 그 사람 머리 위의 공기도, 그 사람 손이 닿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사랑하고, 그 사람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그 사람을 통째로 송두리째 사랑해. 자, 됐지!"

"그럼 왜요?"

"아니, 넌 지금 놀리고 있어. 정말 심술궂다! 나한테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젊은 아가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는 장난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캐서린 아가씨." 내가 대답했다. "아가씨는 에드거 도련님이 잘생기고, 젊고, 쾌활하고, 부자이고,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도련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것은 쳐 줄 게 못 되는 게, 그게 없어도 아가씨는 아마 도련님을 사랑하실

테고, 앞의 네 가지 매력이 없다면 그게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 물론 사랑하지 않겠지. 그 사람이 못생기고 촌뜨기라면 그저 불쌍히 여기기나 하겠지. 어쩌면 미워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세상에는 잘생기고 부자인 젊은이가 몇이고 더 있어요. 어쩌면 도련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부자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까닭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내 눈앞에는 없어. 에드거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보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련님이 언제까지나 잘생기고 젊지는 않을 테고, 언제까지나 부자로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만 상관하면 돼. 제발 이치에 맞게 말 좀 해."

"좋아요, 그럼 결론이 났네요. 지금만 상관하면 된다면 린턴 도련님과 결혼하세요."

"그러는 데 네 허락은 필요 없어.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런데 넌 아직 내가 옳은지 말해 주지 않았잖아."

"아주 옳아요. 사람이 지금만 보고 결혼하는 게 옳다면요. 자, 이제 무엇 때문에 불행하신지 들어 보죠. 오빠는 기뻐하실 거고 그 집 노부부도 반대하지 않으실 테니, 아가씨는 어지럽고 정 붙일 데 없는 집에서 벗어나 부유하고 번듯한 집으로 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에드거를 사랑하고 에드거는 아가씨를 사랑하잖아요. 다 순조롭고 수월해 보이는데, 걸림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캐서린이 한 손으로는 이마를,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치며 대답했다. "영혼이 어디에 살든 그곳에. 내 영혼으로도 내 가슴으로도,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확신해!"

"그것참 이상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비밀이야. 하지만 비웃지 않겠다면 설명해 줄게. 똑똑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내 기분이 어떤지 느끼게는 해 줄게."

아가씨는 다시 내 곁에 앉았다. 얼굴은 더 슬프고 심각해졌고, 깍지 낀 두 손이 떨렸다.

"넬리, 너는 이상한 꿈 같은 거 안 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아가씨가 불쑥 말했다.

"가끔 꿔요." 내가 대답했다.

"나도 그래. 나는 살면서 그 뒤로 영영 나한테 붙어 남아 내 생각을 바꿔 놓은 꿈들을 꾸었는데, 물속에 포도주가 번지듯 그 꿈들이 나를 꿰뚫고 스며들어 내 마음의 빛깔을 바꿔 놓았어. 이것도 그런 꿈이야. 지금 얘기할 건데, 어느 대목에서도 웃지 않도록 조심해."

"아! 그러지 마세요, 캐서린 아가씨!" 내가 외쳤다. "유령이며 환상까지 불러내서 머리를 어지럽히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울적해요. 자, 자, 즐겁게, 아가씨답게 지내세요! 어린 헤어턴 좀 보세요! *이 애*는 울적한 꿈 같은 건 하나도 안 꾸잖아요. 자면서 어쩜 저렇게 예쁘게 웃는지!"

"그래. 그리고 이 애 아버지는 혼자 있을 때 어쩜 저렇게 예쁘게 저주를 퍼붓는지! 너도 기억하겠지만, 그 사람도 한때는 저 통통한 꼬마랑 똑같았잖아. 거의 저만큼 어리고 순진했지. 아무튼 넬리, 너는 들어야 해. 길지 않아.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즐거워질 힘이 없어."

"안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나는 서둘러 되풀이했다.

그때 나는 꿈에 관해서는 미신을 믿었고 지금도 그렇다. 게다가 캐서린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른 어두운 기색이 서려 있어서, 내가 그 꿈에서 무슨 예언을 끌어내고 무시무시한 파국을 내다보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아가씨는 언짢아했지만 꿈 이야기를 이어 가지는

않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더니 잠시 뒤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넬리, 나는 지독하게 비참할 거야."

"아가씨는 거기 갈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죄인이라면 누구든 천국에서 비참할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야. 한번은 내가 거기 있는 꿈을 꾸었어."

"꿈 얘기는 안 듣겠다고 했잖아요, 캐서린 아가씨! 저는 자러 갈래요." 나는 다시 아가씨의 말을 끊었다.

아가씨는 웃으며 나를 붙잡아 앉혔다.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몸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씨가 외쳤다. "그냥 천국이 내 집 같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던 거야.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게 울었더니, 천사들이 몹시 화가 나서 나를 워더링 하이츠 꼭대기 히스 벌판 한가운데로 내던졌고, 거기서 나는 기뻐서 흐느끼며 깨어났어. 그 꿈이면 다른 꿈 못지않게 내 비밀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천국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에드거 린턴과 결혼할 자격도 없는데, 저 안에 있는 못된 인간이 히스클리프를 그렇게 바닥까지 끌어내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나는 천해질 거야. 그러니 그 애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영 모를 거야. 그것도 그 애가 잘생겨서가 아니야, 넬리. 그 애가 나보다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그 애 영혼과 내 영혼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린턴의 영혼은 달빛과 번개가 다르듯, 서리와 불이 다르듯 우리 영혼과 달라."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히스클리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무언가 살짝 움직이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니 그 애가 걸상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애는

캐서린이 자기와 결혼하면 천해질 거라고 말하는 데까지 듣고는 그 뒤는 더 듣지 않고 나가 버렸다. 바닥에 앉아 있던 내 동무는 긴 의자 등받이에 가려서 그 애가 있었는지도, 나갔는지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는 흠칫 놀라 아가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왜?" 아가씨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조지프가 왔어요." 마침 길을 올라오는 짐수레 바퀴 소리를 들은 나는 얼른 그렇게 대답했다. "히스클리프도 함께 들어올 거예요. 어쩌면 방금 문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문간에서 내 말을 엿들었을 리는 없어!" 아가씨가 말했다. "네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헤어턴은 나한테 줘. 그리고 다 차려지면 같이 먹자고 불러 줘. 이 불편한 양심을 속이고, 히스클리프가 이런 일은 꿈에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싶어. 모르겠지, 그렇지? 그 애는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뭔지도 모를 거야!"

"아가씨만큼 그 애가 모를 까닭은 없다고 봐요." 내가 맞받았다. "그리고 그 애가 고른 사람이 *아가씨*라면, 그 애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가씨가 린턴 부인이 되는 순간 그 애는 친구도, 사랑도, 모든 걸 잃게 돼요! 그렇게 헤어지는 걸 아가씨가 어떻게 견딜지, 세상에 완전히 버림받은 그 애가 어떻게 견딜지 생각은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캐서린 아가씨……"

"그 애가 완전히 버림받는다고! 우리가 헤어진다고!" 아가씨가 분개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체 누가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밀로[1]꼴이 날 거야!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어, 엘렌. 어떤 인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히스클리프를 버리는 데 동의하느니 이 땅 위의 린턴이란 린턴은 다 녹아 없어지는 게 나아. 아,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나는 린턴 부인이 되지 않을 거야! 그 애는 지금까지 평생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나한테

소중할 거고, 에드거는 그 애를 싫어하는 마음을 털어 버리고 적어도 참아 주기는 해야 해. 내가 그 애를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렇게 할 거야. 넬리, 지금 네가 나를 이기적인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 그래도 넌 히스클리프와 내가 결혼하면 우리가 거지 신세가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해 봤어? 반대로 내가 린턴과 결혼하면 히스클리프가 일어서도록 돕고, 우리 오빠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잖아."

"남편 돈으로요, 캐서린 아가씨?" 내가 물었다. "도련님이 아가씨 셈만큼 그렇게 고분고분하지는 않을걸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처지는 못 되지만, 젊은 린턴 도련님의 아내가 되려는 이유 가운데 그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나쁜 이유 같아요."

"아니야." 캐서린이 쏘아붙였다. "그게 제일 좋은 이유야! 다른 이유들은 내 변덕을 채우려는 거였고, 에드거를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채워 주려는 거기도 했어. 이건 에드거를 향한 내 마음도, 나 자신을 향한 내 마음도 제 몸 하나에 다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야. 말로는 못 하겠어. 그래도 너도, 누구라도 어렴풋이는 알잖아. 내 바깥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걸, 아니 있어야 한다는 걸. 내가 여기 이 몸 안에 다 들어 있다면 나를 지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세상에서 내가 겪은 큰 괴로움은 모두 히스클리프의 괴로움이었고, 나는 그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지켜보며 같이 느꼈어. 내가 살아가며 붙드는 큰 생각은 바로 그 애야. 다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애*가 남아 있으면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남아 있어도 그 애가 없어진다면, 온 세상이 나한테는 엄청나게 낯선 것으로 변해 버릴 테고 나는 그 일부로 보이지도 않을 거야. 린턴을 향한 내 사랑은 숲의 나뭇잎 같아. 겨울이 나무를 바꾸듯 세월이 그 사랑을 바꿔 놓으리라는 걸 나도 잘 알아. 히스클리프를 향한 내 사랑은 그 밑에 놓인 영원한 바위를 닮았어.

눈에 보이는 기쁨은 거의 주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넬리, 내가 곧 히스클리프야! 그 애는 언제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즐거움으로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나 자신한테 늘 즐거움은 아니잖아. 그 애는 바로 나 자신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헤어진다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마. 그건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가씨는 말을 멈추고 내 치맛자락 주름 속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나 나는 치맛자락을 홱 잡아 뺐다. 아가씨의 어리석음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가씨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가운데서 뜻을 좀 건져 보자면요, 아가씨." 내가 말했다. "그 말씀은 아가씨가 결혼하면서 떠맡게 될 의무가 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 못되고 지조 없는 아가씨라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더는 저한테 그런 비밀을 털어놓아 괴롭히지 마세요. 지켜 드린다는 약속은 안 할 거예요."

"방금 그 얘기는 지켜 줄 거지?" 아가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요, 약속 안 해요." 나는 되풀이해 말했다.

아가씨가 막 더 조르려는데 조지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이야기는 끝이 났고, 캐서린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헤어턴을 안고 어르고, 나는 저녁을 지었다. 저녁이 다 되자 동료 하인과 나는 누가 힌들리 도련님에게 저녁을 갖다 드릴지를 두고 옥신각신했고, 음식이 거의 다 식을 때까지도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도련님이 한동안 혼자 있고 난 뒤에는 그 앞에 나서기가 유난히 무서웠으므로, 도련님이 원하면 달라고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합의를 보았다.

"그 쓸모없는 놈은 어째서 여태 밭에서 안 들어오는 겨? 뭘 하고 자빠졌대? 저 빈둥빈둥 노는 꼴 좀 봐!" 노인이 히스클리프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따졌다.

"내가 불러올게." 내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헛간에 있을 거야."

나는 가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돌아와서 나는 캐서린에게 히스클리프가 아가씨 말을 꽤 많이 들은 게 틀림없다고 속삭이고, 아가씨가 오빠가 그 애를 어떻게 대했는지 탓하던 바로 그때 그 애가 부엌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일러 주었다. 아가씨는 몹시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왜 그렇게 허둥대는지, 자기가 한 말이 그 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헤어턴을 긴 의자에 내던지고 몸소 동무를 찾으러 달려 나갔다. 아가씨가 어찌나 오래 돌아오지 않던지 조지프는 더 기다리지 말자고 했다. 조지프는 그 애들이 자기의 긴 식전 기도를 듣기 싫어서 일부러 안 들어오는 거라고 약삭빠르게 짐작하면서, 그것들은 '어떤 못된 짓이든 하고도 남을 만큼 고약하다'고 단언했다. 그러고는 그날 밤 그 애들을 위해 늘 하던 15분짜리 식전 기도에 특별 기도 하나를 덧붙였고, 식사 감사 기도 끝에도 하나 더 붙이려 했다. 그런데 젊은 마님이 끼어들어, 당장 길로 달려 내려가 히스클리프가 어디를 헤매고 있든 찾아서 곧장 데려오라고 다급하게 명령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그 애한테 할 말이 있어. 위층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해." 아가씨가 말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려 있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 있나 봐. 가축 우리 꼭대기에서 있는 힘껏 소리쳐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했거든."

조지프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아가씨가 너무나 진지해서 대꾸를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모자를 쓰고 투덜거리며 걸어 나갔다. 그사이 캐서린은 마룻바닥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외쳤다. "그 애가 어디 있을까. 대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넬리? 잊어버렸어. 오늘 오후에 내가 성질부린 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애를 속상하게 했는지 말해 줘! 그 애가 왔으면 좋겠어. 정말 왔으면 좋겠어!"

"별것도 아닌 일로 웬 법석이세요!" 나도 꽤 불안하면서도 이렇게 외쳤다.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놀라시다니요! 히스클리프가 달빛 아래 황야를 한 바퀴 거닐고 있든, 아니면 너무 토라져서 건초 다락에 누워 우리한테 말도 안 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거기 숨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보세요!"

나는 다시 찾으러 나갔지만 헛걸음이었고, 조지프가 찾아다닌 것도 마찬가지로 끝났다.

"저 녀석은 갈수록 고약해지는구먼!" 조지프가 다시 들어오며 말했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혀 놔서 아가씨 조랑말이 밀밭 두 두렁을 짓밟고 허우적허우적 곧장 풀밭까지 건너갔구려! 허나 두고 보시오, 내일 쥔 양반이 아주 난리를 칠 거고, 그래도 싸지. 쥔 양반은 저런 칠칠맞고 막돼먹은 것들한테 참을성 그 자체여. 참을성 그 자체라니께. 허나 늘 그렇지는 않을 거여. 두고 보면 다들 알게 될 거구먼! 괜히 쥔 양반 정신을 쏙 빼놓으면 못써!"

"히스클리프는 찾았어, 이 멍청이야?" 캐서린이 말을 끊었다. "내가 시킨 대로 그 애를 찾아보긴 했어?"

"차라리 말을 찾아보는 게 나았겄소." 조지프가 대답했다. "그게 더 이치에 맞지. 허나 이렇게 굴뚝처럼 시커먼 밤에는 말이고 사람이고 찾을 수가 없구먼! 게다가 히스클리프는 *내* 휘파람 소리에 올 놈이 아니여. 어쩌면 *아가씨* 소리는 덜 못 알아들을지도 모르지!"

여름치고는 정말로 *몹시* 어두운 저녁이어서, 구름은 곧 천둥을 칠 기세였고, 나는 비가 쏟아지면 더 애쓰지 않아도 틀림없이 그 애가 집으로 돌아올 테니 다들 그냥 앉아 있자고 했다. 그러나 캐서린은 아무리 달래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 잠시도 쉬지 못할 만큼 안절부절못하며 대문에서 현관까지 이리저리 헤매다니더니, 마침내 길 가까운 담장 한쪽에 아예 자리를 잡고 섰다. 아가씨는 내가 아무리

말려도, 천둥이 우르릉거리고 굵은 빗방울이 둘레에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 서서, 이따금 그 애를 부르고는 귀를 기울이다가 엉엉 울었다. 한바탕 격렬하게 우는 데에는 아가씨가 헤어턴이든 어떤 아이든 다 이겼다.

자정 무렵, 우리가 아직 깨어 앉아 있는데 폭풍이 맹렬한 기세로 하이츠를 덮쳤다. 천둥만이 아니라 사나운 바람까지 몰아쳤는데, 둘 중 어느 것이 그랬는지 건물 모퉁이의 나무 한 그루가 쪼개지면서 커다란 가지가 지붕을 가로질러 떨어져 동쪽 굴뚝 한쪽을 무너뜨렸고, 돌과 그을음이 부엌 화덕 속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우리는 벼락이 우리 한가운데 떨어진 줄 알았고, 조지프는 털썩 무릎을 꿇고, 주께서 노아와 롯 같은 족장들을 기억하시어 예전처럼 불경한 자들은 치시더라도 의로운 자들은 살려 주시라고 빌었다. 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내린 심판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요나는 언쇼 도련님이었으므로, 나는 도련님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소굴의 문손잡이를 흔들었다. 도련님은 똑똑히 들릴 만큼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어찌나 고약했던지 내 동무는 자기 같은 성인과 주인 같은 죄인 사이에는 넓디넓은 차이가 있다고 아까보다 더 요란하게 외쳤다. 그러나 소동은 20분 만에 지나가고 우리는 모두 무사했다. 캐서린만은 예외였는데, 고집을 부리며 비를 피하려 들지 않고 모자도 숄도 없이 서서 머리칼과 옷으로 빗물을 할 수 있는 한 다 받아 내는 바람에 흠뻑 젖고 말았다. 아가씨는 들어오더니 젖은 몸 그대로 긴 의자에 누워, 얼굴을 등받이 쪽으로 돌리고 두 손으로 가렸다.

"아이고, 아가씨!" 나는 아가씨의 어깨를 건드리며 외쳤다. "죽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겠지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열두 시 반이에요. 자, 자, 주무세요! 그 어리석은 아이를 더 기다려 봐야 소용없어요. 기머턴으로 갔을 테고, 이제는 거기서 묵을 거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겠지요. 아니, 적어도 힌들리 도련님만 깨어 있을 거라고 짐작하겠고, 주인이 문을 열어 주는 일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여, 아니여, 그놈은 기머턴에 없구먼." 조지프가 말했다. "늪 구덩이 바닥에 처박혀 있다 해도 난 놀라지 않겠소. 이번 심판은 괜히 내린 게 아니여. 아가씨도 조심하는 게 좋겠소. 다음은 아가씨 차례일지도 모르니.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할지어다! 택함을 받아 쓰레기 더미에서 골라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성경에 뭐라고 쓰였는지 다들 알잖소." 그러고는 성경 구절을 여럿 인용하기 시작하더니, 그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까지 일러 주었다.

나는 고집 센 아가씨에게 일어나 젖은 옷을 벗으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므로, 설교하는 조지프와 덜덜 떠는 아가씨를 두고 어린 헤어턴을 데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헤어턴은 주위 사람들이 다 잠든 것처럼 곤히 잤다. 그 뒤로도 한동안 조지프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사다리를 오르는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렸고, 그러고는 나도 잠이 들었다.

여느 때보다 좀 늦게 내려와 보니, 덧문 틈새로 비쳐 드는 햇살 속에 캐서린 아가씨가 아직도 벽난로 가까이 앉아 있었다. 큰방 문도 조금 열려 있었고 닫지 않은 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힌들리가 나와서 초췌하고 졸린 얼굴로 부엌 화로 앞에 서 있었다.

"어디 아프냐, 캐서린?" 내가 들어서자 도련님이 말하고 있었다.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처량해 보이는구나. 왜 그렇게 축축하고 창백하냐, 얘야?"

"비를 맞았어." 아가씨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리고 추워. 그게 다야."

"아, 아가씨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주인이 꽤 멀쩡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외쳤다. "어제저녁 소나기에 흠뻑 젖어서는 밤새 저기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꿈쩍을 안 하시잖아요."

언쇼 씨는 놀라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밤새라고." 도련님이 되풀이했다. "뭣 때문에 안 자고 있었지? 설마 천둥이 무서워서는 아니겠지? 그건 몇 시간 전에 끝났잖아."

우리 둘 다 히스클리프가 없어진 일은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싶었으므로, 나는 아가씨가 무슨 생각으로 밤을 새웠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서늘해서, 내가 격자창을 활짝 열어젖히자 곧 정원의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는데, 캐서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엘렌, 창문 닫아. 추워 죽겠어!" 그러고는 이를 딱딱 부딪치며 거의 다 꺼져 가는 잉걸불 쪽으로 더 바싹 웅크렸다.

"아프구나." 힌들리가 아가씨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려 하지 않았나 보군. 빌어먹을! 이 집에서 또 병치레로 골치 썩고 싶지는 않아. 뭣 하러 빗속에 나갔어?"

"늘 그렇듯 사내놈들 꽁무니를 쫓아다녔지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조지프가 고약한 혀를 들이밀며 꺽꺽거렸다. "내가 쥔 양반이라면 양반이든 상놈이든 죄다 그 낯짝에다 대고 문짝을 쾅 닫아 버리겠소! 쥔 양반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저 린턴네 고양이 같은 놈이 살금살금 기어들고, 넬리 아가씨는, 참 훌륭한 계집애지! 부엌에 앉아 쥔 양반이 오나 망을 보고 있다가, 쥔 양반이 한쪽 문으로 들어오면 그놈은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 잘난 마님은 마님대로 연애를 하러 나가시고! 밤 열두 시가 넘도록 그 더럽고 소름 끼치는 집시 마귀 히스클리프 놈하고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니, 참 훌륭한 행실이구려! 다들 *내*가 눈먼 줄 알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구먼! 젊은 린턴 놈이 오고 가는 것도 다 봤고, 너도 봤어."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이 쓸모없는 칠칠맞은 마녀야! 쥔 양반 말발굽 소리가 길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만 들리면 냉큼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말이여."

"닥쳐, 이 엿듣기나 하는 늙은이!" 캐서린이 외쳤다. "내 앞에서 건방지게 굴지 마! 오빠, 에드거 린턴은 어제 우연히 들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돌려보낸 건 *나*야. 그런 꼴인 오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으니까."

"거짓말이겠지, 캐서린." 오빠가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지독한 바보야! 하지만 린턴은 지금은 됐다. 어젯밤 히스클리프하고 같이 있지 않았는지 말해 봐. 자, 사실대로 말해. 그놈한테 해가 갈까 봐 걱정할 것 없다는 건, 그놈이 여전히 밉긴 해도 얼마 전에 나한테 좋은 일을 해 줘서, 그놈 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양심이 좀 걸리게 됐거든.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아침 당장 그놈을 쫓아낼 거다. 그놈이 가고 나면 너희는 모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만큼 너희한테 쏟을 기운이 남을 테니까."

"나는 어젯밤 히스클리프를 보지도 못했어." 캐서린이 섧게 흐느끼기 시작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오빠가 그 애를 정말로 내쫓으면 나도 같이 갈 거야. 하지만 어쩌면 오빠는 그럴 기회도 없을지 몰라. 어쩌면 그 애는 가 버렸는지도 몰라." 여기서 아가씨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터뜨렸고, 나머지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힌들리는 아가씨에게 경멸에 찬 욕설을 퍼붓고는 당장 제 방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괜히 울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나는 아가씨를 억지로 따르게 했는데, 방에 이르러 아가씨가 벌인 소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만 겁에 질려서, 아가씨가 미쳐 가는 줄 알고 조지프에게 의사를 불러오라고 애원했다. 그것이 정신 착란의

시작이었다. 케네스 선생은 아가씨를 보자마자 위독하다고, 열병이라고 했다. 선생은 아가씨의 피를 뽑고 나서 유장(乳漿)과 묽은 귀리죽만 먹이고 아가씨가 계단 아래로나 창밖으로 몸을 던지지 않게 잘 지키라고 이르고는 가 버렸는데, 오두막 사이가 보통 2~3마일씩 떨어진 교구에서 선생은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상냥한 간호사였다고는 할 수 없고 조지프와 주인도 나을 게 없었으며, 우리 환자는 환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장 지겹고 고집 센 환자였지만, 아가씨는 고비를 넘겼다. 물론 늙은 린턴 부인이 여러 번 찾아와서 일을 바로잡아 주고 우리 모두를 꾸짖고 지시했으며, 캐서린이 몸을 추스르기 시작하자 기어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방된 것을 우리는 무척 고마워했다. 그러나 그 가엾은 부인은 그 친절을 후회할 까닭이 생겼으니, 부인과 남편이 둘 다 열병에 걸려 며칠 사이로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젊은 아가씨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건방지고 격하고 거만해져서 돌아왔다. 히스클리프는 그 폭풍우 치던 저녁 뒤로 소식이 끊겼는데, 어느 날 아가씨가 나를 몹시 약 올렸을 때, 나는 불행하게도 그 애가 사라진 게 아가씨 탓이라고 말해 버렸다. 실제로 아가씨 탓이었고 아가씨도 그걸 잘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아가씨는 그저 주인과 하인 사이의 일 말고는 나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조지프도 따돌림을 받았다. 그는 기어이 제 생각을 말하고 아가씨를 어린 계집아이처럼 *훈계하려* 들었는데, 아가씨는 자기를 어른 여자이자 우리의 안주인으로 여겼고, 얼마 전에 앓은 병을 핑계로 남들이 자기를 조심스럽게 대해 주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가 아가씨는 비위를 거스르는 일을 잘 견디지 못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고 했으니, 누가 감히 맞서서 대꾸라도 하면 아가씨 눈에는 그게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아가씨는 언쇼 도련님과 그

패거리와는 거리를 두었다. 오빠는 케네스에게 단단히 일러받은 데다, 화를 낼 때마다 자주 뒤따르는 발작이 무섭기도 해서, 아가씨가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었고 그 불같은 성미를 건드리는 일은 대체로 피했다. 도련님은 아가씨의 변덕을 *지나치게* 받아 주었는데,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다. 아가씨가 린턴 집안과 혼인을 맺어 가문을 빛내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었으므로, 아가씨가 자기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노예처럼 짓밟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에드거 린턴은 그 앞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 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처럼 아가씨에게 홀딱 빠져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세 해 뒤, 아가씨를 데리고 기머턴 예배당으로 들어가던 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나는 몹시 내키지 않았지만 설득을 당해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 아가씨를 따라 이리로 왔는데, 그때 어린 헤어턴은 다섯 살이 다 되어 가던 참이었고, 나는 막 그 애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터였다. 우리는 서글프게 헤어졌지만 캐서린의 눈물이 우리 눈물보다 힘이 셌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고 아무리 졸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아가씨는 남편과 오빠에게 가서 울며 하소연했다. 남편은 내게 후한 품삯을 주겠다고 했고, 오빠는 이제 안주인도 없으니 집에 여자는 필요 없다면서, 헤어턴은 머지않아 부목사가 맡아 가르칠 거라며 짐을 싸라고 명령했다. 그러니 나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나는 주인에게 점잖은 사람을 다 쫓아내면 조금 더 빨리 망할 뿐이라고 말해 주고는, 헤어턴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뒤로 그 애는 나에게 남이 되었다.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 애는 틀림없이 엘렌 딘이라는 사람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때 그 애가 엘렌 딘에게 온 세상보다 더 소중했고 엘렌 딘이 그 애에게 그랬다는 것까지도요!

◆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가정부는 우연히 굴뚝 위의 시계를 흘끗 보았고, 분침이 한 시 반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인은 일초도 더 머물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그 뒷이야기는 미루고 싶은 마음이 꽤 들었다. 이제 부인은 자러 사라졌고, 나는 한두 시간 더 생각에 잠겨 있었으니, 머리와 팔다리가 쑤시도록 나른하지만 용기를 내어 나도 자러 가야겠다.

---

1. 고대 그리스 크로톤의 이름난 씨름꾼. 전설에 따르면 늙어서 갈라진 나무둥치를 맨손으로 쪼개려다 손이 끼어 빠지지 못하고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캐서린은 둘 사이를 억지로 가르려는 자는 그렇게 끼어 죽게 될 거라고 말한다.

제10장

은둔 생활의 첫걸음치고는 참 근사하기도 하다! 넉 주 동안 이어진 고문과 뒤척임과 앓는 소리! 아, 이 살을 에는 바람과 매서운 북녘 하늘, 지나갈 수 없는 길, 굼뜨기 짝이 없는 시골 의사들! 아, 사람 얼굴 구경 한번 하기 어려운 이 가뭄! 그리고 무엇보다 고약한 것은, 봄이 오기 전에는 바깥에 나갈 생각을 아예 말라는 케네스의 무시무시한 선고다!

히스클리프 씨가 방금 나를 찾아 주는 영광을 베풀었다. 이레쯤 전에는 뇌조 한 쌍을 보내왔는데, 이 철의 마지막 뇌조였다. 고약한 사람! 내가 이렇게 앓아눕게 된 데에는 그도 아주 죄가 없지 않으니, 그 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아아! 내 머리맡에 꼬박 한 시간이나 앉아서 알약과 물약, 고약과 거머리 말고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나눠 줄 만큼 자비로운 사람의 비위를 어찌 거스를 수 있었겠는가? 지금은 몸이 꽤 편한 틈이다. 책을 읽기에는 기운이 너무 없지만 무언가 흥미로운 것이라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니, 딘 부인을 불러 올려 이야기를 마저 듣는 게 어떨까? 부인이 이야기한 데까지는 큰 줄거리를 기억할 수 있다. 그렇다. 주인공은 달아나서 세 해 동안 소식이 끊겼고, 여주인공은 시집을 갔다. 종을 울려야겠다. 내가 기운차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부인은 기뻐하리라. 딘 부인이 왔다.

"약 드실 시간까지 20분 남았어요, 나리." 부인이 말을 꺼냈다.

"치우시오, 그런 건 치워 버리시오!"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보다……"

"의사 선생님이 가루약은 이제 끊으셔야 한대요."

"기꺼이 그러지요! 내 말을 끊지 마시오. 이리 와서 여기 앉으시오. 그 쓰디쓴 약병 부대에는 손가락도 대지 마시오. 주머니에서 뜨개질감을 꺼내시오. 그렇지, 됐소. 자, 이제 히스클리프 씨의 내력을 부인이 멈춘 데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서 들려주시오. 그는 대륙에서 교육을 마치고 신사가 되어 돌아왔소? 아니면 대학에서 잡일을 해 주고 학비를 면제받는 가난한 학생 자리라도 얻었소? 아니면 아메리카로 달아나, 자기를 길러 준 나라의 피를 흘리게 해서 공을 세웠소, 아니면 잉글랜드의 큰길에서 노상강도 노릇을 해서 더 빨리 한밑천을 잡았소?"

"그 일을 다 조금씩 했을지도 모르지요, 록우드 나리. 하지만 어느 쪽이라고도 장담은 못 드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저는 모르고, 깊이 빠져 있던 그 야만스러운 무지에서 무슨 수로 정신을 끌어올렸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나리께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시겠다면,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어 가겠어요. 오늘 아침엔 좀 나으세요?"

"훨씬."

"그거 반가운 소식이네요."

◆

나는 캐서린 아가씨를 모시고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옮겨 왔다. 그런데 반갑게도 내 걱정은 보기 좋게 빗나가, 아가씨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얌전하게 굴었다. 아가씨는 린턴 씨를 지나치다 싶을 만큼 따랐고 시누이에게도 다정한 마음을 듬뿍 보였으며, 물론 두

사람 쪽에서도 아가씨가 편하도록 정성껏 보살폈다. 가시나무가 인동덩굴에게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인동덩굴이 가시나무를 끌어안은 꼴이었다. 서로 물러서 주는 일 없이 한쪽은 꼿꼿이 서 있고 다른 쪽들이 굽혔으니, 맞서는 사람도 없고 본체만체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심술을 부리고 성을 낼 수 있겠는가? 내가 보니 주인은 마님의 기분을 건드릴까 봐 마음 깊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주인은 그 두려움을 마님에게는 감추었지만, 내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소리를 듣거나 다른 하인이 마님의 오만한 분부에 낯빛이 흐려지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제 일로는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는 얼굴을 언짢게 찌푸려 속을 드러냈다. 주인은 내가 말대꾸를 한다고 몇 번이나 엄하게 나무랐고, 칼에 깊이 찔려도 아내가 속상해하는 것을 볼 때만큼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 힘주어 잘라 말했다. 착한 주인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덜 발끈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하여 꼬박 반년 동안 화약은 모래처럼 얌전히 누워 있었다. 불씨가 가까이 오지 않으니 터질 일도 없었다. 마님은 이따금 침울해져 말이 없어지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그것을 위험한 큰 병을 앓은 뒤로 몸이 바뀐 탓이라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말없이 그 침묵을 존중해 주었다. 마님은 전에는 우울에 빠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볕이 들면 남편도 볕으로 화답하며 반겼다. 두 사람은 정말로 깊고 나날이 커 가는 행복을 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행복은 끝났다. 하기야 길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제 몸부터 챙기기 마련이다. 순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휘어잡는 사람보다 제 몫을 좀 더 정당하게 챙길 뿐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저마다 자기 이익이 상대의 마음속에서 으뜸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일이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절로 느끼게 되었을 때 끝났다. 9월의 어느 부드러운 저녁, 나는 따 모은 사과를 무거운 바구니에 담아 들고 뜰에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날은 어둑어둑했고, 달이 안뜰의 높은 담 너머로 넘어다보며 여기저기

튀어나온 건물 모서리마다 흐릿한 그림자를 숨어들게 했다. 나는 짐을 부엌문 옆 돌계단에 내려놓고 쉬느라 잠시 머뭇거리며 부드럽고 달콤한 공기를 몇 모금 더 들이마셨다. 눈은 달에 가 있고 등은 문 쪽으로 돌린 채였는데,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넬리, 거기 넬리야?"

굵고 낯선 억양의 목소리였다. 그런데도 내 이름을 부르는 품에 무언가 귀에 익은 데가 있었다. 나는 누가 말했는지 알아보려고 겁에 질려 돌아섰다.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계단으로 다가올 때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관 안쪽에서 무엇이 꿈틀하기에 더 다가가 보니, 검은 옷을 입고 얼굴도 머리칼도 검은 키 큰 사내가 제 손으로 문을 열 작정인 듯 걸쇠에 손가락을 걸친 채 문설주에 기대어 있었다. '누굴까?' 나는 생각했다. '언쇼 나리? 아냐, 아니야! 목소리가 전혀 다른걸.'

"여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어." 내가 여전히 멍하니 쳐다보는 동안 사내가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내내 사방이 죽은 듯이 고요하더군. 들어갈 엄두가 안 났어. 날 몰라보겠어? 봐, 낯선 사람이 아니야!"

빛 한 줄기가 사내의 얼굴에 떨어졌는데, 뺨은 누르스름하고 절반은 검은 구레나룻에 덮여 있었으며, 눈썹은 낮게 처졌고 눈은 움푹 들어간 데다 기이했다. 나는 그 눈을 기억했다.

"아니!" 나는 외쳤다. 이 세상 사람으로 보아야 할지 어쩔지 몰라 나는 놀라서 두 손을 쳐들었다. "아니! 돌아온 거예요? 정말 그쪽이에요? 정말요?"

"그래, 히스클리프야." 그가 대답하며 나에게서 창 쪽으로 눈을 들었다. 창마다 반짝이는 달이 스무 개쯤 비쳐 있었지만 안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은 없었다. "집에들 있어? 그 애는 어디 있지? 넬리, 넌 반갑지 않구나! 그렇게 허둥댈 것 없어. 그 애 여기 있어? 말해! 한마디만

하고 싶어. 너희 마님하고. 가서 기머턴에서 누가 뵙기를 청한다고 전해."

"마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나는 외쳤다. "어떻게 하실까? 나도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님은 아주 넋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히스클리프* 맞군요! 이렇게 변하다니요! 아니, 도무지 모르겠어요. 군인이라도 됐었어요?"

"가서 내 말이나 전해." 그가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네가 전할 때까지 난 지옥에 있는 거야!"

그가 걸쇠를 들어 주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인 내외가 있는 거실 앞에 이르자 도저히 들어갈 마음이 나지 않아서, 한참 만에야 촛불을 켤지 여쭙는다는 핑계를 대기로 하고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격자창을 벽 쪽으로 활짝 젖혀 놓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 너머로는 뜰의 나무들과 푸르고 거친 영지 너머로 기머턴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고, 기다란 안개 띠가 구불구불 거의 골짜기 꼭대기까지 감겨 올라가 있었다(나리도 보셨겠지만, 예배당을 지나자마자 늪에서 흘러나오는 도랑이 골짜기 굽이를 따라 흐르는 개울과 만나거든요). 워더링 하이츠가 그 은빛 안개 위로 솟아 있었지만 우리 옛집은 보이지 않았다. 집이 저쪽 비탈로 조금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방도, 방 안의 두 사람도,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경치도 놀랄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심부름을 하기가 싫어 뒷걸음을 쳤고, 촛불 이야기만 묻고는 정말로 아무 말 없이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내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중얼거렸다. "기머턴에서 누가 마님을 뵙고 싶어 해요."

"무슨 일로?" 린턴 부인이 물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럼 커튼을 쳐 줘, 넬리." 마님이 말했다. "그리고 차를 가져와. 곧 돌아올게."

마님이 방을 나가자 주인이 대수롭지 않게 누구냐고 물었다.

"마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 히스클리프 말이에요. 기억하시지요, 나리. 언쇼 나리 댁에 살던."

"뭐라고! 그 집시, 그 머슴 녀석 말이오?" 주인이 외쳤다. "왜 캐서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쉿!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나리." 내가 말했다. "마님이 들으시면 몹시 속상해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달아났을 때 마님은 가슴이 찢어질 뻔하셨어요. 그 사람이 돌아왔으니 마님한테는 아마 큰 잔치가 될 거예요."

린턴 씨는 방 건너편, 안뜰이 내려다보이는 창으로 걸어가서 창을 열고 몸을 내밀었는데, 두 사람이 아래에 있었던 모양인지 얼른 이렇게 소리쳤다. "거기 서 있지 말아요, 여보! 귀한 손님이면 안으로 모셔 와요." 오래지 않아 걸쇠가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님이 숨을 헐떡이며 넋이 나간 얼굴로 위층으로 날듯이 뛰어 올라왔는데, 너무 흥분해서 기쁜 기색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정말이지, 그 얼굴만 보셨다면 나리는 무슨 끔찍한 재앙이라도 닥쳤나 짐작하셨을 거예요.

"아, 에드거, 에드거!" 마님이 남편의 목에 두 팔을 감으며 헐떡였다. "아, 여보, 에드거! 히스클리프가 돌아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러고는 남편을 끌어안은 팔에 더 힘을 주어 꽉 졸랐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남편이 언짢게 외쳤다. "그렇다고 나를 목 졸라 죽일 것까진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보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굴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마님은 들뜬 기쁨을 조금 누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봐서라도 친하게 지내야

해요. 위로 올라오라고 할까요?"

"여기로요?" 주인이 말했다. "이 거실로?"

"그럼 어디로요?" 마님이 물었다.

주인은 언짢은 얼굴로, 그 사람에게는 부엌이 더 어울리는 자리라고 넌지시 말했고, 린턴 부인은 반은 화가 나고 반은 남편의 까다로움이 우스운 듯 묘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싫어요." 잠시 뒤 마님이 말을 덧붙였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엘렌, 여기 상을 두 개 차려. 하나는 지체 높은 너희 주인과 이저벨라 아가씨 몫으로, 하나는 천한 신분인 히스클리프와 나의 몫으로. 이러면 마음에 들어요, 여보? 아니면 다른 데 불을 피우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분부를 내리세요. 나는 내려가서 손님을 붙잡아 둘게요. 기쁨이 너무 커서 꿈만 같아 겁이 나요!"

마님이 다시 뛰어나가려 하자 에드거가 붙잡았다.

"*엘렌이* 가서 올라오라고 하시오." 주인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캐서린, 기뻐하는 건 좋지만 터무니없이 굴지는 말아요. 도망친 하인을 형제처럼 맞아들이는 꼴을 온 집안 식구가 구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가 내려가 보니 히스클리프는 들어오라는 말이 있을 줄 짐작한 듯 현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쓸데없는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따라왔고, 나는 그를 주인 내외 앞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의 붉게 달아오른 뺨에는 언성을 높여 말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마님의 뺨은 벗이 문간에 나타나자 다른 감정으로 환히 빛났다. 마님은 앞으로 뛰어나가 그의 두 손을 잡고 린턴에게 데려가더니, 내켜 하지 않는 린턴의 손가락을 억지로 움켜쥐어 그의 손에 꽉 쥐여 주었다. 이제 난롯불과 촛불 아래 환히 드러난 히스클리프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 나는 어느 때보다도 놀라웠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다부지고 균형 잡힌 사내로 자라 있었는데, 그 곁에 서니 우리 주인은 아주 가냘프고 앳되어 보였다.

꼿꼿한 몸가짐을 보니 군대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얼굴은 표정으로 보나 이목구비의 단단함으로 보나 린턴 씨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영리해 보였고 예전에 천대받던 흔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낮게 처진 눈썹과 검은 불길이 가득한 눈에는 아직 반쯤만 길든 사나움이 도사리고 있었고, 다만 잘 억눌려 있었다. 몸가짐에는 위엄까지 있어서, 거친 데는 말끔히 벗었으되 우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엄했다. 주인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놀란 얼굴이었고, 자기가 머슴 녀석이라 불렀던 사람에게 무어라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잠시 어쩔 줄 몰라 했다. 히스클리프는 주인의 가냘픈 손을 놓고, 주인이 말을 꺼낼 때까지 냉랭하게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앉으시오." 마침내 주인이 말했다. "린턴 부인이 옛 생각을 해서 나더러 당신을 정답게 맞아 주라고 하는구려. 물론 나는 아내가 기뻐할 일이 생기면 무엇이든 반갑소."

"나도 그렇소." 히스클리프가 대답했다. "특히 그 일에 내 몫이 있다면 말이오. 한두 시간쯤은 기꺼이 머물겠소."

그는 캐서린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마님은 눈을 떼면 그가 사라지기라도 할까 봐 겁이 나는지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마님 쪽으로 자주 눈을 들지 않고 이따금 재빨리 한 번 쳐다보는 것으로 그쳤지만, 그 눈길은 마님의 눈에서 들이켠 숨김없는 기쁨을 볼 때마다 더 자신 있게 되비추었다. 둘은 서로 기뻐하는 데 너무 빠져 있어서 쑥스러워할 겨를도 없었다. 에드거 나리는 그렇지 않았다. 주인은 그저 짜증이 나서 얼굴이 하얘졌고, 그 감정은 마님이 일어나 깔개를 가로질러 가서 다시 히스클리프의 두 손을 붙잡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내일이 되면 꿈이었다고 생각할 거야!" 마님이 외쳤다. "너를 다시 보고, 만지고, 너하고 말을 했다는 걸 믿지 못할 거야. 그래도, 이 잔인한

히스클리프! 너는 이렇게 반겨 줄 자격이 없어. 세 해 동안이나 떠나서 소식 한 자 없고,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다니!"

"네가 내 생각을 한 것보다는 조금 더 했지." 그가 중얼거렸다.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얼마 전에 들었어, 캐서린. 그래서 아래 마당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 계획을 궁리했지. 네 얼굴을 딱 한 번만 보자, 놀라서 쳐다보는 눈길하고 아마 반가운 척하는 얼굴도 보겠지, 그다음에 힌들리하고 셈을 끝내고, 법이 손쓰기 전에 내 손으로 나를 처형하자. 그런데 네가 이렇게 반겨 주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어. 하지만 다음번에 딴 얼굴로 날 맞을 생각은 하지 마! 아니, 이제 다시는 날 쫓아내지 못할 거야. 정말로 내가 불쌍했어? 그래, 그럴 만도 했지. 네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뒤로 나는 쓰라린 삶을 싸워 헤쳐 왔어. 그러니 나를 용서해야 해. 나는 오로지 너 때문에 버둥거렸으니까!"

"캐서린, 차가 식기 전에 상으로 와 줘요." 린턴이 평소의 목소리와 알맞은 예의를 지키려 애쓰며 끼어들었다. "히스클리프 씨는 오늘 밤 어디서 묵든 먼 길을 걸어가야 할 테고, 나는 목이 말라요."

마님은 찻물 단지 앞 제자리에 앉았고, 종소리를 듣고 이저벨라 아가씨도 왔으며, 나는 다들 앉을 의자를 앞으로 당겨 놓아 준 뒤에 방을 나왔다. 식사는 10분도 가지 않았다. 캐서린의 찻잔은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다. 마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에드거는 찻잔 받침에 차를 흘려 놓고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손님은 그날 저녁 한 시간 넘게 머물지 않았다. 그가 떠날 때 나는 기머턴으로 가느냐고 물었다.

"아니, 워더링 하이츠로 가." 그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들렀더니 언쇼 씨가 와서 묵으라고 하더군."

언쇼 씨가 *그를* 청했다고! 그리고 *그가* 언쇼 씨를 찾아갔다고! 그가 떠난 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저 사람이 위선자 노릇을 하는 걸까? 무슨 꿍꿍이를 감추고 해코지를 하러 이 고장에 온 걸까?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예감이 마음 깊은 데서 들었다.

한밤중쯤 첫잠에 빠져 있던 나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린턴 부인이 살그머니 내 방에 들어와 침대 머리맡에 앉더니 나를 깨우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잠이 안 와, 엘렌." 마님이 변명 삼아 말했다. "그리고 이 행복을 같이 나눌 살아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에드거는 뾰로통해 있어. 자기는 관심도 없는 일로 내가 기뻐한다고. 입을 열었다 하면 토라지고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자기는 이렇게 몸도 아프고 졸린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잔인하고 이기적인 짓이라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꼭 어디가 아프다니까! 내가 히스클리프를 몇 마디 칭찬했더니, 머리가 아파서인지 샘이 나서 속이 쓰려서인지 울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 버렸어."

"나리 앞에서 히스클리프를 칭찬해서 뭐 하시게요?" 내가 대답했다.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서로 싫어하셨잖아요. 히스클리프도 나리 칭찬을 들으면 꼭 그만큼 싫어할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두 분이 대놓고 싸우시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면 히스클리프 얘기로 나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건 너무 나약하다는 증거 아니야?" 마님이 말을 이었다. "나는 샘내지 않아, 이저벨라의 머리칼이 금빛으로 빛나고 살결이 희고, 몸가짐이 고상하고 온 집안이 그 애를 귀여워해도 나는 조금도 마음 상하지 않아. 너도 그렇잖아, 넬리. 우리가 가끔 다투면 너는 곧장 이저벨라 편을 들지. 그래도 나는 어리석은 엄마처럼 져 줘. 그 애를 귀염둥이라고 부르고 비위를 맞춰서 기분을 풀어 주지. 우리가 다정하게 지내는 걸 보면 그 애 오빠가 기뻐하고, 그게 나도 기뻐. 하지만 그 둘은 아주 닮았어. 응석받이로 자라서 세상이 자기들 편하라고 만들어진 줄

아니까, 나는 둘 다 비위를 맞춰 주긴 하지만 그래도 따끔하게 한번 혼쭐을 내 주면 둘 다 나아질 것 같아."

"잘못 아신 거예요, 마님." 내가 말했다. "그분들이 마님 비위를 맞춰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아요. 그분들이 마님이 바라시는 걸 죄다 미리 알아서 해 드리는 동안에는 마님도 그분들이 한때 부리는 변덕쯤은 얼마든지 넉넉히 받아 주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양쪽 다 똑같이 중요한 일로 틀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님이 나약하다고 하시는 그분들도 마님만큼 고집을 부릴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겠네, 그렇지, 넬리?" 마님이 웃으며 대꾸했다. "아니야! 정말이지, 나는 린턴의 사랑을 그렇게 믿어. 내가 그 사람을 죽인대도 그 사람은 앙갚음할 생각도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해 주는 남편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마님에게 일렀다.

"그러고 있어." 마님이 대답했다. "하지만 하찮은 일로 징징대진 말아야지. 그건 어린애 같은 짓이야. 히스클리프가 이제는 누구한테든 존중받을 만하고 이 고장 으뜸가는 신사라도 그 사람 친구가 되면 영광일 거라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눈물로 녹아내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 대신 그 말을 해 주고 나랑 같이 기뻐했어야 해. 그 사람은 히스클리프한테 익숙해져야 하고, 차라리 좋아하는 편이 나을 거야. 히스클리프가 그 사람을 싫어할 까닭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히스클리프는 정말 훌륭하게 처신했어!"

"그 사람이 워더링 하이츠에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보아하니 모든 면에서 사람이 달라졌나 봐요. 아주 기독교인이 다 됐어요. 사방의 원수들한테 우정의 오른손을 내밀다니요!"

"그 애가 설명했어." 마님이 대답했다. "나도 너만큼 이상하게 여겼어. 네가 아직 거기 사는 줄 알고 너한테서 내 소식을 들으려고 들렀는데, 조지프가 오빠한테 알렸고, 오빠가 나와서 그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저것 캐묻다가 결국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야. 몇 사람이 앉아서 카드를 치고 있었는데 히스클리프도 끼었고, 오빠가 그 애한테 돈을 좀 잃었는데 그 애가 돈을 넉넉히 가진 걸 알고는 저녁에 다시 오라고 했대. 그래서 그 애가 그러마고 했고. 오빠는 너무 무모해서 사귈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지 못하고, 자기가 비열하게 해를 입힌 사람을 왜 믿으면 안 되는지 따져 볼 생각도 도무지 안 하지. 하지만 히스클리프 말로는, 옛날에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하고 다시 엮이려는 가장 큰 까닭은 그레인지에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거처를 정하고 싶어서고,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집에 정이 들어서래. 게다가 기머턴에 자리를 잡는 것보다 거기 있으면 내가 자기를 볼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바람도 있고. 하이츠에 묵게 해 주면 후하게 돈을 치를 생각이래. 오빠는 욕심이 많으니까 틀림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 거야. 오빠는 늘 탐욕스러웠어. 한 손으로 움켜쥔 걸 다른 손으로 내던지긴 하지만."

"젊은 사람이 살 곳으로 참 좋은 데를 골랐네요!" 내가 말했다. "뒷일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마님?"

"내 친구 걱정은 안 해." 마님이 대답했다. "그 애는 머리가 좋으니 위험에 빠지지 않을 거고, 오빠는 좀 걱정이지만 행실로야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없고, 몸을 다치지 않게는 내가 막아 줄 거야. 오늘 저녁 일로 나는 하느님하고도 사람하고도 화해했어! 나는 화가 나서 하늘의 뜻에 맞서 들고일어났었거든. 아, 넬리, 나는 정말, 정말 쓰라린 괴로움을 견뎌 왔어! 그 사람이 그게 얼마나 쓰라렸는지 안다면, 그 괴로움이 사라진 걸 쓸데없는 투정으로 흐려 놓는 게 부끄러울 거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 혼자 견뎠던 거야, 내가 자주 느끼던 고통을

털어놓았다면 그 사람도 나만큼 간절히 그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게 됐을 테니까. 하지만 다 끝났어. 그 사람의 어리석음에 앙갚음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이 내 뺨을 때려도 다른 뺨을 내밀 뿐 아니라 화를 돋워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겠어. 그 증거로 지금 당장 가서 에드거하고 화해할 거야. 잘 자! 나는 천사야!"

마님은 그렇게 자기만족에 젖은 확신을 품고 떠났다. 그 다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튿날 분명히 드러났다. 린턴 씨는 투정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그래도 캐서린의 넘치는 활기에 눌려 기운은 아직 가라앉아 보였지만), 마님이 오후에 이저벨라를 데리고 워더링 하이츠에 가는 것에도 감히 반대하지 않았다. 마님은 그 보답으로 여름처럼 다정하고 살뜰하게 굴어 며칠 동안 집을 낙원으로 만들었고, 주인도 하인들도 다 함께 그칠 줄 모르는 햇볕의 덕을 보았다.

히스클리프는(앞으로는 히스클리프 씨라고 불러야겠지만) 처음에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찾아오는 자유를 조심스럽게 썼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끼어드는 것을 어디까지 참아 줄지 가늠하는 듯했다. 캐서린도 그를 맞으며 기쁜 마음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는 차츰 집안사람들이 으레 기다리는 손님이 될 권리를 굳혀 갔다. 그는 어릴 때 남달랐던 그 말 없는 성격을 여전히 많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남을 놀라게 할 만한 감정 표현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주인의 불안도 한동안 잠잠해졌는데, 뒤이어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 불안은 잠시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주인에게 새 근심을 안겼다. 이저벨라 린턴이 그저 참아 줄 뿐인 그 손님에게 별안간 걷잡을 수 없이 끌리고 만 일이었다. 아가씨는 그때 열여덟 살 난 아주 사랑스러운 처녀였는데, 몸가짐은 어린애 같았지만 머리가 날카롭고 감정이 날카로웠으며 화가

나면 성미도 날카로웠다. 누이를 다정하게 아끼던 오빠는 이 엉뚱한 편애에 기가 막혔다. 이름도 없는 사내와 혼인하는 수치는 젖혀 두더라도, 그리고 아들 상속자가 없으면 자기 재산이 그런 자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도 젖혀 두더라도, 주인은 히스클리프의 성품을 알아볼 만한 분별이 있었다. 겉모습은 달라졌어도 그 속마음은 바뀔 수 없고 바뀌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주인은 그 마음이 두려웠다. 그 마음이 역겨웠다. 이저벨라를 그 마음에 맡긴다는 생각만 해도 불길한 예감에 몸을 움츠렸다. 아가씨의 애정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솟아났고 아무런 마음도 돌아오지 않는 곳에 바쳐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인은 그보다 더욱 질겁했을 것이다. 주인은 그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것을 히스클리프가 일부러 꾸민 수작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얼마 전부터 린턴 아가씨가 무슨 일로 속을 태우며 시들어 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아가씨는 툭하면 짜증을 내고 사람을 지치게 했으며, 끊임없이 캐서린에게 쏘아붙이고 집적거려서 그러잖아도 짧은 마님의 참을성이 금방이라도 바닥날 판이었다. 우리는 아가씨가 몸이 좋지 않아서려니 하고 어느 정도 너그럽게 봐주었다. 아가씨는 눈에 띄게 야위고 시들어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유난히 생떼를 부리던 날이었다. 아침을 마다하고, 하인들이 자기가 시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마님은 자기를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에드거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고, 문을 열어 둔 탓에 감기에 걸렸다느니 우리가 자기 약을 올리려고 일부러 거실 불을 꺼뜨렸다느니, 그보다 더 시시한 트집을 백 가지나 잡아 대자, 린턴 부인은 당장 가서 자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아가씨를 호되게 꾸짖은 뒤 의사를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케네스 이야기가 나오자

아가씨는 대뜸 자기는 아무 데도 아프지 않고, 다만 캐서린이 모질게 굴어서 불행할 뿐이라고 외쳤다.

"내가 모질게 군다니, 이 버릇없는 응석받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마님이 그 터무니없는 말에 깜짝 놀라 외쳤다. "너 정말 정신이 나가는구나. 내가 언제 모질게 굴었는지 말해 봐!"

"어제요." 이저벨라가 흐느꼈다. "그리고 지금도요!"

"어제!" 올케가 말했다. "무슨 일로?"

"황야를 따라 산책할 때요. 캐서린은 히스클리프 씨하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더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네가 생각하는 모진 짓이야?" 캐서린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있으면 거추장스럽다는 뜻이 아니었어. 네가 우리랑 같이 있든 말든 우린 상관없었어. 그저 히스클리프의 이야기가 네 귀에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랬지."

"아, 아니에요." 아가씨가 울었다. "내가 거기 있고 싶어 하는 걸 알고서 나를 쫓아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제정신이야?" 린턴 부인이 내 쪽을 보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마디도 빼지 않고 되풀이해 줄게, 이저벨라. 거기서 너한테 무슨 재미가 있었을지 어디 짚어 봐."

"이야기는 아무래도 좋아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나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그래서?" 아가씨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캐서린이 말했다.

"그 사람하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나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가씨가 발끈해서 말을 이었다. "캐서린은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남도 못 먹게 하는 여물통의 개예요. 자기 말고는 누구도 사랑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 건방진 꼬마 원숭이 같으니!" 린턴 부인이 놀라서 외쳤다. "하지만 이런 바보짓은 믿지 않을 거야! 네가 히스클리프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다니, 그 애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 이저벨라?"

"아니요,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홀딱 빠진 아가씨가 말했다. "나는 캐서린이 에드거 오빠를 사랑한 것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캐서린이 막지만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왕국을 준대도 너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캐서린이 힘주어 단언했는데,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다. "넬리, 얘가 미쳤다는 걸 깨닫게 좀 도와줘. 히스클리프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줘. 길들지 않은 짐승이야. 세련된 구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가시금작화와 단단한 바윗돌뿐인 메마른 황무지라고. 네 마음을 그 애한테 주라고 권하느니 차라리 저 작은 카나리아를 겨울날 영지에 풀어놓겠어! 얘야, 네가 그 애 성품을 한심할 만큼 모르니까 그런 꿈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야. 다른 까닭은 아무것도 없어. 제발, 그 애가 무뚝뚝한 겉모습 밑에 깊은 자비와 다정함을 숨기고 있다고 상상하지 마! 그 애는 다듬지 않은 다이아몬드도, 진주를 품은 촌스러운 굴도 아니야. 사납고 무자비하고 늑대 같은 사내야. 나는 그 애한테 '이 원수 저 원수 내버려 둬, 해치면 비열하고 잔인한 짓이니까' 하고 말하지 않아. '내버려 둬, *내가* 그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게 싫으니까' 하고 말하지. 그리고 이저벨라, 그 애는 네가 성가신 짐이라고 생각하면 참새 알처럼 너를 으스러뜨릴 거야. 그 애가 린턴 집안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런데도 네 재산과 물려받을 몫을 보고 결혼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 그 애한테는 탐욕이 떨칠 수 없는 죄가 되어 가고 있거든. 이게 내가 그린 그 애 초상이야. 그리고 나는 그 애 친구야, 얼마나 친구냐면 그 애가 정말로

너를 낚으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아마 입을 다물고 네가 그 애 덫에 걸리게 내버려 뒀을 거야."

린턴 아가씨는 분개해서 올케를 바라보았다.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요!" 아가씨가 성이 나서 되풀이했다. "캐서린은 원수 스물보다 더 나빠요. 독을 품은 친구 같으니!"

"아! 그럼 내 말을 안 믿겠다는 거야?" 캐서린이 말했다. "내가 못된 이기심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틀림없이 그래요." 이저벨라가 되받았다. "캐서린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좋아!" 마님이 외쳤다. "네 마음이 그렇다면 직접 해 봐. 나는 할 만큼 했어. 네 건방진 무례함에 이 말다툼은 져 줄게."

"그런데 나는 캐서린의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다니!" 린턴 부인이 방을 나가자 아가씨가 흐느꼈다. "모든 게, 모든 게 다 나한테 등을 돌려. 캐서린이 내 하나뿐인 위안을 시들게 해 버렸어. 하지만 캐서린 말은 거짓말이지, 그렇지? 히스클리프 씨는 마귀가 아니야. 명예롭고 진실한 영혼을 지닌 분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캐서린을 잊지 않았겠어?"

"그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아가씨."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불길한 새예요. 아가씨 짝이 못 돼요. 마님 말씀이 좀 세긴 했지만 저도 반대는 못 하겠어요. 마님은 저보다, 아니 다른 누구보다 그 사람 속을 잘 아세요. 그리고 마님은 그 사람을 실제보다 나쁘게 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 제 한 일을 숨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왜 자기가 몹시 미워하는 사람의 집인 워더링 하이츠에 머무는 걸까요?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온 뒤로 언쇼 나리가 점점 더 나빠졌다는데, 둘이 날마다 같이 밤을

새우고, 힌들리 나리는 땅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서 노름하고 술 마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바로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조지프가 해 준 이야긴데, 기머턴에서 만났거든요. '넬리,' 하고 그러더군요. '머잖아 우리 집에 검시관이 오겠구먼. 한 사람은 딴 사람이 송아지처럼 제 멱을 따려는 걸 붙들다가 손가락이 거의 잘릴 뻔했어. 그게 쥔 양반이여, 알지. 그 양반은 큰 재판정에 나가겠다고 아주 신이 났구먼. 판사 나리들 앞이라도 하나도 겁을 안 내.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누구 하나 겁 안 내지, 암! 아주 좋아하는 거여. 그 뻔뻔한 낯짝을 그 양반들 앞에 들이대고 싶어 안달이 났구먼! 그리고 저 잘난 젊은이 히스클리프 말이여, 알지, 그놈은 보통내기가 아니여. 진짜 마귀 같은 농담에도 누구 못잖게 히죽 웃을 줄 알거든. 그레인지에 갈 때 우리 집에서 지내는 그 멋들어진 살림 얘기는 통 안 하더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여. 해 질 녘에 일어나서 주사위, 브랜디, 닫아건 덧문, 이튿날 한낮까지 촛불. 그러고 나면 그 바보는 욕을 퍼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방으로 들어가니, 점잖은 사람들은 하도 창피해서 귓구멍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야 하는 판이구먼. 그 악당은 말이여, 제 돈을 세고 먹고 자고, 그러고는 이웃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수다를 떨지. 물론 그놈은 캐서린 마님한테 마님 아버지 금화가 제 주머니로 굴러 들어오는 얘기며, 마님 아버지 아들이 멸망의 넓은 길로 내달리는데 저는 앞질러 달려가서 통행 관문을 열어 주는 얘기를 하겄지!' 그러니까요, 린턴 아가씨, 조지프는 늙은 악당이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히스클리프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가씨는 그런 남편을 바랄 생각은 꿈에도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엘렌도 다른 사람들하고 한패구나!"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런 험담은 안 들을 거야. 세상에 행복 같은 건 없다고 나를 설득하려 들다니, 얼마나 심술궂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아가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 망상을 떨쳐 냈을지, 아니면 끝없이 고이 품고 키웠을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가씨에게는 곰곰이 생각할 겨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이웃 읍에서 치안 판사 회의가 열려 주인은 거기에 나가야 했는데, 주인이 없는 것을 안 히스클리프 씨는 여느 때보다 좀 이르게 찾아왔다. 캐서린과 이저벨라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사이가 틀어진 채 말이 없었다. 이저벨라는 얼마 전 한때의 격정에 휩쓸려 경솔하게 굴고 남몰래 품은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겁이 났고, 캐서린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정말로 시누이에게 마음이 상해서, 다시 한번 그 건방짐을 웃어넘기게 되면 이번에는 *시누이에게* 웃을 일로 끝나지 않게 해 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마님은 히스클리프가 창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자 정말로 웃었는데, 마침 난로를 쓸고 있던 나는 마님의 입술에 짓궂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저벨라는 생각에 잠겼는지 책에 빠졌는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이미 달아나기에는 너무 늦어 버렸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아가씨는 기꺼이 달아났을 것이다.

"들어와, 마침 잘 왔어!" 마님이 의자를 난롯가로 끌어당기며 쾌활하게 외쳤다. "여기 둘 사이의 얼음을 녹여 줄 셋째 사람이 몹시 아쉬운 두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너야말로 우리 둘 다 고를 바로 그 사람이야. 히스클리프, 드디어 나보다 더 너한테 홀딱 빠진 사람을 보여 주게 돼서 뿌듯해. 우쭐한 기분이 들 거야. 아니, 넬리 말고. 넬리는 보지 마! 가엾은 내 꼬마 시누이가 네 몸과 마음의 아름다움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가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 에드거의 매제가 되는 건 네 손에 달렸어! 안 돼, 안 돼, 이저벨라, 도망가면 안 돼." 마님은 성이 나서 일어선 어쩔 줄 모르는 아가씨를 장난인 척하며 붙들고 말을 이었다. "히스클리프, 우리는 너 때문에 고양이들처럼 싸우고 있었어. 그런데 사랑과 찬미를 다짐하는 데서 나는 완전히 졌어. 게다가 내가 예의 바르게 비켜서

주기만 하면, 내 연적이, 얘가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니까 하는 말인데, 네 영혼에 화살을 쏘아 너를 영원히 붙잡아 놓고 내 모습은 영원한 망각 속으로 보내 버릴 거라는군!"

"캐서린!" 이저벨라가 위엄을 끌어모아, 자기를 꽉 움켜쥔 손에서 버둥거려 빠져나가는 것조차 하찮게 여기며 말했다. "장난이라도 사실만 말하고 나를 헐뜯지 말아 주면 고맙겠어요! 히스클리프 씨, 부디 이 친구분더러 나를 놓아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은 히스클리프 씨와 내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잊고 있나 봐요. 이 사람한테는 재미있는 일이 나한테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아가씨가 자기를 두고 어떤 마음을 품든 전혀 상관없다는 얼굴을 하자, 아가씨는 돌아서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놓아 달라고 간곡하게 속삭였다.

"어림없어!" 린턴 부인이 대답으로 외쳤다. "여물통의 개라는 소리는 다시 듣지 않을 거야. 넌 꼭 있어야 해. 자, 그럼! 히스클리프, 이 반가운 소식에 왜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 에드거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가 너한테 품은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저벨라가 맹세했어. 틀림없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 그렇지, 엘렌? 그리고 그저께 산책한 날부터 줄곧 굶었어. 네가 반기지 않을 줄 알고 내가 너한테서 떼어 놓았다고 슬프고 분해서."

"아무래도 네가 이 아가씨 말을 꾸며 대는 것 같은데." 히스클리프가 두 사람 쪽으로 의자를 돌려 앉으며 말했다. "어쨌든 지금은 나한테서 떨어지고 싶어 하잖아!"

그러고는 그는 이야깃거리가 된 아가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낯설고 징그러운 짐승을 보는 듯한 눈길이었는데, 이를테면 인도에서 온 지네처럼 싫으면서도 호기심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보는 눈길이었다. 가엾은 아가씨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 하더니 속눈썹에 눈물방울이 맺히는데, 작은 손가락에 힘을 다 모아 캐서린의 단단한 손아귀를 풀려고 애썼다. 그러다 자기 팔에서 손가락 하나를 떼어 내자마자 다른 손가락이 내려와 붙잡아서 한꺼번에 다 떼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손톱을 쓰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손톱이 금세 붙잡은 사람의 손에 붉은 초승달 무늬를 새겨 놓았다.

"암호랑이가 따로 없네!" 린턴 부인이 아가씨를 놓아주고 아파서 손을 털며 외쳤다. "제발 썩 나가서 그 여우 같은 얼굴이나 숨겨! 그 발톱을 *이 사람한테* 드러내다니 어쩜 그리 어리석니.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상상이 안 돼? 봐, 히스클리프! 사람 잡을 연장이야. 눈 조심해야겠어."

"나를 위협하기라도 하면 그 손톱을 손가락에서 비틀어 뽑아 버리겠어." 아가씨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그가 잔인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저것을 그렇게 놀렸어, 캐서린? 사실을 말한 건 아니지?"

"정말이라니까." 마님이 대꾸했다. "그 애는 몇 주 동안 너 때문에 애가 타 죽을 지경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네 얘기로 헛소리를 했는데, 그 애가 너를 떠받드는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내가 네 결점을 있는 그대로 말해 줬더니 욕을 퍼붓더라고. 하지만 더는 마음 쓰지 마. 그 애 건방진 걸 혼내 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그 애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히스클리프, 네가 그 애를 홀랑 낚아채서 삼켜 버리게 둘 수는 없어."

"나는 그 애가 너무 싫어서 그럴 생각도 없어." 그가 말했다. "송장 귀신 같은 짓이라면 몰라도. 그 들척지근한 밀랍 같은 얼굴하고 단둘이 산다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올 텐데, 그중 제일 흔한 게, 하루 이틀 걸러 그 흰 얼굴에 무지개 색을 칠하고 그 파란 눈을 시커멓게 멍들게 하는 일이겠지. 그 눈이 지긋지긋하게 린턴을 닮았거든."

"'달콤하게' 닮았겠지!" 캐서린이 말했다. "그건 비둘기 눈이야. 천사의 눈이라고!"

"그 애가 제 오빠의 상속자지, 안 그래?" 잠깐 말이 없다가 그가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할걸." 그의 말벗이 대꾸했다. "하늘이 도우시면 조카가 여섯 명은 태어나서 그 애 몫을 지워 버릴 거야! 지금은 그 일에서 마음을 떼. 너는 이웃의 재물을 너무 탐내는 버릇이 있어. *이* 이웃의 재물은 내 것이라는 걸 잊지 마."

"그게 *내* 것이 된다 해도 네 것이기는 마찬가지일 거야."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하지만 이저벨라 린턴이 어리석을지는 몰라도 미치지는 않았어. 아무튼 네 말대로 그 일은 그만두지."

둘은 그 일을 입에서는 정말로 그만두었다. 캐서린은 아마 머릿속에서도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날 저녁 내내 그 일을 자주 떠올렸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린턴 부인이 방을 비울 일이 생길 때마다 그가 혼자 미소 짓는 것을, 아니 히죽 웃는 것을 보았고, 불길한 생각에 깊이 잠겨 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캐서린보다 주인 편에 붙어 있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주인은 다정하고 남을 잘 믿고 떳떳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마님은, 그 *반대*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제멋대로 할 여지를 자신에게 너무 넓게 허락하는 것 같아서, 나는 마님의 원칙을 거의 믿지 않았고 마님의 감정에는 더욱 공감하지 않았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워더링 하이츠와 그레인지가 둘 다 조용히 히스클리프 씨에게서 놓여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오기 전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나에게 끊이지 않는 악몽이었고, 내 짐작으로는 주인에게도 그랬으며, 그 사람이 하이츠에 머문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느님이 그곳의 길 잃은 양을 제멋대로 사악하게 헤매도록 내버려 두었고, 사나운 짐승 하나가 그

양과 양 우리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덮쳐서 죽일 때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11장

이런 일들을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이따금 덜컥 겁이 나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쓰고, 그 농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 보려고 나서곤 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실을 두고 무어라 쑥덕거리는지 일러 주는 게 내 도리라고 양심을 달래 보기도 했지만, 그다음에는 그 사람의 굳어 버린 나쁜 버릇이 떠올랐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그리고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지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그 음산한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를 꺼리고 말았다.

한번은 기머턴에 가는 길에 일부러 길을 돌아 옛 대문 앞을 지나갔다. 내 이야기가 이른 바로 그 무렵이었다. 맑고 서리가 내린 오후였고, 땅은 헐벗었고 길은 단단하게 말라 있었다. 나는 큰길이 왼편으로 갈라져 황야로 들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돌에 다다랐다. 거친 사암 기둥인데, 북쪽 면에는 W. H.라는 글자가, 동쪽 면에는 G.가, 남서쪽 면에는 T. G.가 새겨져 있었다. 그레인지와 하이츠와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였다. 해가 그 잿빛 머리에 노랗게 비쳐 여름을 떠올리게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별안간 어린 시절의 느낌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스무 해 전에 힌들리와 나는 그곳을 무척 좋아했다. 나는 비바람에 닳은 그 돌덩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몸을 굽혔고, 밑동 가까이에 난 구멍에 달팽이 껍데기와 조약돌이 아직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거기에 더 쉽게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즐겨 모아 두곤 했다. 그러자 현실처럼 생생하게, 어린 시절의 내 놀이 동무가 까맣고 네모진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작은 손에 쥔 납작한 돌 조각으로 흙을 파내며 시든 풀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가엾은 힌들리!"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흠칫했다. 그 아이가 얼굴을 들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고 내 눈이 잠깐 속아서 믿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지만, 곧바로 하이츠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일었다. 미신 같은 생각이 그 충동을 따르라고 나를 다그쳤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쩌지! 나는 생각했다. 아니면 곧 죽을 거라면! 이게 죽음의 징조라면! 집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마음이 어지러워졌고, 집이 눈에 들어오자 온 팔다리가 떨렸다. 그 환영이 나를 앞질러 가서 대문 너머로 이쪽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엉클어진 머리에 갈색 눈을 한 사내아이가 불그레한 얼굴을 창살에 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맨 처음 든 생각이 그랬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 그 애는 헤어턴, 바로 *내* 헤어턴이 틀림없었다. 열 달 전에 내가 떠날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아기!" 나는 어리석은 두려움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외쳤다. "헤어턴, 넬리야! 너를 돌봐 주던 넬리."

아이는 팔이 닿지 않는 데까지 뒷걸음질 치더니 커다란 부싯돌을 하나 집어 들었다.

"너희 아빠를 뵈러 왔어, 헤어턴." 나는 말을 덧붙였다. 그 몸짓을 보니, 넬리라는 사람이 그 애의 기억 속에 아직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애는 그 넬리를 눈앞의 나와 같은 사람으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아이는 던질 것을 쳐들었고, 나는 달래는 말을 꺼냈지만 그 손을 막지는 못했다. 돌은 내 모자에 맞았고, 그러자 그 꼬마의 더듬거리는 입술에서 욕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뜻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입에 익은 듯 힘주어 내뱉는 바람에 그 애기 같은 얼굴이 섬뜩할

만큼 독살스럽게 일그러졌다. 나리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일은 화가 나기보다 슬펐어요. 나는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오렌지 하나를 꺼내 달래려고 내밀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내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는데, 내가 약만 올리고 실망시키려는 줄로 아는 눈치였고, 그래서 나는 하나를 더 꺼내 보이되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쥐고 있었다.

"누가 그런 고운 말을 가르쳐 줬니, 아가?" 내가 물었다. "부목사님이?"

"부목사도 너도 염병할! 그거 내놔." 아이가 대답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말해 주면 줄게." 내가 말했다. "누가 너를 가르치니?"

"마귀 아빠." 아이가 대답했다.

"그럼 아빠한테서 뭘 배우는데?" 나는 말을 이었다.

아이가 과일을 잡으려고 펄쩍 뛰었고, 나는 그것을 더 높이 쳐들었다. "아빠가 뭘 가르쳐 주니?"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이가 말했다. "아빠 앞길에 얼씬대지 말라는 거 말고는. 아빠는 나를 못 견뎌 해. 내가 아빠한테 욕을 하니까."

"아! 그럼 마귀가 아빠한테 욕하라고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말했다.

"응, 아니." 아이가 느릿느릿 말했다.

"그럼 누가?"

"히스클리프."

나는 그 애가 히스클리프 씨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응!" 아이가 다시 대답했다.

왜 좋아하는지 그 까닭을 듣고 싶었지만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이런 말들뿐이었다. "몰라. 아빠가 나한테 하는 대로 그 사람이 아빠한테 갚아 줘. 아빠가 나한테 욕하면 그 사람이 아빠한테 욕해 줘. 그 사람이 나더러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그럼 부목사님이 읽고 쓰는 것도 안 가르쳐 주니?" 내가 캐물었다.

"응. 부목사가 문지방을 넘어오기만 하면 그 빌어먹을 이빨을 그 빌어먹을 목구멍에 처넣어 버린대. 히스클리프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오렌지를 아이 손에 쥐여 주고, 넬리 딘이라는 여자가 뜰 대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린다고 아빠한테 전하라고 일렀고, 아이는 길을 따라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힌들리 대신 히스클리프가 문간 돌 위에 나타났고, 나는 곧바로 돌아서서 있는 힘을 다해 길을 달려 내려와 이정표에 다다를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는데, 도깨비라도 불러낸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이 일은 이저벨라 아가씨의 일과는 별 상관이 없다. 다만 그 일로 나는 더욱 눈을 부릅뜨고 지키기로, 그리고 린턴 마님의 기분을 거슬러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나쁜 기운이 그레인지에 퍼지지 못하게 힘껏 막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번에 히스클리프가 왔을 때, 우리 아가씨는 마침 안뜰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아가씨는 사흘 동안 올케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짜증 섞인 투정도 그만두었으므로 우리는 한결 마음이 편했다. 히스클리프가 린턴 아가씨에게 쓸데없는 친절 하나 베푸는 버릇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가씨를 보자마자 그는 먼저 조심스럽게 집 앞쪽을 휘 둘러보았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게 물러섰다. 그러자 그는 포석을 가로질러 아가씨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가씨는 당황해서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그는 그러지 못하게 아가씨의 팔에 손을 얹었다. 아가씨는 고개를 돌렸고 그가 무언가 묻는 듯했지만 아가씨는 대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는 다시 한번 재빨리 집 쪽을 흘끗 보더니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악당은 뻔뻔스럽게도 아가씨를 끌어안았다.

"유다! 배신자!" 나는 소리를 질렀다. "위선자이기까지 하구나, 그렇지? 일부러 속여 넘기는 사기꾼이야."

"누가, 넬리?" 바로 내 곁에서 캐서린의 목소리가 말했다. 바깥의 두 사람을 지켜보는 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마님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마님의 하찮은 친구 말이에요!" 나는 열을 올려 대답했다. "저기 저 음흉한 악당이요. 아, 우리를 흘끗 봤어요. 이리 들어오네요! 아가씨를 미워한다고 마님한테 말해 놓고 아가씨한테 수작을 건 걸 그럴듯하게 둘러댈 배짱이 있을까요?"

린턴 부인은 이저벨라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 뜰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고, 1분 뒤 히스클리프가 문을 열었다. 나는 분한 마음을 얼마쯤 터뜨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지만, 캐서린은 화를 내며 입을 다물라고 하고는, 감히 주제넘게 건방진 혀를 놀리면 부엌에서 쫓아내겠다고 을러댔다.

"네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네가 이 집 안주인인 줄 알겠어!" 마님이 외쳤다. "너는 네 분수를 좀 알아야 해! 히스클리프, 이런 소란을 피워서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저벨라는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부탁이야, 내버려 둬. 여기서 대접받는 게 지겨워서 린턴이 너를 막으려고 빗장을 지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하느님, 그자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해 주소서!" 그 검은 악당이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몹시 미웠다. "하느님, 그자를 온순하고 참을성 있게 지켜 주소서! 날이 갈수록 그자를 천국으로 보내 버리고 싶어서 미치겠으니까!"

"쉿!" 캐서린이 안쪽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 왜 내 부탁을 무시했어? 그 애가 일부러 너한테 다가온 거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애가 원하면 나는 입 맞출 권리가 있고, 너는 반대할 권리가 없어. 나는 *네* 남편이 아니야. *네가* 나 때문에 질투할 필요는 없다고!"

"너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니야." 마님이 대답했다. "너를 위해서 질투하는 거야. 얼굴 펴. 나한테 인상 쓰지 마! 이저벨라가 좋으면 결혼하면 돼. 그런데 정말 좋아? 사실대로 말해, 히스클리프! 거봐, 대답을 못 하잖아. 틀림없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린턴 나리께서 누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걸 허락하실까요?" 내가 물었다.

"린턴은 허락해야 해." 마님이 딱 잘라 대꾸했다.

"그 사람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그 사람 허락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너 말이야, 캐서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몇 마디 해 두고 싶어. 네가 나를 지옥같이, 그래, 지옥같이 대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걸 너도 알아 두면 좋겠어! 듣고 있어? 내가 그걸 모를 거라고 우쭐해한다면 너는 바보고, 달콤한 말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천치야, 그리고 내가 앙갚음도 못 하고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그렇지 않다는 걸 똑똑히 보여 주겠어! 그동안은 네 시누이의 비밀을 일러 줘서 고마워. 맹세코 그걸 한껏 써먹을 거야. 그러니 너는 비켜서 있어!"

"이건 또 무슨 새로운 얼굴이야?" 린턴 부인이 깜짝 놀라 외쳤다. "내가 너를 지옥같이 대했고, 그래서 네가 앙갚음을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짐승아? 내가 언제 너를 지옥같이 대했어?"

"너한테 앙갚음하겠다는 게 아니야." 히스클리프가 아까보다 덜 사납게 대답했다. "그런 계획이 아니야. 폭군은 노예를 짓밟지만 노예들은 그 폭군에게 대들지 않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들을 짓밟지.

너는 재미 삼아 나를 고문해서 죽여도 좋아. 다만 나도 똑같이 좀 재미를 보게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모욕을 삼가 줘. 내 궁전을 허물어뜨려 놓고 오두막을 세워서는, 그걸 내 집으로 내준 네 자비심에 흐뭇해하지는 마. 네가 정말로 내가 이저벨라와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목을 따 버리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질투를 *안*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구나?" 캐서린이 외쳤다. "좋아, 아내를 주겠다는 말은 다시 하지 않을게. 그건 사탄한테 길 잃은 영혼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의 기쁨은 사탄처럼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데 있어. 네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에드거는 네가 왔을 때 부리던 심술을 이제 풀었고 나도 이제 막 마음이 놓이고 평온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꼴을 못 견디고 싸움을 일으키기로 작정한 것 같아. 할 테면 에드거하고 싸우고 그 누이를 속여, 히스클리프. 그러면 나한테 앙갚음할 가장 효과 좋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셈일 테니까."

이야기는 거기서 끊겼다. 린턴 부인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침울한 표정으로 난롯가에 앉았다. 마님이 부리던 정령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는데, 마님은 그것을 가라앉힐 수도 다스릴 수도 없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난롯가에 서서 못된 생각을 곱씹고 있었고, 나는 두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둔 채 주인을 찾으러 갔는데, 주인은 무엇 때문에 캐서린이 아래층에서 그토록 오래 머무는지 궁금해하던 참이었다.

"엘렌." 내가 들어가자 주인이 말했다. "마님을 보았소?"

"네, 부엌에 계세요, 나리." 내가 대답했다. "히스클리프 씨가 하는 짓 때문에 몹시 속이 상하셨어요. 정말이지 이젠 그 사람이 찾아오는 일을 다르게 정해 둘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무르게 굴어서 탈이 났고,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그러고 나서 나는 안뜰에서 본 장면과, 감히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뒤에 벌어진 말다툼을 죄다 이야기했는데,

마님이 나중에 손님을 감싸고 나서서 스스로 일을 그르치지만 않는다면 그 이야기가 마님에게 크게 해롭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에드거 린턴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힘들어했는데, 주인이 맨 처음 한 말을 듣고 나는 주인이 아내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참을 수가 없군!" 주인이 외쳤다. "그런 자를 친구라고 하고 나더러 그자를 상대하라고 억지를 부리다니, 수치스러운 일이오! 현관에서 하인 둘을 불러다 주시오, 엘렌. 캐서린이 그 천한 불한당과 더는 말다툼을 하며 머물러 있게 두지 않겠소. 비위는 맞출 만큼 맞춰 주었소."

주인은 아래로 내려가 하인들에게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이르고는 나를 뒤에 거느리고 부엌으로 갔다. 부엌 안의 두 사람은 다시 성난 말다툼을 시작한 참이었다. 적어도 린턴 부인은 새로 기운을 내어 꾸짖고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창가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마님의 거센 꾸지람에 얼마쯤 기가 꺾인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주인을 보고는 마님에게 조용히 하라고 급히 손짓을 했고, 마님은 왜 그러는지 그 까닭을 알아차리자 하던 말을 멈추고 별안간 입을 다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린턴이 마님에게 말했다. "저 불한당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도 여기 남아 있다니, 당신은 체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저자가 늘 하는 소리니까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군요. 저자의 비열함에 길이 들어서, 어쩌면 나도 그런 데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소!"

"문간에서 엿듣고 있었어요, 에드거?" 마님이 물었다. 그 말투에는 무심함과 남편의 노여움쯤 우습게 여기는 경멸이 함께 담겨 있어서, 일부러 남편의 속을 긁으려고 골라 낸 말투라는 것이 누가 봐도 뻔했다. 앞의 말에 눈을 들었던 히스클리프는 뒤의 말에 비웃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일부러 린턴 씨의 주의를 자기에게 끌려는 것 같았고, 그

뜻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에드거는 그를 상대로 높이 날뛰는 격정을 보여 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참아 왔소." 주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비참하고 타락한 성품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책임이 당신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캐서린이 당신과 계속 알고 지내기를 바라기에 나는 따랐소. 어리석게도 말이오. 당신이 있으면 그것이 도덕의 독이 되어 아무리 덕이 높은 사람이라도 물들이고 말 거요. 그러니 그 까닭에서,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나는 앞으로 이 집에 당신을 들이지 않겠고, 지금 당장 나가 달라고 통고하는 바요. 3분만 늦어도 당신은 억지로, 그리고 창피를 당하며 나가게 될 거요."

히스클리프는 비웃음이 가득한 눈으로 말하는 사람의 키와 몸집을 위아래로 재어 보았다.

"캐서린, 네 이 어린양이 황소처럼 으르렁대는구나!" 그가 말했다. "내 주먹에 머리통이 깨질 판인데. 맙소사! 린턴 씨, 당신이 때려눕힐 값어치도 없는 사람이라 정말 죽도록 유감이오!"

주인은 복도 쪽을 흘끗 보고 하인들을 데려오라고 나에게 손짓했다. 주인은 몸소 맞붙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 눈짓을 따랐지만, 무언가 눈치챈 린턴 부인이 뒤따라오더니 내가 하인들을 부르려는 순간 나를 뒤로 끌어당기고 문을 쾅 닫아 잠가 버렸다.

"정정당당하게 해!" 마님이 성난 얼굴로 놀라는 남편의 눈길에 대답했다. "저 사람한테 덤빌 용기가 없으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얻어맞든지 해. 그러면 있지도 않은 용기를 있는 척하는 버릇이 고쳐질 테니까. 아니, 당신이 열쇠를 손에 넣기 전에 내가 삼켜 버릴 거야! 내가 둘 다한테 잘해 준 보답을 아주 근사하게 받는구나! 한 사람의 나약한 성미와 다른 사람의 못된 성미를 줄곧 받아 주었더니, 그 고마움의

대가로 우습기 짝이 없을 만큼 어리석은 배은망덕 두 가지를 받다니! 에드거, 나는 당신과 당신 집안 편을 들고 있었어. 그런데 감히 나를 나쁘게 생각하다니, 히스클리프가 당신을 실컷 두들겨 패서 몸져눕게 해 주면 좋겠어!"

주인에게 그런 꼴을 만드는 데 굳이 매질까지 필요하지는 않았다. 주인은 캐서린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 했고, 마님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불이 가장 뜨거운 데로 던져 버렸고, 그러자 에드거 나리는 신경이 곤두서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하얘졌다. 주인은 아무리 해도 그 북받치는 감정을 누를 수 없었다. 괴로움과 굴욕이 뒤섞여 주인을 완전히 짓눌렀다. 주인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얼굴을 가렸다.

"아, 세상에! 옛날 같으면 이걸로 기사 작위를 받았겠네!" 린턴 부인이 외쳤다.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히스클리프가 당신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느니 차라리 임금님이 생쥐 마을을 치러 군대를 끌고 가겠지. 기운 내! 다치지는 않을 거야! 당신은 어린양이 아니라 젖먹이 산토끼 새끼야."

"그 피에 젖이 흐르는 겁쟁이와 잘 살아 보라고, 캐서린!" 마님의 친구가 말했다. "네 안목을 칭찬해 주지. 침이나 질질 흘리며 벌벌 떠는 저런 걸 나보다 더 좋다고 골랐구나! 저놈은 주먹으로 칠 것도 없고, 발로 걷어차 주면 꽤나 속이 시원하겠어. 저놈 우는 거야, 아니면 무서워서 까무러치려는 거야?"

그자는 다가가서 린턴이 기대고 있는 의자를 밀쳤다. 그는 거리를 두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주인이 재빨리 벌떡 일어나 그의 목을 정통으로 내리쳤는데, 몸집이 그보다 좀 더 작은 사람이었다면 그 한 방에 바닥에 나가떨어졌을 것이다. 그 한 방에 그는 1분 동안 숨을 쉬지

못했고, 그가 숨이 막혀 컥컥대는 사이에 린턴 씨는 뒷문으로 마당에 나가서 거기서 다시 현관으로 돌아갔다.

"거봐! 이제 여기 오는 건 끝장이야." 캐서린이 외쳤다. "이제 어서 가. 저 사람이 권총 두 자루하고 일꾼 여섯 명을 데리고 돌아올 거야. 저 사람이 우리 얘기를 엿들었다면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 히스클리프! 하지만 어서 가, 서둘러! 나는 네가 궁지에 몰리는 것보다 에드거가 궁지에 몰리는 걸 보는 게 나아."

"주먹 맞은 이 자리가 목구멍에서 이렇게 화끈거리는데 내가 그냥 갈 것 같아?" 그가 벼락같이 소리쳤다. "지옥에 맹세코, 안 가! 이 문지방을 넘기 전에 저놈 갈비뼈를 썩은 개암처럼 으스러뜨려 놓겠어! 지금 저놈을 때려눕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여 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저놈 목숨이 아깝거든 저놈한테 가게 해 줘!"

"나리는 안 오세요." 나는 조금 거짓말을 지어내 끼어들었다. "마부하고 정원사 둘이 와 있어요. 설마 그 사람들한테 떠밀려 길바닥으로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시겠지요! 저마다 몽둥이를 들었고, 나리는 아마 그 사람들이 분부를 제대로 따르는지 거실 창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원사들과 마부는 정말로 *와* 있었다. 그런데 린턴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벌써 안뜰에 들어와 있었다. 히스클리프는 다시 생각해 보고 하인 셋과 맞붙어 싸우는 일은 피하기로 마음을 정하고는, 부지깽이를 움켜쥐고 안쪽 문의 자물쇠를 부순 뒤 그들이 쿵쿵대며 들어오는 사이에 달아났다.

몹시 흥분한 린턴 부인은 나더러 위층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마님은 이 소동에 내가 한몫 거들었다는 것을 몰랐고 나는 마님이 끝까지 모르기를 바랐다.

"넬리,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마님이 소파에 몸을 내던지며 외쳤다. "대장장이 망치 천 개가 머릿속에서 두드려 대는 것 같아! 이저벨라한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 이 난리는 다 그 애 때문이야. 지금 그 애든 누구든 내 화를 더 돋우면 나는 미쳐 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넬리, 오늘 밤 에드거를 다시 보거든 내가 크게 앓아누울지도 모른다고 말해 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나를 끔찍이도 놀라게 하고 괴롭혔어! 나도 그 사람을 놀라게 해 주고 싶어. 게다가 그 사람이 와서 욕설이나 투정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할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틀림없이 맞받아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하느님만 아시겠지! 그렇게 해 줄 거지, 착한 넬리? 이 일에서 내가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무엇에 씌었기에 그 사람이 엿듣는 사람이 됐을까? 네가 나간 뒤에 히스클리프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긴 했지만, 나는 곧 그 애 마음을 이저벨라한테서 돌려놓을 수 있었을 테고, 나머지 말은 아무 뜻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다 엉망이 돼 버렸어. 어떤 사람들한테 악마처럼 붙어 다니는, 제 흉을 듣고 싶어 하는 바보 같은 욕심 때문에! 에드거가 우리 얘기를 엿듣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나빠질 일은 하나도 없었을 거야. 정말이지,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 목이 쉬도록 히스클리프를 꾸짖고 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터무니없이 언짢은 말투로 나한테 대들었을 때, 나는 두 사람이 서로 무슨 짓을 하든 거의 상관하지 않았어, 더구나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는 모두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를 만큼 오랫동안 뿔뿔이 갈라지게 되리라는 걸 느꼈으니까! 좋아, 히스클리프를 친구로 둘 수 없다면, 에드거가 치사하게 질투를 한다면, 나는 내 가슴을 찢어서 그 두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겠어, 막다른 데까지 몰렸을 때 모든 걸 단번에 끝내는 길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건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을 때를 위해 남겨 둬야 할 일이니까, 린턴한테 느닷없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겠어. 지금까지 그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할까 봐 조심할 줄은 알았어. 그러니 너는 그 사람한테 그 조심을 그만두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 주고, 내 성미가 얼마나 불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미친 사람처럼 되는지 일깨워 줘. 그 얼굴에서 그 무심한 표정 좀 걷어 내고 나를 좀 더 걱정하는 얼굴을 해 주면 좋겠어."

내가 그 분부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으니 틀림없이 마님은 꽤 약이 올랐을 것이다. 마님은 아주 진심으로 그런 분부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미리부터 제 성질이 터지는 것을 써먹을 궁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질에 휩쓸려 있을 때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마님 말마따나 남편을 '놀라게 해서' 마님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남편의 괴로움을 더 늘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거실로 오는 주인과 마주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말다툼을 시작할지 엿들으려고 주제넘게 발길을 돌려 되돌아갔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주인이었다.

"그대로 있어요, 캐서린." 주인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노여움은 조금도 없었고 서글픈 낙담만 가득했다. "나는 오래 있지 않을 거요. 다투러 온 것도 아니고 화해하러 온 것도 아니오. 다만 오늘 저녁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당신이 그자와 계속 가까이 지낼 생각인지 알고 싶을 뿐이오……"

"아, 제발." 마님이 발을 구르며 말을 끊었다. "제발, 지금은 그 얘기 그만해! 당신의 그 찬 피는 끓어오르게 할 수가 없어. 당신 핏줄에는 얼음물이 가득 찼어. 그런데 내 핏줄은 펄펄 끓고 있어서, 그렇게 싸늘한 꼴을 보면 피가 미친 듯이 춤을 춘다고."

"나를 쫓아 버리고 싶으면 내 물음에 대답해요." 린턴 씨가 끈질기게 말했다. "당신은 꼭 대답해야 해요. 그렇게 사납게 굴어도 나는 겁나지 않아요.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 못지않게 태연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았으니까. 앞으로 히스클리프를 버리겠소, 아니면 나를 버리겠소? 당신이 *내* 친구이면서 동시에 *그자의* 친구일 수는 없소.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느 쪽을 고르는지 꼭 *알아야겠소*."

"나는 혼자 있어야겠어!" 캐서린이 미친 듯이 외쳤다. "그렇게 해 달라고! 내가 서 있지도 못하는 게 안 보여? 에드거, 당신, 당신은 나가!"

마님은 종을 흔들어 대다가 끝내 쨍 소리와 함께 종이 부서졌고, 나는 느긋하게 들어갔다. 그토록 터무니없고 못된 발작이라니, 성인이라도 성미를 잃을 만했다! 마님은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찧으며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이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지나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린턴 씨는 별안간 뉘우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주인은 나더러 물을 가져오라고 했다. 마님은 말할 숨도 없었다. 나는 물을 한 잔 가득 떠 왔는데, 마님이 아무리 해도 마시려 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그 물을 마님 얼굴에 확 뿌렸다. 몇 초 뒤 마님은 몸을 뻣뻣하게 쭉 뻗더니 눈을 허옇게 뒤집었고, 핏기가 가셨다가 시퍼렇게 질린 뺨이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고, 린턴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나는 속삭였다. 마음속으로는 나도 겁이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만, 주인이 굽히지 않기를 바랐다.

"입술에 피가 묻었소!" 주인이 몸서리치며 말했다.

"상관 마세요!" 나는 매몰차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인이 오기 전에 마님이 미친 듯한 발작을 부려 보이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조심성 없이 큰 소리로 그 이야기를 했고, 마님이 벌떡 일어난 것을 보면 마님도 그 말을 다 들은 게 틀림없었다. 머리칼은 어깨 위로 흩날리고 눈은 번득였으며, 목과 팔의 힘줄이 사람 같지 않게 불거져 있었다. 나는 적어도 뼈 몇 대는 부러질 거라고 각오했지만, 마님은 잠깐 주위를 노려보기만 하더니 방에서 뛰쳐나갔다. 주인이 따라가 보라고

해서 나는 마님의 침실 문 앞까지 따라갔지만, 마님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 버리는 바람에 나는 그 이상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이 아침을 먹으러 내려올 기색이 없기에 나는 위로 가져다 드릴지 여쭈러 갔다. "싫어!" 마님이 딱 잘라 대답했다. 점심때도 차 마실 때도 같은 물음을 되풀이했고, 그다음 날에도 다시 물었지만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린턴 씨는 린턴 씨대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 주인은 이저벨라와 한 시간 동안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히스클리프가 다가온 데 대해 아가씨가 마땅히 느껴야 할 혐오감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가씨의 얼버무리는 대답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어서 흡족하지 못한 채 캐묻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다만 끝에 가서 주인은, 아가씨가 그 하찮은 구혼자를 부추길 만큼 정신이 나갔다면 그날로 아가씨와 자기 사이의 모든 혈연이 끊어질 거라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제12장

린턴 아가씨는 늘 말없이, 그리고 거의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영지와 뜰을 힘없이 서성였고, 아가씨의 오빠는 펼쳐 보지도 않는 책들 사이에 틀어박혀 있었다. 내 짐작으로는 캐서린이 제 행동을 뉘우치고 제 발로 찾아와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줄곧 품고 기다리느라 지쳐 가는 듯했다. 그리고 *마님은* 끼니마다 에드거가 자기가 없어서 목이 메고 자존심만 아니면 당장 달려와 자기 발밑에 몸을 던질 거라고 여기는지 고집스럽게 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레인지의 담장 안에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뿐이고 그 하나가 바로 내 몸속에 들어 있다고 굳게 믿으며 집안일을 돌보았다. 나는 아가씨에게 위로의 말을 허비하지 않았고 마님에게도 타이르는 말을 허비하지 않았으며,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이름이라도 듣고 싶어 애태우는 주인의 한숨에도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들 제자리로 돌아오게 내버려 두기로 마음먹었고, 지루할 만큼 더디긴 했지만 마침내 일이 나아지는 기미가 희미하게 밝아 오는 것 같아서 기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흘째 되는 날 린턴 부인은 문빗장을 벗기고, 물주전자와 유리병의 물을 다 마셨으니 물을 새로 가져오고 귀리죽도 한 그릇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어 가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것을 에드거의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로 여겼고, 그런 말은 조금도 믿지 않았으므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마님에게 차와 마른 토스트를 가져다주었다.

마님은 허겁지겁 먹고 마시더니 다시 베개에 털썩 기대어 주먹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아, 나는 죽을 거야." 마님이 외쳤다. "아무도 나를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그걸 먹지 말걸 그랬어." 그러고 한참 뒤에 마님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안 죽을 거야. 그 사람이 좋아할 테니까. 그 사람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없어도 아쉬워하지 않을 거야!"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마님?" 나는 마님의 섬뜩한 얼굴과 이상하게 과장된 거동에도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물었다.

"그 무심한 인간은 뭘 하고 있어?" 마님이 여윈 얼굴에서 짙게 엉킨 머리채를 밀어젖히며 따져 물었다. "혼수상태에라도 빠졌어, 아니면 죽었어?"

"둘 다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린턴 나리 말씀이시라면요. 나리는 그런대로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른 말벗이 없으니 줄곧 책 속에 묻혀 계셔서 공부에 마땅한 정도보다 좀 더 오래 매달려 계시긴 하지만요."

마님의 진짜 상태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님이 병의 일부를 꾸며서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책 속에!" 마님이 어처구니없다는 듯 외쳤다. "나는 죽어 가는데! 무덤 문턱에 서 있는데! 맙소사!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사람은 알기나 해?" 마님은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저게 캐서린 린턴이야? 그 사람은 내가 토라져 있다고, 어쩌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이게 무시무시한 진심이라고 네가 알려 줄 수 없어? 넬리, 너무 늦지 않았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는 대로 나는 둘 중 하나를 고르겠어, 당장 굶어 죽든지(그 사람한테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벌이 되겠지만), 아니면 몸을 추슬러서 이 고장을

떠나든지. 지금 그 사람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는 거야? 조심해. 그 사람이 정말 내 목숨에 그렇게까지 아무 관심이 없어?"

"아니, 마님." 내가 대답했다. "나리께서는 마님이 정신이 어지러우시다는 건 꿈에도 모르세요. 그리고 물론 마님이 굶어서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실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 그럴 거라고 그 사람한테 말해 줄 수 없어?" 마님이 대꾸했다. "그 사람을 설득해 줘! 네 생각이라고 하고, 내가 꼭 그러고 말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아니에요, 마님은 잊으셨나 봐요." 내가 넌지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음식을 맛있게 좀 드셨잖아요. 내일이면 그 덕을 보실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일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마님이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당장 내 목숨을 끊겠어! 이 끔찍한 사흘 밤 동안 나는 눈꺼풀 한 번 붙이지 못했어. 아, 얼마나 시달렸는지! 넬리, 나는 무언가에 홀려 있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상도 하지! 사람들이 다 서로 미워하고 업신여겨도 나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몇 시간 사이에 다들 원수가 되어 버렸어. *다들* 그랬어, 틀림없어. *이 집* 사람들이. 그 차가운 얼굴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다니 얼마나 쓸쓸할까! 이저벨라는 겁에 질리고 질겁해서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지. 캐서린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 끔찍할 테니까. 그리고 에드거는 엄숙하게 곁에 서서 끝나는 걸 지켜보다가, 제 집에 평화를 되찾아 주셨다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제 *책*으로 돌아가겠지! 내가 죽어 가는데, 느낌이라는 걸 가진 모든 것의 이름으로 묻겠는데, 그 사람이 *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해?"

린턴 씨가 철학자처럼 체념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머릿속에 심어 준 탓에 마님은 그 생각을 견디지 못했다. 마님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열에 들뜬 혼란을 광기로 키워 가더니 이로 베개를 물어뜯었고, 그러고는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몸을 일으키며 창을 열어 달라고 했다. 한겨울이었고 북동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는 안 된다고 했다. 마님의 얼굴에 스쳐 가는 표정이며 시시각각 바뀌는 기분이 나를 몹시 놀라게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예전에 마님이 앓았던 병과, 마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던 의사의 당부가 떠올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납게 날뛰던 마님은 이제 한쪽 팔로 몸을 버티고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방금 찢어 놓은 틈에서 깃털을 뽑아 종류대로 홑이불 위에 늘어놓는 데서 어린애 같은 재미를 찾는 듯했다. 마님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 뒤였다.

"이건 칠면조 깃털이야." 마님이 혼자 중얼거렸다. "이건 들오리 거고, 이건 비둘기 거야. 아, 베개에 비둘기 깃털을 넣었구나. 내가 죽지 못한 것도 당연해! 누울 때는 잊지 말고 이걸 바닥에 내던져야지. 그리고 이건 수컷 뇌조 거고, 이건, 천 개 가운데서도 알아볼 수 있어, 댕기물떼새 거야. 예쁜 새. 황야 한복판에서 우리 머리 위를 빙빙 돌곤 했지. 구름이 언덕 마루에 닿아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둥지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 이 깃털은 히스 벌판에서 주운 거야. 그 새는 총에 맞지 않았어. 우리는 겨울에 그 둥지를 봤는데, 작은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었어. 히스클리프가 그 위에 덫을 놓아서 어미 새들이 감히 오지 못했던 거라, 그 뒤로는 절대로 댕기물떼새를 쏘지 않겠다고 내가 그 애한테 약속을 받았고, 그 애는 정말 쏘지 않았어. 그래, 여기 또 있네! 그 애가 내 댕기물떼새들을 쏘았어, 넬리? 그중에 빨간 게 있어? 어디 봐."

"그 애들 장난은 그만두세요!" 나는 말을 끊고 베개를 빼앗아 구멍 난 쪽을 매트리스 쪽으로 돌려놓았다. 마님이 속에 든 것을 한 움큼씩 꺼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 난장판 좀 봐! 솜털이 눈처럼 날리네."

나는 여기저기 다니며 그것을 주워 모았다.

"넬리, 너를 보니까." 마님이 꿈꾸듯 말을 이었다. "늙은 여자가 보여. 머리는 하얗게 셌고 어깨는 굽었어. 이 침대는 페니스톤 바위산 밑의 요정 동굴이고, 너는 우리 암송아지들을 해코지하려고 요정의 화살촉을 줍고 있어, 내가 곁에 있으니까 그게 그냥 양털 뭉치인 척하면서 말이야. 쉰 해 뒤에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아. 나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 안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네가 정말로 그 쭈그렁 할멈이라고 믿을 테고, 내가 지금 정말로 페니스톤 바위산 밑에 *있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지금이 밤이라는 걸 알고, 탁자 위에 촛불 두 자루가 켜져서 그 검은 장롱이 흑옥처럼 반짝인다는 것도 알아."

"검은 장롱이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주무시면서 잠꼬대를 하시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벽에 붙어 있잖아." 마님이 대답했다. "정말 *이상해* 보여. 그 안에 얼굴이 보여!"

"이 방에는 장롱이 없어요. 있었던 적도 없고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마님을 지켜볼 수 있게 침대 휘장을 걷어 올리며 말했다.

"*너는* 저 얼굴이 안 보여?" 마님이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마님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일어나 숄로 거울을 덮었다.

"아직 저 뒤에 있어!" 마님이 불안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움직였어. 누구야? 네가 나가면 저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넬리, 이 방에 귀신이 있어! 혼자 있기가 무서워!"

나는 마님의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일렀는데, 잇따라 오싹하는 떨림이 마님의 몸을 뒤흔들었는데도 마님은 *기어이* 거울 쪽으로 눈길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우겼다. "그건 *마님 자신*이었어요. 조금 전에는 마님도 아셨잖아요."

"나 자신!" 마님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시계가 열두 시를 치고 있어! 그럼 정말이구나! 끔찍해!"

마님이 손가락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끌어당겨 눈을 덮자, 나는 남편을 부르려고 살그머니 문 쪽으로 가 보려 했지만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다시 불려 돌아왔다. 숄이 거울틀에서 흘러내렸던 것이다.

"아니, 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외쳤다. "이제 누가 겁쟁이예요? 정신 차리세요! 저건 유리예요, 거울이라고요, 마님. 거기 마님 모습이 비치는 거고, 저기 마님 곁에 저도 있잖아요."

마님은 떨면서 어리둥절한 채 나를 꼭 붙들었지만, 차츰 얼굴에서 공포가 걷혔고 창백하던 얼굴은 부끄러워 발갛게 달아올랐다.

"아, 어쩌나! 나는 집에 있는 줄 알았어." 마님이 한숨을 쉬었다. "워더링 하이츠의 내 방에 누워 있는 줄 알았어. 몸이 약해져서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나 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 줘. 잠들기가 무서워. 꿈이 너무 끔찍해."

"푹 주무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마님."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셨으니 다시는 굶으실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 옛집의 내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 있다면!" 마님이 두 손을 비틀며 쓰라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격자창 옆 전나무에서 울리는 그 바람 소리. 그 바람을 좀 느끼게 해 줘. 황야에서 곧장 내려오는 바람이야. 한 번만 숨 쉬게 해 줘!"

나는 마님을 달래려고 여닫이창을 몇 초 동안 조금 열어 주었다. 찬 바람이 휙 몰려 들어왔고, 나는 창을 닫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마님은 눈물에 흠뻑 젖은 얼굴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기운이 완전히 꺾였고, 그 불같던 우리 캐서린은 칭얼대는 아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여기 틀어박힌 지 얼마나 됐어?" 마님이 별안간 기운을 되찾아 물었다.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은 목요일 밤, 아니 이제는 금요일 아침이고요."

"뭐라고! 같은 주의?" 마님이 외쳤다. "겨우 그것밖에 안 됐어?"

"찬물하고 부아만 먹고 살기에는 충분히 긴 동안이지요." 내가 말했다.

"글쎄, 지긋지긋하게 긴 시간 같은데." 마님이 미심쩍은 듯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더 됐을 거야. 두 사람이 싸우고 난 뒤에 내가 거실에 있었던 것, 에드거가 잔인하게 내 속을 긁었던 것, 그리고 내가 절망해서 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던 게 기억나. 문에 빗장을 지르자마자 캄캄한 어둠이 나를 덮쳤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들볶으면 내가 틀림없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미쳐 날뛰게 되리라는 걸 그때 내가 얼마나 확실히 느꼈는지 에드거한테 설명할 수가 없었어! 혀도 머리도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아마 내 고통을 짐작도 못 했겠지.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 목소리한테서 달아나려고 애쓸 정신만 겨우 남아 있었어.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는데, 넬리,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자꾸자꾸 되살아나서 내 정신이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웠는지 말해 줄게. 저 탁자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서 창의 잿빛 네모를 어렴풋이 바라보는데, 나는 내가 집에 있는 참나무 상자 침대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막 깨어나서 무엇인지 떠올릴 수 없는 어떤 큰 슬픔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 나는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애를 태웠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내 삶의 지난 일곱 해가 통째로 텅 비어서,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것조차 떠오르지 않았어! 나는 어린아이였고,

아버지는 막 땅에 묻혔고, 내 괴로움은 힌들리가 나를 히스클리프한테서 떼어 놓으라고 명령한 데서 생긴 거였어. 나는 처음으로 혼자 잠자리에 눕혀졌고, 밤새 울다가 음울한 선잠에서 깨어나 상자 침대의 판자 문을 밀어젖히려고 손을 들었는데, 손이 탁자 윗면에 부딪쳤어! 내가 그 손을 양탄자 위로 쓸어내리는 순간 기억이 와락 밀려들었고, 방금 전의 괴로움은 그보다 더 크게 터져 나온 절망에 삼켜져 버렸어. 왜 그렇게 미칠 듯이 비참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게 틀림없어. 그럴 까닭이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봐. 열두 살 때 내가 하이츠에서, 어릴 적의 모든 것에서, 그때 히스클리프가 그랬듯이 내 전부였던 것에서 억지로 뜯겨 나와서, 단번에 린턴 부인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안주인이, 낯선 사람의 아내가 되어 버렸다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이었던 곳에서 쫓겨나 떠도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말이야. 내가 기어 다니던 그 구렁텅이를 너도 얼핏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고개를 저을 테면 저어, 넬리.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데는 *너도* 한몫했어! 너는 에드거한테 말했어야 했어, 정말 그랬어야 했어. 그래서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게 만들었어야 했어! 아, 몸이 타는 것 같아! 밖에 나가 있으면 좋겠어! 다시 계집애가 되면 좋겠어. 반쯤 야만스럽고 억세고 자유롭고, 상처를 입어도 미쳐 날뛰는 대신 웃어넘기던 그때로!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몇 마디 말에 내 피가 지옥처럼 들끓을까? 저 언덕의 히스 덤불 속에 한 번만 들어가 있으면 틀림없이 다시 나 자신이 될 거야. 창을 다시 활짝 열어. 열린 채로 고정해 놔! 빨리, 왜 꼼짝도 안 해?"

"마님을 추위에 얼어 죽게 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나를 살게 해 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겠지." 마님이 뚱하게 말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할 만큼 힘이 없지는 않아. 내 손으로 열겠어."

그러고는 내가 막을 새도 없이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아주 비틀거리며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창을 활짝 젖히고 몸을 내밀었는데, 칼날처럼 날카롭게 어깨를 에는 서릿바람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애원했고 마침내 억지로라도 물러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정신이 나간 사람의 힘이 내 힘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마님이 정말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것은 그 뒤에 마님이 한 짓과 헛소리를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 달은 없었고 아래로는 모든 것이 안개 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멀든 가깝든 어느 집에서도 불빛 하나 반짝이지 않았다. 다들 진작에 불을 끈 뒤였고, 워더링 하이츠의 불빛은 원래 여기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님은 그 불빛이 보인다고 우겼다.

"봐!" 마님이 들떠서 외쳤다. "저게 촛불이 켜진 내 방이고, 그 앞에서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어. 다른 촛불은 조지프의 다락방에 켜져 있는 거야. 조지프는 밤늦게까지 안 자, 그렇지? 내가 집에 돌아오면 대문을 잠그려고 기다리는 거야. 흥, 아직 한동안은 기다려야 할걸. 거칠고 험한 길이고, 그 길을 가려면 마음이 슬퍼.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기머턴 교회를 지나가야 해! 우리는 둘이서 그 교회의 유령들한테 몇 번이나 맞섰고, 무덤들 사이에 서서 유령들더러 나와 보라고 하는 내기를 하곤 했지. 그런데 히스클리프, 지금 내가 내기를 걸면 너는 해 볼 거야? 해 보겠다면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혼자 눕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12피트 깊이에 묻고 그 위에 교회를 무너뜨려 덮어도, 네가 내 곁에 올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마님은 말을 멈추었다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애가 생각하고 있어. 차라리 내가 자기한테 와 주면 좋겠대! 그럼 길을 찾아봐! 저 교회 묘지를 지나지 않는 길로. 넌 참 굼뜨구나! 그래도 됐어, 너는 늘 나를 따라왔으니까!"

미친 사람한테 이치를 따져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마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은 채 마님에게 둘러 줄 무언가를 어떻게 손에 넣을까 궁리하고 있었다(활짝 열린 격자창 옆에 마님을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문손잡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제야 서재에서 나오는 길이던 린턴 씨가 방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나는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다. 주인은 현관 복도를 지나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에서인지 걱정이 되어서인지 그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와 본 길이었다.

"아, 나리!" 나는 눈앞의 광경과 방 안의 싸늘한 공기를 보고 주인의 입술에 터져 나오려던 외침을 막으며 외쳤다. "가엾은 마님이 편찮으신데,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도무지 어쩔 수가 없어요. 제발 이리 오셔서 주무시라고 마님을 좀 설득해 주세요. 노여움은 잊으세요. 마님은 마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시니까요."

"캐서린이 아프다고?" 주인이 우리 쪽으로 서둘러 오며 말했다. "창을 닫아요, 엘렌! 캐서린! 아니, 왜……"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린턴 부인의 초췌한 모습에 주인은 말문이 막혀서 겁에 질린 얼굴로 마님과 나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마님은 여기서 속을 태우고 계셨어요."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한 번도 불평을 안 하셨는데, 오늘 저녁까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들이지 않으셔서 우리도 마님 형편을 몰랐으니 나리께 알려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별일 아니에요."

변명을 하면서도 내 말이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별일 아니라고, 엘렌 딘?" 주인이 엄하게 말했다. "이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거요!" 그러고는 아내를 품에 안고 괴로운 얼굴로 아내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에 마님은 남편을 알아보는 눈길을 조금도 보내지 않았다. 넋 나간 마님의 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이 아주 나가 버린 것은 아니어서, 바깥 어둠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들이자 마님은 차츰 남편에게 눈길을 모았고,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아! 왔구나, 에드거 린턴?" 마님이 성난 기세로 말했다. "당신은 필요 없을 때는 꼭 눈에 띄고 필요할 때는 절대로 안 보이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야! 이제 슬퍼하는 소리를 실컷 듣게 생겼군,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저기 저 바깥의 내 비좁은 집으로 가는 걸 막지는 못할 거야. 봄이 다 가기 전에 나는 그 쉴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 저기야. 잘 들어 둬, 예배당 지붕 밑 린턴 집안 사람들 틈이 아니라, 하늘이 트인 바깥에 묘비 하나 세워 놓고.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들한테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마음대로 해!"

"캐서린,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요?" 주인이 말을 꺼냈다. "이제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오? 당신은 그 몹쓸 놈 히스……"

"쉿!" 린턴 부인이 외쳤다. "당장 입 다물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이 창에서 뛰어내려 당장 모든 걸 끝내 버리겠어! 지금 당신 손에 닿는 건 가져도 좋아. 하지만 당신이 다시 내게 손을 대기 전에 내 영혼은 저 언덕 꼭대기에 가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 에드거. 당신을 원할 때는 지나갔어. 당신 책으로 돌아가. 당신한테 위안거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한테서 당신이 가졌던 건 다 사라졌으니까."

"마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나리." 내가 끼어들었다. "저녁 내내 헛소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조용히 쉬시게 하고 제대로 돌봐 드리면 기운을 차리실 거예요. 앞으로는 마님 속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당신 충고는 더 듣고 싶지 않소." 린턴 씨가 대답했다. "당신은 마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나더러 아내를 들볶게 부추겼소. 그리고 이 사흘 동안 아내가 어땠는지 귀띔 한마디 해 주지 않다니! 정말 매정하오! 몇 달을 앓아도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요!"

남이 제멋대로 고약하게 군 것을 두고 내가 꾸중을 듣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린턴 마님이 고집 세고 휘어잡으려 드는 성품이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나는 외쳤다. "하지만 나리께서 마님의 그 사나운 성미를 북돋아 주고 싶어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마님 비위를 맞추려면 히스클리프 씨를 못 본 척해야 하는 줄도 몰랐고요. 저는 나리께 말씀드려서 충실한 하인의 도리를 다했는데, 충실한 하인의 품삯을 톡톡히 받는군요! 좋아요, 다음번에는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삼지요. 다음번에는 나리께서 손수 소식을 알아보세요!"

"다음번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들고 오면 이 집을 나가야 할 거요, 엘렌 딘." 주인이 대답했다.

"그럼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는 말씀이세요, 린턴 나리?" 내가 말했다. "히스클리프 씨가 아가씨한테 구애를 하러 오는 것도, 나리가 안 계신 틈을 타서 일부러 마님한테 나리 흉을 보러 드나드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캐서린은 정신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제게 맞춰 알아듣는 데는 눈치가 빨랐다.

"아! 넬리가 배신자 노릇을 했구나." 마님이 격하게 외쳤다. "넬리는 숨어 있던 내 원수야. 이 마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요정의 화살촉을 찾아다녔구나! 놔줘, 저 여자를 뉘우치게 해 줄 테니! 울부짖으면서 제 말을 거둬들이게 해 주겠어!"

미친 사람의 분노가 마님의 눈썹 밑에서 불타올랐고, 마님은 린턴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는데, 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꾸물거릴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내 책임으로 의사를 부르러 가기로 마음먹고 방을 나왔다.

길로 나가려고 뜰을 지나는데, 벽에 말고삐 거는 쇠고리가 박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들쭉날쭉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바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움직이는 게 분명했다. 마음은 급했지만, 그것이 저세상에서 온 무엇이었다는 믿음이 평생 내 머릿속에 박혀 버리지 않도록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찬찬히 살펴보았다. 눈으로 보았다기보다 손으로 더듬어서 그것이 이저벨라 아가씨의 스패니얼 강아지 패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몹시 놀라고 어리둥절했는데, 패니는 손수건에 목이 매달려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나는 얼른 강아지를 풀어 주고 뜰 안으로 들어 옮겼다. 아가씨가 잠자리에 들러 위층으로 올라갈 때 그 강아지가 뒤따라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나는 강아지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지, 어떤 못된 인간이 이런 짓을 했는지 몹시 궁금했다. 쇠고리에 묶인 매듭을 푸는 동안 멀리서 말발굽이 내달리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리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에 생각할 일이 하도 많아서 그 일을 거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 새벽 두 시에 그런 곳에서 나기에는 이상한 소리였는데도 말이다.

다행히 내가 거리를 올라갈 때 케네스 선생이 마을의 환자를 보러 막 집을 나서던 참이었고, 캐서린 린턴의 병세를 듣고는 곧바로 나와 함께 돌아가 주기로 했다. 선생은 꾸밈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마님이 전보다 자기 지시를 더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는 한 이번 두 번째 발작을 견뎌 내기 어려울 거라는 의심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넬리 딘." 선생이 말했다. "아무래도 무슨 다른 까닭이 있는 것 같아. 그레인지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위쪽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캐서린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처자가 하찮은 일로 앓아눕지는 않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앓아눕지 말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열병 같은 걸 앓으면 낫게 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거든. 어떻게 시작된 거야?"

"나리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언쇼 집안 사람들 성미가 얼마나 사나운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린턴 마님은 그중에서도 으뜸이세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말다툼에서 시작됐어요. 마님이 노발대발하시다가 발작 같은 걸 일으키셨어요. 적어도 마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한창 화가 났을 때 뛰쳐나가서 방에 틀어박히셨거든요. 그 뒤로는 음식을 마다하셨고, 지금은 헛소리를 하시다가 반쯤 꿈속에 계시다가 하시는데, 곁에 있는 사람은 알아보시지만 머릿속은 온갖 이상한 생각과 헛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린턴 씨가 상심하겠지?" 케네스가 묻듯이 말했다.

"상심하다니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슴이 찢어지실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쓸데없이 나리를 더 놀라게 하지는 마세요."

"글쎄, 조심하라고 내가 일렀는데." 내 길동무가 말했다. "내 경고를 흘려들었으니 그 대가는 치러야지! 요새 히스클리프 씨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았나?"

"히스클리프는 그레인지에 자주 드나들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그 사람과 어울리시는 걸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마님이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을 알았던 덕분이지요. 지금은 그 사람이 찾아오는 수고는 덜게 되었어요. 린턴 아가씨한테 주제넘은 마음을 품은 걸 드러냈거든요. 다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린턴 아가씨는 그 사람을 쌀쌀맞게 대하나?" 의사가 다음으로 물었다.

"아가씨가 저한테 속을 털어놓지는 않으세요." 나는 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꾸했다.

"그렇지, 그 아가씨는 속을 알 수가 없어."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 속을 남한테 안 내보이지!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아가씨야. 믿을 만한 데서 들었는데, 어젯밤(아주 고약한 밤이었지!) 그 아가씨하고 히스클리프가 너희 집 뒤 숲에서 두 시간 넘게 거닐었는데, 그 사람은 아가씨더러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자기 말에 올라타 함께 떠나자고 졸랐다는군! 내게 알려 준 사람 말로는, 다음에 만날 때는 떠날 채비를 해 두겠다고 아가씨가 명예를 걸고 약속해서야 겨우 그 사람을 떼어 놓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게 언제인지는 못 들었다지만, 아무튼 린턴 씨더러 눈을 똑바로 뜨고 지키라고 해!"

이 소식에 나는 새로운 걱정으로 가득 차서 케네스를 앞질러 거의 내내 뛰다시피 돌아왔다. 강아지는 아직도 뜰에서 깽깽거리고 있었다. 나는 잠깐 짬을 내어 강아지에게 대문을 열어 주었지만, 강아지는 집 문으로 가지 않고 풀 냄새를 킁킁 맡으며 이리저리 내달렸고, 내가 붙잡아 안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길로 달아났을 것이다. 이저벨라의 방으로 올라가 보니 내 의심이 들어맞았다. 방은 비어 있었다. 내가 몇 시간만 일찍 왔더라면 린턴 마님의 병 때문에 아가씨가 그 경솔한 걸음을 멈추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당장 뒤쫓으면 따라잡을 가망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뒤쫓을 수 없었고, 집안사람들을 깨워서 온 집을 발칵 뒤집을 엄두도 나지 않았으며, 지금 당한 불행에 정신이 팔려 두 번째 슬픔을 견딜 여력이 없는 주인에게 그 일을 털어놓을 엄두는 더욱 나지 않았다! 입을 다물고 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케네스가 도착하자 나는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얼굴로 선생이 왔다고 알리러 갔다. 캐서린은 뒤숭숭한 잠에 빠져 있었다. 남편이 지나친 발작을 가까스로 가라앉힌 것이다. 주인은 이제 아내의 베개

위로 몸을 숙인 채, 괴로울 만큼 표정이 풍부한 아내의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 하나 변화 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는 손수 병세를 살펴보더니, 마님 둘레를 늘 완전히 고요하게 지켜 주기만 하면 좋은 결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주인에게 희망 섞인 말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험이 죽음보다도 영영 정신을 잃는 쪽이라고 넌지시 일러 주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린턴 씨도 그랬다. 실은 우리는 아예 자리에 눕지도 않았고, 하인들도 모두 여느 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살금살금 집 안을 돌아다녔고, 일하다가 서로 마주치면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이저벨라 아가씨 말고는 다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가씨가 참 곤히도 잔다고 수군대기 시작했고, 아가씨의 오빠도 누이가 일어났느냐고 묻고는 누이를 기다리며 조바심을 내고 올케를 그토록 걱정하지 않는다며 서운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주인이 나더러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할까 봐 벌벌 떨었지만, 다행히 아가씨가 달아났다는 것을 맨 먼저 알리는 그 괴로운 일만은 면했다. 아침 일찍 기머턴에 심부름을 갔던 하녀 하나가, 생각 없는 계집애였는데, 입을 딱 벌린 채 헐레벌떡 위층으로 올라오더니 방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아이고,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이래요? 주인 나리, 주인 나리, 우리 아가씨가……"

"조용히 해!" 나는 그 시끄러운 꼴에 화가 나서 얼른 소리쳤다.

"목소리를 낮춰라, 메리. 무슨 일이냐?" 린턴 씨가 말했다. "아가씨가 어쨌다는 거냐?"

"가셨어요, 가 버리셨어요! 저 히스클리프가 아가씨를 데리고 달아났대요!" 하녀가 숨을 헐떡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린턴이 불안해서 일어서며 외쳤다.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네 머리에 들어갔냐? 엘렌 딘, 가서 아가씨를

찾아보시오.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주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녀를 문간으로 데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까닭을 대라고 다시 다그쳤다.

"저, 오는 길에 여기 우유를 가지러 오는 젊은이를 만났는데요." 하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레인지에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마님이 편찮으신 걸 말하는 줄 알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누가 그 사람들 뒤를 쫓아갔겠지요?'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고는, 자정이 조금 지나서 신사 한 분하고 숙녀 한 분이 기머턴에서 2마일 떨어진 대장간에 말편자를 박으려고 들렀다는 얘기를 해 줬어요! 대장장이 딸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엿보려고 일어났는데 둘 다 곧바로 알아봤대요. 그리고 그 남자가, 히스클리프였다고 딸은 확신했대요, 어차피 그 사람을 잘못 볼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삯으로 1파운드 금화를 아버지 손에 쥐여 주는 걸 봤대요. 숙녀는 망토를 얼굴에 두르고 있었는데,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해서 그걸 마시는 사이에 망토가 뒤로 젖혀져서 딸이 그 숙녀 얼굴을 아주 똑똑히 봤대요. 다시 말을 타고 떠날 때는 히스클리프가 고삐 두 개를 다 쥐었고, 둘은 마을을 등지고 그 험한 길이 허락하는 한 있는 힘껏 빨리 달려갔대요. 그 딸은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오늘 아침 기머턴에 온통 소문을 냈대요."

나는 형식으로라도 이저벨라의 방에 달려가 들여다보았고, 돌아와서 하녀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린턴 씨는 다시 침대 곁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자 눈을 들어 내 멍한 얼굴에서 그 뜻을 읽고는, 아무 분부도 내리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아가씨를 따라잡아서 데려올 무슨 방도라도 써 볼까요?" 내가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제 발로 간 거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한다면 갈 권리가 있었소. 그 애 일로 더는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이제부터 그 애는 이름만 내 누이요. 내가 그 애를 저버려서가 아니라 그 애가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오."

그 일에 대해 주인이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주인은 더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아가씨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다만 아가씨가 새로 사는 곳이 어디든 내가 그곳을 알게 되면 집에 있는 아가씨의 물건을 그리로 보내라고 일렀을 뿐이다.

제13장

달아난 두 사람은 두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두 달 사이에 린턴 부인은 뇌열이라고 불리는 병의 가장 모진 고비를 맞았다가 이겨 냈다. 에드거는 어떤 어머니도 외아들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돌보지는 못했을 만큼 아내를 극진히 간호해서, 밤이고 낮이고 곁을 지키며 곤두선 신경과 흔들린 정신이 안겨 줄 수 있는 온갖 성가신 일을 참을성 있게 견뎌 냈다. 그리고 주인이 무덤에서 건져 낸 사람은 앞으로 끊임없는 근심거리가 되는 것으로나 그 정성에 보답할 거라고, 사실은 사람의 허물어진 껍데기 하나를 지키려고 주인의 건강과 기운이 희생되고 있다고 케네스가 말했지만, 캐서린의 목숨이 위험을 넘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인의 고마움과 기쁨에는 끝이 없었다. 주인은 몇 시간이고 아내 곁에 앉아서 몸이 차츰 회복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내의 정신도 다시 제 균형을 찾아 머지않아 예전 모습을 온전히 되찾을 거라는 헛된 생각으로 지나치게 부푼 희망을 달래곤 했다.

마님이 처음으로 침실을 나선 것은 이듬해 3월 초였다. 그날 아침 린턴 씨는 마님의 베개 위에 금빛 크로커스를 한 줌 놓아두었는데, 오랫동안 기쁨의 빛이라고는 모르던 마님의 눈이 잠에서 깨자마자 그 꽃을 알아보고는, 꽃을 허겁지겁 끌어모으며 기쁨으로 반짝였다.

"하이츠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마님이 외쳤다. "이 꽃을 보면 눈을 녹이는 부드러운 바람이며, 따뜻한 햇볕이며, 거의 다 녹은 눈이 생각나요. 에드거, 남풍이 불지 않아요? 눈은 거의 다 녹지 않았어요?"

"이 아래에서는 눈이 말끔히 녹았어요, 여보." 남편이 대답했다. "황야 언덕 전체에서도 하얀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안 보여요. 하늘은 파랗고 종다리가 노래하고 개울이며 시내가 다 넘칠 듯이 차 있어요. 캐서린, 지난봄 이맘때 나는 당신을 이 지붕 밑에 데려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지금은 당신이 저 언덕 위로 1, 2마일쯤 올라가 있었으면 해요. 바람이 하도 상쾌하게 불어서 그 바람이 당신을 낫게 해 줄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딱 한 번만 더 가게 될 거예요." 병자가 말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두고 떠날 테고, 나는 영원히 거기 남겠지요. 내년 봄이면 당신은 또 나를 이 지붕 밑에 두고 싶어 하면서,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는 행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린턴은 마님을 더없이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가장 살가운 말로 기운을 북돋우려 애썼지만, 마님은 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눈썹에 맺힌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님이 정말로 나아졌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한곳에 오래 갇혀 지낸 탓이 크고 주위를 바꾸어 주면 얼마쯤은 덜어질 거라고 판단했다. 주인은 몇 주 동안 비워 두었던 거실에 불을 피우고 창가 햇볕 드는 자리에 안락의자를 놓으라고 나에게 일렀다. 그러고는 마님을 안아 내려왔고, 마님은 오랫동안 앉아서 따사로운 온기를 즐겼으며, 우리가 바란 대로 둘레의 물건들을 보고 기운을 차렸는데, 눈에 익은 물건들이었지만 마님이 싫어하던 병실에 얽힌 우울한 기억은 묻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마님은 몹시 지쳐 보였는데도 아무리 달래도 그 방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서, 나는 다른 방을 마련할 때까지 거실 소파에 잠자리를 펴 드려야 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어 드리려고 우리는 지금 나리가 누워 계신 이 방을 꾸몄어요. 거실과 같은 층에 있는 방이지요. 그리고 마님은 곧 에드거의 팔에 기대어 이 방과 거실 사이를 오갈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렸다. 아, 이렇게 시중을

받으니 마님은 나을지도 몰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까닭이 갑절로 있었다. 마님의 목숨에 또 하나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머지않아 상속자가 태어나서 린턴 씨의 마음이 기뻐지고 그 땅이 남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말도 해 두어야겠다. 이저벨라는 집을 떠난 지 여섯 주쯤 지나 오빠에게 짧은 쪽지를 보내 히스클리프와 결혼했다고 알렸는데,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쪽지였지만 맨 밑에 연필로 흐릿한 사과의 말이 덧붙어 있었다. 자기가 한 일이 오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너그럽게 기억해 주고 화해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이미 저지른 일이라 이제는 되돌릴 힘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린턴은 아마 거기에 답장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시 두 주가 지나서 나는 긴 편지를 받았는데,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새색시의 펜에서 나온 편지치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읽어 드릴게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살아서 아끼던 사람이라면 죽은 뒤에 남긴 것은 무엇이든 소중하지요.

◆

사랑하는 엘렌(편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젯밤 워더링 하이츠에 와서야 나는 캐서린이 몹시 앓았고 아직도 앓고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 캐서린한테는 편지를 쓰면 안 되겠지. 그리고 오빠는 너무 화가 났거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보낸 쪽지에 답장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편지를 써야겠고 나한테 남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에드거한테 전해 줘. 오빠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라도 내주겠다고. 내 마음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떠난 지 스물네 시간

만에 그리로 돌아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빠와 캐서린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득 품고 거기 있다고! *그래도 나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 말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 나를 기다리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대로 짐작들 하라고 해. 다만 그걸 내 의지가 약하거나 정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지는 말아 달라고.

이 편지의 나머지는 너 혼자만 읽어. 너한테 두 가지를 묻고 싶어. 첫째는 이거야. 네가 여기 살 때 어떻게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 내 둘레 사람들한테서는 나와 같은 감정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둘째 물음이 나한테는 무척 중요해. 이거야. 히스클리프 씨는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미친 거야? 사람이 아니라면 악마야? 왜 이런 걸 묻는지는 말하지 않을래.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것과 결혼했는지 제발 설명해 줘. 나를 보러 올 때 말이야. 엘렌, 너는 꼭 와야 해, 아주 빨리. 편지는 쓰지 말고 와 줘. 에드거한테서 무엇이든 가지고 와 줘.

이제 내가 새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들려줄게. 앞으로 하이츠가 내 집이 될 거라고들 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편안함이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내 기분을 풀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아쉬울 때가 아니면 한 번도 내 머릿속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게 없는 게 내 불행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 터무니없는 꿈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나는 기뻐서 웃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거야!

우리가 황야로 접어들 때 해가 그레인지 뒤로 지는 걸 보고 나는 여섯 시쯤 되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내 길동무는 영지며 뜰이며, 아마 집 자체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살펴보느라 30분이나 말을 세워 두었어. 그래서 우리가 농가의 돌 깔린 마당에서 말을 내렸을 때는 날이 어두웠고, 네 옛 동료 하인 조지프가 심지 양초 불빛을 들고 우리를

맞으러 나왔어. 그 사람이 우리를 맞는 예의는 그 사람의 명예를 드높일 만한 것이었지. 그 사람이 맨 처음 한 일은 횃불을 내 얼굴 높이까지 쳐들고, 독살스럽게 곁눈질을 하고, 아랫입술을 쑥 내민 다음 홱 돌아서 버리는 거였어. 그다음에는 말 두 마리를 끌고 마구간으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무슨 옛 성에라도 사는 것처럼 바깥 대문을 잠그러 다시 나타났어.

히스클리프는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남았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거무칙칙하고 어수선한 굴이었어. 네가 맡고 있을 때하고는 하도 달라져서 너는 아마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난롯가에는 팔다리가 튼튼하고 옷차림이 더러운 불한당 같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는데, 눈매와 입가에 캐서린의 모습이 어려 있었어.

'이 애는 법으로 따지면 에드거의 조카고, 어떤 의미로는 내 조카이기도 해.' 나는 생각했어. '악수를 해야지. 그래, 입도 맞춰 줘야지. 처음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게 옳으니까.'

나는 다가가서 그 애의 통통한 주먹을 잡으려 하며 말했어. "잘 지냈니, 얘야?"

그 애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대답했어.

"우리 친구 할까, 헤어턴?" 이번에는 그렇게 말을 걸어 보았지.

내가 끈질기게 굴었더니 돌아온 건 욕설 한마디, 그리고 썩 '꺼지지' 않으면 스로틀러를 나한테 풀어놓겠다는 으름장이었어.

"이봐, 스로틀러!" 그 쬐그만 몹쓸 것이 구석의 잠자리에서 잡종 불독 한 마리를 깨우며 속삭였어. "자, 이제 썩 안 꺼질 거야?" 그 애가 으스대며 물었어.

목숨이 아까워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문지방을 넘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지. 히스클리프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조지프를 따라 마구간으로 가서 같이 들어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빤히 쳐다보며 혼자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코를 찡그리며 대답했어. "새침, 새침, 새침! 기독교인이 이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겄어? 오물오물 깨작깨작! 뭐라는지 내가 어찌 알아듣겄어?"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 달라고 했어!" 나는 그 사람이 귀가 먹은 줄 알고, 그래도 그 무례함에 몹시 정나미가 떨어져서 소리쳤어.

"난 싫구먼! 나는 딴 할 일이 있어." 그 사람은 대답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어. 그동안 홀쭉한 턱을 우물거리면서 내 옷차림과 얼굴을 더없이 업신여기는 눈으로 훑어보았지(옷은 너무 고왔고, 얼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바랄 만큼 서글펐을 거야).

나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아 쪽문을 지나 다른 문으로 갔어. 좀 더 예의 바른 하인이 나와 주기를 바라며 감히 문을 두드렸지. 잠깐 기다리니 키가 크고 바싹 마른 사내가 문을 열었는데, 목도리도 두르지 않았고 다른 데도 아주 지저분했고, 어깨까지 늘어진 텁수룩한 머리 뭉치에 얼굴이 파묻혀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의* 눈도 캐서린의 눈을 닮았는데, 아름다움이라고는 깡그리 사라져 버린 유령 같은 캐서린의 눈이었어.

"여기 무슨 볼일이오?" 그 사람이 험악하게 따져 물었어.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이저벨라 린턴*이었어요*." 내가 대답했어. "전에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히스클리프 씨와 결혼했는데, 그이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아마 나리께서 허락하셨겠지요."

"그럼 그놈이 돌아왔단 말이오?" 그 은둔자가 굶주린 늑대처럼 눈을 번득이며 물었어.

"네, 방금 왔어요." 내가 말했어. "그런데 그이는 나를 부엌문 앞에 두고 갔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리의 어린 아드님이 거기서 보초를 서다가 불독을 시켜서 나를 쫓아냈어요."

"그 지옥 같은 악당이 약속을 지켰다니 다행이군!" 장차 나를 묵게 할 집주인이 히스클리프가 있나 싶어 내 뒤의 어둠을 뒤지듯 둘러보며 으르렁거리더니, 혼잣말로 욕설을 퍼붓고, 그 '악마'가 자기를 속였더라면 어떻게 해 줬을지 으름장을 늘어놓았어.

나는 이 두 번째 문으로 들어오려 한 걸 후회했고, 그 사람이 욕을 다 퍼붓기 전에 살그머니 빠져나갈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지만, 내가 그러기도 전에 그 사람은 들어오라고 하고는 문을 닫고 다시 빗장을 질렀어. 커다란 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그 넓은 방의 불빛이라고는 그것뿐이었고, 바닥은 온통 같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내가 어릴 때 눈길을 끌던 그 반짝이던 백랍 접시들도 녹이 슬고 먼지가 앉아 똑같이 흐릿했어. 나는 하녀를 불러 침실로 데려다 달라고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어! 언쇼 씨는 대답도 해 주지 않았어. 그 사람은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왔다 갔다 하며 내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생각에 빠진 정도가 하도 깊어 보이고 온 모습이 하도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다시 말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어.

엘렌, 너도 놀라지 않을 거야. 그 정 없는 난롯가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도 못한 신세로 앉아 있으려니, 그리고 4마일 떨어진 곳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사람들이 사는 내 즐거운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내가 유난히 서글펐다고 해도 말이야. 그 4마일 대신 대서양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해도 다를 게 없었어. 나는 그 4마일을 건너갈 수가 없었으니까! 나는 스스로 물었어.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하지? 그리고, 에드거한테도 캐서린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른 모든 슬픔 위로 이 슬픔이 가장 높이 솟아올랐어, 히스클리프에게 맞서 내 편이 되어 줄 수 있거나 되어 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절망 말이야! 나는 거의 기쁜 마음으로 워더링 하이츠에 몸을 의탁하러 왔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단둘이 살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이 어떤지 알았고, 그 사람들이 끼어들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앉아서 한참을 서글프게 생각에 잠겼어. 시계가 여덟 시를 치고 아홉 시를 쳤는데도 내 동석자는 고개를 가슴에 떨군 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며 아무 말이 없었고, 이따금 신음 소리나 쓰디쓴 외마디가 저절로 새어 나올 뿐이었어. 나는 집 안에 여자 목소리가 없나 귀를 기울였고, 그사이 미칠 듯한 후회와 음울한 예감에 사로잡혔는데, 그게 마침내 참을 수 없는 한숨과 울음이 되어 소리로 터져 나왔어. 내가 얼마나 드러내 놓고 슬퍼하는지 나도 몰랐는데, 꼬박꼬박 걷던 언쇼가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새삼 놀란 듯 나를 빤히 쳐다보고서야 알았어. 그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린 틈을 타서 나는 외쳤어. "여행하느라 지쳤어요. 이제 자고 싶어요! 하녀는 어디 있어요? 하녀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내가 갈 수 있게 어디 있는지 알려 주세요!"

"하녀는 없소." 그 사람이 대답했어. "당신 시중은 당신이 들어야 하오!"

"그럼 나는 어디서 자야 해요?" 나는 흐느꼈어. 지치고 비참한 마음에 짓눌려 체면 같은 건 돌볼 겨를이 없었어.

"조지프가 히스클리프의 방을 알려 줄 거요." 그 사람이 말했어. "저 문을 열어 보시오. 조지프는 저 안에 있소."

내가 그 말대로 하려는데 그 사람이 별안간 나를 붙잡더니 아주 이상한 말투로 덧붙였어. "부디 자물쇠를 돌리고 빗장을 질러 두시오. 잊지 말고!"

"알겠어요!" 내가 말했어. "그런데 왜요, 언쇼 씨?" 일부러 히스클리프하고 함께 방에 틀어박힌다는 생각이 달갑지 않았거든.

"이걸 보시오!" 그 사람이 조끼 속에서 묘하게 생긴 권총 한 자루를 꺼내며 대답했어. 총신에 양날 용수철 칼이 달려 있었어. "절망한

사람한테는 아주 큰 유혹거리지, 안 그렇소? 나는 밤마다 이걸 들고 올라가서 그놈 방문을 열어 보지 않고는 못 배기오. 한 번이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그놈은 끝장인데, 1분 전까지 그러지 말아야 할 까닭을 백 가지나 떠올리고 있었다 해도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고 말지. 그놈을 죽여서 내 계획을 내 손으로 망치게 만드는 건 무슨 악마가 나를 부추기는 거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악마와 싸워 보시오. 때가 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다 나서도 그놈을 구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호기심에 차서 그 무기를 살펴보았어. 끔찍한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 저런 연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강해질까! 나는 그 사람 손에서 그것을 받아 들고 칼날을 만져 보았어. 그 사람은 잠깐 사이에 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 그건 공포가 아니라 탐욕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샘이라도 난 듯 권총을 홱 낚아채더니 칼을 접어 도로 감춰 둔 곳에 넣었어.

"그놈한테 말해도 상관없소." 그 사람이 말했어. "조심하라고 일러 주고 그놈을 지켜 주시오. 보아하니 우리 사이가 어떤지 아는 모양이군. 그놈이 위험하다는데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

"히스클리프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내가 물었어. "무슨 해를 끼쳤기에 이렇게 끔찍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더러 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안 되오!" 언쇼가 벼락같이 소리쳤어. "그놈이 나를 두고 떠나겠다고 나서는 날이면 그놈은 죽은 목숨이오. 그놈더러 떠나 보라고 부추기면 당신은 살인자가 되는 거요! 내가 되찾을 기회 하나 없이 *모든 걸* 잃어야 한단 말이오? 헤어턴이 거지가 되어야 한단 말이오? 아, 빌어먹을! 나는 *반드시* 되찾고 말겠소. 그리고 *그놈의* 금화도 차지하고, 그다음엔

그놈의 피를 보고, 그놈의 영혼은 지옥에 보내 버릴 거요! 그 손님이 들어가면 지옥은 전보다 열 배는 더 시커메질 거요!"

엘렌, 네가 옛 주인의 버릇을 나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지. 그 사람은 분명히 미치기 직전이야. 적어도 어젯밤에는 그랬어. 나는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소름이 끼쳐서, 그 하인의 버릇없는 퉁명스러움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다시 침울하게 서성거리기 시작하자 나는 걸쇠를 들어 올리고 부엌으로 도망쳤어. 조지프는 불 위로 몸을 굽히고 그 위에 매달린 큰 냄비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가까운 긴 의자 위에는 귀리 가루가 담긴 나무 사발이 놓여 있었어. 냄비 속 물이 끓기 시작하자 조지프는 돌아서서 사발에 손을 쑥 집어넣었어. 나는 이게 아마 우리 저녁거리일 거라고 짐작했고, 배가 고팠으니 먹을 만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죽은 *내가* 쑬게!" 하고 날카롭게 외치고는 그릇을 그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데로 치운 다음 모자와 승마복을 벗기 시작했어. "언쇼 씨가 내 시중은 내가 들라고 하더라." 나는 말을 이었어. "그렇게 할게. 너희들 사이에서 숙녀 노릇을 하다가는 굶어 죽을 테니까."

"주여!" 그 사람이 주저앉아 골 진 양말을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 "새 분부가 내려온다니, 쥔 양반 둘한테 겨우 익숙해졌더니만 이젠 내 머리 위에 *마님*까지 모셔야 한다니, 짐 싸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먼. 이 옛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그날이 머잖았어!"

나는 그 넋두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어. 이런 일이 모두 즐거운 장난이던 때가 있었던 걸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 생각은 얼른 떨쳐 버려야 했어. 지난날의 행복을 떠올리는 게 괴로웠고, 그 환영이 불려 나올 위험이 커질수록 죽 젓는 막대는 더 빨리

돌았고 귀리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더 빨리 물속으로 떨어졌어. 조지프는 내가 음식 만드는 꼴을 보며 점점 더 분개했어.

"저것 봐라!" 그 사람이 소리쳤어. "헤어턴, 오늘 밤엔 네 죽 못 먹겠다. 내 주먹만 한 덩어리밖에 없겠구먼. 저것 봐, 또! 내가 너라면 사발이고 뭣이고 죄다 쏟아붓겠다! 거기, 거품이나 걷어 내고 치워 버려. 쿵, 쿵. 냄비 밑이 안 빠진 게 다행이구먼!"

부어 놓고 보니 *정말로* 꽤 엉망인 죽이었다는 건 나도 인정해. 사발 넷이 준비되어 있었고, 낙농장에서 갓 짠 우유를 1갤런들이 주전자에 가져왔는데, 헤어턴이 그걸 움켜쥐고 넓은 주둥이로 흘려 가며 마시기 시작했어. 나는 나무라면서 그 애 몫은 잔에 따라 주라고 했어. 그렇게 더럽게 다룬 걸 나는 맛볼 수 없다고 했지. 그 늙은 비꼬기쟁이는 내가 까다롭게 군다고 일부러 몹시 기분 나쁜 척하더니, '그 애도 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고 하나도 덜 깨끗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장담했고, 내가 어찌 그리 잘난 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러는 동안 그 꼬마 불한당은 계속 쪽쪽 빨아 마시며 주전자에 침을 흘리면서 나를 대들 듯이 노려보았어.

"나는 다른 방에서 저녁을 먹겠어." 내가 말했어. "거실이라고 부르는 데는 없어?"

"*거실*이라!" 그 사람이 비웃듯 따라 했어. "*거실*! 아니, 우리 집엔 *거실* 같은 건 없어.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싫으면 쥔 양반 방이 있고, 쥔 양반이 싫으면 우리가 있을 뿐이구먼."

"그럼 위층으로 가겠어." 내가 대답했어. "방을 하나 보여 줘."

나는 내 사발을 쟁반에 올려놓고 우유를 좀 더 가지러 직접 갔어. 그 사람은 투덜투덜하며 일어나서 앞장서 계단을 올라갔어. 우리는 다락방까지 올라갔고, 그 사람은 지나가는 방들을 들여다보느라 이따금 문을 열었어.

"여기 방이 있구먼." 마침내 그 사람이 경첩 달린 삐걱거리는 널빤지 문을 홱 젖히며 말했어. "죽 몇 술 먹기엔 이만하면 넉넉하겠지. 저 구석에 곡식 자루가 하나 있는데 제법 깨끗하구먼. 그 잘난 비단옷 더럽힐까 겁나면 그 위에 손수건이나 펴 놓든지."

그 '방'이라는 건 엿기름과 곡식 냄새가 진동하는 잡동사니 헛간 같은 데였어. 그런 것들이 든 자루가 사방에 쌓여 있고 가운데만 넓게 비어 있었어.

"아니, 이봐." 나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마주 보며 외쳤어. "여긴 잘 데가 아니잖아. 내 침실을 보고 싶다고."

"*침실*이라!" 그 사람이 놀리는 말투로 되풀이했어. "여기 있는 *침실*은 죄다 보여 주지. 저게 내 방이여."

그 사람은 두 번째 다락방을 가리켰는데, 첫 번째 방과 다른 점이라고는 벽이 더 휑하고 한쪽 끝에 남빛 누비이불을 덮은 휘장 없는 크고 낮은 침대가 하나 있다는 것뿐이었어.

"네 방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쏘아붙였어. "설마 히스클리프 씨가 지붕 꼭대기 방에서 묵지는 않겠지, 그렇지?"

"아! 네가 찾는 게 *히스클리프* 쥔 양반 방이구먼?" 그 사람이 무슨 새로운 걸 알아내기라도 한 듯 외쳤어. "진작 그렇다고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 수고 없이 일러 줬을 텐데. 그 방만은 네가 볼 수가 없어. 쥔 양반이 늘 잠가 두고, 쥔 양반 말고는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집 한번 좋구나, 조지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어. "식구들도 참 유쾌하고. 내 운명을 이 사람들과 묶은 그날, 이 세상 온갖 광기를 졸여 낸 진액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다른 방들도 있잖아. 제발 서둘러서 어디든 자리를 잡게 해 줘!"

그 사람은 이 간청에 대꾸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무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더니 어떤 방 앞에서 멈춰 섰는데, 거기서 멈춘 걸 보나 가구가 더 좋은 걸 보나 제일 좋은 방인 것 같았어. 양탄자가 깔려 있었는데, 좋은 양탄자였지만 무늬는 먼지에 묻혀 보이지 않았어. 벽난로에는 오려 낸 종이 장식이 걸려 있었는데 갈가리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멋진 참나무 침대에는 꽤 값비싼 천으로 요즘 유행하게 지은 넉넉한 진홍빛 휘장이 달려 있었지만, 거칠게 다룬 게 틀림없었어. 휘장 위쪽 장식 천은 고리에서 뜯겨 나가 꽃줄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그걸 받치는 쇠막대는 한쪽이 활처럼 휘어서 휘장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어. 의자들도 망가져 있었는데 그중 여럿은 아주 심하게 부서져 있었고, 벽 판자에도 깊이 움푹 팬 자국들이 나서 흉했어. 내가 들어가서 이 방을 차지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 바보 같은 길잡이가 알려 주었어. "여긴 쥔 양반 방이구먼." 그때쯤에는 내 저녁밥은 식어 버렸고 입맛은 달아났고 참을성은 바닥이 났어. 나는 당장 몸을 피해 쉴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우겼어.

"대체 어디 말이여?" 그 독실한 늙은이가 말을 꺼냈어.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대체 *지옥* 어디로 가겄다는 거여? 이 버릇 나쁘고 진저리 나는 쓸모없는 것아! 헤어턴의 쪼끄만 방 말고는 다 봤구먼. 이 집에 몸 누일 구멍이라곤 더는 없구먼!"

나는 하도 화가 나서 쟁반을 음식째 바닥에 내던져 버렸어. 그러고는 계단 꼭대기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

"에헤! 에헤!" 조지프가 소리쳤어. "잘한다, 캐서린 아가씨! 잘한다, 캐서린 아가씨! 허나 쥔 양반이 저 깨진 그릇에 걸려 나자빠지기만 하면 그때 뭔 소리가 나겄지. 어떻게 되는지 볼 만하겄구먼. 이 쓸모없는 미친 것아! 그 고약한 성질에 하느님이 주신 귀한 음식을 발밑에 내던지다니, 이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쫄쫄 굶어도 싸지! 허나 네가 그 성깔을 오래

부리지는 못할 거여,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히스클리프가 그런 고운 짓을 참아 줄 것 같으냐? 네가 그 꼴을 하고 있을 때 그 양반한테 딱 걸렸으면 좋겄구먼. 딱 걸렸으면 좋겄어."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꾸짖으며 촛불을 들고 아래층 제 굴로 내려갔고, 나는 어둠 속에 남았어.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존심을 누르고 분노를 삼키고 내가 저지른 일을 치우려고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 그때 뜻밖의 도우미가 스로틀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보니 그 개는 우리 옛 스컬커의 새끼로, 그레인지에서 강아지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힌들리 씨한테 준 개였어. 그 개는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 인사라도 하듯 내 코에 제 코를 비비더니 서둘러 죽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고, 그동안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더듬으며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모으고 손수건으로 난간에 튄 우유를 닦아 냈어. 우리가 일을 겨우 끝냈을 때 복도에서 언쇼의 발소리가 들려서, 내 조수는 꼬리를 말고 벽에 몸을 바싹 붙였고 나는 가장 가까운 문간으로 살그머니 숨어들었어. 그 개는 그 사람을 피하려다 실패한 모양이었어. 아래층으로 허둥지둥 달아나는 소리와 길고 애처로운 깨갱 소리가 들렸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은 그냥 지나쳐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거든. 곧이어 조지프가 헤어턴을 재우려고 데리고 올라왔어. 나는 헤어턴의 방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늙은이는 나를 보더니 말했어. "이젠 이 집에 너하고 네 그 잘난 자존심이 같이 들어갈 방이 있겄구먼. 큰방이 비었으니 너 혼자 다 차지해라. 이렇게 고약한 패거리 속엔 늘 셋째로 끼어드는 마귀하고 같이 말이여!"

나는 그 말을 반갑게 따랐어. 그리고 난롯가 의자에 털썩 앉자마자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어. 잠은 깊고 달콤했지만 너무 빨리 끝나 버렸어. 히스클리프 씨가 나를 깨웠어. 그 사람은 막 들어와서, 그

다정한 말투로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어. 나는 이렇게 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은 까닭을 말했어. 그 사람이 *우리* 방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라는 낱말이 그 사람을 몹시 노엽게 했어. 그 사람은 그 방이 내 방이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내 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욕을 퍼부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이 한 말을 되풀이하지도, 그 사람이 늘 하는 짓을 늘어놓지도 않을래.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혐오하게 만드는 데 재주가 있고 지칠 줄을 몰라! 나는 이따금 그 사람을 보며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마저 무뎌질 때가 있어. 하지만 정말이야, 호랑이나 독사도 그 사람만큼 나를 겁에 질리게 하지는 못할 거야. 그 사람은 캐서린이 앓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빠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몰아세웠어. 그리고 에드거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내가 대신 고통을 받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어.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이 미워. 나는 비참해. 나는 바보였어! 그레인지에서는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마. 날마다 너를 기다릴게. 나를 실망시키지 마! 이저벨라.

제14장

이 편지를 다 읽자마자 나는 주인에게 가서, 누이가 하이츠에 와 있고 린턴 마님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며 오빠를 몹시 보고 싶어 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고 알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를 통해 용서의 표시를 무엇이든 보내 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용서라니!" 린턴이 말했다. "나는 그 애를 용서할 것이 아무것도 없소, 엘렌. 원한다면 오늘 오후에 워더링 하이츠에 들러서 전해 주시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애를 잃어서 *슬프다고*. 더구나 그 애가 행복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 애를 보러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소. 우리는 영영 갈라졌소. 그 애가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해 주고 싶다면, 자기가 결혼한 그 악당을 설득해서 이 고장을 떠나게 하라고 하시오."

"그럼 아가씨한테 짧은 쪽지라도 써 주지 않으시겠어요, 나리?" 나는 애원하듯 물었다.

"안 쓰겠소." 주인이 대답했다. "쓸데없는 일이오. 히스클리프 집안과 나의 왕래는 그자가 우리 집안과 왕래하는 것만큼 드물 것이오. 아예 없을 것이오!"

에드거 나리가 하도 쌀쌀맞아서 나는 몹시 마음이 무거웠다. 그레인지에서 오는 내내, 주인의 말을 옮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이 담기게 할 수 있을지, 이저벨라를 달래 줄 몇 줄의 글마저 거절한 것을 어떻게 누그러뜨려 전할지 머리를 쥐어짰다. 아가씨는 아침부터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뜰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아가씨가 격자창으로 내다보는 것이 보여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만, 아가씨는 누가 볼까 봐 겁이 나는 듯 몸을 뒤로 뺐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한때는 그토록 즐겁던 집이 그렇게 쓸쓸하고 음침한 모습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젊은 마님의 처지였다면 적어도 난롯가라도 쓸고 먼지떨이로 탁자라도 닦았을 텐데, 아가씨는 벌써 자기를 둘러싼, 온 집에 배어든 그 될 대로 되라는 기운에 물들어 있었다. 아가씨의 예쁜 얼굴은 핏기가 없고 기운이 없었고, 머리는 곱슬기가 다 풀려서 어떤 가닥은 힘없이 늘어지고 어떤 가닥은 아무렇게나 머리에 감겨 있었다. 아마 어제저녁부터 옷매무새에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힌들리는 거기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는 탁자에 앉아 지갑 수첩에서 꺼낸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 내가 나타나자 일어나서 아주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는 의자를 내밀어 권했다. 그 자리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고, 나는 그 사람이 그때만큼 근사해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정이 두 사람의 처지를 어찌나 바꾸어 놓았는지, 낯선 사람이 보았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타고나서 자란 신사로, 그 아내는 영락없는 꼬마 칠칠이로 보았을 것이다! 아가씨는 반갑게 다가와 나를 맞으며, 기다리던 편지를 받으려고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는 그 뜻을 알아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모자를 내려놓으러 간 찬장까지 따라와서는, 가져온 것을 당장 달라고 속삭이며 졸랐고, 히스클리프는 아가씨가 무슨 수작을 하는지 짐작하고 말했다. "이저벨라한테 줄 게 있으면(틀림없이 있겠지, 넬리) 줘. 숨길 것 없어.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으니까."

"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당장 사실대로 말하는 게 가장 낫겠다고 생각하고 대답했다. "주인 나리께서 누이분께 당분간은 편지도 찾아오는

것도 기다리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나리께서는 사랑을 보내시고, 아가씨가 행복하기를 비시고, 아가씨 때문에 겪으신 슬픔도 용서하신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리 댁과 이 댁이 서로 왕래를 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왕래를 이어 가 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히스클리프 부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아가씨는 창가의 제자리로 돌아갔다. 남편은 내 곁 난롯돌 위에 자리를 잡고 서서 캐서린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나는 마님의 병에 대해 말해도 괜찮겠다 싶은 만큼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꼬치꼬치 캐물어서 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얽힌 사실을 대부분 나한테서 받아 냈다. 나는 마님이 자업자득이라고 마땅한 대로 마님을 나무랐고, 끝으로 그 사람도 린턴 나리를 본받아 좋은 일로든 나쁜 일로든 앞으로는 그 집안에 끼어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턴 마님은 이제 막 회복되시는 참이에요." 내가 말했다. "예전처럼 되시지는 못하겠지만 목숨은 건지셨어요. 정말로 마님을 아끼신다면 다시는 마님 앞길을 가로막지 마세요. 아니, 아예 이 고장을 떠나세요. 그리고 떠나시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으시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캐서린 린턴은 히스클리프 씨의 옛 친구 캐서린 언쇼와는 그 아가씨가 저와 다른 만큼이나 달라요. 겉모습도 아주 많이 변하셨고 성품은 더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님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마님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며, 사람 된 도리와 의무감으로만 그 사랑을 이어 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히스클리프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너희 주인이 기댈 데라고는 사람 된 도리하고 의무감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야. 하지만 너는 내가 캐서린을 그자의 *의무*와 *도리*에 맡겨 둘 거라고 생각해? 캐서린을 향한 내 마음을 그자의 마음과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집을 나가기 전에 너는 나한테 약속을 해야 해. 캐서린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네가 승낙하든 거절하든 나는 캐서린을 꼭 만나고 말 거야! 어떻게 할래?"

"말씀드리지요, 히스클리프 씨." 내가 대답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히스클리프 씨와 나리가 다시 맞닥뜨리면 마님은 정말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네가 도와주면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어."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위험이 있다면, 그자 때문에 캐서린의 삶에 괴로움이 하나라도 더 보태진다면, 글쎄, 그때는 내가 끝장을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해! 캐서린이 그자를 잃으면 몹시 괴로워할지 네가 솔직하게 말해 줄 만큼 정직하면 좋겠어. 캐서린이 괴로워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참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 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지. 그자가 내 처지고 내가 그자 처지였다면, 내 삶을 쓸개즙처럼 쓰게 만들 만큼 그자를 미워했다 해도 나는 그자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을 거야. 못 믿겠다는 얼굴을 해도 좋아! 캐서린이 그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한, 나는 절대로 그자를 캐서린 곁에서 쫓아내지 않았을 거야. 캐서린이 그자를 아끼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그자의 심장을 뜯어내고 그 피를 마셨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말을 못 믿는다면 너는 나를 모르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자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느니 차라리 조금씩 말라 죽는 쪽을 택했을 거야!"

"그런데도," 나는 말을 끊었다. "마님이 히스클리프 씨를 거의 잊어 가는 이때 마님의 기억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마님을 새로운 불화와 괴로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고, 마님이 온전히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송두리째 망쳐 놓는 데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으시군요."

"캐서린이 나를 거의 잊었다고 생각해?" 그가 말했다. "아, 넬리! 그렇지 않다는 건 너도 알잖아! 캐서린이 린턴을 한 번 생각할 때마다

나를 천 번 생각한다는 걸 너도 나만큼 잘 알잖아! 내 삶에서 가장 비참했던 때에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지난여름 이 동네에 돌아올 때도 그 생각이 나를 따라다녔어. 하지만 이제는 캐서린이 제 입으로 그렇다고 말해 주지 않는 한 그 끔찍한 생각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린턴도 힌들리도, 내가 꾸었던 모든 꿈도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 앞날은 두 마디로 요약될 거야. *죽음*과 *지옥*. 캐서린을 잃고 나서 사는 건 지옥일 테니까. 그래도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의 애정을 내 애정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고 잠깐이라도 생각했다니 나는 바보였어, 그자가 그 보잘것없는 몸뚱이의 힘을 다 짜내서 사랑한다 해도, 내가 하루에 하는 사랑을 그자는 여든 해가 걸려도 따라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캐서린의 마음은 내 마음만큼 깊어. 캐서린의 애정을 그자 혼자 다 차지한다는 건 저 말 여물통에 바다를 다 담는 거나 마찬가지야. 흥! 캐서린한테 그자는 개나 말보다 조금 더 소중할까 말까 해. 그자에게는 나처럼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 그자에게 없는 것을 캐서린이 어떻게 그자에게서 사랑하겠어?"

"캐서린과 에드거는 세상 어느 두 사람 못지않게 서로 아끼고 있어." 이저벨라가 별안간 생기를 띠며 외쳤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 우리 오빠가 깎아내려지는 걸 잠자코 듣고 있지는 않을 거야!"

"너희 오빠도 너를 놀랍도록 아끼지, 안 그래?" 히스클리프가 비웃으며 말했다. "놀랄 만큼 선선하게 너를 세상 밖으로 내쫓는 걸 보면."

"오빠는 내가 무슨 일을 겪는지 몰라." 아가씨가 대답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럼 무슨 이야기는 했다는 거군. 편지를 썼구나, 그렇지?"

"결혼했다는 말을 하려고 쓰긴 썼어. 너도 그 쪽지를 봤잖아."

"그 뒤로는 아무것도?"

"응."

"우리 아가씨가 처지가 바뀌어서 몹시 상하신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누군가의 사랑이 아가씨한테 모자란 게 분명해요. 누구의 사랑인지는 짐작이 가지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내 짐작으로는 저 여자 자신의 사랑이야."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저 여자는 그저 칠칠맞은 계집으로 전락하고 있어! 나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에 유난히 일찍 지쳐 버렸지. 믿기 어렵겠지만 결혼한 바로 이튿날부터 집에 가겠다고 울고불고했어. 하지만 너무 까다롭지 않은 편이 오히려 이 집에 더 잘 어울릴 테고, 저 여자가 밖으로 쏘다니면서 내 망신을 시키지 않게 내가 단단히 지킬 거야."

"글쎄요, 히스클리프 씨." 내가 대꾸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남이 돌봐 주고 시중들어 주는 데 익숙하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모두가 떠받들어 주는 외동딸처럼 자라신 분이에요. 아가씨 둘레를 깔끔하게 챙길 하녀를 하나 두게 해 주셔야 하고, 아가씨를 다정하게 대해 주셔야 해요. 에드거 나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아가씨가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건 의심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가씨가 예전 집의 우아함과 편안함과 벗들을 다 버리고 이런 황무지에 와서 히스클리프 씨와 만족하며 자리를 잡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 여자는 착각에 빠져서 그걸 버린 거야." 그가 대답했다. "나를 연애 소설 속 영웅으로 그리고, 내가 기사처럼 헌신해서 한없이 떠받들어 줄 줄 알았던 거지. 저 여자가 내 성품을 두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지어내고 제가 품은 그 그릇된 인상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 이성이 있는 존재로 봐주기가 어려워. 하지만 이제야 나를 좀 알아 가기 시작한 것 같아. 처음에 나를 짜증 나게 하던 그 바보 같은 웃음과 찡그림이 이제는 안 보이고, 저 여자가 빠진 홀림과 저 여자 자신을 두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해 줄 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던 그

어리석음도 이제는 보이지 않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낸 건 놀라운 통찰의 노력이었지. 한때는 어떤 가르침으로도 그걸 깨우쳐 줄 수 없을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배운 건 아니야. 오늘 아침에는 무슨 끔찍한 소식이라도 되는 듯이, 내가 정말로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선언했거든! 정말이지 헤라클레스의 과업이었어! 그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감사드릴 까닭이 있지. 네 말을 믿어도 되겠어, 이저벨라?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게 확실해? 반나절만 내버려 두면 다시 한숨을 쉬며 알랑거리며 나한테 오지 않을까? 저 여자는 아마 네 앞에서 내가 다정하기 그지없어 보였으면 했을 거야. 진실이 드러나니까 허영심이 다친 거지. 하지만 그 열정이 한쪽만의 것이었다는 걸 누가 알든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그 일로 저 여자한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거짓으로 조금이라도 다정한 척을 했다고 저 여자가 나를 탓할 수는 없지. 그레인지에서 나오면서 저 여자가 맨 처음 본 내 모습은 저 여자의 강아지를 목매다는 거였고, 저 여자가 강아지를 살려 달라고 빌었을 때 내가 맨 처음 한 말은, 저 여자한테 딸린 것은 하나만 빼고 죄다 목매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지. 아마 저 여자는 그 하나가 자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어떤 잔인한 짓도 저 여자를 질리게 하지 못했어. 제 귀한 몸만 다치지 않는다면 저 여자는 타고나기를 잔인한 걸 우러러보는 모양이야! 자, 그 한심하고 노예 같고 비열한 암캐가 내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꿈꾸다니, 이게 어리석음의 밑바닥이, 진짜 백치 짓이 아니고 대체 뭐겠어? 넬리, 너희 주인한테 전해. 나는 평생 저 여자처럼 비굴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저 여자는 린턴이라는 이름까지 더럽히고 있어. 저 여자가 무엇을 어디까지 견디고도 여전히 창피하게 굽실거리며 기어 돌아오는지 시험하다가, 순전히 더 생각해 낼 거리가 없어서 손을 늦춘 적도 몇 번 있었지! 하지만 그자한테 이것도 전해. 오라비로서, 치안

판사로서 마음을 놓으라고. 나는 법의 테두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저 여자가 별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털끝만큼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해 왔고, 게다가 저 여자는 우리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다 해도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저 여자를 괴롭히는 재미보다 저 여자가 곁에 있는 성가심이 더 크니까!"

"히스클리프 씨." 내가 말했다. "그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부인께서는 아마 히스클리프 씨가 미쳤다고 믿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 오신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가도 된다고 하셨으니 부인께서는 틀림없이 그 허락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가씨, 설마 제 발로 저분 곁에 남아 계실 만큼 홀려 계시지는 않겠지요?"

"조심해, 엘렌!" 이저벨라가 노여움으로 눈을 번득이며 대답했다. 그 눈빛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남편의 노력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저 사람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악마야!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야! 전에도 떠나도 좋다는 말을 들었고 떠나 보려고도 했지만 다시는 그럴 엄두가 안 나! 엘렌, 다만 약속해 줘. 저 사람이 한 그 파렴치한 말을 우리 오빠나 캐서린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이 무슨 척을 하든, 저 사람은 에드거를 자포자기하게 만들려고 약을 올리고 싶어 해, 오빠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부러 나와 결혼했다고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죽고 말 테니까! 저 사람이 그 악마 같은 조심성을 잊어버리고 나를 죽여 주기만 바랄 뿐이야, 그렇게 되기를 빌어!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즐거움은 내가 죽거나 저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거야!"

"자, 오늘은 그만하면 됐어!"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법정에 불려 가거든 저 여자가 한 말을 기억해 둬, 넬리! 그리고 저 얼굴을 잘 봐 둬. 내게 딱 알맞은 데까지 거의 다 왔어. 아니, 이저벨라,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맡길 만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 법적으로 네 보호자인 나는 그 책임이 아무리 달갑지 않더라도 너를 내 손에 맡아 두어야겠어. 위층으로 올라가. 엘렌 딘하고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 그쪽이 아니야. 위층으로 가라니까! 위층은 이쪽 길이야, 얘야!"

그는 아가씨를 움켜잡아 방 밖으로 밀어내고는 중얼거리며 돌아왔다. "나는 동정심이 없어! 동정심이 없어! 벌레가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그 내장을 짓이겨 버리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이건 도덕의 이가 나는 거야. 아픔이 커질수록 나는 더 힘껏 이를 간다고."

"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서둘러 모자를 다시 쓰며 말했다. "살면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내려놔!" 내가 떠나려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말을 끊었다. "아직 가면 안 돼. 이리 와, 넬리. 캐서린을 만나겠다는 내 결심을 이루게 너를 설득하든지 억지로라도 너를 시키든지 해야겠어. 그것도 지체 없이.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 해코지도 할 생각이 없어. 무슨 소란을 일으키거나 린턴 씨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할 생각도 없어. 그저 캐서린한테서 직접, 몸이 어떤지, 왜 앓았는지 듣고 싶고, 내가 무엇이든 해서 캐서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라고. 어젯밤 나는 그레인지 뜰에 여섯 시간이나 있었고, 오늘 밤에도 다시 갈 거야. 들어갈 기회를 찾을 때까지 밤마다, 낮마다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맴돌 거야. 에드거 린턴이 나와 마주치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자를 때려눕혀서, 내가 머무는 동안 얌전히 있을 만큼 혼쭐을 내 줄 거야. 하인들이 막아서면 이 권총으로 을러서 쫓아 버릴 거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나 그 주인과 맞닥뜨리지 않게 막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 그리고 너라면 그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갈지 미리 알려 줄 테니, 캐서린이 혼자 있게 되면 곧바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나를

들여보내 주고 내가 떠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양심에 거리낄 것도 하나 없어. 너는 해코지를 막는 셈이니까."

나는 내 주인의 집에서 그런 배신하는 노릇을 하는 것은 싫다고 맞섰고, 게다가 자기 만족을 위해 린턴 마님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짓인지 따지기도 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님은 괴로울 만큼 깜짝깜짝 놀라세요." 내가 말했다. "신경이 온통 곤두서 계셔서 그렇게 놀라시는 걸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고집부리지 마세요, 히스클리프 씨! 그렇지 않으면 저는 히스클리프 씨가 꾸미는 일을 주인 나리께 알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리께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침입에서 집과 식구들을 지키려고 손을 쓰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너를 붙들어 두려고 손을 쓰지, 이 여자야!" 히스클리프가 외쳤다. "내일 아침까지 너는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지 못해. 캐서린이 나를 보는 걸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건 바보 같은 소리야. 놀라게 하는 건 나도 바라지 않아. 네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 내가 가도 되는지 물어봐 줘. 캐서린은 내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고, 아무도 캐서린 앞에서 내 이름을 꺼내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그 집에서 꺼내서는 안 될 이야깃거리라면 캐서린이 누구한테 내 이야기를 하겠어? 캐서린은 너희가 다 제 남편의 첩자라고 생각해. 아, 너희들 틈에서 캐서린은 틀림없이 지옥에 있는 거야! 캐서린이 말이 없는 것만 봐도 무슨 마음인지 나는 알 수 있어. 캐서린이 자주 안절부절못하고 근심스러워 보인다고 했지. 그게 평온하다는 증거야?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지. 그렇게 끔찍하게 외톨이로 지내는데 대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 그리고 그 맹물 같은 하찮은 인간이 *의무*와 *도리*로 캐서린을 돌보다니! *동정*과 *자선*으로! 그자가 그 얕은 보살핌의 흙에서 캐서린의 기운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화분에 참나무를 심어

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당장 결판을 내자. 너는 여기 남아 있고, 나는 린턴하고 그 하인 놈을 넘어뜨리고 캐서린한테 싸워서 가야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정해! 네가 그 고집스러운 심술을 계속 부린다면 내가 1분이라도 더 꾸물거릴 까닭이 없으니까!"

글쎄요, 록우드 나리, 나는 따지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쉰 번이나 딱 잘라 거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억지로 승낙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사람의 편지를 마님에게 전해 주기로 했고, 마님이 허락하면 린턴 나리가 다음에 집을 비우는 때를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 주기로 약속했다. 그때 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알아서 들어오면 되고, 나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며 다른 하인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자리를 비우게 하기로 했다.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른 일이었을까요? 그른 일이었던 것 같아요. 형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해도요. 나는 내가 따라 주어서 또 한 번의 폭발을 막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캐서린의 마음의 병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다가 내가 이야기를 고자질한다고 에드거 나리가 엄하게 나무랐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그렇게까지 모진 이름으로 부를 만한 일이라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몇 번이고 되뇌며 그 일에 대한 불안을 모두 달래 보려 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서글펐고, 그 편지를 린턴 마님의 손에 쥐여 드릴 마음을 먹기까지 나는 숱하게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런데 케네스 선생이 오셨네요. 내려가서 나리가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이 고장 말로 *지리하지요*. 그래도 또 하루 아침나절을 보내기에는 쓸 만할 거예요.

◆

지리하고, 게다가 음울하기까지! 그 착한 부인이 의사를 맞으러 내려가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골랐을 법한 기분풀이와는 영 다른 종류의 이야기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딘 부인의 쓴 약초에서 몸에 좋은 약을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히스클리프 부인의 그 반짝이는 눈 속에 도사린 매혹을 조심해야겠으니, 내가 그 젊은 여인에게 마음을 내주었는데 그 딸이 어머니의 재판(再版)으로 드러난다면, 나는 참으로 묘한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제15장

또 한 주가 지났다. 그만큼 나는 건강에, 그리고 봄에 가까워졌다! 이제 나는 가정부가 더 중요한 일에서 짬을 낼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앉아 들려준 덕분에 이웃 사람의 내력을 다 들었으니, 이야기는 그 부인의 말 그대로, 다만 조금 줄여서 이어 적으려 한다. 부인은 대체로 썩 공정한 이야기꾼이어서, 내가 그 말투를 더 낫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그날 저녁, 하고 부인은 말했다, 내가 하이츠에 다녀온 그날 저녁, 나는 눈으로 본 것처럼 히스클리프 씨가 집 둘레 어딘가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기를 피했는데, 그 사람의 편지를 아직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었고 더는 그 사람한테 위협을 받거나 들볶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를 받으면 캐서린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없었으므로, 나는 주인이 어디 출타하기 전에는 편지를 건네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그 바람에 편지는 사흘이 지나도록 마님에게 닿지 못했다. 나흘째는 일요일이었는데, 나는 식구들이 교회에 간 뒤에 그 편지를 마님 방으로 가지고 갔다. 나와 함께 집을 지키라고 남자 하인 하나가 남아 있었고, 예배 시간에는 으레 문을 잠가 두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날씨가 하도 따뜻하고 좋아서 나는 문을 활짝 열어 두었고, 누가 올지 알고 있었으므로 약속을 지키려고, 마님이 오렌지를 몹시 드시고 싶어 하니 마을에 달려가서 몇 개 사 오되 값은

내일 치르기로 하라고 동료 하인에게 일렀다. 하인이 떠나자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린턴 부인은 헐렁한 흰 옷을 입고 어깨에 가벼운 숄을 두른 채 여느 때처럼 열린 창의 우묵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숱 많고 긴 머리는 병이 시작될 무렵 얼마쯤 잘라 냈고, 이제는 타고난 머리채 그대로 관자놀이와 목 위로 수수하게 빗어 내리고 있었다. 내가 히스클리프에게 말한 대로 마님의 모습은 변해 있었지만, 마님이 차분할 때면 그 변화 속에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번득이던 눈빛 대신 꿈꾸는 듯한 우울한 부드러움이 자리 잡았고, 그 눈은 더 이상 둘레의 물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고, 언제나 그 너머를, 아득히 먼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나리도 보셨다면 이 세상 밖을 보고 있다고 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얼굴의 창백함은, 살이 다시 오르면서 초췌한 기색은 가셨지만,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그 독특한 표정과 어우러져 그 까닭을 떠올리게 해서 괴롭기는 했어도 마님이 자아내는 애틋한 마음을 더해 주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언제나 그랬고, 내 생각에는 마님을 본 누구의 눈에나 그랬을 텐데, 그 창백함은 회복되고 있다는 더 뚜렷한 증거들을 뒤엎고 마님을 시들어 갈 운명에 놓인 사람으로 못 박아 두었다.

마님 앞 창턱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느껴질까 말까 한 바람이 이따금 그 책장을 팔락거렸는데, 아마 린턴이 거기 놓아두었을 것이다. 마님은 책을 읽거나 무슨 일을 하며 기분을 돌리려 애쓰는 법이 없었고, 린턴은 마님이 예전에 즐기던 무언가로 마님의 관심을 끌어 보려고 몇 시간씩 애를 쓰곤 했기 때문이다. 마님은 남편의 뜻을 알고 있었고, 기분이 좋을 때면 남편의 애씀을 덤덤히 참아 주었고, 다만 이따금 지친 한숨을 삼키는 것으로 그 애씀이 소용없다는 것을 드러냈고, 마침내는 더없이 서글픈 미소와 입맞춤으로 남편을 멈추게 했다. 다른 때에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려 두 손에 얼굴을 묻거나 심지어 화를 내며 남편을 밀쳐 내기까지 했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아내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기머턴 예배당의 종은 아직 울리고 있었고,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의 넉넉하고 그윽한 물소리가 귀를 달래듯 들려왔다. 나무에 잎이 무성할 때면 그레인지 둘레에서 그 물소리를 덮어 버리는 여름 나뭇잎의 속삭임이 아직 없는 것을 달콤하게 대신해 주는 고운 소리였다.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큰 해빙이나 긴 장마 뒤 조용한 날이면 늘 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캐서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워더링 하이츠를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을 하거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말이지만, 마님의 얼굴에는 앞서 말한 그 흐릿하고 아득한 표정이 떠 있어서, 귀로도 눈으로도 이 세상 것을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마님께 편지가 왔어요." 나는 마님의 무릎 위에 놓인 한 손에 편지를 살며시 쥐여 드리며 말했다. "답장을 기다리는 편지라 당장 읽으셔야 해요. 봉인을 뜯어 드릴까요?" "그래." 마님은 눈길을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내가 편지를 열어 보니 아주 짧았다. "자, 이제 읽어 보세요." 내가 말을 이었다. 마님은 손을 거두어 떨어뜨렸다. 나는 편지를 다시 마님의 무릎에 올려놓고 마님이 내려다볼 마음이 날 때까지 서서 기다렸지만, 그 움직임이 하도 오래 미뤄져서 마침내 다시 말을 꺼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마님? 히스클리프 씨가 보낸 편지예요."

마님은 흠칫 놀랐고, 무언가 떠오른 듯 괴로운 빛이 스쳤으며, 생각을 가다듬으려 애쓰는 기색이 보이더니, 마님은 편지를 집어 들고 읽는 듯했고 서명에 이르자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마님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는데,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마님은 그저 그 이름을 가리키며 슬프고도 무언가 묻고 싶어 애타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이다.

"저, 그 사람이 마님을 뵙고 싶대요." 나는 마님에게 풀어서 말해 줄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짐작하고 말했다. "지금쯤은 뜰에 와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답을 가져갈지 알고 싶어 애가 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아래쪽 볕 드는 풀밭에 누워 있던 큰 개가 짖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웠다가 다시 귀를 뒤로 눕히고 꼬리를 흔들어, 낯선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알리는 것을 보았다. 린턴 부인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잠시 뒤 발소리가 현관 복도를 가로질렀다. 문이 활짝 열린 집은 히스클리프에게 들어오지 않고는 못 배길 유혹이었다. 아마 내가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고 여기고 자기 배짱만 믿기로 했을 것이다. 캐서린은 애타게 몸이 달아 방 문간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바로 방을 찾아내지 못했다. 마님은 그를 들이라고 나에게 손짓을 했지만, 내가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는 방을 찾아냈고, 한두 걸음에 마님 곁에 와서 마님을 두 팔로 움켜안았다.

그는 5분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끌어안은 팔을 풀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그가 퍼부은 입맞춤은 아마 그때까지 평생 한 입맞춤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입을 맞춘 것은 마님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너무나 괴로워서 마님의 얼굴을 차마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마님을 본 순간부터 그도 나와 똑같은 확신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거기에는 끝내 회복될 가망이 없었다. 마님은 죽을 운명이었고, 틀림없이 죽을 터였다.

"아, 캐서린! 아, 내 목숨! 이걸 어떻게 견디라고?" 그가 맨 처음 한 말은 그것이었고, 그 목소리는 절망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가 하도 뚫어지게 마님을 바라보아서, 나는 그 눈길이 너무 강렬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눈은 괴로움으로 타오를 뿐 녹아내리지 않았다.

"이제 와서 뭐야?" 캐서린이 뒤로 몸을 기대며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고 그의 눈길을 마주 보았다. 마님의 기분은 쉴 새 없이 바뀌는 변덕에 따라 도는 바람개비일 뿐이었다. "너하고 에드거가 내 가슴을 찢어 놨어, 히스클리프! 그래 놓고 둘 다 마치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인 양 나한테 와서 그 짓을 슬퍼하고 있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는 나를 죽였고, 내가 보기엔 그걸로 더 잘 살아왔어. 너는 참 튼튼하구나! 내가 죽은 뒤에 몇 해나 더 살 작정이야?"

히스클리프는 마님을 끌어안으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려 하자 마님은 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눌렀다.

"너를 붙잡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 마님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둘 다 죽을 때까지! 네가 무슨 고통을 겪든 상관없어. 나는 네 괴로움 따위 아무렇지도 않아. 너라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괴로운데! 너는 나를 잊을 거야? 내가 땅에 묻히면 너는 행복할 거야? 스무 해 뒤에 이렇게 말할 거야? '저건 캐서린 언쇼의 무덤이야. 오래전에 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를 잃어서 비참했지. 하지만 다 지난 일이야. 그 뒤로 나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 나한테는 그 여자보다 내 아이들이 더 소중해.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그 여자한테 간다고 기뻐하지는 않을 거야. 아이들을 두고 가야 한다고 슬퍼하겠지!' 그렇게 말할 거야, 히스클리프?"

"네가 미친 것처럼 나까지 미칠 때까지 나를 괴롭히지 마." 그가 머리를 비틀어 빼내고 이를 갈며 외쳤다.

냉정하게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는 두 사람이 이상하고도 무서운 그림으로 보였을 테니, 캐서린이 죽어서 몸을 버릴 때 제 성품까지 함께 버리지 않는다면 천국은 마님에게 귀양살이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할 만도 했다. 지금 마님의 얼굴은 하얀 뺨과 핏기 없는 입술과 번득이는 눈에 사나운 앙심이 서려 있었고, 움켜쥐었던 머리카락 한 줌을 쥔 주먹 속에

그대로 쥐고 있었다. 마님의 상대는 한 손으로 몸을 일으키면서 다른 손으로 마님의 팔을 붙잡았는데, 그의 다정함이 마님의 형편이 요구하는 데에 어찌나 턱없이 모자랐던지, 그가 손을 놓았을 때 핏기 없는 살갗에 퍼런 자국이 네 군데나 또렷이 남은 것이 보였다.

"악마한테 씌기라도 했어?" 그가 사납게 말을 이었다. "죽어 가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 말이 하나하나 내 기억에 낙인으로 찍혀서, 네가 떠난 뒤에도 영원히 더 깊이 파고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내가 너를 죽였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건 너도 알잖아. 그리고 캐서린, 내가 너를 잊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도 너는 알잖아! 네가 평안히 쉬는 동안 나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걸로는, 네 그 지옥 같은 이기심이 아직도 성에 안 차?"

"나는 평안하지 않을 거야." 캐서린이 신음했다. 이렇게 지나치게 흥분한 탓에 겉으로 보이고 들릴 만큼 거세고 고르지 않게 뛰는 심장 때문에, 마님은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것이다. 발작이 가라앉을 때까지 마님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좀 더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겪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너한테 바라는 게 아니야, 히스클리프. 나는 그저 우리가 절대로 헤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니까, 나중에라도 내 말 한마디가 너를 괴롭히거든 나도 땅속에서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줘! 이리 와서 다시 무릎을 꿇어! 너는 평생 나를 해친 적이 없어. 아니, 네가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게 내 모진 말보다 더 괴로운 기억이 될 거야! 다시 이리로 오지 않을래? 와 줘!"

히스클리프는 마님의 의자 뒤로 가서 몸을 숙였지만, 감정이 북받쳐 납빛이 된 얼굴을 마님이 볼 수 있을 만큼 숙이지는 않았고, 마님이 몸을 돌려 그를 보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홱 돌아서서

벽난로로 걸어가더니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린턴 부인의 눈길이 의심스러운 듯 그를 따라갔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마님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참 말없이 바라보던 끝에 마님은 다시 말을 꺼냈는데, 이번에는 분하고 실망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아, 봐, 넬리. 저 사람은 나를 무덤에서 지켜 주려고 잠깐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아. 내가 받는 사랑이 *저런* 거야! 흥, 상관없어. 저건 *내* 히스클리프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 히스클리프를 사랑할 거고, 그 애를 데리고 갈 거야. 그 애는 내 영혼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님은 생각에 잠겨 덧붙였다. "결국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이 부서진 감옥이야. 여기 갇혀 있는 게 지긋지긋해. 나는 저 찬란한 세상으로 빠져나가 언제까지나 거기 있고 싶어 못 견디겠어, 눈물 너머로 흐릿하게 바라보거나 아픈 가슴의 벽 너머로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세상과 함께, 그 세상 속에 있고 싶어. 넬리, 너는 네가 나보다 낫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겠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하지만 머지않아 그게 뒤바뀔 거야.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기게 될 거야. 나는 너희 모두를 견줄 수도 없을 만큼 넘어서서 높이 올라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왜 내 곁에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 마님은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저 사람도 그러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히스클리프, 내 사랑! 이제는 뾰로통해 있으면 안 돼. 나한테 와 줘, 히스클리프."

마님은 마음이 급해서 일어나 의자 팔걸이에 몸을 기댔다. 그 간절한 부름에 그는 아주 절망한 얼굴로 마님에게 돌아섰다. 크게 뜬 젖은 눈이 마침내 마님을 향해 사납게 번득였고 가슴은 경련하듯 들썩였는데, 한순간 둘은 떨어져 서 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맞붙었는지 나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캐서린이 몸을 날렸고, 그가 마님을 받아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 꽉 끌어안았는데, 나는 우리 마님이 그 품에서 살아서는 풀려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 눈에는 마님이 곧바로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내가 마님이 기절했는지 알아보려고 허둥지둥 다가가자, 미친개처럼 나한테 이를 갈며 거품을 물고는 탐욕스러운 질투로 마님을 제 품에 끌어당겼다. 나는 나와 같은 종류의 생물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가 말을 걸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몹시 당황한 채 물러서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곧 캐서린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는데, 마님이 손을 들어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가 안고 있는 대로 제 뺨을 그의 뺨에 갖다 댔다. 그러자 그는 그 보답으로 미친 듯이 마님을 어루만지며 정신없이 말했다.

"이제야 네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는구나. 잔인하고 거짓되었다는 걸. *왜* 나를 업신여겼어? *왜* 네 마음을 배신했어, 캐서린? 나는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해 줄 수 없어. 너는 이런 꼴을 당해도 싸. 너는 너 자신을 죽였어. 그래, 나한테 입 맞추고 울어도 좋아. 내 입맞춤과 눈물을 짜내도 좋아. 그게 너를 시들게 하고 너를 저주할 거야. 너는 나를 사랑했어. 그런데 무슨 *권리*로 나를 버렸어? 무슨 권리로, 대답해 봐, 린턴한테 느낀 그 보잘것없는 홀림 때문에? 비참함도 타락도 죽음도, 하느님이나 사탄이 내릴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을 텐데, *네가* 네 뜻으로, 너 스스로 그렇게 했어. 내가 네 가슴을 찢은 게 아니야. *네가* 찢었어. 그리고 네 가슴을 찢으면서 내 가슴까지 찢었어. 내가 튼튼하다는 게 나한테는 그만큼 더 나쁜 거야. 내가 살고 싶을 것 같아? 네가, 아, 하느님! 네 영혼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너라면* 살고 싶겠어?"

"나를 내버려 둬. 나를 내버려 둬." 캐서린이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 대가로 지금 죽어 가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너도 나를 버렸어. 하지만 너를 탓하지 않을게! 너를 용서해. 나를 용서해 줘!"

"용서하기는 어려워. 그 눈을 보면서, 그 야윈 손을 만지면서는." 그가 대답했다. "다시 입 맞춰 줘. 그리고 네 눈은 보이지 마!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할게. 나는 *나를* 죽인 사람은 사랑해. 하지만 *너를* 죽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얼굴을 서로 맞대어 묻고, 서로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양쪽이 다 울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큰일을 당하면 히스클리프도 울 수 있는 모양이었으니까.

그러는 동안 나는 몹시 불안해졌다. 오후가 빠르게 저물어 가고 있었고, 심부름을 보냈던 하인이 돌아왔으며, 골짜기 위로 비치는 서쪽 햇살에 기머턴 예배당 현관 밖으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예배가 끝났어요." 내가 알렸다. "주인 나리께서 30분 안에 오실 거예요."

히스클리프는 신음하듯 욕을 내뱉으며 캐서린을 더 꼭 끌어안았다. 마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하인들 한 무리가 부엌 쪽 별채를 향해 길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린턴 씨도 멀지 않은 뒤에 있었는데, 주인은 손수 대문을 열고 천천히 거닐며 올라왔는데, 여름처럼 부드럽게 숨 쉬는 아름다운 오후를 즐기는 모양이었다.

"이제 오셨어요." 나는 외쳤다. "제발 서둘러 내려가세요! 앞 계단에서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어서요. 그리고 나리께서 안으로 다 들어가실 때까지 나무들 사이에 숨어 계세요."

"가야겠어, 캐서린." 히스클리프가 마님의 팔에서 몸을 빼내려 하며 말했다. "하지만 살아 있으면 네가 잠들기 전에 다시 보러 올게. 네 창에서 5야드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가면 안 돼!" 마님이 힘이 닿는 한 그를 꽉 붙들며 대답했다. "*못* 가, 정말이야."

"한 시간만." 그가 간절하게 빌었다.

"1분도 안 돼." 마님이 대답했다.

"가야 *해*. 린턴이 금방 올라올 거야." 겁이 난 침입자가 고집했다.

그가 일어서서 그 바람에 마님의 손가락을 떼어 내려 했지만, 마님은 숨을 헐떡이며 꽉 매달렸고, 그 얼굴에는 미친 듯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안 돼!" 마님이 비명을 질렀다. "아, 가지 마, 가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에드거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야. 히스클리프,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빌어먹을 바보 같으니! 저기 왔군." 히스클리프가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외쳤다. "쉿, 내 사랑! 쉿, 쉿, 캐서린! 여기 있을게. 이대로 그자가 나를 쏜다 해도 나는 입술에 축복을 머금고 숨을 거둘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꼭 붙어 버렸다. 주인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겁에 질렸다.

"마님 헛소리를 들으실 작정이에요?" 내가 격하게 말했다. "마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세요. 마님이 스스로 어쩔 정신이 없다고 해서 마님을 망치실 작정이에요? 일어나세요! 당장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건 히스클리프 씨가 지금까지 한 짓 가운데 가장 악마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다 끝장이에요. 주인도 마님도 하인도요."

나는 두 손을 비틀며 소리를 질렀고 린턴 씨는 그 소리에 걸음을 재촉했는데, 정신없이 허둥대는 와중에도 나는 캐서린의 팔이 힘없이 늘어지고 머리가 축 처진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뻤다.

'기절했거나 죽었구나.' 나는 생각했다. '그편이 차라리 낫지. 질질 목숨을 끌면서 둘레 사람들 모두에게 짐이 되고 괴로움을 안기느니 죽는 편이 훨씬 나아.'

에드거는 놀라움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서 청하지도 않은 손님에게 달려들었다. 주인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는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몸을 주인의 품에 안겨 주어, 대뜸 그 모든 기세를 꺾어 버렸다.

"저걸 봐!" 그가 말했다.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면 먼저 이 사람부터 살리시오. 그다음에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린턴 씨가 나를 불렀고, 우리는 무척 애를 쓰고 갖은 방법을 다 쓴 끝에 겨우 마님의 정신이 돌아오게 했지만, 마님은 정신이 몹시 어지러워서 한숨을 쉬고 신음하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에드거는 아내를 걱정하느라 아내의 미운 친구는 잊어버렸다.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틈이 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가서, 캐서린은 좀 나아졌으니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아침에 내가 알려 주겠다고 단언하며 제발 가 달라고 빌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마다하지 않겠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뜰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넬리, 내일 약속 꼭 지켜. 나는 저 낙엽송 밑에 있을 거야. 잊지 마! 안 그러면 린턴이 있든 없든 또 찾아올 테니까."

그는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재빨리 안을 훑어보고는 내 말이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불운한 존재를 집에서 거두어 갔다.

제16장

그날 밤 열두 시쯤, 나리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보신 그 히스클리프 부인, 우리 캐시가 태어났어요. 일곱 달 만에 나온 가냘픈 아이였고, 그리고 두 시간 뒤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는데, 끝내 히스클리프를 그리워하거나 에드거를 알아볼 만큼 정신이 돌아오지 못한 채였다. 아내를 잃은 에드거가 얼마나 넋을 잃었는지는 너무 가슴 아파서 길게 늘어놓을 수가 없다. 그 뒤에 남은 자국을 보면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 슬픔을 크게 더한 것은 주인에게 상속자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가냘픈 고아를 들여다보며 그 일을 한탄했고, 아들의 딸이 아니라 제 딸에게 영지가 가도록 정해 둔 늙은 린턴 씨를 속으로 욕했다(하기야 그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편애였지만). 아무도 반기지 않은 아기였다. 가엾은 것! 태어나서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울다가 그대로 숨이 넘어간대도 누구 하나 털끝만큼도 마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 그 소홀함을 넉넉히 갚아 주었지만, 그 아이의 삶은 시작부터 의지할 데 하나 없이 외로웠고, 그 끝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바깥은 맑고 화창했는데, 그 아침 햇살이 고요한 방의 블라인드 사이로 누그러진 채 스며들어 소파와 거기 누운 사람을 부드럽고 그윽한 빛으로 감쌌다. 에드거 린턴은 베개에 머리를 묻고 눈을 감고 있었다. 젊고 수려한 그 얼굴은 곁에 누운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죽은 사람 같았고 거의 그만큼 굳어 있었다. 그러나

주인의 얼굴은 지칠 대로 지친 괴로움의 고요였고, *마님의* 얼굴은 완전한 평화의 고요였다. 이마는 매끄럽고 눈꺼풀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에는 미소 같은 표정이 어려 있어서, 하늘의 어떤 천사도 그때의 마님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마님이 누워 있는 그 끝없는 고요에 함께 젖어 들었다. 하느님 품에 든 그 흔들림 없는 안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만큼 내 마음이 거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마님이 몇 시간 전에 한 말을 나도 모르게 되뇌었다. "우리 모두를 견줄 수도 없을 만큼 넘어서서 높이 올라가 있구나! 아직 땅 위에 있든 이제 하늘에 있든, 마님의 영혼은 하느님 곁에서 편히 쉬고 있구나!"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죽은 사람이 누운 방에서 밤을 새울 때면, 미친 듯이 날뛰거나 절망한 상주가 그 일을 함께하지만 않는다면, 대개 행복한 마음이 든다. 땅도 지옥도 깨뜨릴 수 없는 안식이 보이고, 그들이 들어간 끝도 그림자도 없는 내세, 그 영원 속에서는 삶이 끝없이 이어지고 사랑이 끝없이 서로를 헤아리며 기쁨이 끝없이 차오른다는 확신이 든다. 그때 나는 캐서린이 축복받은 해방을 맞은 것을 린턴 씨가 그토록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서, 린턴 씨의 사랑 같은 사랑에도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들어 있는지 알았다. 하기야 마님이 그토록 제멋대로 참을성 없이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과연 마님이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처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차분히 따져 볼 때라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신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시신은 스스로의 고요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고요는 예전에 그 몸에 깃들었던 이도 똑같이 평안하다는 보증처럼 보였다.

나리는 그런 사람들도 저세상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믿으세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겠어요.

나는 딘 부인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사양했다. 어쩐지 이단의 냄새가 나는 물음 같았기 때문이다. 부인은 말을 이었다.

캐서린 린턴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마님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권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님은 지으신 분께 맡겨 두기로 하지요.

주인은 잠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기를 내어 방을 나와서는, 맑고 상쾌한 바깥 공기를 쐬러 살그머니 나갔다. 하인들은 내가 오래 밤을 새운 탓에 몰려오는 졸음을 떨치러 나간 줄 알았지만, 실은 히스클리프 씨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사람이 밤새 낙엽송 사이에 있었다면, 혹시 기머턴으로 말을 달려가는 심부름꾼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레인지에서 벌어진 소동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더 가까이 왔었다면, 불빛이 이리저리 오가고 바깥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보고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아마 금세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찾고 싶으면서도 찾을까 봐 두려웠다. 그 끔찍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어서 그 일을 치르고 싶었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지는 몰랐다. 그 사람은 거기 있었다. 적어도 영지 안쪽으로 몇 야드 더 들어간 곳에서, 모자를 벗은 채 늙은 물푸레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다. 머리는 움이 튼 나뭇가지에 맺혔다가 둘레로 후드득 떨어지는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던 모양이었다. 지빠귀 한 쌍이 둥지를 짓느라 바쁘게 그 사람에게서 3피트도 안 되는 곳을 오가면서도,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나무토막 하나만큼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다가가자 새들이 날아갔고, 그 사람은 눈을 들어 말했다. "죽었군!" 그가 말했다. "그걸 알려고 너를 기다리지는 않았어. 손수건은 집어넣어. 내 앞에서 훌쩍거리지 마. 빌어먹을, 너희들 다! 그 애한테는 *너희* 눈물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마님 때문에 우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 때문에도 울고 있었다. 사람은 때로,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그런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기도 한다.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이 그 불행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입술이 움직이고 눈길이 땅을 향해 있었으므로,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다.

"네, 돌아가셨어요!" 나는 흐느낌을 누르고 뺨을 닦으며 대답했다. "천국에 가셨겠지요. 우리도 저마다 마땅히 경고를 받아들이고 나쁜 길을 버리고 선한 길을 따른다면 다 마님 곁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애*는 마땅히 경고를 받아들였어?" 히스클리프가 비웃으려 애쓰며 물었다. "성녀처럼 죽었어? 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 봐. 어떻게……"

그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려 했지만 끝내 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문 채 속에서 치미는 괴로움과 말없이 싸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사나운 눈길로 내 동정을 물리쳤다. "어떻게 죽었어?" 마침내 그가 다시 물었다. 그토록 억센 사람인데도 뒤에 무언가 기댈 것이 있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속으로 싸우고 나서 그는 저도 모르게 손끝까지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엾은 사람!' 나는 생각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심장도 있고 신경도 있구나! 그걸 왜 그렇게 감추려고 애를 써? 당신의 자존심으로 하느님 눈을 가릴 수는 없어. 그렇게 감추면 하느님이 그 심장과 신경을 쥐어짜서 기어이 굴욕의 울부짖음을 터뜨리게 하실 거야.'

"어린양처럼 조용히요!" 나는 소리 내어 대답했다. "한숨을 한 번 쉬시고는,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아이처럼 몸을 쭉 펴셨어요. 그리고 5분 뒤에 마님 가슴에서 작은 맥박이 한 번 뛰는 걸 느꼈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 물음의 대답에 차마 듣지 못할 이야기가 딸려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정신이 한 번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히스클리프 씨가 떠난 뒤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내가 말했다. "얼굴에 고운 미소를 띠고 누워 계세요. 마지막에는 즐거웠던 어린 시절로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마님의 삶은 부드러운 꿈속에서 끝났어요. 저세상에서도 그렇게 고이 깨어나시기를!"

"고통 속에서 깨어나라!" 그가 무시무시하게 격한 목소리로 외치며 발을 구르더니,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이 별안간 북받쳐 신음했다. "아니, 그 애는 끝까지 거짓말쟁이야! 그 애는 어디 있어? *저기*는 아니야. 천국도 아니야.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야? 아! 너는 내 고통 따위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 그리고 나는 기도 하나만 하겠어. 내 혀가 굳어 버릴 때까지 되풀이하겠어. 캐서린 언쇼,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편히 쉬지 마라. 내가 너를 죽였다고 했지. 그럼 나한테 들러붙어! 살해당한 사람은 *정말로* 죽인 사람한테 들러붙는다고 나는 믿어. 유령이 이 땅 위를 떠돈 *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줘. 어떤 모습이든 좋아. 나를 미치게 해도 좋아! 다만 너를 찾을 수 없는 이 구렁텅이에 나를 내버려 두지만 *말아* 줘! 아, 하느님!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내 목숨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내 영혼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는 옹이 진 나무줄기에 머리를 찧었고, 눈을 치뜨고는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칼과 창에 찔려 죽어 가는 사나운 짐승의 소리 같았다. 나무껍질 여기저기에 피가 튄 자국이 보였고, 그의 손과 이마도 피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본 그 광경은 아마 밤새 되풀이된 장면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나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기보다 오싹했다. 그래도 그를 그런 꼴로 내버려

두고 떠나기는 싫었다. 그러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그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나더러 가라고 벼락같이 명령했고,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따랐다. 그는 내 솜씨로 달래거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린턴 부인의 장례식은 마님이 세상을 떠난 그 주 금요일로 정해졌고, 그때까지 마님의 관은 큰 응접실에 뚜껑을 덮지 않은 채 꽃과 향기로운 잎에 덮여 놓여 있었다. 린턴은 잠도 자지 않고 그 곁을 지키며 밤낮을 보냈다. 그리고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일인데, 히스클리프도 적어도 밤이면 그 바깥에서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을 보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므로, 화요일 날이 저물고 조금 지나, 주인이 너무 지쳐서 할 수 없이 두어 시간 물러가 쉬게 되었을 때, 나는 가서 창 하나를 열어 두었다. 그 사람의 끈질김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우상처럼 받들던 사람의 시들어 버린 모습에 마지막 작별을 고할 기회만은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짧게. 아주 작은 소리도 내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다. 사실 시신의 얼굴 둘레에 드리운 천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바닥에 은실로 묶은 엷은 빛깔의 곱슬머리 한 타래가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람이 다녀간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살펴보니 그 머리카락은 캐서린의 목에 걸린 로켓에서 꺼낸 것이었다. 히스클리프가 그 장신구를 열어 안에 든 것을 내던지고 대신 자기의 검은 머리카락 한 타래를 넣어 둔 것이다. 나는 두 타래를 꼬아서 함께 넣어 두었다.

물론 언쇼 씨도 누이의 시신을 무덤까지 따라가 달라는 기별을 받았다. 그 사람은 못 온다는 말 한마디 보내지 않았지만 끝내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남편 말고는 문상객이 모두 소작인과 하인들뿐이었다. 이저벨라에게는 기별하지 않았다.

캐서린이 묻힌 곳은 마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자리였다. 예배당 안 린턴 집안의 조각 기념비 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친정 식구들의 무덤 곁도 아니었다. 무덤은 교회 묘지 한구석, 황야 쪽 비탈의 푸른 풀밭에 팠는데, 그곳은 담이 아주 낮아서 황야의 히스와 월귤나무가 담을 타고 넘어와 있었고, 이탄 흙이 담을 거의 묻어 버릴 지경이었다. 지금은 남편도 같은 자리에 누워 있어요. 두 사람 무덤 위에는 저마다 수수한 묘비가 하나씩 서 있고, 발치에는 무덤 자리를 알리는 밋밋한 잿빛 돌덩이가 하나씩 나란히 놓여 있지요.

제17장

그 금요일이 그 뒤 한 달 동안 우리가 맞은 마지막 좋은 날이었다. 저녁이 되자 날씨가 무너졌다. 바람이 남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더니 먼저 비를 몰고 왔고, 그다음에는 진눈깨비와 눈을 몰고 왔다. 이튿날에는 세 주 동안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앵초와 크로커스는 겨울 눈 더미 밑에 파묻혔고, 종다리는 입을 다물었으며, 일찍 잎을 낸 나무들의 어린잎은 된서리를 맞아 시커멓게 타 버렸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얼마나 음울하고 춥고 처량하게 느릿느릿 지나갔는지! 주인은 제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나는 쓸쓸한 거실을 차지해 아기 방으로 꾸며 놓았다. 그렇게 나는 칭얼대는 인형 같은 아기를 무릎에 눕혀 이리저리 흔들어 주면서, 커튼을 걷어 둔 창에 여전히 휘몰아치는 눈송이가 수북이 쌓여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웃으면서 들어왔다! 잠깐 동안은 놀라움보다 화가 더 컸다. 나는 하녀 가운데 하나인 줄 알고 소리쳤다. "그만둬! 어디서 감히 여기서 그렇게 경망스럽게 굴어? 린턴 나리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미안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에드거가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며 그 사람은 숨을 헐떡이고 옆구리에 손을 댄 채 난롯가로 다가왔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여기까지 줄곧 뛰어왔어!" 잠깐 숨을 돌린 뒤 그 사람이 말을 이었다. "날다시피 한 데 말고는.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셀 수도 없어. 아, 온몸이 다 쑤셔! 놀라지 마! 말할 수 있게 되는 대로 다 설명해 줄게. 그러니 제발 나가서 나를 기머턴까지 태워다 줄 마차를 대라고 일러 주고, 하인한테 내 옷장에서 입을 옷가지를 몇 벌 찾아 오라고 해 줘."

들어온 사람은 히스클리프 부인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웃을 형편은 아닌 것 같았다. 머리는 눈과 물에 흠뻑 젖어 어깨 위로 늘어져 있었고, 옷은 늘 입던 처녀 적 옷차림 그대로였는데, 그건 지금의 처지보다는 나이에 어울리는 옷이었다. 목이 깊이 파이고 소매가 짧은 옷을 입었을 뿐 머리에도 목에도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다. 옷은 얇은 비단이라 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발에는 얇은 실내화만 신고 있었다. 게다가 한쪽 귀 밑에는 깊이 베인 상처가 있었는데 날이 추운 덕분에 겨우 피가 철철 흐르지 않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굵히고 멍이 들었으며, 몸은 지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러니 찬찬히 살펴볼 겨를이 생긴 뒤에도 처음의 놀라움이 별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나리도 짐작하실 거예요.

"아가씨." 나는 외쳤다. "아가씨가 젖은 옷을 모두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실 때까지 저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 말씀도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절대로 기머턴에 가실 수 없으니 마차를 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꼭 갈 거야." 아가씨가 말했다. "걸어서든 마차를 타서든. 그래도 점잖게 옷을 갈아입는 건 마다하지 않을게. 그리고, 아, 이것 봐, 이제 목으로 피가 흘러내리네! 불을 쬐니까 정말 쓰라려."

아가씨는 내가 자기를 만지기 전에 먼저 시킨 대로 하라고 고집했고, 마부에게 채비를 하라고 이르고 하녀에게 필요한 옷가지를 꾸리게 한

뒤에야, 나는 상처를 싸매고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 드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자, 엘렌." 내가 일을 다 마치고 아가씨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난롯가 안락의자에 앉자 아가씨가 말했다. "내 맞은편에 앉아. 그리고 가엾은 캐서린의 아기는 저리 치워.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다고 해서 내가 캐서린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면 안 돼. 나도 울었어, 쓰라리게. 그래, 누구보다 더 울 까닭이 있으니까. 우리는 화해도 못 하고 헤어졌잖아, 너도 기억하지.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자를 동정할 생각은 없었어, 그 짐승 같은 놈! 아, 부지깽이 좀 줘! 이게 내 몸에 남은 그자의 마지막 물건이야." 아가씨는 약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서 바닥에 내던졌다. "부숴 버릴 거야!" 아가씨는 어린애처럼 앙심을 품고 반지를 내리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태워 버릴 거야!" 그러고는 그 험한 꼴을 당한 물건을 집어 숯불 속에 떨어뜨렸다. "됐어! 나를 다시 데려가게 되면 새로 하나 사라지. 에드거를 약 올리려고 나를 찾으러 올 수도 있는 자야. 그자의 못된 머리에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나는 여기 머물 엄두가 안 나! 게다가 에드거는 나한테 다정하게 굴지 않았잖아, 그렇지? 나는 오빠한테 도와 달라고 애원하러 오지는 않을 거고, 오빠를 더 곤란하게 만들지도 않을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여기로 피해 왔지만, 오빠가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걸 몰랐다면 부엌에만 들러서 세수하고 몸을 녹이고, 필요한 걸 너한테 가져다 달라고 한 다음, 저주받을 내 그…… 그 도깨비 같은 놈의 손이 닿지 않는 어디로든 다시 떠났을 거야! 아, 그자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는지! 그자한테 붙잡혔더라면! 언쇼가 힘으로 그자를 당해 내지 못하는 게 아쉬워. 힌들리가 해낼 수만 있었다면 나는 그자가 거의 박살이 나는 걸 볼 때까지 달아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빨리 말씀하지 마세요, 아가씨!" 내가 말을 끊었다. "얼굴에 감아 드린 손수건이 흐트러져서 상처에서 다시 피가 날 거예요. 차를 드시고 숨을 좀 돌리시고, 웃음은 그만두세요. 이 지붕 밑에서도, 아가씨 형편에도 웃음은 영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아가씨가 대답했다. "저 애 우는 소리 좀 들어 봐! 쉬지 않고 울어 대네. 한 시간만 내 귀에 안 들리게 데려가 줘. 더 오래 있지는 않을 거야."

나는 종을 울려 아기를 하인에게 맡겼고, 그러고 나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터무니없는 꼴로 워더링 하이츠를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겠다니 어디로 갈 작정인지 물었다.

"나는 여기 남아야 하고, 남고 싶기도 했어." 아가씨가 대답했다. "에드거를 위로하고 아기를 돌보려고,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그레인지가 내 진짜 집이니까. 하지만 정말이지 그자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살이 오르고 즐겁게 지내는 꼴을 그자가 보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평온하게 지낸다는 생각을 하고도 우리의 위안에 독을 탈 작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나는 그자가 나를 몹시 미워한다는 걸, 내가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데 있기만 해도 그자가 정말로 성가셔할 만큼 미워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어서 속이 시원해. 내가 그자 앞에 나타나면 그자의 얼굴 근육이 저도 모르게 일그러져서 증오의 표정을 짓는 걸 나는 알아차려, 내가 그자를 미워할 까닭이 넉넉하다는 걸 그자가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 그 미움이 워낙 세니까, 내가 감쪽같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자가 온 잉글랜드를 뒤지며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거의 확신할 수 있고, 그러니 나는 아주 멀리 가 버려야 해. 그자 손에 죽고 싶다던 처음의 바람에서는 이제 벗어났어. 차라리 그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어! 그자는 내 사랑을 깨끗이 꺼 버렸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해. 내가 그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직도 기억할 수 있고, 만약 그때…… 아니야, 아니야! 그자가 나를 끔찍이 아꼈다 해도 그 악마 같은 본성은 어떻게든 드러나고 말았을 거야. 그자를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토록 소중히 여겼다니 캐서린은 지독하게 비뚤어진 취향을 가졌던 거야. 괴물 같으니! 그자가 이 세상에서도, 내 기억에서도 깨끗이 지워져 버렸으면!"

"쉿, 쉿! 그래도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다.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아직 세상에 있어요!"

"그자는 사람이 아니야." 아가씨가 쏘아붙였다. "그리고 그자는 내 너그러움을 바랄 자격이 없어. 나는 그자한테 내 마음을 주었는데, 그자는 그걸 받아서 꼬집고 비틀어 죽여 버린 다음 나한테 도로 내던졌어. 사람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엘렌. 그런데 그자가 내 마음을 망가뜨려 버렸으니 나는 그자를 위해 느낄 힘이 없어. 그자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신음하고 캐서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 해도 나는 그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정말, 정말로 안 그럴 거야!" 그러고는 이저벨라는 울기 시작했지만, 곧 속눈썹의 눈물을 훔쳐 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결국 무엇 때문에 내가 도망쳤느냐고 물었지?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자의 분노를 그자의 악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거든. 벌겋게 달군 집게로 신경을 뽑아내려면 머리를 내리치는 것보다 더 냉정해야 하잖아. 그자는 하도 약이 올라서 늘 자랑하던 그 악마 같은 조심성마저 잊어버리고 정말로 사람을 죽일 듯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 나는 그자를 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서 기쁨을 맛보았고, 그 기쁨 덕분에 나를 지키려는 본능이 깨어나서 나는 보란 듯이 빠져나와 버렸어. 그러니 내가 다시 그자 손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자는 마음껏 끔찍한 앙갚음을 해도 좋아.

"너도 알다시피 어제는 언쇼 씨가 장례식에 가야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술을 끊고 버텼어. 그럭저럭 맨정신으로 말이야. 저녁 여섯 시에 미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밤 열두 시에 취해서 일어나는 짓은 안 했어. 그 바람에 그 사람은 제 목숨이라도 끊을 것처럼 침울하게 일어났는데, 교회에 갈 꼴도 아니었고 춤추러 갈 꼴은 더더구나 아니었으니, 장례식에 가는 대신 난롯가에 앉아서 진인지 브랜디인지를 큰 잔으로 들이켜기 시작했어.

"히스클리프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집에 거의 붙어 있지 않았어. 천사들이 그자를 먹여 살렸는지 땅 밑의 제 친척들이 먹여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한 끼도 같이 앉아 먹은 적이 없어. 그자는 새벽에야 집에 돌아와서 위층 제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가 버렸어. 누가 그자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고는 거기서 감리교도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자가 애원하는 신은 아무 느낌도 없는 흙과 재였고, 하느님을 부를 때는 하느님을 제 검은 아비하고 묘하게 뒤섞어 버리더라! 그 귀한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기도는 대개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목구멍 속에서 막혀 버릴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자는 다시 집을 나갔어, 언제나 곧장 그레인지로! 에드거가 왜 경관을 불러서 그자를 붙잡아 가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나로서는 캐서린 일로 슬프기는 했지만, 그 치욕스러운 억압에서 놓여난 이 며칠을 무슨 휴일처럼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나는 기운을 되찾아서 조지프의 끝도 없는 설교를 울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전처럼 겁먹은 도둑의 발걸음으로 집 안을 오가지 않게 되었어. 조지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하고 헤어턴은 정말 지긋지긋한 말벗이니까, '꼬마 쥔 양반'하고 그 애를 든든히 편드는 그 밉살스러운 늙은이하고 같이 앉아 있느니,

차라리 힌들리하고 앉아서 그 사람의 끔찍한 소리를 듣는 게 나아! 히스클리프가 집에 있을 때는 나는 부엌으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든가, 아니면 사람이 살지 않는 눅눅한 방들에서 혼자 굶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해. 그자가 없을 때는, 이번 주가 그랬는데, 나는 큰방 난롯가 한구석에 탁자와 의자를 갖다 놓고 언쇼 씨가 무얼 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자리 잡는 데 간섭하지 않고. 그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예전보다 조용해졌어. 더 뚱하고 침울해졌고 덜 사나워졌어. 조지프는 그 사람이 딴사람이 된 게 틀림없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 사람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해. 나는 그런 좋은 변화의 낌새를 찾아보려 해도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야.

"어젯밤 나는 내 구석 자리에 앉아서 열두 시가 다 되도록 낡은 책을 몇 권 읽었어. 바깥에는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내 생각은 자꾸 교회 묘지와 새로 만든 무덤으로 되돌아가는데, 위층 내 방으로 올라가자니 너무나 처량했거든! 앞에 놓인 책장에서 눈을 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 눈을 들기만 하면 그 서글픈 광경이 곧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으니까. 힌들리는 손으로 머리를 괴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정신을 놓을 만큼 마시기 전에 술을 그만두었고, 두세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 집 안에는 이따금 창을 뒤흔드는 바람의 신음 소리와, 숯불이 희미하게 탁탁 튀는 소리와, 내가 이따금 기다랗게 자란 초 심지를 자를 때 심지 가위가 딸깍하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 헤어턴과 조지프는 아마 잠자리에서 곤히 자고 있었을 거야. 정말, 정말 서글펐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어. 세상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

"그 음울한 고요를 마침내 깨뜨린 건 부엌 걸쇠 소리였어. 히스클리프가 여느 때보다 일찍 망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거야. 아마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서 그랬겠지. 그쪽 문은 잠겨 있어서, 그자가 다른 문으로 들어오려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일어섰는데 내 입술에 떠오른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던지, 문 쪽을 노려보고 있던 내 말벗이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

"'5분만 저놈을 밖에 묶어 두겠소.' 그 사람이 외쳤어. '반대하지 않겠지요?'

"'네, 나로서는 밤새도록 밖에 두셔도 좋아요.' 내가 대답했어. '그렇게 하세요!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빗장을 지르세요.'

"언쇼는 손님이 정면 문에 닿기 전에 그렇게 해치우고 나서 와서는, 내 탁자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탁자 위로 몸을 숙이며, 자기 눈에서 번득이는 불타는 증오에 내가 공감하는지 내 눈 속을 더듬었어. 그 사람은 겉모습도 마음속도 영락없는 암살자 같아서 내 눈에서 그런 공감을 꼭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나한테 말을 꺼낼 용기를 얻을 만큼은 찾아냈지.

"'당신이나 나나,' 그 사람이 말했어. '저 바깥에 있는 놈한테 저마다 갚아야 할 큰 빚이 있소! 우리 둘 다 겁쟁이가 아니라면 힘을 합쳐서 그 빚을 갚을 수도 있을 거요. 당신도 당신 오라비만큼 물러 터졌소? 끝까지 참기만 하고 한 번도 갚아 줄 생각을 안 할 작정이오?'

"'이젠 참는 데 지쳤어요.' 내가 대답했어. '나한테 되돌아오지 않는 앙갚음이라면 기꺼이 하겠어요. 하지만 배신과 폭력은 양쪽 끝이 다 뾰족한 창이에요. 그걸 쓰는 사람을 원수보다 더 심하게 다치게 하지요.'

"'배신과 폭력에는 배신과 폭력으로 갚는 게 마땅하오!' 힌들리가 외쳤어. '히스클리프 부인,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 달라고 하지 않겠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입만 다물고 있으시오. 자, 말해 보시오, 할 수 있소?

그 악마 놈의 목숨이 끝나는 걸 지켜보는 건 틀림없이 당신한테도 나만큼 즐거울 거요. 당신이 그놈을 앞지르지 않으면 그놈이 *당신을* 죽일 거고, 그놈은 *나를* 파멸시킬 거요. 빌어먹을 지옥 같은 악당 놈! 벌써 제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군!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하시오. 저 시계가 치기 전에, 한 시가 되려면 3분 남았소,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 될 거요!'

"그 사람은 내가 편지에서 너한테 말한 그 연장을 가슴팍에서 꺼내더니 촛불을 끄려 했어. 그러나 나는 촛불을 홱 낚아채고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

"'입을 다물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어.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문을 닫아 둔 채로 가만히 계세요!'

"'안 되오! 나는 마음을 정했고, 하느님께 맹세코 해치우고 말겠소!' 그 자포자기한 사람이 외쳤어. '당신이 싫다 해도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고 헤어턴한테는 정의를 찾아 주겠소! 그리고 나를 감싸 주려고 머리 쓸 것 없소. 캐서린은 가 버렸소. 내가 지금 당장 내 목을 딴다 해도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나를 아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제 끝장을 낼 때요!'

"차라리 곰하고 씨름을 하거나 미친 사람하고 이치를 따지는 편이 나았을 테니, 나한테 남은 단 하나의 수는 격자창으로 달려가서, 그자가 노리는 희생자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일러 주는 것뿐이었어.

"'오늘 밤엔 다른 데 가서 피하는 게 좋을걸!' 나는 꽤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외쳤어. '네가 기어이 들어오려고 하면 언쇼 씨가 너를 쏘아 죽일 작정이야.'

"'문이나 열어, 이 ……' 그자가 대답하며 나를 고상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 말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일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쏘아붙였어. '들어와서 총에 맞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나는 할 도리를 다했어.'

"그러고 나서 나는 창을 닫고 난롯가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자를 위협하는 위험을 걱정하는 척할 만큼 위선을 넉넉히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 언쇼는 나한테 격하게 욕을 퍼부었어. 내가 아직도 그 악당을 사랑한다고 우기면서, 내가 비열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온갖 욕설을 다 해 댔어.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양심은 한 번도 나를 나무라지 않았어). 히스클리프가 *그 사람을* 비참한 신세에서 끝내 준다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축복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히스클리프를 그자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 준다면 *나한테는* 또 얼마나 축복일까! 내가 그런 생각을 곱씹으며 앉아 있는데, 내 뒤의 여닫이창이 히스클리프의 주먹 한 방에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자의 시커먼 얼굴이 섬뜩하게 안을 들여다보았어. 창살 사이가 너무 좁아서 어깨까지 들어올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안전하다고 여기고 득의만면해서 웃었어. 그자의 머리와 옷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추위와 분노에 드러난 사람 잡아먹는 귀신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 어둠 속에서 번득이고 있었어.

"'이저벨라, 들여보내 줘. 안 그러면 후회하게 해 주겠어!' 그자가 조지프 말마따나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댔어.'

"'나는 살인은 못 해.' 내가 대답했어. '힌들리 씨가 칼하고 장전한 권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어.'

"'부엌문으로 들여보내 줘.' 그자가 말했어.

"'힌들리가 나보다 먼저 거기 가 있을 거야.' 내가 대답했어. '눈발 한 번 못 견디다니 네 사랑도 참 보잘것없구나, 여름 달이 비추는 동안은 우리를 잠자리에서 편히 쉬게 내버려 두더니, 겨울바람이 한 번 되돌아오자마자 피할 데를 찾아 허겁지겁 달려오다니! 히스클리프, 내가 너라면 그 여자 무덤 위에 가서 몸을 쭉 뻗고 충직한 개처럼 죽겠어.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살 가치가 없잖아, 그렇지? 캐서린이 네 삶의 기쁨의 전부라고 너는 나한테 똑똑히 심어 주었지. 캐서린을 잃고도 살아남을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저기 있소, 그렇지?' 내 말벗이 창 틈으로 달려가며 외쳤어. '팔만 내밀 수 있으면 저놈을 칠 수 있겠소!'

"엘렌, 너는 나를 정말 못된 여자라고 여기겠지. 하지만 너는 다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자의* 목숨이라도 노리는 일을 돕거나 부추기지는 않았을 거야. 그자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 그자가 언쇼의 무기에 몸을 던져 그 사람 손에서 그걸 비틀어 빼앗았을 때, 나는 몹시 실망했고 내가 비아냥거린 말이 무슨 일을 불러올지 무서워서 기운이 쭉 빠졌어.

"총알이 터졌고, 칼은 튕겨 나오면서 주인의 손목에 박히며 접혔어. 히스클리프가 있는 힘을 다해 그걸 뽑아내자 칼이 빠져나오면서 살이 쭉 찢어졌는데, 그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을 제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 그러고는 돌을 하나 집어 들고 창 두 개 사이의 칸막이를 쳐서 무너뜨리고는 훌쩍 뛰어 들어왔어. 그자의 적수는 지독한 아픔과 동맥인지 큰 정맥인지에서 콸콸 쏟아지는 피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 불한당은 그 사람을 걷어차고 짓밟고 판석 바닥에 머리를 몇 번이고 내리찧었는데, 그동안 한 손으로는 내가 조지프를 부르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었어. 그 사람을 아예 끝장내지 않으려고 그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억눌렀지만, 숨이 차자 마침내 손을 멈추고는, 숨이 끊어진 것 같은 몸을 긴 의자 위로 끌어다 놓았어. 그러고는 언쇼의 외투 소매를 찢어서 상처를 아주 거칠게 동여맸는데, 그러는 동안 아까 걷어찰 때만큼이나 기운차게 침을 뱉고 욕을 퍼부어 대고 있었어. 풀려나자마자 나는 지체 없이 늙은 하인을 찾으러 갔어. 그

사람은 내가 허겁지겁 늘어놓는 이야기의 뜻을 차츰 알아듣더니, 헐떡거리며 계단을 두 칸씩 뛰어 내려오며 말했어.

"'이게 뭔 일이여, 이게? 이게 뭔 일이여?'

"'뭔 일이냐 하면,' 히스클리프가 벼락같이 소리쳤어. '네 주인이 미쳤다는 거야. 앞으로 한 달만 더 살면 정신 병원에 처넣고 말겠어. 그런데 이 이 빠진 사냥개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문밖에 가둬 놨어? 거기 서서 웅얼웅얼 중얼거리지 마. 자, 나는 이놈 간호는 안 할 거야. 저걸 닦아 내. 그리고 네 촛불 불똥 조심해. 저건 절반 넘게 브랜디니까!'

"'그러니까 댁이 쥔 양반을 죽이려 들었구려?' 조지프가 질겁해서 두 손과 눈을 치켜들며 소리쳤어. '내 평생 이런 꼴은 처음 보는구먼! 주여, 부디……'

"히스클리프는 그 사람을 떠밀어 핏물 한가운데 무릎을 꿇리고는 수건을 던져 주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피를 닦아 내는 대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말투가 하도 이상해서 나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 뭐야. 나는 무슨 일에도 놀라지 않을 마음 상태였어. 사실 교수대 밑에 선 어떤 죄인들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지.

"'아, 너를 잊고 있었군.' 그 폭군이 말했어. '네가 그 일을 해. 엎드려. 그리고 너도 저놈하고 짜고 나한테 맞섰지, 이 독사 같은 것아? 자,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일이야!'

"그자는 이가 딱딱 부딪칠 만큼 나를 흔들어 대고는 조지프 옆에 내동댕이쳤어. 조지프는 꿋꿋이 기도를 끝마치고 일어서더니 당장 그레인지로 가겠다고 맹세했어. 린턴 씨는 치안 판사이니, 아내를 쉰 명 잃었다 해도 이 일은 조사해야 한다는 거였지. 조지프가 하도 고집스럽게 마음을 굳히니까, 히스클리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입으로 되풀이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여겼고, 그자가 악의로 가슴을 들썩이며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동안 나는 그자가 묻는 대로 마지못해 이야기를 했어. 히스클리프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고 늙은이를 납득시키는 데는 무척 애를 먹었어. 내가 겨우 짜낸 대답으로는 더 그랬지. 그래도 언쇼 씨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건 곧 늙은이도 알게 되었고, 조지프는 서둘러 그 사람한테 독한 술을 한 모금 먹였는데, 그 덕분에 그 집 주인은 곧 몸을 움직이고 정신을 차렸어. 히스클리프는 정신을 잃은 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상대가 모른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몰아붙이고는, 그 사람의 흉악한 짓은 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자러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했지. 그렇게 현명한 충고를 하고는 그자가 우리를 두고 나가서 나는 기뻤어. 힌들리는 난롯돌 위에 몸을 쭉 뻗고 누웠고, 나는 이렇게 쉽게 빠져나온 게 신기해하며 내 방으로 갔어.

"오늘 아침 한낮이 되기 30분쯤 전에 내려가 보니, 언쇼 씨는 죽을 것처럼 아픈 얼굴로 난롯가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의 악령도 거의 그만큼 수척하고 섬뜩한 얼굴로 굴뚝에 기대 서 있었어. 둘 다 밥을 먹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식탁 위의 음식이 다 식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혼자 먹기 시작했어.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었고, 이따금 말없는 두 사람 쪽을 흘끗 보면서 어떤 만족감과 우월감을 맛보았고, 내 안에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이 있다는 데서 위안을 느꼈어. 다 먹고 나서 나는 여느 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감히 해 보았어. 난롯가로 다가가서 언쇼의 자리를 돌아 그 사람 곁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은 거야.

"히스클리프는 내 쪽을 흘끗 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자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 얼굴이 돌로 변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거의 마음 놓고 찬찬히 뜯어보았어. 한때는 그토록 사내답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그토록

악마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이마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 있었고, 노려보기만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괴물 바실리스크 같은 그 눈은 잠을 못 자서, 그리고 어쩌면 울어서, 거의 빛이 꺼져 있었어. 그때 속눈썹이 젖어 있었거든. 입술에서는 그 사나운 비웃음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이 슬픈 표정으로 굳게 닫혀 있었어.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런 슬픔 앞에서 얼굴을 가렸을 거야. 하지만 *그자의* 경우에는 흐뭇했어. 쓰러진 원수를 모욕하는 건 비열해 보이지만, 나는 화살 하나 꽂아 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 그자가 약해진 때가 아니면 당한 대로 갚아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때가 없었으니까."

"저런, 저런, 아가씨!" 내가 말을 끊었다. "누가 들으면 아가씨가 평생 성경 한 번 펼쳐 보지 않은 줄 알겠어요. 하느님께서 아가씨의 원수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그걸로 아가씨는 만족하셔야지요. 그 사람이 받는 고통에 아가씨의 고통까지 보태는 건 비열하고 주제넘은 짓이에요!"

"보통은 그렇다는 걸 인정할게, 엘렌." 아가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한테 내린 어떤 불행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 내가 거기 손을 대지 않는다면? 내가 그자를 괴롭게 할 수 있고 그자가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자가 지금보다 *덜* 괴로운 편이 나아, 아, 나는 그자한테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다면. 괴로움으로 비틀릴 때마다 똑같이 비틀어 돌려줄 수 있다면. 그자를 내 처지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그자가 먼저 해쳤으니 그자가 먼저 용서를 빌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러면 말이야, 엘렌, 너한테 어느 정도 너그러움을 보여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앙갚음을 할 수 있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나는 그자를 용서할 수 없어. 힌들리가 물을 달라고 해서 나는 잔을 건네주며 좀 어떠냐고 물었어.

"'바라는 만큼 아프지는 않소.' 그 사람이 대답했어. '하지만 팔은 빼고라도 온몸이 꼬마 악마 한 무리하고 싸우기라도 한 것처럼 성한 데가 없소!'

"'그래요, 그럴 만도 하지요.' 나는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캐서린은 자기가 오빠가 몸을 다치지 않게 막아 준다고 뽐내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오빠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지요. 사람들이 무덤에서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어젯밤 캐서린은 역겨운 꼴을 봤을 테니까요! 가슴하고 어깨에 멍들고 찢어진 데가 없으세요?'

"'모르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어.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그놈이 감히 나를 쳤단 말이오?'

"'그 사람이 당신을 짓밟고 걷어차고 바닥에 내리찧었어요.' 내가 속삭였어. '그리고 이빨로 당신을 물어뜯고 싶어서 군침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반만 사람이니까요. 아니, 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악마예요.'

"언쇼 씨는 나처럼 우리 둘의 원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 그자는 제 괴로움에 빠져서 둘레의 무엇에도 무감각한 것 같았어. 그자가 오래 서 있으면 있을수록 그 생각의 시커먼 빛깔이 얼굴에 더 또렷이 드러났어.

"'아, 하느님이 내가 숨넘어갈 때 저놈을 목 졸라 죽일 힘만 주신다면 나는 기쁘게 지옥에 가겠소.' 그 성급한 사람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싸움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해서 도로 주저앉으며 신음했어.

"'아니요, 저 사람이 당신네 집안 사람을 하나 죽인 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소리 내어 말했어. '그레인지에서는 히스클리프 씨가 없었다면 당신 누이가 지금도 살아 있을 거라는 걸 다들 알아요. 결국 저 사람한테는 사랑받느니 미움받는 편이 낫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

사람이 오기 전에 캐서린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떠올리면 그 사람이 온 그날을 저주하고 싶어져요.'

"아마 히스클리프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속셈보다는 그 말이 맞다는 데 더 마음이 쏠렸을 거야. 그자의 주의가 깨어난 게 보였어. 그자의 눈에서 눈물이 재 위로 비처럼 떨어졌고, 그자는 숨이 막힐 듯이 한숨을 쉬었으니까. 나는 그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이 웃었어. 흐려진 지옥의 창이 잠깐 나를 향해 번득였지만, 늘 그 창으로 내다보던 악마가 하도 흐려지고 잠겨 있어서, 나는 겁내지 않고 한 번 더 비웃는 소리를 내 보았어.

"'일어나서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상주가 말했어.

"적어도 그자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았어.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

"'미안하지만,' 내가 대답했어. '나도 캐서린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 오빠는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니, 나는 캐서린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볼 거야. 캐서린이 죽은 지금, 나는 힌들리에게서 캐서린을 봐. 힌들리는 캐서린하고 눈이 꼭 닮았어. 네가 그 눈을 후벼 파내려고 해서 시퍼렇고 벌겋게 만들어 놓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그리고 캐서린의……'

"'일어나, 이 비참한 천치야, 짓밟아 죽이기 전에!' 그자가 외치며 몸을 움직였고, 그 바람에 나도 몸을 움직였어.

"'하지만,' 나는 언제라도 달아날 채비를 하면서 말을 이었어. '가엾은 캐서린이 너를 믿고 히스클리프 부인이라는 그 우스꽝스럽고 경멸스럽고 굴욕적인 이름을 달았다면, 캐서린도 곧 이와 똑같은 꼴이 되었을 거야! *캐서린은* 네 그 가증스러운 짓을 잠자코 참지 않았을 거야. 그 혐오와 역겨움이 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겠지.'

"긴 의자 등받이와 언쇼의 몸이 나와 그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 그래서 그자는 나한테 손을 뻗으려 하지 않고 식탁에서 식칼을 낚아채

내 머리를 향해 던졌어. 칼은 귀 밑에 꽂혀서 내가 하던 말을 끊어 놓았지만, 나는 칼을 뽑아 들고 문으로 뛰어가서 한마디를 더 던졌는데, 그 말이 그자가 던진 칼보다 조금 더 깊이 박혔기를 지금도 바라.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자의 모습은 미친 듯이 달려들다가 집주인에게 끌어안겨 막히는 모습이었어. 둘은 서로 엉켜 붙은 채 난롯가에 쓰러졌어. 부엌을 지나 달아나면서 나는 조지프더러 어서 주인한테 가 보라고 했고, 문간에서 의자 등받이에 강아지 한 배를 목매달고 있던 헤어턴을 넘어뜨렸어. 그러고는 연옥에서 빠져나온 영혼처럼 기뻐하며 가파른 길을 뛰고 펄쩍펄쩍 뛰어넘고 날듯이 달려 내려왔어. 그다음에는 구불구불한 길을 버리고 황야를 곧장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렸어. 둑에서 구르고 늪을 철벅철벅 건너면서, 그야말로 그레인지의 등불을 향해 몸을 내던졌어. 다시 워더링 하이츠의 지붕 밑에서 하룻밤이라도 묵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벌을 받겠어."

이저벨라는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더러 모자를 씌워 주고 내가 가져온 큰 숄을 둘러 달라고 하더니, 한 시간만 더 머물라는 내 애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는 의자 위에 올라가 에드거와 캐서린의 초상화에 입을 맞추고, 나에게도 그렇게 입을 맞추고는, 주인을 되찾아 미친 듯이 기뻐 깽깽대는 패니를 데리고 마차로 내려갔다. 아가씨는 마차를 타고 떠나서 다시는 이 근방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일이 좀 가라앉은 뒤에는 아가씨와 주인 사이에 편지가 꼬박꼬박 오갔다. 아가씨가 새로 자리 잡은 곳은 남쪽 런던 근처였던 것 같다. 아가씨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지 몇 달 뒤에 아들을 낳았고, 아이는 린턴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는데, 아가씨는 처음부터 그 아이가 병약하고 칭얼대는 아이라고 편지에 써 보냈다.

어느 날 히스클리프 씨가 마을에서 나와 마주치더니 아가씨가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해 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런 건 대수롭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오라비한테 오는 건 조심해야 할 거라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살아야 한다 해도 오라비 곁에 두지는 않겠다고 했다. 내가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다른 하인들 몇에게서 아가씨가 사는 곳과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아가씨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참아 준 데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의 혐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그 아기 이야기를 자주 물었는데, 아기 이름을 듣고는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더러 그것까지 미워하라는 거군, 그렇지?"

"그 사람들은 히스클리프 씨가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원할 때는 데려갈 거야." 그가 말했다. "그건 믿어도 좋아!"

다행히 그때가 오기 전에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다. 캐서린이 세상을 떠난 지 열세 해쯤 지나서, 린턴이 열두 살인가 조금 더 되었을 때였다.

이저벨라가 뜻밖에 찾아온 이튿날에는 주인에게 말을 꺼낼 기회가 없었다. 주인은 이야기를 피했고 무슨 일이든 의논할 형편이 못 되었다. 주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게 되었을 때 보니, 누이가 남편을 떠났다는 것을 주인은 기뻐했다. 그 남편을 주인은 그 온화한 성품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세기로 미워했다. 그 혐오가 어찌나 깊고 예민한지, 주인은 히스클리프를 보거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만한 곳에는 아예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슬픔에 그 혐오까지 겹쳐서 주인은 완전히 은둔자가 되었다. 치안 판사 직을 내놓았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을 피했고, 영지와 땅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과 아주 담을 쌓고 살았다. 그렇게 사는 중에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혼자 황야를 거니는 일과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뿐이었는데, 그것도 대개 저녁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다니기 전인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주인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 오래도록 아주 불행하지는 않았다. *주인은* 캐서린의 혼령이 자기한테 들러붙으라고 빌지 않았다. 세월이 체념을 가져다주었고, 여느 기쁨보다 더 달콤한 우울을 가져다주었고, 주인은 뜨겁고 다정한 사랑으로, 그리고 아내가 간 것이 틀림없다고 믿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 어린 동경으로 아내를 늘 추억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이 세상의 위안과 사랑도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며칠 동안 주인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그 가냘픈 아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차가움은 4월의 눈처럼 빠르게 녹았고, 그 작은 것이 말 한마디 더듬거리거나 한 걸음 아장거리기도 전에 아이는 주인의 마음속에서 폭군의 홀을 휘두르게 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캐서린이었다. 그러나 주인은 첫 번째 캐서린을 한 번도 줄여서 부르지 않았듯이 이 아이를 한 번도 온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아마 히스클리프가 어머니를 줄여서 부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는 언제나 '캐시'라고 불렸다. 그렇게 해서 주인은 아이를 어머니와 구별했고,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이어 두었다. 주인이 아이를 아끼는 마음은 아이가 제 자식이라서라기보다 아이가 어머니와 이어져 있다는 데서 훨씬 더 많이 솟아났다.

나는 주인과 힌들리 언쇼를 견주어 보면서, 비슷한 처지에서 왜 두 사람이 그토록 다르게 처신했는지 그럴듯하게 설명하려고 혼자 머리를 싸매곤 했다. 두 사람 다 아내를 끔찍이 아낀 남편이었고 두 사람 다 제 자식을 사랑했으니,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왜 둘이 같은 길을 가지 않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겉으로는 더 머리가 굳세 보이던 힌들리가 안타깝게도 더 못나고 더 약한 사람으로 드러났구나. 배가 암초에 부딪히자 선장이 제자리를 버렸고, 선원들은 배를 구하려 애쓰는 대신 소란과 혼란에 빠져 들어, 그

불운한 배에는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은 셈이었다. 린턴은 그와 달리 충직하고 믿음직한 영혼의 참된 용기를 보여 주었다.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 한 사람은 희망을 품었고 다른 사람은 절망했다. 저마다 제 운명을 골랐고, 마땅히 그 운명을 견디도록 정해졌다. 하지만 록우드 나리, 제 설교는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이 모든 일은 나리도 저만큼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적어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테니,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언쇼의 최후는 누구나 짐작할 만한 것이었다. 그 최후는 누이의 죽음을 바짝 뒤따라와서 두 사람 사이는 여섯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레인지에 있던 우리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제대로 간추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내가 알게 된 것은 모두 장례 준비를 거들러 갔을 때 들은 것뿐이다. 케네스 선생이 주인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왔다.

"글쎄, 넬리." 어느 날 아침 선생이 말을 탄 채 마당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너무 이른 시각이라 나는 대뜸 나쁜 소식이라는 예감에 덜컥 겁이 났다. "이번엔 너하고 내가 상복을 입을 차례야. 이번엔 누가 우리 손을 빠져나갔을 것 같아?"

"누가요?" 나는 허둥지둥 물었다.

"글쎄, 맞혀 봐!" 선생이 말에서 내려 고삐를 문 옆 고리에 휙 걸며 대꾸했다. "그리고 앞치마 귀퉁이를 집어 들어. 틀림없이 쓸 일이 있을 테니까."

"설마 히스클리프 씨는 아니겠지요?" 나는 외쳤다.

"뭐라고! 그 사람 때문에 울어 주겠다는 거야?" 의사가 말했다. "아니야, 히스클리프는 억센 젊은이야. 오늘도 혈색이 좋아 보이더군. 방금 보고 왔지. 아내를 잃은 뒤로 살이 부쩍부쩍 오르고 있어."

"그럼 누군데요, 케네스 선생님?" 나는 참지 못하고 되풀이해 물었다.

"힌들리 언쇼! 네 옛 친구 힌들리 말이야." 선생이 대답했다. "내 고약한 술친구이기도 했고. 하기야 요 몇 해 동안은 나한테도 너무 막 나갔지만. 거봐! 눈물 좀 짜게 될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기운 내! 그 사람은 제 성미대로 죽었어. 고주망태가 되어서. 가엾은 녀석! 나도 섭섭해. 옛 동무가 없어지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짓을 다 하고 다녔고 나한테도 못된 짓을 숱하게 했지만 말이야. 겨우 스물일곱 살인 것 같던데. 너하고 동갑이지. 너희 둘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솔직히 고백하면 이 소식은 린턴 마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보다도 나에게 더 큰 타격이었다. 옛 추억들이 가슴 언저리를 떠나지 않아서, 나는 현관에 주저앉아 피붙이라도 잃은 것처럼 울면서, 주인에게 선생을 안내할 하인을 따로 찾아 달라고 케네스 선생에게 부탁했다. 나는 이런 물음을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정당한 대접을 받았을까?' 무엇을 해도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 생각이 하도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나는 워더링 하이츠에 가서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일을 거들게 해 달라고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린턴 씨는 허락하기를 몹시 꺼렸지만, 나는 그 사람이 의지할 데 없이 누워 있는 처지를 들어 열심히 사정했고, 나의 옛 주인이자 젖형제인 그 사람은 주인만큼이나 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어린 헤어턴은 마님의 조카이니, 더 가까운 친척이 없는 이상 주인이 그 아이의 후견인 노릇을 해야 하고, 재산이 어떻게 남았는지 알아보고 처남의 일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일깨웠다. 주인은 그때 그런 일을 돌볼 형편이 못 되었지만, 자기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라고 하고는 마침내 나를 보내 주었다. 주인의 변호사는 언쇼의 변호사이기도 했다. 나는 마을에 들러 그 변호사에게 같이 가 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히스클리프는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진상이 밝혀지면 헤어턴은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로 드러날 거라고 단언했다.

"그 애 아버지는 빚을 지고 죽었소." 변호사가 말했다. "재산이 몽땅 저당 잡혀 있소. 정당한 상속자에게 남은 단 하나의 기회는, 그 애가 채권자의 마음에 무언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채권자가 그 애를 너그럽게 대해 주고 싶어지게 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오."

하이츠에 이르자 나는 모든 일이 점잖게 치러지는지 보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꽤 상심한 듯한 조지프는 내가 와서 다행이라고 했다. 히스클리프 씨는 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원한다면 머물러서 장례 준비를 지휘해도 좋다고 선선히 말했다.

"제대로 하자면," 그가 말했다. "저 바보의 시체는 아무 의식도 없이 네거리에 묻어야 해. 어제 오후에 내가 10분쯤 저놈 곁을 비웠는데, 그사이에 저놈이 집의 문 두 개를 다 걸어 잠가서 나를 못 들어오게 하고는, 밤새 작정하고 술을 퍼마셔서 제 목숨을 끊었어! 오늘 아침에 저놈이 말처럼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 저놈은 저기 긴 의자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살가죽을 벗기고 머리가죽을 벗겨도 깨어나지 않았을 거야. 케네스를 부르러 보냈더니 왔는데, 그때는 이미 그 짐승이 송장이 된 뒤였어. 죽어서 차갑게 뻣뻣해져 있었지. 그러니 저놈 일로 더 법석을 떨어 봐야 소용없다는 건 너도 인정하겠지!"

늙은 하인은 그 말이 맞다고 했지만 이렇게 중얼거렸다.

"차라리 저 양반이 손수 의사를 부르러 갔으면 좋았을걸! 내가 저 양반보다 쥔 양반을 더 잘 돌봤을 거구먼. 내가 떠날 때는 쥔 양반이 죽지 않았어, 암, 그런 기미는 털끝만큼도 없었구먼!"

나는 장례를 번듯하게 치러야 한다고 우겼다. 히스클리프 씨는 그 일도 내 뜻대로 해도 좋다고 했다. 다만 그 모든 일에 드는 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 사람은 기뻐하는 기색도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딱딱하고 무심한 태도를 지켰다. 굳이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돌덩이 같은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다. 사실 한 번은 그 사람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기색 같은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집을 나서던 바로 그때였다. 그 사람은 뻔뻔스럽게도 상주 노릇을 했는데, 헤어턴을 데리고 뒤따라 나서기 전에 그 불운한 아이를 식탁 위에 올려 세우더니 유난히 맛있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자, 우리 잘생긴 녀석, 이제 너는 *내* 거야! 어디 한번 보자. 같은 바람에 비틀리면 이 나무도 저 나무처럼 구부러지게 자라지 않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좋아했다. 아이는 히스클리프의 구레나룻을 가지고 놀고 뺨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매섭게 말했다.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로 돌아가야 해요, 히스클리프 씨. 세상에 그 아이만큼 히스클리프 씨 것이 아닌 것도 없어요!"

"린턴이 그러라고 했어?" 그가 따져 물었다.

"물론이지요.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좋아." 그 악당이 말했다. "지금 그 문제로 다투지는 않겠어. 하지만 나는 어린것을 하나 길러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 너희 주인한테 일러 둬. 그자가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나는 그 빈자리를 내 아들로 채워야겠다고. 헤어턴을 순순히 내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아이는 틀림없이 이리로 데려오고 말 거야! 그자한테 잊지 말고 전해."

그 귀띔만으로도 우리의 손을 묶어 두기에 충분했다. 나는 돌아와서 그 말의 요지를 되풀이해 전했고,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던 에드거 린턴은 끼어들겠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아무리 그러고 싶어 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손님이 이제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이 되었다. 그 사람은 그 집을 단단히 손에 쥐고, 언쇼가 노름에 미쳐서 그 돈을 대느라 제 땅을 한 뼘도 남김없이 저당 잡혔고, 그 저당권자가 바로 자기, 히스클리프라는 것을 변호사에게 증명해 보였다. 변호사는 다시 그것을 린턴 씨에게 증명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쯤 이 근방에서 으뜸가는 신사가 되어 있어야 할 헤어턴은 아버지의 철천지원수에게 완전히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고, 지금도 제 집에서 품삯도 받지 못하는 하인으로 살고 있다. 의지할 친구도 없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니 제 권리를 되찾을 길도 전혀 없다.

제18장

그 음울한 시절 뒤에 이어진 열두 해는, 하고 딘 부인은 말을 이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때였는데, 그 세월 동안 내가 겪은 가장 큰 걱정거리라야 우리 꼬마 아가씨가 앓은 자잘한 병치레였고, 그런 병은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누구나 한 번씩은 치르게 마련이었다. 그 밖에는, 처음 여섯 달이 지나자 아이는 낙엽송처럼 쑥쑥 자라서, 린턴 마님의 무덤 위로 히스가 두 번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제 나름대로 걷기도 하고 말도 했다. 쓸쓸한 집에 햇살을 들여온 것 가운데 그 아이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었는데, 얼굴이 정말 예뻐서 언쇼 집안의 잘생긴 검은 눈을 물려받았지만 살결은 린턴 집안을 닮아 희었고 이목구비도 자그마했으며, 머리는 노랗게 곱슬거렸다. 기운이 넘쳤지만 거칠지는 않았고, 정에 지나칠 만큼 예민하고 생생한 마음이 그 기운을 눅여 주었다. 무엇에든 깊이 정을 붙이는 그 성품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났지만, 그래도 아이는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순할 줄도 알았고 목소리는 상냥했고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듯한 빛이 있었으며, 화를 내도 사납게 날뛰는 법이 없었고, 사랑을 해도 불같지 않았으며, 그 사랑은 깊고 다정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좋은 바탕을 가리는 흠도 있었다. 하나는 버릇없이 말대꾸하는 버릇이었고, 또 하나는 응석받이로 자란 아이라면 성미가 좋든 고약하든 하나같이 갖게 되는 고집이었다. 하인이 어쩌다 비위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늘 "아빠한테 이를 거야!"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길로라도

나무라면 무슨 가슴 찢어질 큰일이라도 난 줄 아셨을 거예요. 나는 주인이 그 애에게 모진 말 한마디라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주인은 아이의 공부를 온전히 혼자 떠맡았고 그것을 놀이처럼 만들었다. 다행히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머리가 빨라서 잘 배우는 학생이었고, 빠르고 열심히 익혀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빛내 주었다.

열세 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한 번도 혼자서 영지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다. 린턴 씨가 어쩌다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1마일쯤 바깥까지 나가기는 했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아이를 맡기지 않았다. 아이의 귀에 기머턴은 실체 없는 이름에 지나지 않았고, 제 집 말고 아이가 가까이 가 보거나 들어가 본 건물이라고는 예배당 하나뿐이었다. 워더링 하이츠도 히스클리프 씨도 아이에게는 있지도 않은 것이어서, 아이는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 살았고 보기에는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하기야 이따금 아이 방 창으로 바깥 들판을 내다보다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엘렌, 저 언덕 꼭대기까지 걸어갈 수 있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해?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바다일까?"

"아니야, 캐시 아가씨."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저기도 또 언덕이야,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럼 저 금빛 바위들은 밑에 가서 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 한번은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아이의 눈길을 특히 끈 것은 페니스톤 바위산의 가파른 비탈이었는데, 지는 해가 그 바위산과 맨 꼭대기 봉우리들을 비추고 그 밖의 온 들판이 그늘에 잠길 때면 더욱 그랬다. 나는 그것이 헐벗은 돌덩이일 뿐이고, 갈라진 틈에는 비쩍 마른 나무 한 그루 키울 흙도 제대로 없다고 일러 주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저녁인데 저기는 왜 그렇게 오래 환해?" 아이가 다시 물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있으니까." 내가 대답했다. "아가씨는 거기 못 올라가. 너무 높고 가파르거든. 겨울이면 서리가 늘 우리보다 먼저 거기 내리고, 나는 한여름이 다 되어서도 북동쪽 저 시커먼 골짜기 밑에서 눈을 본 적이 있어!"

"어머, 엘렌은 거기 올라가 봤구나!" 아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다. "그럼 나도 어른이 되면 갈 수 있겠네. 아빠도 가 봤어, 엘렌?"

"아빠는 아마 가 볼 만한 데가 못 된다고 하실 거야, 아가씨."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빠하고 같이 거니는 황야가 훨씬 좋고, 스러시크로스 영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야."

"그래도 영지는 내가 다 아는데, 저기는 모르잖아." 아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저 제일 높은 봉우리 이마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내 조랑말 미니가 나를 데려다줄 거야."

하녀 하나가 요정 동굴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아이는 그 계획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아주 넋이 나가서 그 일로 린턴 씨를 졸랐고, 주인은 좀 더 크면 거기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캐시 아가씨는 나이를 달 단위로 쟀고, "이제는 페니스톤 바위산에 갈 만큼 컸어요?" 하는 물음이 늘 입에 붙어 있었다. 그리로 가는 길은 워더링 하이츠 바로 곁을 굽이돌아 지나갔다. 에드거는 그 앞을 지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으므로, 아이는 그만큼 늘 같은 대답을 들었다. "아직은 안 돼, 우리 아가. 아직은."

히스클리프 부인이 된 이저벨라 아가씨는 남편을 떠난 뒤 열두 해 남짓 살았다고 앞에서 말했지요. 그 집안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아가씨도 에드거도 이 고장에서 흔히 보시는 불그레하고 건강한 혈색이 없었어요. 아가씨가 마지막에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짐작하기로는 두 사람이 같은 병,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디게 오지만 고칠 수가 없고 끝으로 갈수록 목숨을 빠르게 갉아먹는 일종의 열병으로 죽었다. 아가씨는 넉 달째 앓고 있는 병이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오빠에게 편지로 알리면서, 될 수 있으면 와 달라고 애원했고, 정리할 일이 많고 작별 인사도 하고 싶고 린턴을 오빠 손에 무사히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아가씨는 린턴이 그동안 자기 곁에 있었듯이 앞으로는 오빠 곁에 남게 되기를 바랐고,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는 짐을 떠맡을 생각이 없을 거라고 아가씨는 어떻게든 스스로 믿고 싶어 했다. 우리 주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여느 때는 부르는 데가 있어도 집을 떠나기를 그토록 꺼리던 사람이 이번에는 날듯이 달려갔다. 집을 비우는 동안 캐시를 각별히 잘 지켜보라고 나에게 맡기면서, 내가 따라가더라도 영지 밖으로는 절대 나가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일렀고, 아이가 혼자 나갈 거라고는 셈에 넣지도 않았다.

주인은 세 주 동안 집을 비웠다. 처음 하루 이틀 동안 내가 맡은 아이는 서재 한구석에 앉아 책을 읽지도 놀지도 못할 만큼 시무룩해 있었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 동안에는 나를 별로 귀찮게 하지 않았지만, 곧이어 안달하고 짜증 내며 지루해하는 때가 찾아왔다. 나는 너무 바쁘기도 했고 이제 나이도 들어서 아이를 즐겁게 해 주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가 없었으므로,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방도를 하나 생각해 냈다. 나는 아이를 영지 안 이곳저곳으로, 어떤 날은 걸어서 어떤 날은 조랑말을 태워 여행을 보내곤 했고, 아이가 돌아오면 진짜 겪은 모험이든 지어낸 모험이든 참을성 있게 다 들어 주었다.

여름은 한창 무르익어 햇빛이 눈부셨고, 아이는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서 아침을 먹고 나가 차 마실 때까지 밖에 있을 궁리를 하는 날이 많았고, 그러면 저녁 내내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아이가 울타리를 넘어갈까 봐 걱정하지 않았다. 대문들은 대개 잠겨 있었고, 설령 활짝 열려 있다 해도 아이가 혼자서 감히 밖으로 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 믿음은 빗나가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여덟 시에 캐시가 나에게 오더니, 오늘 자기는 아라비아 상인인데 대상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갈 거라면서 자기와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넉넉히 내놓으라고 했다. 짐승은 말 한 마리와 낙타 세 마리였는데, 큰 사냥개 한 마리와 포인터 두 마리가 낙타 노릇을 했다. 나는 맛있는 것을 넉넉히 챙겨 바구니에 담아 안장 한쪽에 매달아 주었고, 아이는 요정처럼 신이 나서 말에 훌쩍 올라탔고, 챙 넓은 모자와 얇은 망사 베일로 칠월 햇볕을 가린 채, 말을 너무 달리지 말고 일찍 돌아오라는 내 조심스러운 당부를 놀려 대며 깔깔 웃고 종종걸음으로 떠나갔다. 그 말썽꾸러기는 차 마실 때가 되어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나그네 하나, 그러니까 늙어서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냥개는 돌아왔지만 캐시도 조랑말도 포인터 두 마리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아서, 나는 이 길 저 길로 사람을 내려보냈고 마침내 나 자신도 아이를 찾아 헤매러 나섰다. 영지 가장자리에서 일꾼 하나가 조림지 둘레의 울타리를 손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가씨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침나절에 봤수." 일꾼이 대답했다. "개암나무 회초리를 하나 꺾어 달라고 하더니, 저기 산울타리 제일 낮은 데로 조랑말을 몰아 훌쩍 뛰어넘고는 달려가서 안 보이게 됐수."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어땠을지는 짐작하실 거예요. 아이가 페니스톤 바위산으로 떠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대번에 들었다. "아이고, 그 애가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사람이 고치고 있던 울타리 틈을 비집고 나가 곧장 큰길로 향하면서 소리쳤다. 나는 내기라도 건 사람처럼 1마일 또 1마일을 걸었고, 마침내 길모퉁이를 돌자 하이츠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멀리에도 가까이에도 캐시는 보이지 않았다. 바위산은 히스클리프 씨 집에서 1.5마일쯤 더 가야 하고, 그 집은 그레인지에서 4마일이니, 나는 거기 닿기도 전에 밤이 될까 봐 겁이 나기 시작했다. "바위 사이를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쩌지."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죽었거나 어디 뼈라도 부러졌으면?" 정말이지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농가 앞을 서둘러 지나가다가, 포인터 가운데 가장 사나운 찰리가 머리가 퉁퉁 붓고 귀에서 피를 흘리며 창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가슴이 후련할 만큼 마음이 놓였다. 나는 쪽문을 열고 현관으로 달려가 들여보내 달라고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내가 아는 여자, 전에 기머턴에 살던 여자가 나왔는데, 언쇼 씨가 죽은 뒤로 그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고." 그 여자가 말했다. "꼬마 아가씨를 찾으러 오셨수! 놀라지 마요. 여기 무사히 있어요. 그래도 주인 나리가 아니라서 다행이우."

"그럼 주인은 집에 없는 거지요?" 나는 급히 걸어온 데다 놀라기까지 해서 숨이 턱에 닿은 채 헐떡이며 물었다.

"없어요, 없어." 그 여자가 대답했다. "주인 나리도 조지프도 나갔는데, 한 시간 안에는 안 돌아올 거우. 들어와서 좀 쉬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내 길 잃은 어린 양이 난롯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어릴 때 쓰던 작은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고 있었다. 모자는 벽에 걸어 두었고, 아주 제집에 온 듯 편안해 보였다. 아이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아서 헤어턴에게 웃고 재잘거리고 있었는데, 헤어턴은 이제 열여덟 살 먹은 크고 튼튼한 젊은이가 되어 있었고, 꽤나 신기하고 놀란 얼굴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면서도, 아이의 혀가 쉴 새 없이 쏟아 내는 말과 물음은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잘했네, 아가씨!" 나는 기쁜 마음을 성난 얼굴 밑에 감추고 소리쳤다.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말 타는 건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문지방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 못된, 못된 아가씨야!"

"어머, 엘렌!" 아이는 신이 나서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내 곁으로 달려왔다. "오늘 밤엔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겼어. 그래, 결국 나를 찾아냈네. 엘렌은 전에 여기 와 본 적 있어?"

"그 모자 쓰고 당장 집에 가." 내가 말했다. "정말 속상해 죽겠어, 캐시 아가씨. 아주 잘못한 거야! 입을 내밀고 울어 봐야 아가씨 찾느라 온 들판을 헤맨 내 고생이 갚아지지는 않으니 소용없어. 린턴 나리가 아가씨를 밖에 못 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이렇게 몰래 빠져나오다니! 아가씨가 꾀 많은 꼬마 여우라는 게 드러났으니 이제 아무도 아가씨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아이는 곧바로 기가 꺾여서 흐느꼈다. "아빠는 나한테 아무 당부도 안 했어. 아빠는 나를 꾸짖지 않을 거야, 엘렌. 아빠는 엘렌처럼 화를 안 낸다고!"

"자, 어서!" 나는 거듭 말했다. "리본은 내가 매 줄게. 자, 심술부리지 마. 아이고, 창피해라! 열세 살이나 먹어서 이렇게 아기처럼 굴다니!"

내가 이렇게 소리친 것은 아이가 머리에서 모자를 밀어내고 내 손이 닿지 않게 굴뚝 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러지 마요." 하녀가 말했다. "그 고운 아가씨를 너무 나무라지 마요, 딘 부인. 우리가 붙잡아 둔 거예요. 아가씨는 부인이 걱정할까 봐 더 가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헤어턴이 같이 가 주겠다고 해서 나도 그게 좋겠다 싶었수. 언덕을 넘는 길이 험하거든요."

그러는 동안 헤어턴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다. 너무 쑥스러워서 입도 떼지 못했지만, 내가 끼어든 것이 달갑지 않은 눈치였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나는 그 여자가 끼어든 말은 못 들은 척하고 말을 이었다. "10분이면 어두워져. 조랑말은 어디 있어, 캐시 아가씨?

피닉스는 또 어디 있고? 서두르지 않으면 두고 갈 거야. 그러니 마음대로 해."

"조랑말은 마당에 있어." 아이가 대답했다. "피닉스는 저기 갇혀 있고. 피닉스가 물렸어. 찰리도 물렸고. 내가 다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엘렌이 심술이 났으니 들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이의 모자를 집어 들고 다시 씌워 주려고 다가갔지만, 이 집 사람들이 제 편을 든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이는 방 안을 깡충깡충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쫓아가자 생쥐처럼 가구 위로, 밑으로, 뒤로 달아나서 내가 쫓아다니는 꼴이 우스워지고 말았다. 헤어턴과 그 여자가 웃었고, 아이도 따라 웃으며 점점 더 건방지게 굴었다. 마침내 나는 몹시 약이 올라서 소리쳤다. "흥, 캐시 아가씨, 여기가 누구 집인지 알면 아가씨도 얼른 나가고 싶어질걸."

"*너희* 아버지 집이지, 그렇지?" 아이가 헤어턴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아니." 헤어턴은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헤어턴은 아이가 똑바로 쳐다보는 눈길을 견디지 못했다. 그 눈은 바로 제 눈과 똑같았는데도.

"그럼 누구 집이야? 너희 주인 집?" 아이가 물었다.

헤어턴은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얼굴을 더 붉히더니, 욕을 한마디 중얼거리고 돌아섰다.

"이 사람 주인이 누구야?" 그 성가신 아이는 나에게 물으며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이니 '우리 식구'니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집 주인 아들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 아가씨라고 한 번도 안 했어. 하인이라면 그렇게 불렀어야 하잖아, 안 그래?"

그 철없는 말에 헤어턴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시커메졌다. 나는 말없이 물음을 던진 아이를 흔들어 입을 막았고, 마침내 떠날 채비를 갖춰

주었다.

"자, 내 말 끌고 와." 아이는 자기와 피가 이어진 줄도 모르는 그 친척에게, 그레인지의 마구간 일꾼한테 하듯 말했다. "너도 같이 가도 돼. 늪에서 요괴 사냥꾼이 솟아나는 데를 보고 싶고, 너희가 *요정님네*라고 부르는 것들 이야기도 듣고 싶어. 그러니 서둘러! 왜 그래? 내 말 끌고 오라니까."

"*네* 하인 노릇을 하느니 네가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먼저 보겠다!" 젊은이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뭐* 하는 꼴을 본다고?" 캐시가 놀라서 물었다.

"지옥에 떨어지는 꼴. 이 건방진 마녀야!" 헤어턴이 대답했다.

"거 봐, 캐시 아가씨! 아주 좋은 친구들 틈에 끼었지." 내가 끼어들었다. "아가씨한테 쓰기에 참 고운 말씀이네! 제발 저 사람하고 말다툼은 시작하지 마. 자, 우리끼리 미니를 찾아서 어서 가자."

"하지만 엘렌." 아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소리쳤다.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 네가 한 말 아빠한테 이를 거야. 자, 어디 봐!"

헤어턴은 그 으름장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자 아이의 눈에 분한 눈물이 솟았다. "아줌마가 조랑말 끌고 와." 아이는 그 여자 쪽으로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리고 내 개도 당장 풀어 줘!"

"살살 하세요, 아가씨." 그 말을 들은 하녀가 대답했다. "공손하게 군다고 손해 볼 건 없어요. 저기 헤어턴 도련님이 주인 나리 아들은 아니지만 아가씨 사촌이우. 그리고 나는 아가씨 시중들라고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사촌이라고!" 캐시가 비웃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그렇고말고요." 아이를 나무란 여자가 대꾸했다.

"아, 엘렌! 저 사람들이 저런 소리 못 하게 해." 아이는 몹시 괴로워하며 말을 이었다. "아빠는 런던에 내 사촌을 데리러 갔어. 내 사촌은 신사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아이는 말을 멈추더니 엉엉 울어 버렸다. 저런 촌뜨기와 친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집혔던 것이다.

"쉬, 쉬!" 나는 속삭였다. "사람은 별의별 사촌을 다 둘 수 있어, 캐시 아가씨. 그렇다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못나지는 건 아니야. 다만 사촌이 고약하고 못됐으면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사촌이 아니야, 엘렌!" 아이는 곱씹을수록 새로 슬퍼져서 그 생각을 피해 숨듯이 내 품에 몸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나는 아이와 하녀가 서로 털어놓은 말 때문에 몹시 속이 상했는데, 아이가 말한 린턴이 곧 온다는 소식은 틀림없이 히스클리프 씨 귀에 들어갈 것이었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캐시가 맨 먼저 하녀가 한 말, 그 버릇없이 자란 친척 이야기를 캐물을 거라는 것도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이다. 헤어턴은 하인 취급을 받은 불쾌함에서 벗어나자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조랑말을 문 앞으로 끌어다 놓더니, 아이의 마음을 풀어 주려고 개집에서 다리가 휜 예쁜 테리어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 아이 손에 쥐여 주면서, 아무 뜻 없이 한 말이니 그만 울라고 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두렵고 끔찍하다는 눈길로 헤어턴을 훑어보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딱한 젊은이를 그렇게 꺼리는 것을 보고 나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헤어턴은 체격이 좋고 날랜 젊은이로 얼굴도 잘생기고 다부지고 건강했지만, 옷차림은 날마다 농사일을 하고 황야를 쏘다니며 토끼와 들짐승을 쫓는 데 걸맞은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얼굴 생김새에서 그 애 아버지가 가진 적 없는 좋은 바탕을 지닌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잡초 덤불 속에 묻혀 버린 좋은 것들이었고, 무성한 잡초가 돌보지 않은 그 싹들을 훨씬 웃자라 덮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기름진 땅이라는 증거였고, 다른 좋은 형편을 만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었다. 내가 알기로 히스클리프 씨는 그 애를 몸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는데, 그 애가 겁이 없어서 그렇게 짓누를 마음이 들 만한 거리가 없었던 덕분이다. 히스클리프가 보기에 괴롭히는 재미를 더해 줄 소심하고 여린 구석이 그 애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히스클리프는 그 애를 짐승으로 만드는 데 제 악의를 쏟은 것 같았다. 그 애는 읽기도 쓰기도 배우지 못했고, 저를 맡은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나쁜 버릇은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으며, 착한 길로 단 한 걸음도 이끌려 가 본 적이 없었고, 악을 막아 줄 가르침 한마디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조지프가 그 애를 망치는 데 한몫 크게 했다. 그 애가 오래된 집안의 맏이라는 이유로, 조지프는 속 좁게 그 애만 편애해서 어릴 때부터 비위를 맞추고 귀여워했다. 그리고 예전에 캐서린 언쇼와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그 둘이 자기 말로 '고약한 짓거리'를 해서 주인을 참다못하게 만들고 술로 위안을 찾게 했다고 탓하곤 했던 것처럼, 이제는 헤어턴의 허물을 모두 그 애 재산을 가로챈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그 애가 욕을 해도 조지프는 바로잡아 주지 않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조지프는 그 애가 갈 데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것 같았다. 그 애가 망가졌다고, 그 애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내버려졌다고 인정하면서도, 히스클리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헤어턴의 피값을 그자의 손에서 받아 내실 거라는 생각에서 조지프는 크나큰 위안을 얻었다. 조지프는 그 애에게 제 이름과 핏줄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었고, 감히 그럴 수만 있었다면 그 애와 지금의 하이츠 주인 사이에 미움을 키워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미신에 가까워서, 그 사람을 두고 품은 마음은 중얼중얼 빈정대는 소리와 남몰래 퍼붓는 저주에 그쳤다. 나는 그 무렵 워더링 하이츠에서 어떻게들 살았는지 속속들이 안다고 할 생각은 없고, 내 눈으로 본 것이 별로 없으니 들은 대로 말할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히스클리프 씨가 *인색*하고, 소작인들에게는 잔인하고 모진 집주인이라고 했지만, 집 안은 여자 손이 닿아 예전의 아늑한 모습을 되찾았고, 힌들리 때 흔하던 난장판은 이제 그 집 안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주인은 사람이 좋든 나쁘든 누구와도 어울리려 하지 않을 만큼 침울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이래서는 내 이야기가 도무지 나아가지 않네요. 캐시 아가씨는 화해의 선물로 내민 테리어를 마다하고 제 개 찰리와 피닉스를 내놓으라고 했다. 개들은 절뚝거리며 고개를 떨군 채 나왔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몹시 언짢은 채로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나는 우리 꼬마 아가씨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끝내 캐내지 못했다. 다만 내 짐작대로 그 순례의 목적지는 페니스톤 바위산이었고, 아이는 별일 없이 그 농가 대문까지 왔는데, 마침 헤어턴이 개 몇 마리를 거느리고 나오다가 그 개들이 아이의 일행에게 덤벼들었다. 주인들이 떼어 놓기 전에 개들끼리 한바탕 싸움이 붙었는데, 그것이 인사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캐시는 헤어턴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말하고 길을 안내해 달라고 했고, 결국 살살 꾀어 같이 가게 만들었다. 헤어턴은 요정 동굴의 비밀과 그 밖에 신기한 곳 스무 군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나는 눈 밖에 났기 때문에 아이가 본 흥미로운 것들의 이야기를 들려받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래도 길잡이가 아이의 마음에 쏙 들었다가 아이가 하인 대하듯 말을 걸어 헤어턴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히스클리프의 가정부가 헤어턴을 아이의 사촌이라고 불러 이번에는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헤어턴이

아이에게 한 말이 가슴에 사무쳤으니, 그레인지에서는 누구에게나 '우리 아가', '귀염둥이', '여왕님', '천사님'으로 불리던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끔찍한 모욕을 당하다니! 아이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 억울한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나는 아버지가 하이츠 사람들을 하나같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거기 갔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지 설명했지만, 무엇보다 힘주어 말한 것은 내가 주인의 분부를 소홀히 한 것을 아이가 털어놓으면 주인이 몹시 노해서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캐시는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어서 약속을 했고, 나를 위해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고 보면 아이는 정말 착하고 귀여운 아가씨였다.

제19장

검은 테를 두른 편지 한 통이 주인이 돌아올 날을 알려 왔다. 이저벨라 아가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주인은 딸에게 입힐 상복을 마련하고, 어린 조카가 묵을 방과 그 밖의 채비를 해 두라고 편지에 일렀다. 캐시는 아버지를 다시 맞을 생각에 기뻐 날뛰었고, '진짜' 사촌에게 끝도 없이 훌륭한 점이 있을 거라는 한껏 부푼 기대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이 도착하기로 한 날 저녁이 왔다. 캐시는 이른 아침부터 제 자잘한 일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이제는 새로 지은 검은 옷까지 차려입고 있었다. 가엾은 것! 고모의 죽음도 아이에게는 이렇다 할 슬픔이 되지 못했다. 아이는 쉴 새 없이 졸라 대어, 기어이 나를 데리고 영지를 가로질러 두 사람을 맞으러 내려갔다.

"린턴은 나보다 꼭 여섯 달 어려." 나무 그늘 아래 이끼 낀 잔디밭의 오르막 내리막을 느긋하게 거니는 동안 아이는 재잘거렸다. "그 애를 놀이 동무로 두면 얼마나 좋을까! 이저벨라 고모가 아빠한테 그 애 머리카락을 예쁘게 한 타래 보내 주었는데, 내 머리보다 색이 옅어서 아마빛에 더 가까웠고 내 머리만큼 가늘었어. 그걸 조그만 유리 상자에 소중히 넣어 두었는데, 그 머리카락 주인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 아! 정말 행복해. 그리고 아빠,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엘렌, 어서 뛰어가자! 어서, 뛰어."

아이는 내 점잖은 걸음이 대문에 닿기까지 달려갔다가 되돌아오고 또 달려가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고, 그러고는 길가 풀 덮인 둔덕에 앉아

참을성 있게 기다려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건 될 일이 아니었고, 아이는 단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정말 늦네!" 아이가 소리쳤다. "아, 길에 먼지가 이는 게 보여. 오고 있어! 아니네. 언제 오는 거야? 조금만 마중 나가면 안 돼? 반 마일만, 엘렌, 딱 반 마일만? 응, 그러자고 해. 저기 길모퉁이 자작나무 덤불까지만!"

나는 꿋꿋이 안 된다고 했다. 마침내 여행 마차가 굴러오는 것이 보이면서 아이의 애태움도 끝났다. 캐시 아가씨는 창밖을 내다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뻗었다. 주인은 딸 못지않게 들떠서 마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쓰다듬는 동안 나는 린턴이 어떤지 보려고 마차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한겨울이라도 되는 듯이 털 안감을 댄 따뜻한 망토에 싸여 한구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창백하고 가냘프고 계집아이 같은 사내아이로, 우리 주인의 어린 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많이 닮았지만, 그 얼굴에는 에드거 린턴에게는 한 번도 없던 병약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에드거는 내가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는 나와 악수를 하고 나서, 여행에 지쳤으니 문을 닫고 아이가 깨지 않게 그대로 두라고 일렀다. 캐시는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이리 오라고 불러서, 두 사람은 함께 영지를 걸어 올라갔고, 나는 하인들에게 채비를 시키러 앞서 서둘러 갔다.

"자, 우리 아가." 현관 계단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을 때 린턴 씨가 딸에게 말했다. "네 사촌은 너만큼 튼튼하지도 명랑하지도 않고, 잊지 마라, 바로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으니, 그 애가 곧바로 너하고 같이 놀고 뛰어다닐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말을 많이 시켜서 그 애를

성가시게 하지도 말고, 적어도 오늘 저녁만은 조용히 쉬게 해 주렴, 알았지?"

"네, 네, 아빠." 캐시가 대답했다. "그래도 정말 보고 싶은걸요. 그런데 그 애는 한 번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마차가 멈추었고, 잠자던 아이는 깨어나서 외삼촌의 손에 안겨 땅에 내려졌다.

"린턴, 이 애가 네 사촌 캐시란다." 주인은 두 아이의 작은 손을 맞잡게 해 주며 말했다. "벌써 너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 오늘 밤엔 울어서 이 애를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기운을 좀 내렴, 여행은 끝났고 이제는 쉬면서 마음껏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된단다."

"그럼 자러 갈래요." 아이는 캐시가 인사로 입을 맞추려 하자 몸을 움츠리며 대답하고는, 솟아나려는 눈물을 닦으려고 손가락을 눈에 갖다 댔다.

"자, 자, 착하지요." 나는 아이를 안으로 이끌며 속삭였다. "그러면 아가씨까지 울겠어요. 아가씨가 도련님을 얼마나 딱하게 여기는지 좀 보세요!"

그게 그 애를 딱하게 여겨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촌 누이도 그 애만큼이나 슬픈 얼굴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셋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 서재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차가 차려져 있었다. 나는 린턴의 모자와 외투를 벗겨 식탁 곁 의자에 앉혔지만, 아이는 앉자마자 다시 울기 시작했다. 주인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의자에는 못 앉겠어요." 아이가 흐느꼈다.

"그럼 소파로 가거라. 엘렌이 차를 갖다줄 거다." 외삼촌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여행하는 동안 그 칭얼대는 병약한 아이 때문에 주인이 무척 시달렸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린턴은 몸을 질질 끌다시피 천천히 가서

드러누웠다. 캐시는 발판과 제 찻잔을 들고 그 곁으로 갔다. 처음에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게 오래갈 리 없었고, 아이는 이 어린 사촌을 제가 바라는 대로 귀여운 노리개로 삼기로 마음먹었고, 그 애의 곱슬머리를 쓰다듬고 뺨에 입을 맞추고 아기에게 하듯 제 찻잔 받침에 차를 따라 주기 시작했다. 린턴은 실제로 아기보다 별로 나을 게 없었으므로 그런 아기 대접이 마음에 들어서, 눈물을 닦고 얼굴이 밝아지며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아, 저 애는 잘 지내겠어." 주인은 잠깐 두 아이를 지켜보다가 나에게 말했다. "아주 잘 지낼 거요, 엘렌, 우리가 저 애를 데리고 있을 수만 있다면. 제 또래 아이와 함께 지내면 곧 새 기운이 날 테고, 튼튼해지기를 바라다 보면 정말 튼튼해질 거요."

"그래요, 데리고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속으로 생각했고, 그럴 가망은 거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아프게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저 약골이 대체 워더링 하이츠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와 헤어턴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이 참 대단한 놀이 동무와 선생이 되겠지. 우리의 걱정은 곧, 내가 짐작한 것보다도 더 일찍 결판이 났다. 차를 다 마신 뒤 나는 아이들을 위층으로 데려가 린턴이 잠드는 것까지 보고(그 애는 잠들 때까지 내가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아래로 내려와 현관 홀의 탁자 곁에 서서 주인이 쓸 침실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그때 하녀 하나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히스클리프 씨네 하인 조지프가 문간에 와서 주인을 뵙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뭘 바라는지 내가 먼저 물어볼게." 나는 꽤 겁이 나서 말했다. "남을 성가시게 하기엔 참 엉뚱한 시간이네. 그것도 먼 길에서 막 돌아온 참인데. 주인 나리가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 같지 않아."

내가 이 말을 하는 사이에 조지프는 벌써 부엌을 지나 들어와서 현관 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더없이 경건한 척하는

시큰둥한 얼굴을 한 조지프는 한 손에 모자를, 다른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깔개에 신발을 닦기 시작했다.

"안녕, 조지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 밤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린턴 나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구먼." 조지프는 나를 깔보듯 손을 내저어 옆으로 비키게 하며 대답했다.

"린턴 나리는 잠자리에 드시려는 참이야.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들으려 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말을 이었다. "저기 들어가 앉아서 하려는 말을 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

"그 양반 방이 어디여?" 녀석은 닫힌 문들을 죽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내가 말을 전하는 것을 한사코 마다할 작정임을 알아채고, 나는 마지못해 서재로 올라가 때아닌 손님이 왔다고 알리면서 내일까지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아뢰었지만, 린턴 씨가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를 겨를도 없었다. 조지프가 내 발꿈치에 바짝 붙어 따라 올라오더니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와 식탁 맞은편 끝에 버티고 서서는, 지팡이 머리에 두 주먹을 척 얹고 반대에 부딪힐 줄 미리 짐작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높여 말을 꺼냈다.

"히스클리프가 제 아들을 데려오라고 날 보냈소. 아들 없이는 안 돌아가겄소."

에드거 린턴은 잠시 말이 없었고, 몹시 슬픈 빛이 그 얼굴을 덮었다. 그 아이만 두고 보아도 가엾게 여겼겠지만, 이저벨라의 바람과 두려움, 아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 그리고 아들을 자기에게 맡긴다던 당부를 떠올리니, 아이를 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쓰라리게 슬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아무 방도도 떠오르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다는 기색을 보이기만 해도 아이를 내놓으라는 사람이 더 막무가내로 나올 것이었으니, 아이를

내주는 수밖에 남은 길이 없었다. 그렇지만 주인은 자는 아이를 깨울 생각은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에게 전하시오." 주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아들은 내일 워더링 하이츠로 가게 될 거라고. 지금은 잠자리에 들었고, 너무 지쳐서 이제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소. 린턴의 어머니가 아이를 내 보호 아래 두기를 바랐다는 것과, 지금은 아이의 건강이 몹시 위태롭다는 것도 전해도 좋소."

"안 되오!" 조지프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위엄 있는 체했다. "안 되오!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소. 히스클리프는 그 에미도 댁도 셈에 넣지 않소, 허나 제 아들은 데려가겠다 했으니 나는 그 애를 데려가야 하오. 그러니 이제 알아들었소!"

"오늘 밤에는 안 되오!" 주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장 내려가서 내가 한 말을 주인에게 그대로 전하시오. 엘렌, 이 사람을 아래로 데려다주시오. 가시오……"

그리고 주인은 분개한 늙은이의 팔을 잡아 일으키듯 거들어 방에서 내보내고는 문을 닫았다.

"좋수다, 좋아!" 조지프는 천천히 물러가며 소리쳤다. "내일은 그 사람이 몸소 올 테니, 댁이 감히 할 수 있거든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 보시구려!"

제20장

그 으름장이 실제로 이루어질 위험을 미리 막으려고, 린턴 씨는 아침 일찍 캐시의 조랑말에 아이를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라고 나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저 아이의 앞날에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었으니,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내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캐시는 앞으로 그 애와 어울릴 수 없으니, 마음이 들떠서 하이츠에 가 보고 싶어 안달하지 않도록 그 애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편이 낫소. 그저 그 애 아버지가 갑자기 불러서 그 애가 우리 곁을 떠나야 했다고만 일러 주시오."

린턴은 새벽 다섯 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몹시 싫어했고, 또 길을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나는 아버지 히스클리프 씨에게 가서 한동안 지내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도련님을 몹시 보고 싶어 해서 도련님이 지난번 여행의 피로를 다 풀 때까지 그 기쁨을 미루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해서 일을 부드럽게 넘겼다.

"내 아버지라니!" 아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소리쳤다. "엄마는 나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어디 사는데요? 나는 외삼촌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레인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 바로 저 언덕 너머에 사시는데, 그리 멀지 않아서 도련님이 튼튼해지면 여기까지 걸어서 건너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를 뵙게 되는 걸

기뻐해야지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사랑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도련님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전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린턴이 물었다. "엄마하고 아버지는 왜 남들처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북쪽에 계셔야 했고, 어머니는 건강 때문에 남쪽에서 사셔야 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럼 엄마는 왜 나한테 아버지 얘기를 안 했어요?" 아이는 끈질기게 물었다. "외삼촌 얘기는 자주 해서 나는 오래전부터 외삼촌을 좋아하게 됐는데. 아빠는 어떻게 좋아해요? 나는 아빠를 모르는데."

"아이고, 아이들은 누구나 제 부모를 사랑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아마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면 도련님이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자, 서둘러요. 이렇게 화창한 아침에 일찍 말을 타는 게 한 시간 더 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애*도 우리하고 같이 가요?" 아이가 물었다. "어제 본 그 여자애요."

"이번에는 안 가요." 내가 대답했다.

"외삼촌은요?" 아이가 다시 물었다.

"안 가세요. 거기까지는 내가 같이 가 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린턴은 베개에 도로 털썩 누워서 시무룩하게 생각에 잠겼다.

"외삼촌 없이는 안 갈래요." 마침내 아이가 소리쳤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는 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타일러 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옷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텼고, 나는 아이를 잠자리에서 달래어 끌어내느라 주인에게 도와 달라고 해야 했다. 가엾은 아이는 오래 떠나 있지는 않을 거라는 둥, 에드거 나리와 캐시가 보러 갈 거라는 둥 헛된 다짐을 여러 번 듣고, 그 밖에도 내가 지어내어 가는 내내 틈틈이 되풀이한 똑같이 근거 없는 약속들을 듣고서야 마침내

길을 떠났다. 히스 향기가 밴 맑은 공기와 눈부신 햇살, 미니의 부드러운 구보에 아이의 시무룩한 마음도 얼마 뒤에는 풀렸다. 아이는 새집과 거기 사는 사람들에 관해 전보다 더 관심을 보이며 생기 있게 묻기 시작했다.

"워더링 하이츠도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만큼 좋은 데예요?" 아이는 돌아서서 골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들여다보며 물었는데, 그 골짜기에서는 엷은 안개가 피어올라 푸른 하늘 자락에 양털 같은 구름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는 이렇게 나무에 파묻혀 있지 않고 이만큼 크지도 않지만, 사방으로 들판이 아름답게 내다보이고 공기도 더 상쾌하고 보송보송해서 도련님 몸에 더 좋아요." 내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집이 낡고 어둡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번듯한 집이고, 이 근방에서 두 번째로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황야를 아주 즐겁게 거닐 수 있을 거예요. 헤어턴 언쇼가, 그러니까 캐시 아가씨의 다른 사촌이니 어찌 보면 도련님 사촌이기도 한 사람이 제일 좋은 데를 다 보여 줄 테고, 날씨가 좋으면 책을 가지고 나가서 푸른 우묵한 풀밭을 공부방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따금 외삼촌이 산책길에 같이할 수도 있어요. 외삼촌은 언덕으로 자주 산책을 나가시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가 물었다. "외삼촌만큼 젊고 잘생겼어요?"

"젊기는 그만큼 젊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만 머리도 눈도 까맣고, 더 엄해 보이고, 키도 더 크고 몸집도 다 더 커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리 다정하고 친절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명심해요, 도련님은 꼭 아버지한테 솔직하고 살갑게 굴어야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어느 외삼촌보다 도련님을 더 귀여워해 주실 거예요, 친아들이니까요."

"머리도 눈도 까맣다고요!" 린턴은 생각에 잠겼다. "상상이 안 돼요. 그럼 나는 아버지를 안 닮았겠네요, 그렇지요?"

"별로요." 나는 대답했다. 털끝만큼도 안 닮았지, 하고 나는 생각하며 내 길동무의 하얀 얼굴빛과 가냘픈 몸, 그리고 어머니의 눈이지만 병적으로 예민한 성미에 잠깐 불이 붙을 때가 아니면 어머니의 반짝이는 기운이라고는 흔적도 없는 그 크고 나른한 눈을 안타깝게 훑어보았다.

"아버지가 한 번도 엄마하고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니 참 이상해요!" 아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나를 본 적이 있어요? 봤다면 나는 그때 아기였겠네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글쎄요, 린턴 도련님." 내가 말했다. "300마일은 아주 먼 길이고, 열 해라는 세월도 어른한테는 도련님이 느끼는 것과 아주 다른 길이로 느껴지거든요. 아마 히스클리프 씨는 여름마다 이번 여름에는 가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마땅한 때를 찾지 못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무 늦어 버린 거지요. 그 일로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묻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언짢게 해 드리고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이는 농가 정원 대문 앞에 멈출 때까지 가는 내내 제 생각에 푹 잠겨 있었다. 나는 아이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 얼굴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조각이 새겨진 정면과 이마가 낮은 격자창들, 제멋대로 뻗은 구스베리 덤불과 구부러진 전나무들을 엄숙하게 뚫어지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는데, 속으로는 새 거처의 겉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메워 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 불평을 미룰 만한 분별은 있었다. 아이가 말에서 내리기 전에 나는 가서 문을 열었다. 여섯 시 반이었는데, 식구들은 막 아침을 다 먹었고 하녀는 식탁을 치우고 닦고 있었다. 조지프는 주인의 의자 곁에 서서 다리를 저는 말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고, 헤어턴은 건초밭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어이, 넬리!" 히스클리프 씨가 나를 보고 말했다. "내 물건을 직접 가지러 내려가야 하나 싶었는데. 데려왔구나, 응? 그걸로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그는 일어나서 성큼성큼 문으로 걸어왔고, 헤어턴과 조지프가 입을 헤벌린 채 호기심에 차서 뒤따라왔다. 가엾은 린턴은 겁먹은 눈으로 세 사람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틀림없구먼." 조지프가 근엄하게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그 양반이 쥔 양반하고 애를 바꿔치기했구려. 저건 그 양반 계집애구먼!"

히스클리프는 아들이 오한이 든 것처럼 떨며 어쩔 줄 모를 때까지 노려보더니 경멸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맙소사! 이런 미남이 있나! 어쩜 이리 곱고 귀여운 물건이 다 있어!" 그가 소리쳤다. "달팽이하고 쉰 우유를 먹여서 키운 거 아니야, 넬리? 아, 빌어먹을! 내가 짐작한 것보다 더 고약하잖아. 내가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건 악마도 알 텐데!"

나는 떨면서 어리둥절해하는 아이에게 내려서 들어가라고 했다. 아이는 아버지가 한 말의 뜻도, 그 말이 저를 두고 한 말인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사실 그 험상궂게 비웃는 낯선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것조차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더 겁에 질려서 나에게 매달렸고, 히스클리프 씨가 자리에 앉아 "이리 와" 하고 부르자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쯧, 쯧!" 히스클리프가 손을 뻗어 아이를 제 무릎 사이로 거칠게 끌어당기고는 턱을 잡아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그런 바보짓은 집어치워!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아, 린턴. 그게 네 이름이지? 너는 어디까지나 네 어미 자식이구나! 네 안에 *내* 몫은 어디 있냐, 이 삐악대는 병아리 같은 녀석아?"

그는 아이의 모자를 벗기고 숱 많은 아마빛 곱슬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고, 가느다란 팔과 작은 손가락을 더듬어 보았는데, 그렇게 살펴보는 동안 린턴은 울음을 그치고, 커다란 파란 눈을 들어 저를 살피는 사람을 살폈다.

"나를 아냐?" 히스클리프는 팔다리가 하나같이 가냘프고 힘이 없다는 것을 실컷 확인하고 나서 물었다.

"아니요." 린턴은 멍하니 겁에 질린 눈길로 말했다.

"내 이야기는 들어 봤겠지?"

"아니요." 아이가 다시 대답했다.

"아니라고! 네 어미는 염치도 없지, 나를 아버지로 섬길 마음을 한 번도 일깨워 주지 않았다니! 그럼 내가 말해 주마, 너는 내 아들이고, 네 어미는 네가 어떤 아버지를 두었는지 모르게 내버려 둔 못된 년이었어. 자, 움찔하지도 말고 얼굴 붉히지도 마! 그래도 네 피가 허옇지는 않다는 걸 보니 *그나마* 낫구나. 착하게 굴어라. 그러면 내가 잘 돌봐 주마. 넬리, 피곤하면 앉아도 좋아. 아니면 집에 돌아가고. 너는 여기서 듣고 본 것을 그레인지의 그 빈껍데기한테 고해바칠 테고, 네가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동안에는 이 물건이 자리를 잡지 못할 거야."

"그럼." 내가 대답했다. "히스클리프 씨가 이 아이한테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하실 테고, 이 아이는 넓은 세상에 히스클리프 씨가 앞으로 알게 될 단 하나뿐인 피붙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주* 잘해 줄 테니 걱정할 것 없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다만 다른 누구도 이 녀석한테 잘해 주어서는 안 돼, 나는 이 녀석의 정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샘이 나거든. 자, 내 친절의 시작으로, 조지프, 이 녀석한테 아침을 좀 갖다줘. 헤어턴, 이 지옥에서 온 송아지 같은 놈아, 썩 일하러 가."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가자 그가 덧붙였다. "그래, 넬, 내

아들은 너희 집 영지를 물려받을 사람이니, 나는 내가 그 녀석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 녀석이 죽지 않기를 바라. 게다가 그 녀석은 *내* 거고, 나는 *내* 자손이 그자들의 영지를 버젓이 다스리는 걸, 내 자식이 그자들의 자식을 품삯 주고 부려서 그 아비들의 땅을 갈게 하는 꼴을 보는 승리를 맛보고 싶어. 내가 저 강아지 같은 녀석을 참아 줄 수 있는 까닭은 그것 하나뿐이야, 녀석 자체는 경멸하고 녀석이 되살려 놓는 기억 때문에 미워하니까! 그래도 그 까닭 하나면 충분해서, 녀석은 나와 함께 있어도 안전하고 너희 주인이 제 자식을 돌보는 만큼 조심스럽게 보살핌을 받을 거야. 위층에 녀석이 쓸 방을 하나 근사하게 꾸며 두었고, 가정교사도 하나 구했는데, 20마일 떨어진 데서 일주일에 세 번 와서 녀석이 배우고 싶은 걸 가르칠 거야. 헤어턴한테는 녀석의 말을 따르라고 일러 두었고, 사실 나는 녀석 안의 윗사람다운 것, 신사다운 것을 지켜 주어서 같이 지내는 자들보다 높이 세워 두려고 모든 걸 마련해 두었어. 하지만 녀석이 그런 수고를 들일 만한 값어치가 없어서 참 아쉬워. 내가 이 세상에서 바란 축복이 하나 있다면 그건 녀석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놈이기를 바란 거였는데, 이 허여멀건 얼굴로 칭얼대는 못난 녀석한테 나는 쓰라리게 실망했어!"

그가 말하는 동안 조지프가 우유에 끓인 귀리죽 한 사발을 들고 돌아와서 린턴 앞에 놓았는데, 린턴은 그 소박한 음식을 싫다는 얼굴로 휘휘 젓더니 못 먹겠다고 잘라 말했다. 보아하니 늙은 하인도 그 아이를 깔보는 마음이 주인 못지않았지만, 히스클리프가 아랫사람들이 그 아이를 떠받들게 하려는 게 뻔했으므로 그 마음을 속에만 품어 두어야 했다.

"못 먹겄다고?" 조지프는 혹시 누가 엿들을까 봐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며 린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되물었다. "허나 헤어턴 도련님은

쪼끄만 할 적에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그 애한테 넉넉히 좋았던 거면 너한테도 넉넉히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구먼!"

"안 *먹을* 거야!" 린턴이 쌀쌀맞게 대답했다. "치워."

조지프는 화가 나서 음식을 낚아채더니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

"이 먹을거리에 뭐가 잘못됐소?" 조지프는 쟁반을 히스클리프의 코밑에 들이밀며 물었다.

"잘못될 게 뭐 있어?"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허!" 조지프가 대답했다. "저 까다로운 녀석이 이건 못 먹겄다잖소. 허나 그게 맞는 말이겄지! 그 에미도 꼭 그랬구먼, 그 여편네 빵 만들 곡식을 뿌리기엔 우리가 너무 더럽다고 했으니."

"그 녀석 어미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주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녀석이 먹을 수 있는 걸 갖다줘. 그거면 돼. 넬리, 이 녀석은 보통 뭘 먹지?"

나는 끓인 우유나 차가 좋겠다고 했고, 가정부가 그것을 마련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이기심 덕분에 오히려 아이가 편히 지낼 수도 있겠어. 아이가 몸이 약하다는 것도, 그러니 웬만큼은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히스클리프의 기분이 이렇게 돌아섰다는 걸 알려 드려서 에드거 나리를 위로해 드려야지. 더 머뭇거릴 핑계도 없어서, 나는 린턴이 다정하게 다가오는 양치기 개를 겁먹은 채 밀어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에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그러나 아이는 너무 바짝 경계하고 있어서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내가 문을 닫는 순간 비명이 들리더니 미친 듯이 되풀이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두고 가지 마! 여기 안 있을 거야! 여기 안 있을 거야!"

그러고는 빗장이 들렸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아이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미니에 올라 종종걸음을 재촉했고,

그렇게 해서 나의 짧은 보호자 노릇은 끝이 났다.

제21장

그날 우리는 어린 캐시 때문에 애를 먹었다. 아이는 사촌과 함께 지낼 생각에 잔뜩 들떠서 일어났는데, 사촌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어찌나 서럽게 울고 한탄하는지 에드거가 몸소 달래면서 그 애가 곧 돌아올 거라고 다짐해 주어야 했고, 다만 "내가 데려올 수 있다면" 하고 덧붙였는데, 그럴 가망은 없었다. 그 약속으로는 아이의 마음이 별로 가라앉지 않았지만, 세월은 그보다 힘이 셌다. 아이는 그 뒤로도 이따금 린턴이 언제 돌아오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지만, 정작 다시 만나게 될 무렵에는 그 얼굴이 기억 속에서 어찌나 흐려졌는지 알아보지도 못했다.

볼일이 있어 기머턴에 들를 때 어쩌다 워더링 하이츠의 가정부와 마주치면, 나는 그 집 도련님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곤 했는데, 그 애도 캐시만큼이나 세상과 떨어져 살아서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부의 말로 미루어 보면 그 애는 여전히 몸이 약했고 같이 지내기에 성가신 식구였다. 가정부 말로는 히스클리프 씨가 겉으로는 애써 감추면서도 그 애를 갈수록 더 오래, 더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애의 목소리만 들어도 진저리를 냈고 그 애와 한방에 몇 분만 같이 앉아 있어도 도저히 못 견뎌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오가는 일이 드물었다. 린턴은 그 집 사람들이 응접실이라고 부르는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을 보내거나, 아니면 늘 기침이니 감기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니 하는 병치레가 끊이지 않아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여자가 덧붙였다. "그렇게 제 몸 하나 끔찍이 챙기는 사람도 처음 봤고. 저녁에 내가 창을 좀 늦게까지 열어 두기라도 하면 *한사코* 잔소리를 해 대요. 아이고! 밤바람 한 모금에 죽는다나요! 한여름에도 불을 피워야 하고, 조지프의 담뱃대는 독약이고, 늘 단것이며 맛난 것을 먹어야 하고, 늘 우유, 언제나 우유만 찾으면서 우리가 겨울에 얼마나 쪼들리는지는 아랑곳도 안 해요. 그러고는 털 망토를 두르고 난롯가 의자에 앉아서, 화덕 위에 구운 빵 담근 물이나 그 밖의 멀건 것을 올려놓고 홀짝거리는데, 헤어턴이 딱해서 같이 놀아 주러 오기라도 하면(헤어턴은 거칠어도 성미가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둘은 틀림없이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울면서 헤어지고 말아요. 내 생각엔 그 애가 자기 아들만 아니라면 주인 나리는 언쇼가 그 애를 두들겨 패서 미라처럼 만들어 놓아도 좋아하실 거고, 그 애가 제 몸을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는지 반만 알아도 집 밖으로 내쫓고 싶어 하실 게 틀림없수. 그래도 주인 나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일은 하지 않으우. 응접실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린턴이 주인 나리가 있는 방에서 그런 버릇을 보이기라도 하면 당장 위층으로 올려 보내요."

그 이야기로 미루어, 나는 아무도 따뜻한 정을 주지 않아서 젊은 히스클리프가, 처음부터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기적이고 정 붙이기 힘든 아이가 되어 버렸다고 짐작했고, 그래서 그 애에게 쏠리던 내 관심도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그 애의 처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서글펐고, 그 애가 우리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에드거 나리는 내가 소식을 알아 오기를 바랐는데, 내 짐작에 주인은 그 애 생각을 많이 했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애를 보고 싶어 했을 것이며, 한번은 그 애가 마을에 나오는 일이 있는지 가정부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가정부는 그 애가 아버지를 따라 말을 타고 딱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그 뒤 사나흘 동안 아주 녹초가 된 척을 했다고 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가정부는 그 애가 온 지 두 해 뒤에 그 집을 떠났고,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 여자는 지금도 거기 산다.

그레인지에서는 캐시 아가씨가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예전처럼 즐겁게 세월이 흘러갔다. 아가씨의 생일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기색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는데, 그날이 돌아가신 마님의 기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날이면 언제나 서재에서 혼자 지냈고, 해 질 녘에는 기머턴 교회 묘지까지 걸어가서 자정이 넘도록 그곳에 머무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캐시는 혼자서 놀 거리를 찾아야 했다. 그해 삼월 이십 일은 아름다운 봄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우리 아가씨는 나갈 차림을 하고 내려와서는, 나와 같이 황야 가장자리를 좀 거닐고 싶다고 했다. 멀리 가지 않고 한 시간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린턴 씨가 허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러, 엘렌!" 아가씨가 소리쳤다.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뇌조들이 떼 지어 사는 데인데, 벌써 둥지를 틀었는지 보고 싶어."

"거기까지 가려면 꽤 올라가야 할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뇌조는 황야 가장자리에서는 새끼를 치지 않거든요."

"아니야, 멀지 않아." 아가씨가 말했다. "아빠하고 같이 아주 가까이까지 가 봤는걸."

나는 보닛을 쓰고,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나섰다. 아가씨는 어린 그레이하운드처럼 내 앞으로 껑충껑충 달려갔다가 내 곁으로 돌아오고는 다시 달아났고, 처음에는 나도 멀리서 가까이서 지저귀는 종다리 소리를 듣고 달콤하고 따스한 햇볕을 즐기며, 내 귀염둥이이자 내 기쁨인 아가씨가 금빛 곱슬머리를 뒤로 날리고 들장미처럼 부드럽고 깨끗하게 피어난 환한 뺨에 구름 한 점 없는 기쁨으로 눈을 빛내며

뛰노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 시절의 아가씨는 행복한 아이였고 천사였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게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아가씨." 내가 말했다. "아가씨의 뇌조는 어디 있어요? 벌써 닿았어야 하는데요. 그레인지 영지 울타리가 이제 저만큼 멀리 있잖아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 엘렌." 아가씨는 줄곧 그렇게 대답했다. "저 둔덕에 올라가서 저 비탈을 지나가 봐. 엘렌이 저쪽에 닿을 때쯤이면 내가 새들을 날려 놓을 거야."

그러나 올라가고 지나가야 할 둔덕과 비탈이 하도 많아서 나는 마침내 지치기 시작했고, 이제 그만 멈추고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가씨에게 말했다. 아가씨가 나를 한참 앞질러 가 있었으므로 나는 소리쳐 불렀는데, 아가씨는 듣지 못했는지 들은 척도 안 했는지 계속 깡충깡충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하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다. 마침내 아가씨는 우묵한 골짜기로 쑥 내려갔고, 내가 다시 아가씨를 보게 되었을 때 아가씨는 제 집보다 워더링 하이츠에 2마일이나 더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가씨를 붙잡아 세우는 것이 보였고, 나는 그중 하나가 바로 히스클리프 씨라고 확신했다.

캐시는 뇌조 둥지를 털다가, 아니 적어도 둥지를 찾아다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었다. 하이츠는 히스클리프의 땅이었고, 히스클리프는 그 밀렵꾼을 나무라고 있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고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내가 그쪽으로 힘겹게 다가가는 동안 아가씨는 그 말이 참말이라는 듯 두 손을 펴 보이며 말했다.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여기 위에 뇌조가 아주 많다고 해서 알을 보고 싶었어요."

히스클리프는 아가씨를 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니만큼 아가씨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고약한 웃음을 띠고 나를 흘끗

보더니,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다.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린턴 씨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나를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너는 네 아빠가 그렇게 대단히 존경받고 우러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히스클리프가 비꼬듯 말했다.

"그럼 아저씨는 누구세요?" 캐시는 말하는 사람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물었다. "저 사람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저씨 아들이에요?"

아가씨가 가리킨 것은 또 한 사람, 헤어턴이었는데, 두 해 나이를 더 먹는 동안 몸집과 힘이 더 붙은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고 여전히 어색하고 거칠어 보였다.

"캐시 아가씨." 내가 끼어들었다. "이러다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이나 밖에 있게 되겠어요. 정말 이제는 돌아가야 해요."

"아니, 저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야." 히스클리프가 나를 옆으로 밀어내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도 전에 본 적이 있어. 네 유모가 서두르기는 하지만, 내 생각엔 너도 저 사람도 좀 쉬어 가는 게 좋겠구나. 이 히스 언덕 모퉁이만 돌아서 우리 집에 들어가 보지 않겠니? 쉬었다 가면 집에도 더 일찍 닿을 테고, 반갑게 맞아 주마."

나는 캐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속삭였다.

"왜?" 아가씨가 큰 소리로 물었다. "뛰어다니느라 지쳤고, 땅에 이슬이 내려서 여기 앉을 수도 없어. 가자, 엘렌. 게다가 저 아저씨가 내가 자기 아들을 본 적이 있대. 내 생각엔 잘못 아시는 것 같지만, 어디 사는지는 알겠어. 페니스톤 바위산에서 돌아오다가 들렀던 그 농가지요?"

"그래. 자, 넬리, 입 다물고 있어. 이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러 보는 건 즐거운 일일 테니까. 헤어턴, 아가씨를 모시고 앞장서라. 넬리,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안 돼요, 아가씨는 그런 데 안 가요." 나는 히스클리프가 움켜쥔 팔을 빼내려고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아가씨는 벌써 언덕 이마를 돌아 냅다 달려가서 거의 문간 디딤돌에 다다라 있었다. 아가씨를 모시라는 분부를 받은 녀석은 바래다주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길가로 슬쩍 빠지더니 사라져 버렸다.

"히스클리프 씨,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나는 말을 이었다.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건 히스클리프 씨도 알잖아요. 아가씨는 거기서 린턴을 보게 될 테고, 우리가 돌아가자마자 모든 게 다 드러날 테고, 그러면 내가 꾸지람을 듣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린턴을 보기를 바라." 그가 대답했다. "요 며칠 녀석의 얼굴이 좀 나아졌거든. 남 앞에 내놓을 만한 때가 흔치 않은데 말이야. 그리고 이 방문을 비밀로 해 두라고 금방 아가씨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해가 된다는 거지?"

"해가 되고말고요. 아가씨가 히스클리프 씨 집에 들어가게 내버려 둔 걸 아시면 아가씨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실 테고, 히스클리프 씨가 아가씨를 그렇게 꾀는 데는 틀림없이 나쁜 속셈이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내가 대답했다.

"내 속셈은 더없이 떳떳해. 그 속셈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알려 주지." 그가 말했다. "두 사촌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하려는 거야. 나는 너희 주인한테 너그럽게 굴고 있는 거야, 그자의 어린 계집애는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지만, 내 바람을 따라 준다면 린턴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단번에 앞날이 보장될 테니까."

"린턴이 죽으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애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캐시 아가씨가 상속자가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 그가 말했다. "유언장에는 그렇게 보장해 주는 조항이 없으니, 녀석의 재산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지만, 분란을 막으려고 나는 두 아이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고 말 작정이야."

"그리고 나는 아가씨가 다시는 나와 함께 히스클리프 씨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에요." 우리가 캐시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는 대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렇게 맞받았다.

히스클리프는 나더러 입을 다물라고 하고는, 우리보다 앞서 오솔길을 올라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우리 아가씨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딱 마음을 정하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이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아가씨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아가씨에게 말을 걸 때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으므로, 나는 어리석게도 아가씨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라도 그 사람이 아가씨를 해치려는 마음은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린턴은 난롯가에 서 있었다. 들판에 산책을 나갔다 온 참인지 모자를 쓴 채, 마른 신발을 가져오라고 조지프를 부르고 있었다. 열여섯 살이 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도 나이에 비해 키가 컸다. 얼굴은 아직도 고왔고, 눈과 얼굴빛은 내 기억보다 밝았지만, 그것은 맑은 공기와 따사로운 햇볕에서 잠시 빌려 온 윤기일 뿐이었다.

"자, 저게 누굴까?" 히스클리프 씨가 캐시 쪽으로 돌아서며 물었다. "알아보겠니?"

"아저씨 아들이요?" 아가씨는 미심쩍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그래, 그래."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저 녀석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냐? 생각해 봐! 아! 너는 기억력이 짧구나. 린턴, 네 사촌이 기억나지 않냐?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를 들볶던 그 사촌 말이야."

"뭐, 린턴이라고요!" 캐시는 그 이름을 듣자 기쁘고 놀라서 얼굴이 환해지며 소리쳤다. "저게 그 꼬마 린턴이에요? 나보다 키가 크잖아! 네가 린턴이야?"

젊은이는 앞으로 나서서 자기가 린턴이라고 했다. 아가씨는 그 애에게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세월이 서로의 모습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놀라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캐시는 키가 다 자라 있었고, 몸매는 통통하면서도 날씬했고 강철처럼 탄력이 있었으며, 온 모습에서 건강과 생기가 반짝였다. 린턴의 얼굴과 몸짓은 아주 나른했고 몸은 몹시 가냘팠지만, 그 태도에는 그런 흠을 누그러뜨리는 품위가 있어서 보기에 싫지는 않았다. 사촌과 여러 번 정을 나누고 나서, 아가씨는 문간에서 서성이는 히스클리프 씨에게로 갔는데, 그 사람은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깥을 보는 척하면서 실은 안쪽만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럼 고모부시네요!" 아가씨는 발돋움해서 인사로 입을 맞추며 소리쳤다. "처음엔 화난 얼굴이셨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 린턴하고 같이 그레인지에 놀러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까운 이웃으로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를 보러 오지 않다니 이상해요. 왜 그러셨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한두 번 너무 많이 찾아갔지." 그가 대답했다. "그래, 빌어먹을! 남는 입맞춤이 있으면 린턴한테나 줘라. 나한테 주는 건 헛일이야."

"못된 엘렌!" 캐시는 이번에는 나에게 날아와 아낌없이 껴안고 입을 맞추어 대며 소리쳤다. "나쁜 엘렌! 내가 여기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다니.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침마다 여기까지 산책 올 거야. 그래도 되지요, 고모부? 가끔은 아빠도 모시고 올게요. 우리가 오면 반가우시겠지요?"

"물론이지." 고모부는 제안된 두 손님을 다 몹시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찌푸린 얼굴을 겨우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런데 잠깐." 그는 아가씨 쪽으로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이제 생각나서 말인데, 미리 일러두는 게 좋겠다. 린턴 씨는 나를 좋지 않게 보고 있어,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납게 다툰 적이 있는데, 네가 여기 온다는 말을 그 사람한테 하면 네가 여기 오는 걸 아예 막아 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앞으로 네 사촌을 다시 못 봐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면 그 말은 하지 마라. 오고 싶으면 와도 되지만, 그 말은 하면 안 된다."

"왜 다투셨어요?" 캐시가 꽤 풀이 죽어서 물었다.

"그 사람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제 누이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이를 차지하니까 속이 상했던 거야." 히스클리프가 대답했다. "자존심이 상했으니 그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건 잘못이에요!" 아가씨가 말했다. "언젠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린턴하고 나는 두 분의 다툼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오지 않을래요. 린턴이 그레인지로 오면 돼요."

"나한테는 너무 멀어." 사촌이 중얼거렸다. "4마일을 걸으면 나는 죽을 거야. 아니, 캐시 아가씨, 네가 가끔 여기로 와. 아침마다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버지는 아들에게 쓰라린 경멸의 눈길을 던졌다.

"넬리, 아무래도 내 수고가 헛일이 될 것 같아." 그가 나에게 중얼거렸다. "저 멍청이가 부르는 대로 하자면 '캐시 아가씨'가 저 녀석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아차리고 녀석을 악마한테 보내 버릴 거야. 그래, 저게 헤어턴이었다면! 내가 하루에도 스무 번씩 헤어턴을 탐낸다는 걸 아냐? 저렇게 비천하게 굴러떨어졌는데도 말이야. 녀석이 다른 누구였다면 나는 녀석을 사랑했을 거야. 그래도 녀석이 *저 아이*의 사랑을 받을 염려는 없을 것 같군. 저 보잘것없는 물건이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헤어턴을 저 물건하고 맞붙여 놓아야지. 우리 셈으로는 저건 열여덟 살까지도 버티기 어려울 거야. 아, 저 맥 빠진 물건 같으니! 제 발 말리는 데 정신이 팔려서 저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잖아. 린턴!"

"네, 아버지." 아들이 대답했다.

"사촌한테 이 근처에서 보여 줄 게 아무것도 없냐? 토끼 굴이나 족제비 둥지 하나라도? 신발 갈아 신기 전에 정원에 데리고 나가고, 마구간에 가서 네 말도 보여 줘라."

"여기 앉아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린턴이 다시 움직이기 싫다는 투로 캐시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아가씨는 몸을 움직이고 싶어 안달하는 게 뻔히 보이는 얼굴로 문 쪽을 애타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린턴은 그대로 앉아서 불가로 더 바싹 몸을 움츠렸다. 히스클리프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당으로 나가며 헤어턴을 불렀다. 헤어턴이 대답했고, 곧 두 사람이 다시 들어왔다. 젊은이는 뺨이 발그레하고 머리가 젖은 것으로 보아 몸을 씻고 온 모양이었다.

"아, *고모부*한테 물어볼게요." 캐시 아가씨가 하녀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소리쳤다. "저 사람은 내 사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촌이다." 그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의 조카야. 저 녀석이 마음에 안 드냐?"

캐시는 묘한 얼굴을 했다.

"잘생긴 녀석 아니냐?" 그가 말을 이었다.

그 버릇없는 아이는 발돋움을 하고 히스클리프의 귀에 무어라 한마디 속삭였다. 히스클리프는 웃었고 헤어턴은 얼굴이 어두워졌는데, 보아하니 헤어턴은 깔보는 것 같은 낌새에 몹시 예민했고,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인지 후견인인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쳐 그 찌푸린 얼굴을 걷어냈다.

"너는 우리 가운데 귀염둥이가 되겠구나, 헤어턴! 아가씨가 그러는데 너는 아주……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아주 듣기 좋은 말이었어. 자! 아가씨를 모시고 농장을 한 바퀴 돌아라. 신사답게 굴어야 한다, 명심해!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말고, 아가씨가 너를 보지 않을 때 빤히 쳐다보지 말고, 아가씨가 쳐다볼 때는 얼굴을 감출 채비를 하고, 말할 때는 천천히 말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 어서 가서 될 수 있는 한 즐겁게 해 드려."

그는 두 사람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언쇼는 길동무에게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고 있었다. 늘 보던 풍경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나 화가처럼 골똘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캐시는 그를 슬쩍 쳐다보았는데, 감탄하는 눈치는 별로 없었다. 그러고는 스스로 재미 붙일 거리를 찾는 데 마음을 돌려서, 말이 없는 빈자리를 메우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사뿐사뿐 걸어갔다.

"내가 녀석의 혀를 묶어 놓았지."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녀석은 그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거야! 넬리, 저 나이 때 내 모습 기억하지? 아니, 저보다 몇 살 더 어렸을 때. 내가 저렇게 멍청해 보인 적이 있었나? 조지프 말로 하자면 저렇게 '얼빠져' 보인 적이?"

"더했지요." 내가 대답했다. "거기다 더 뚱했으니까요."

"나는 녀석을 보는 게 즐거워." 그는 혼잣말하듯 생각을 소리 내어 말을 이었다. "녀석은 내 기대를 채워 주었어. 타고난 바보였다면 이 즐거움이 반도 안 됐을 거야. 하지만 녀석은 바보가 아니고, 나는 녀석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헤아릴 수 있어. 나도 똑같이 겪어 봤으니까. 이를테면 지금 녀석이 무슨 괴로움을 겪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만, 그건 앞으로 녀석이 겪을 괴로움의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녀석은 그 거칠고

무지한 밑바닥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거야. 녀석의 그 악당 같은 아비가 나를 붙잡아 둔 것보다 더 단단히, 더 낮은 데 녀석을 붙잡아 두었지, 녀석은 제가 짐승 같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니까. 나는 녀석에게 짐승의 것을 넘어서는 건 무엇이든 어리석고 나약한 것이라고 깔보도록 가르쳤어. 힌들리가 제 아들을 볼 수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만큼이나 말이야.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어서, 하나는 길바닥 돌 대신 쓰이는 금이고 다른 하나는 은그릇 흉내를 내려고 반들반들 닦아 놓은 양철이야. *내* 것에는 값나가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하찮은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공을 세우게 되겠지. *그자의* 것은 첫째가는 바탕을 지녔는데 그게 다 버려져서, 쓸모없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어 버렸지.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만, *그자*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아쉬움을 누구보다 많이 품게 되겠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헤어턴이 빌어먹을 만큼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 점에선 내가 힌들리를 이겼다는 걸 너도 인정하겠지. 그 죽은 악당이 무덤에서 일어나 제 자식이 당한 부당한 일을 두고 나를 욕한다면, 나는 그 자식이 세상에 하나뿐인 제 친구를 감히 욕한다고 분개해서 제 아비에게 대드는 꼴을 보는 재미를 누리게 될 거야!"

히스클리프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악마 같은 웃음을 낄낄거렸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대꾸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와 너무 떨어져 앉아 있어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듣지 못한 우리 젊은 길동무는 안절부절못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조금 지칠까 봐 겁이 나서 캐시와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스스로 마다한 것을 뉘우치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창 쪽으로 이리저리 헤매는 아들의 불안한 눈길과, 모자 쪽으로 망설이며 뻗는 손을 눈여겨보았다.

"일어나라, 이 게으른 녀석아!" 그는 짐짓 쾌활한 척하며 소리쳤다. "어서 좇아가! 저기 벌통 놓인 데 모퉁이에 막 있잖아."

린턴은 기운을 그러모아 난롯가를 떠났다. 격자창이 열려 있어서, 린턴이 밖으로 나설 때 캐시가 그 무뚝뚝한 길잡이에게 문 위에 새겨진 글씨가 무엇이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헤어턴은 위를 멀뚱히 올려다보며 영락없는 촌뜨기처럼 머리를 긁었다.

"뭔 빌어먹을 글씨겄지." 그가 대답했다. "난 못 읽어."

"못 읽는다고?" 캐시가 소리쳤다. "나는 읽을 수 있어. 영어잖아. 그런데 저게 왜 저기 있는지 알고 싶어."

린턴이 킥킥거렸다. 그 애가 처음으로 보인 웃음이었다.

"저 녀석은 글자를 몰라." 린턴이 사촌에게 말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멍청이가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져?"

"저 사람 정상이야?" 캐시 아가씨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니면 좀 모자라? 어디가 잘못됐어? 벌써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멍한 얼굴을 하던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 말은 거의 못 알아듣겠어, 정말이야!"

린턴은 다시 웃으며 헤어턴을 놀리듯 흘끗 보았는데, 헤어턴은 그 순간 정말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게을러서 그런 거 말고는 아무 탈도 없어. 그렇지, 언쇼?" 린턴이 말했다. "내 사촌은 네가 바보인 줄 알아. 네가 말하는 그 '책 공부'를 깔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야. 캐시, 저 녀석의 끔찍한 요크셔 사투리 들었어?"

"아니, 그딴 게 뭔 빌어먹을 쓸모가 있냐?" 헤어턴은 날마다 보는 길동무에게는 말이 좀 더 쉽게 나와서 으르렁거렸다. 그는 말을 더 늘어놓으려 했지만, 두 젊은이가 시끄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철없는

우리 아가씨는 그의 이상한 말씨를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이 났던 것이다.

"그 말에 '빌어먹을'이 무슨 쓸모가 있는데?" 린턴이 키득거렸다.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말라고 아빠가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입만 열면 그 소리야. 이제 제발 신사답게 굴어 봐, 응!"

"네가 사내놈보다 계집애에 더 가깝지만 않았으면 당장 때려눕혔겄다, 그러고말고. 이 비쩍 마른 막대기 같은 놈아!" 성난 촌뜨기는 이렇게 맞받으며 물러갔는데,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다.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앙갚음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도 나처럼 그 말을 엿들었는데, 헤어턴이 가는 것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이어 문간에 남아 재잘거리는 그 경박한 한 쌍에게 유난히 싫다는 눈길을 던졌다. 사내아이는 헤어턴의 흠과 모자란 점을 들추고 그가 하는 짓에 얽힌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만은 꽤 생기가 돌았고, 계집아이는 그 건방지고 심술궂은 말에 담긴 못된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재미있어했다. 나는 린턴이 딱하다기보다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다.

우리는 캐시 아가씨를 그보다 일찍 떼어 낼 수가 없어서 오후까지 그곳에 머물렀지만, 다행히 주인은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집을 비운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우리가 두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가씨에게 일깨워 주고 싶었지만, 아가씨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편견을 품고 있다고 단단히 믿어 버렸다.

"흥!" 아가씨가 소리쳤다. "엘렌은 아빠 편이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다 알아, 그렇지 않으면 린턴이 여기서 아주 먼 데 산다고 몇 해 동안이나 나를 속였을 리가 없잖아. 나 정말 몹시 화났어. 그런데 너무

기뻐서 화난 티를 낼 수가 없어! 하지만 고모부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마. 그분은 *내* 고모부야, 잊지 마. 그리고 고모부하고 다툰 일로 아빠를 혼내 줄 거야."

아가씨가 그렇게 계속 지껄여 대는 바람에 나는 아가씨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날 밤 아가씨는 린턴 씨를 보지 못해서 그 나들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튿날 모든 일이 드러나서 나는 몹시 분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서운하지만은 않았는데, 이끌고 타이르는 짐은 나보다 주인이 지는 편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은 아가씨가 하이츠 집안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까닭을 납득이 가게 대는 데 너무 소심했고, 캐시는 응석받이로 자란 제 고집을 거스르는 모든 금지에 그럴듯한 까닭이 붙어 있기를 바랐다.

"아빠!" 아가씨는 아침 인사를 나누고 나서 소리쳤다. "어제 황야를 산책하다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맞혀 보세요. 아, 아빠, 깜짝 놀라셨네요!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만난 건…… 아니, 들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아빠의 속셈을 알아냈는지 들려 드릴게요. 그리고 엘렌도요. 엘렌은 아빠하고 한패면서, 내가 린턴이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다가 번번이 실망할 때마다 나를 그렇게 딱하게 여기는 척했어요!"

아가씨는 그 나들이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주인은 나를 탓하는 눈길을 한 번 넘게 던졌지만 아가씨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딸을 끌어당기며, 린턴이 가까이 산다는 것을 왜 숨겼는지 아느냐고, 아무 탈 없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아빠가 히스클리프 씨를 싫어하시니까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럼 너는 내가 네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믿는 거냐, 캐시?"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내가 히스클리프 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히스클리프 씨가 나를 싫어해서였고, 그 사람은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라서 미워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망치는 걸 즐거워한단다. 네가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는 사촌과 사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너를 미워할 거라는 것도 알았기에, 오로지 너를 위해서, 다른 까닭은 하나도 없이, 네가 린턴을 다시 만나지 않도록 조심했던 거란다. 네가 더 크면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 주려고 했는데, 미뤄 둔 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아주 다정했어요, 아빠." 캐시는 조금도 수긍하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집에 와도 된다고 했어요. 다만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된대요. 아빠가 그분하고 다투었고 그분이 이저벨라 고모하고 결혼한 걸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서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 용서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잘못은 *아빠*한테 있어요. 그분은 적어도 *우리*, 그러니까 린턴하고 나하고는 친하게 지내게 해 주겠다는데, 아빠는 안 그러시잖아요."

주인은 딸이 고모부의 못된 성품에 대해서는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이저벨라에게 어떻게 굴었는지, 워더링 하이츠가 어떻게 그 사람 손에 들어갔는지 간추려서 서둘러 들려주었다. 주인은 그 이야기를 오래 늘어놓는 것을 견디지 못했는데, 그 일을 입에 올리는 일은 드물었지만, 린턴 마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 줄곧 마음을 차지해 온 옛 원수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여전히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자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주인이 늘 곱씹는 쓰라린 생각이었고, 주인의 눈에 히스클리프는 살인자로 보였다. 캐시 아가씨는 제가 저지른 사소한 말 안 듣기와 억지와 성질부림, 그러니까 급한 성미와 생각 없음에서 나와서 그날로 뉘우치고 마는 잘못 말고는 나쁜 짓이라고는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몇 해 동안이나 복수를 품고 감추어 두었다가 뉘우치는 마음 한 번 들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커먼 마음에 깜짝 놀랐다. 아가씨는 지금까지 배운 것과 생각한 것 어디에도 끼어들지 않았던 사람의 본성을 새로 보고 몹시 깊은 충격을 받은 듯해서, 에드거 나리는 그 이야기를 더 이어 갈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주인은 이 말만 덧붙였다. "우리 아가, 내가 왜 네가 그 집과 그 식구들을 멀리하기를 바라는지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제 하던 공부와 놀이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 생각은 더 하지 마라."

캐시는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여느 때처럼 두어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따라 영지로 나갔고 하루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지나갔지만, 저녁이 되어 아가씨가 제 방으로 들어간 뒤 내가 옷 벗는 것을 도우러 가 보니, 아가씨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아이고, 참 어리석기도 하지!" 내가 소리쳤다. "정말 서러운 일을 겪었다면 이런 작은 언짢은 일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끄러울 거예요. 아가씨는 정말 슬픈 일이라고는 그림자도 겪어 본 적이 없어요, 캐시 아가씨.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주인 나리와 내가 죽고 아가씨가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일을 그런 슬픔에 견주어 보고, 더 많은 사람을 탐내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겨요."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엘렌."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 애 때문이야. 그 애는 내일 나를 다시 만날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 애는 나를 기다릴 텐데 나는 안 갈 거잖아!"

"말도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아가씨가 그 애를 생각하는 만큼 그 애도 아가씨를 생각했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애한테는 헤어턴이라는 말벗도 있잖아요? 고작 오후 두 번, 딱 두 번 만난 친척을

잃었다고 우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린턴은 무슨 사정인지 짐작하고는 아가씨 일로 더는 마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왜 못 가는지 쪽지 한 장 써 보내면 안 돼?" 아가씨가 일어서며 물었다.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책도 좀 보내고? 그 애 책은 내 책만큼 좋지 않아서, 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야기해 주니까 몹시 갖고 싶어 했거든. 안 돼, 엘렌?"

"안 되고말고요! 정말 안 돼요!" 나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면 그 애가 아가씨한테 답장을 쓸 테고, 그러면 끝이 없을 거예요. 안 돼요, 캐시 아가씨, 그 애하고는 아주 연을 끊어야 해요. 아빠가 그러기를 바라시니까, 나도 꼭 그렇게 되도록 지켜볼 거예요."

"그렇지만 쪽지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아가씨는 애원하는 얼굴을 하고 다시 말을 꺼냈다.

"조용히 해요!" 내가 말을 끊었다. "쪽지 같은 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요. 어서 자요."

아가씨가 나에게 몹시 못된 눈길을, 처음에는 잘 자라는 입맞춤도 해 주고 싶지 않을 만큼 못된 눈길을 던졌으므로, 나는 몹시 언짢아하며 이불을 덮어 주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가다가 마음이 누그러져 살그머니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는 빈 종이 한 장을 앞에 놓고 연필을 손에 든 채 탁자 앞에 서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 죄지은 얼굴로 그것을 슬쩍 감추었다.

"그걸 써 봐야 가져다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캐시 아가씨."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촛불을 끌 거예요."

나는 불 끄는 고깔을 불꽃에 씌웠고, 그러는 사이 손등을 한 대 얻어맞고 "심술쟁이!" 하는 짜증 섞인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방을 나왔고, 아가씨는 더없이 고약하고 뾰로통한 기분으로 문빗장을 질렀다. 그 편지는 끝내 다 쓰여서, 마을에서 우유를 받으러

오는 아이 편에 보내졌지만, 나는 한참 뒤에야 그것을 알았다. 몇 주가 지나 캐시는 기분을 되찾았지만 혼자 구석에 숨어드는 것을 이상하리만큼 좋아하게 되었고, 아가씨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내가 갑자기 다가가면 흠칫 놀라 책 위로 몸을 숙이는 일이 잦았는데,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게 뻔했고, 나는 책장 사이로 낱장 종이 끝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아가씨는 또 아침 일찍 내려와서 무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부엌 언저리를 서성이는 버릇이 생겼고, 서재 장식장에 조그만 서랍이 하나 있었는데 아가씨는 몇 시간씩 그 서랍을 만지작거렸고, 자리를 뜰 때는 그 열쇠를 꼭 빼 가지고 가는 데 각별히 마음을 썼다.

어느 날 아가씨가 이 서랍을 들여다볼 때, 나는 얼마 전까지 그 안에 들어 있던 장난감과 자잘한 장신구가 접은 종잇조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과 의심이 일어서 나는 아가씨의 그 수수께끼 같은 보물을 슬쩍 보기로 마음먹었고, 밤에 아가씨와 주인이 위층으로 무사히 올라가자마자 뒤져 보았는데, 내 집 열쇠 꾸러미 가운데 그 자물쇠에 맞는 것을 쉽게 찾아냈다. 서랍을 열고 나는 그 안에 든 것을 몽땅 앞치마에 쏟아 담아서, 내 방에 가져가 찬찬히 살펴보았다. 짐작은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린턴 히스클리프가 아가씨가 보낸 글에 답해 보낸, 거의 날마다 오간 것이 틀림없는 한 무더기의 편지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날짜가 이른 것들은 쑥스러워하며 짧았지만 차츰 길게 늘어져 장황한 연애편지가 되었는데, 쓴 사람의 나이로 보아 당연하게도 어리석었지만, 군데군데 더 노련한 데서 빌려 온 듯한 구절이 섞여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중 몇 통은 뜨거운 열정과 김빠진 맛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어서 내 눈에 몹시 이상하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강한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학교 다니는 사내아이가 머릿속으로 그려 낸 실체 없는 연인에게나 쓸 법한, 꾸민 듯 말만 많은

글투로 맺어져 있었다. 캐시가 그 편지들에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잡동사니였다. 나는 적당하다 싶을 만큼 뒤적거려 본 뒤, 그것들을 손수건에 싸서 한쪽에 치워 두고, 빈 서랍은 도로 잠가 두었다.

여느 때처럼 우리 아가씨는 아침 일찍 내려와서 부엌에 갔다. 나는 어떤 꼬마가 오자 아가씨가 문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젖 짜는 하녀가 그 아이의 통에 우유를 채우는 동안 아가씨는 아이의 웃옷 주머니에 무언가를 쑤셔 넣고 무언가를 꺼냈다. 나는 정원으로 돌아가서 그 심부름꾼을 기다렸다. 아이는 맡은 것을 지키려고 용감하게 싸웠고, 우리 둘이 실랑이하는 바람에 우유가 쏟아졌지만, 나는 그 편지를 빼앗는 데 성공했고, 냉큼 집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서, 담장 밑에 서서 캐시 아가씨가 쓴 다정한 글을 읽어 보았다. 사촌의 편지보다 더 소박하고 더 말솜씨가 있었다. 아주 예쁘고 아주 어리석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들어갔다. 비가 오는 날이라 아가씨는 영지를 거닐며 기분을 풀 수가 없었으므로, 아침 공부가 끝나자 그 서랍에서 위안을 찾으러 갔다. 아버지는 탁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일부러 창 커튼의 풀리지 않은 술 장식을 손볼 일을 찾아서 아가씨가 하는 짓을 꼼짝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짹짹거리는 새끼들로 가득 차 있던 둥지를 떠났다가 털린 둥지로 돌아온 어떤 새도, 아가씨가 '아!' 하는 한마디와 조금 전까지 행복하던 얼굴을 딴판으로 바꾸어 놓은 변화로 드러낸 것만큼 완전한 절망을 괴로운 울음과 날갯짓으로 드러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린턴 씨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니, 아가? 어디 다쳤니?" 주인이 말했다.

그 목소리와 표정을 보고 아가씨는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아니에요, 아빠!" 아가씨는 숨을 몰아쉬었다. "엘렌! 엘렌! 위층으로 와. 속이 안 좋아!"

나는 그 부름에 따라 아가씨를 데리고 나갔다.

"아, 엘렌! 엘렌이 가져갔지." 단둘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아가씨는 무릎을 꿇으며 말을 꺼냈다. "아, 돌려줘. 다시는,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한테 말 안 했지, 엘렌? 안 했다고 해 줘. 내가 몹시 못되게 굴었지만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엄하고 무게 있는 태도로 일어서라고 했다.

"그래요." 내가 소리쳤다. "캐시 아가씨, 보아하니 일이 꽤 많이 나갔네요. 그걸 부끄러워할 만도 하지요! 한가할 때 공부하는 게 참 훌륭한 잡동사니 꾸러미네요. 아니, 이건 책으로 찍어 낼 만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주인 나리 앞에 펼쳐 놓으면 나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직 보여 드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가씨의 그 어처구니없는 비밀을 지켜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창피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걸 쓰기 시작한 건 틀림없이 아가씨가 먼저일 거예요. 그 애는 먼저 시작할 생각도 못 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안 그랬어! 안 그랬다고!" 캐시가 가슴이 찢어질 듯 흐느꼈다. "그 애를 사랑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다가……"

"*사랑*이라고요!" 나는 그 말을 될 수 있는 한 비웃듯이 내뱉으며 소리쳤다. "*사랑*이라니! 세상에 그런 말을 들어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럴 바에야 한 해에 한 번 우리 곡식을 사러 오는 방앗간 주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참 대단한 사랑이네요! 아가씨가 평생 린턴을 본 건 두 번 다 합쳐도 네 시간이 될까 말까 한데! 자, 여기 그 애들 장난 같은 잡동사니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재로 갈 거예요. 그런 *사랑*을 두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고요."

아가씨는 그 소중한 편지들에 달려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고, 그러자 아가씨는 그것을 차라리 태워 달라고, 보여 주지만 말고 무엇이든 해 달라고 미친 듯이 거듭 애원을 쏟아 냈다. 나도 사실 꾸짖고 싶은 만큼이나 웃고 싶었으므로, 그게 다 계집아이의 허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침내 얼마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이걸 태우는 데 동의하면, 다시는 편지도, 책도(아가씨가 그 애한테 책을 보낸 걸 알고 있으니까요), 머리카락 타래도, 반지도, 장난감도 보내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꼭 약속할래요?"

"우리는 장난감 같은 건 안 보내!" 수치심보다 자존심이 앞서서 캐시가 소리쳤다.

"그럼 아무것도요, 우리 아가씨?" 내가 말했다. "약속하지 않으면 나는 갈 거예요."

"약속할게, 엘렌!" 아가씨는 내 옷자락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아, 불 속에 넣어 줘, 제발, 제발!"

그러나 내가 부지깽이로 불 속에 자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 희생은 견디기에 너무 괴로웠다. 아가씨는 한두 통만 남겨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한두 통만, 엘렌. 린턴을 생각해서 간직할 수 있게!"

나는 손수건 매듭을 풀고 귀퉁이부터 편지를 불 속에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불꽃이 굴뚝 위로 말려 올라갔다.

"한 통은 가질 거야, 이 잔인한 사람아!" 아가씨는 비명을 지르며 불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고, 손가락을 데어 가며 반쯤 탄 종잇조각 몇 개를 끄집어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아빠한테 보여 드릴 걸 좀 가질 거예요!" 나는 나머지를 도로 꾸러미에 털어 넣고 다시 문 쪽으로 돌아서며 대답했다.

아가씨는 시커멓게 그은 조각들을 불꽃 속에 쏟아 넣고, 나더러 그 제물 태우기를 마저 끝내라고 손짓했다. 일은 끝났고, 나는 재를 휘저어 석탄 한 삽 밑에 묻었고, 아가씨는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얼굴로 말없이 제 방으로 물러갔다. 나는 내려가서 주인에게 아가씨의 메스꺼움은 거의 가셨지만 한동안 누워 있는 게 좋겠다고 아뢰었다. 아가씨는 저녁을 먹지 않으려 했지만, 차 마실 때는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빨개진 채 다시 나타났는데, 겉보기에는 놀라우리만큼 얌전해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그 편지에 쪽지 한 장으로 답장을 했다. "히스클리프 도련님께서는 린턴 아가씨에게 더는 편지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씨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로 그 꼬마는 빈 주머니로 왔다.

제22장

여름이 끝나고 초가을도 저물어 미가엘 축일이 지났지만, 그해에는 추수가 늦어서 우리 밭 몇 뙈기는 아직 다 거두지 못한 채였다. 린턴 씨와 딸은 곧잘 일꾼들 사이를 거닐러 나갔는데, 마지막 곡식 단을 실어 나르던 날에는 해 질 녘까지 밖에 있었고, 마침 그날 저녁이 쌀쌀하고 눅눅해서 주인은 독한 감기에 걸렸고, 그 감기가 끈질기게 폐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주인은 그 겨울 내내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집 안에만 갇혀 지냈다.

가엾은 캐시는 그 작은 연애 놀음에서 겁을 먹고 물러난 뒤로 꽤나 시무룩하고 맥이 빠져 있었고, 아버지는 딸에게 책은 덜 읽고 몸은 더 움직이라고 당부했다. 아가씨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다닐 수 없었으므로, 나는 그 빈자리를 될 수 있는 한 내가 채워 주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지만 나는 서투른 대신일 뿐이었는데,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아가씨를 따라다닐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낼 수 없었고, 게다가 내가 곁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만큼 반갑지 않은 게 뻔했기 때문이다.

시월 어느 날, 아니면 십일월 초였는지, 잔디와 오솔길에는 젖은 낙엽이 버석거리고 차갑고 푸른 하늘은 서쪽에서 빠르게 피어오르며 큰비를 예고하는 시커먼 잿빛 구름 띠에 반쯤 가려져 있던 상쾌하고 물기 어린 오후에, 나는 틀림없이 소나기가 올 것 같아서 아가씨에게 산책을 그만두자고 했다. 아가씨는 듣지 않았고, 나는 마지못해 망토를

걸치고 우산을 챙겨 영지 맨 아래쪽까지 거니는 길에 따라나섰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아가씨가 대개 즐겨 걷는 정해진 산책길이었는데, 에드거 나리의 병이 여느 때보다 더할 때면 아가씨는 언제나 기분이 가라앉았다. 주인이 그렇다고 털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주인이 전보다 더 말이 없어지고 얼굴이 더 우울해지는 것을 보고 아가씨도 나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아가씨는 슬프게 걸어갔고, 차가운 바람이 달리기를 부추길 만도 했지만 이제는 뛰지도 깡충거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곁눈으로 보니 아가씨는 자꾸만 손을 들어 뺨에서 무언가를 훔쳐내고 있었다. 나는 아가씨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릴 거리가 없나 하고 둘러보았다. 길 한쪽에는 높고 울퉁불퉁한 둑이 솟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개암나무와 비틀린 참나무 들이 뿌리를 반쯤 드러낸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는데, 참나무가 버티기에는 흙이 너무 푸석했고 센 바람에 몇 그루는 거의 옆으로 눕다시피 했다. 여름이면 캐시 아가씨는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에 앉아 땅에서 20피트 위에서 흔들거리기를 좋아했고, 나는 아가씨가 날렵하고 마음이 가볍고 어린애 같은 것이 흐뭇하면서도,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꾸짖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지만, 아가씨가 내려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만큼만 꾸짖었다. 아가씨는 점심을 먹고 차 마실 때까지 바람이 흔들어 주는 요람에 누워, 혼자서 옛 노래를, 내가 어릴 적 아이 방에서 들려준 노래들을 부르거나, 같은 나무에 깃들어 사는 새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날아 보라고 꾀는 것을 지켜보거나, 눈을 감고 웅크린 채 반은 생각하고 반은 꿈꾸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

"봐요, 아가씨!" 나는 비틀린 나무 한 그루의 뿌리 밑 구석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어요. 저기 위에 작은 꽃이 한 송이 있어요. 칠월에 저 잔디 계단을 연보랏빛 안개처럼 뒤덮었던 그 많은

블루벨 꽃 가운데 마지막 남은 봉오리예요. 기어 올라가서 아빠한테 보여 드리게 꺾어 오지 않을래요?"

캐시는 흙 틈에 몸을 숨기고 떨고 있는 그 외로운 꽃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대답했다. "아니, 건드리지 않을래. 그런데 꽃이 슬퍼 보여, 그렇지 않아, 엘렌?"

"그래요." 내가 말했다. "꼭 아가씨처럼 굶주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아가씨 뺨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손잡고 뛰어요. 아가씨가 이렇게 기운이 없으니 나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싫어." 아가씨는 되풀이해서 말하고는 계속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는데, 이따금 멈춰 서서 이끼 한 조각이나 하얗게 바랜 풀 한 포기, 갈색 낙엽 더미 사이에 환한 주황빛을 펼친 버섯 하나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고, 그러면서 자꾸만 돌린 얼굴로 손을 가져갔다.

"캐시 아가씨, 왜 울어요?" 나는 다가가서 아가씨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다. "아빠가 감기에 걸리셨다고 울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나쁜 병이 아닌 걸 고맙게 여겨요."

아가씨는 이제 눈물을 더는 참지 않았다. 흐느낌에 숨이 막혔다.

"아, 더 나빠질 *거야*." 아가씨가 말했다. "아빠하고 엘렌이 나를 두고 떠나서 나 혼자 남으면 나는 어떻게 해? 엘렌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말이 늘 귓가에 맴돌아. 아빠하고 엘렌이 죽으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세상이 얼마나 쓸쓸해질까."

"아가씨가 우리보다 먼저 죽지 않을지 누가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나쁜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떠나기 전에 아직 몇 해, 몇십 해가 남아 있기를 바라야지요, 주인 나리는 젊으시고 나는 튼튼하고 아직 마흔다섯도 채 안 됐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여든까지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정정한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린턴

나리가 예순까지만 사신다 해도, 그건 아가씨가 지금까지 헤아린 햇수보다 더 긴 세월이에요. 스무 해도 더 앞서서 닥칠 불행을 미리 슬퍼하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저벨라 고모는 아빠보다 어렸잖아." 아가씨는 더 위로받고 싶어서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저벨라 고모한테는 아가씨와 나처럼 간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주인 나리만큼 행복하지도 않았고, 살아갈 보람도 그만큼 많지 않았지요. 아가씨가 할 일은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리고, 아가씨가 즐거운 모습을 보여 드려서 아버지 기운을 북돋아 드리고, 무슨 일로든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뿐이에요. 명심해요, 캐시! 숨기지 않고 말하겠는데, 아가씨가 무모하게 날뛰면서, 아버지가 무덤에 들어가기를 반길 사람의 아들한테 어리석고 허황된 정을 품고, 아버지가 마땅하다고 여겨 갈라놓은 그 이별을 두고 속을 태우는 걸 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아가씨가 아버지를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아픈 것 말고는 이 세상에 속 태우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길동무가 대답했다. "아빠에 견주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절대로, 아, 정신이 남아 있는 한 절대로 아빠를 속상하게 하는 짓은 하지도 않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나는 나 자신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 엘렌. 그걸 이걸로 알아. 나는 밤마다 아빠보다 내가 더 오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 아빠가 불행해지느니 차라리 내가 불행해지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 내가 나 자신보다 아빠를 더 사랑한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좋은 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행동으로도 증명해야 하고, 아버지가 나으신 뒤에도 두려울 때 한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우리는 큰길로 나 있는 문에 가까워졌고, 우리 아가씨는 다시 햇살처럼 환해져서 담장 위로 기어올라 꼭대기에 걸터앉았고, 큰길가에 그늘을 드리운 들장미 나무의 맨 위 가지에 빨갛게 맺힌 열매를 따려고 몸을 뻗었다. 아래쪽 열매는 다 없어졌지만, 위쪽 열매는 지금 캐시가 앉은 자리가 아니고서는 새들밖에 닿을 수 없었다. 열매를 따려고 몸을 뻗다가 아가씨의 모자가 떨어졌는데, 문이 잠겨 있었으므로 아가씨는 담을 타고 내려가서 모자를 집어 오겠다고 했다. 나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고, 아가씨는 날쌔게 사라졌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돌은 매끄럽고 시멘트로 깔끔하게 발라져 있었고, 장미 덤불이나 제멋대로 뻗은 검은딸기 줄기도 다시 기어오르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바보같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가씨가 웃으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엘렌! 열쇠를 가져와야겠어. 아니면 내가 문지기 오두막까지 빙 돌아서 뛰어가야 해. 이쪽에서는 성벽을 못 넘겠어!"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주머니에 열쇠 꾸러미가 있으니 어쩌면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 되면 내가 갈게요."

캐시가 문 앞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며 노는 동안, 나는 큰 열쇠들을 하나씩 차례로 넣어 보았다. 마지막 열쇠까지 넣어 보고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거기 그대로 있으라고 다시 이르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려던 참이었는데, 다가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말발굽 소리였고, 캐시의 춤도 멈추었다.

"누구지?" 내가 속삭였다.

"엘렌, 문을 열 수 있으면 좋겠어." 내 길동무가 불안하게 속삭여 대답했다.

"어이, 린턴 아가씨!" 굵은 목소리(말 탄 사람의 목소리)가 소리쳤다. "만나서 반갑구나. 서둘러 들어가지 마라. 물어서 해명을 들어야 할 게 있으니까."

"히스클리프 씨하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캐시가 대답했다. "아빠가 그러는데 히스클리프 씨는 나쁜 사람이고, 아빠도 나도 미워한대요. 엘렌도 똑같이 말해요."

"그건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야."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설마 내가 내 아들까지 미워하지는 않겠지. 내가 너한테 귀 기울여 달라는 건 바로 그 녀석 일이야. 그래, 얼굴 붉힐 만도 하지. 두세 달 전에 너는 린턴한테 꼬박꼬박 편지를 쓰지 않았냐? 장난삼아 연애질을 하면서, 응? 그 일로 너희 둘 다 회초리를 맞아도 쌌어! 특히 너는 나이도 더 먹었고, 알고 보니 마음도 더 무디니까. 네 편지들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 건방지게 굴면 너희 아버지한테 보낼 거다. 보아하니 너는 그 놀음에 싫증이 나서 그만둔 모양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그걸 그만두면서 너는 린턴까지 절망의 수렁에 빠뜨렸어. 그 녀석은 진심이었어. 정말로 사랑에 빠졌던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녀석은 네 변덕에 가슴이 찢어져서 너 때문에 죽어 가고 있어,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말이야. 헤어턴이 여섯 주 동안 녀석을 줄곧 놀림감으로 삼았고, 나도 더 엄한 방법을 써서 녀석이 그 바보짓에서 벗어나게 겁을 줘 보았지만, 녀석은 날마다 더 나빠지고 있어. 네가 녀석을 되살려 놓지 않으면 여름이 오기 전에 땅에 묻힐 거야!"

"어떻게 그 가엾은 아이한테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안쪽에서 소리쳤다. "제발 그냥 가세요! 어떻게 그런 하찮은 거짓말을 일부러 꾸며 낼 수 있어요? 캐시 아가씨, 내가 돌로 자물쇠를 부술게요. 그런 고약한 헛소리를 믿지는 않겠지요. 사람이 낯선 사람을 사랑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걸 아가씨도 스스로 느낄 수 있잖아요."

"엿듣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들킨 악당이 중얼거렸다. "훌륭하신 딘 부인,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네 그 겉 다르고 속 다른 짓은 마음에 안 들어." 그가 소리 높여 덧붙였다. "*너*야말로 내가 그 '가엾은 아이'를 미워한다고 우기고, 그 아이가 우리 집 문간에 얼씬도 못 하게 겁주려고 도깨비 이야기까지 지어내다니,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캐서린 린턴(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따뜻해지는구나), 우리 예쁜 캐시, 나는 이번 주 내내 집을 비울 테니, 가서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보려무나. 그래, 착하지! 네 아버지가 내 자리에 있고 린턴이 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 네 아버지가 몸소 애원하는데도 너를 위로하러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무심한 연인이 있다면 너는 그 연인을 어떻게 여기겠는지 생각해 봐. 그리고 순전히 어리석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는 마라. 내 구원을 걸고 맹세하는데, 녀석은 무덤으로 가고 있고, 녀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자물쇠가 부서졌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맹세코 린턴은 죽어 가고 있어." 히스클리프가 나를 뚫어지게 보며 되풀이했다. "슬픔과 실망이 녀석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어. 넬리, 아가씨를 보내지 않겠다면 너라도 걸어서 와 봐. 하지만 나는 다음 주 이맘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너희 주인도 아가씨가 사촌을 보러 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들어가요." 나는 캐시의 팔을 잡고 반쯤 억지로 다시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아가씨가 너무 엄해서 속에 품은 거짓을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바싹 몰아 다가오더니 몸을 굽히며 말했다.

"캐시 아가씨,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는 린턴한테 참을성이 별로 없고, 헤어턴과 조지프는 더 없어. 녀석이 모진 사람들 틈에 있다는 건 인정하마. 녀석은 사랑만큼이나 다정한 대접에 굶주려 있어서, 네가

다정한 말 한마디만 해 주어도 그게 녀석에게는 가장 좋은 약이 될 거야. 딘 부인의 매정한 당부 따위는 마음에 두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녀석을 만나러 와. 녀석은 밤낮으로 네 꿈을 꾸는데, 네가 편지도 안 쓰고 찾아오지도 않으니 네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아."

나는 문을 닫고 헐거워진 자물쇠가 문을 붙들어 두도록 돌 하나를 굴려다 받치고 우산을 펴서 내가 맡은 아가씨를 그 밑으로 끌어들였는데, 비가 신음하는 나뭇가지 사이로 몰아치기 시작해서 꾸물거리지 말라고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을 향해 서둘러 걷느라 히스클리프와 마주친 일을 두고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지만, 나는 캐시의 마음이 이제 두 겹의 어둠으로 흐려졌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얼굴이 어찌나 슬퍼 보이는지 아가씨의 얼굴 같지가 않았고, 아가씨는 들은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다 참말로 여기는 게 분명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주인은 벌써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 캐시는 아버지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살그머니 아버지 방으로 갔지만, 주인은 잠들어 있었다. 아가씨는 돌아와서 나더러 서재에 같이 앉아 있자고 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고, 그다음에 아가씨는 깔개 위에 드러누워 지쳤으니 말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책을 한 권 가져다 읽는 척했다. 내가 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자마자 아가씨는 다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는데, 요즘 들어 그게 아가씨가 제일 좋아하는 소일거리인 것 같았다. 나는 아가씨가 한동안 그렇게 울게 내버려 두었다가, 마치 아가씨가 내 말에 맞장구를 칠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히스클리프 씨가 제 아들을 두고 한 말을 하나하나 비웃고 놀려 대며 타일렀다. 아아! 나에게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남긴 효과를 뒤집을 재주가 없었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이 노린 효과였다.

"엘렌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아가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편지를 안 쓰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린턴한테 말해 줘야 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해 줘야 하고."

아가씨가 어리석게 남의 말을 곧이듣는다고 화를 내고 따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린 채 헤어졌지만, 이튿날 나는 고집 센 우리 아가씨의 조랑말 곁에 붙어 워더링 하이츠로 가는 길에 올라 있었다. 아가씨가 슬퍼하는 모습을, 그 창백하고 풀 죽은 얼굴과 무거운 눈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나는 린턴이 우리를 맞는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졌는지 저절로 드러날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져 주고 말았다.

제23장

비 내린 밤이 지나자 반은 서리고 반은 이슬비인 안개 낀 아침이 왔고, 높은 땅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임시 개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질렀다. 내 발은 흠뻑 젖었고, 나는 짜증이 나고 기운이 없었는데, 바로 이런 언짢은 일들을 있는 대로 부풀려 느끼기 딱 알맞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히스클리프 씨가 정말 집에 없는지 알아보려고 부엌 쪽으로 해서 농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한 말은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지프는 활활 타는 불가에 혼자 앉아 극락에라도 있는 것 같았는데, 곁의 탁자에는 커다란 귀리 과자 구운 조각이 삐죽삐죽 꽂힌 에일 한 쿼트가 놓여 있었고 입에는 짧고 시커먼 담뱃대를 물고 있었다. 캐시는 몸을 녹이려고 난롯가로 달려갔다. 나는 주인이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내 물음에 하도 오래 대답이 없어서 나는 늙은이가 귀가 먹었나 싶어 더 크게 되풀이했다.

"아니여!" 조지프가 으르렁거렸다. 아니, 코맹맹이 소리로 꽥 질렀다. "아니여! 온 데로 냉큼 도로 가!"

"조지프!" 나와 동시에 안쪽 방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소리쳤다. "몇 번이나 불러야 해? 이제 빨간 재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지프! 당장 와."

연기를 힘차게 뻐끔뻐끔 내뿜고 단호하게 화덕만 노려보는 것을 보니 조지프는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다. 가정부와 헤어턴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 하나는 심부름을 갔고 하나는 일하러 나간 모양이었다. 우리는 린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 다락방에서 굶어 죽어 버려라!" 아이는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그게으른 하인이 오는 줄로 잘못 알고 말했다.

아이는 잘못 안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었고, 사촌이 그 애에게로 날아갔다.

"린턴 아가씨, 너야?" 아이는 기대 누워 있던 큰 의자의 팔걸이에서 머리를 들며 말했다. "아니, 입 맞추지 마. 숨이 막혀. 이런! 아빠가 네가 올 거라고 했어." 아이는 캐시에게 안겼다가 조금 정신을 차린 뒤 말을 이었고, 캐시는 몹시 뉘우치는 얼굴로 곁에 서 있었다. "문 좀 닫아 줄래? 네가 열어 놓고 들어왔잖아. 그리고 저, 저 *밉살스러운* 것들이 불에 석탄을 넣어 주지 않아. 정말 추워!"

나는 타다 남은 재를 휘저어 일으키고 석탄 한 통을 손수 가져왔다. 병자는 재를 뒤집어썼다고 투덜거렸지만, 지긋지긋한 기침을 해 대고 열이 있어 보이고 몹시 앓는 기색이어서 나는 그 애의 성미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래, 린턴." 그 애의 찌푸린 이마가 펴지자 캐시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보니 반가워?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왜 진작 안 왔어?" 아이가 물었다. "편지를 쓰지 말고 왔어야지. 그 긴 편지를 쓰느라 끔찍하게 지쳤단 말이야. 차라리 너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았을 거야. 이젠 말하는 것도 다른 무엇도 견딜 수가 없어. 질라는 대체 어디 갔을까! 엘렌이" (나를 보며) "부엌에 가서 좀 봐 줄래요?"

나는 앞서 해 준 일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그 애 분부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기엔 조지프밖에 없어요."

"물 마시고 싶어." 아이는 짜증스럽게 돌아누우며 소리쳤다. "아빠가 떠나고부터 질라는 걸핏하면 기머턴으로 놀러 나가. 정말 비참해! 그래서 나는 여기 내려와 있어야 해, 다들 위층에서 내가 불러도 절대 못 들은 척하기로 작정했거든."

"아버지가 도련님한테 마음을 써 주시나요, 히스클리프 도련님?" 나는 캐시가 다정하게 다가가려다 멈칫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마음을 써 주냐고요? 적어도 *저것들*이 나한테 조금 더 마음을 쓰게는 해 줘요." 아이가 소리쳤다. "그 못된 것들! 린턴 아가씨, 그 짐승 같은 헤어턴이 나를 비웃는다는 거 알아? 나는 그 녀석이 싫어! 아니, 다 싫어. 다들 밉살스러운 것들이야."

캐시는 물을 찾기 시작했고, 찬장에서 물주전자를 찾아내 큰 컵에 물을 채워 가져왔다. 아이는 탁자 위 병에 든 포도주를 한 숟가락 타 달라고 했고, 조금 마시고 나서는 한결 마음이 가라앉은 듯 캐시에게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다.

"그럼 나를 보니 반가워?" 캐시는 아까 한 물음을 되풀이했고, 희미하게 웃음이 비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응, 반가워. 너 같은 목소리를 듣는 건 새로운 일이야!" 아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오려고 하지 않아서 속상했어. 그리고 아빠는 그게 내 탓이라고 욕을 퍼부으면서, 나더러 한심하고 꾀만 부리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고, 네가 나를 경멸한다고 하고, 자기가 내 처지였다면 지금쯤은 네 아버지보다 더 그레인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경멸하지 않지, 그렇지, 아가씨……?"

"'캐서린'이든 '캐시'든 이름으로 불러 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가씨가 말을 끊었다. "너를 경멸하냐고? 아니야! 아빠하고 엘렌 다음으로, 나는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좋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나는 감히 못 올 거야. 그 사람은 여러 날 집을 비워?"

"여러 날은 아니야." 린턴이 대답했다. "그래도 사냥철이 시작된 뒤로는 아빠가 황야에 자주 나가니까, 아빠가 없을 때 너는 나하고 한두 시간쯤 같이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러겠다고 해 줘. 너하고 있으면 짜증을 부리지 않을 것 같아, 너는 나를 성나게 하지 않을 테고 언제나 나를 도와줄 테니까, 그렇지?"

"응." 캐시가 그 애의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허락만 받을 수 있으면 내 시간의 반은 너하고 같이 보낼 거야. 귀여운 린턴! 네가 내 남동생이면 좋겠다."

"그러면 너는 네 아빠만큼 나를 좋아하게 될까?" 아이가 조금 밝아져서 말했다. "그런데 아빠는 네가 내 아내가 되면 너희 아빠보다도, 온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네가 내 아내가 되는 게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아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캐시가 진지하게 맞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아내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누이나 동생은 미워하지 않으니까, 네가 내 동생이라면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고 아빠도 나를 귀여워하는 만큼 너를 귀여워하실 거야."

린턴은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일 따위는 없다고 우겼지만, 캐시는 그런 일이 있다고 단언했고, 제딴에는 똑똑하게 그 애 아버지가 고모를 싫어했던 일을 예로 들었다. 나는 그 생각 없는 혀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아가씨가 아는 것을 다 털어놓을 때까지 막을 수가 없었다. 히스클리프 도련님은 몹시 성이 나서 아가씨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우겼다.

"아빠가 그랬어. 그리고 아빠는 거짓말을 안 해." 아가씨가 당돌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를 깔봐!" 린턴이 소리쳤다. "너희 아빠더러 비겁한 바보래."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캐시가 쏘아붙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감히 따라 하다니 너도 아주 못됐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이저벨라 고모가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난 거야."

"고모는 아빠를 떠나지 않았어." 아이가 말했다.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떠났어." 우리 아가씨가 소리쳤다.

"그럼 *너한테* 하나 알려 줄게!" 린턴이 말했다.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를 미워했어. 자, 어때."

"아!" 캐시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우리 아빠를 사랑했어." 아이가 덧붙였다.

"이 꼬마 거짓말쟁이! 이제 네가 싫어!" 아가씨는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이 분노로 새빨개졌다.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린턴은 노래하듯 말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뒤에 서 있는 말다툼 상대가 흥분하는 꼴을 즐기려고 머리를 뒤로 젖혔다.

"쉿, 히스클리프 도련님!" 내가 말했다. "그것도 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아니에요. 엘렌은 입 다물어요!" 아이가 대답했다.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캐시!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캐시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의자를 세차게 밀쳤고, 그 바람에 아이는 한쪽 팔걸이에 쓰러졌다. 아이는 곧바로 숨이 막히는 기침에 사로잡혔고, 그 기침에 아이의 승리는 금세 끝이 났다. 기침이 하도 오래 이어져서 나까지 겁이 났다. 사촌은 제가 저지른 일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울었다. 나는 발작이 잦아들 때까지

아이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자 아이는 나를 밀쳐 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캐시도 울음을 그치고 맞은편에 앉아 엄숙하게 불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좀 어때요, 히스클리프 도련님?" 나는 10분쯤 기다렸다가 물었다.

"*쟤*도 나처럼 아파 보면 좋겠어요." 아이가 대답했다. "심술궂고 잔인한 것! 헤어턴은 한 번도 나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평생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다고요. 오늘은 좀 나았는데,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는 훌쩍임 속에 잦아들었다.

"*나*는 너를 때리지 않았어!" 캐시는 또 감정이 북받치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아이는 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고 신음하기를 15분 동안이나 계속했는데, 사촌이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목소리의 가락에 고통과 처량함을 새로 싣는 것을 보면 일부러 사촌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분명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해, 린턴." 마침내 아가씨는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져서 말했다. "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살짝 밀친 걸로는 아프지 않았을 거고, 너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너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린턴? 내가 너를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게 하지 마. 대답해! 말 좀 해 봐."

"너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 아이가 중얼거렸다. "네가 나를 하도 아프게 해서 나는 밤새 이 기침에 숨이 막혀 한숨도 못 잘 거야. 너도 이걸 앓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알 텐데, 나는 곁에 아무도 없이 괴로워하는 동안 *너*는 편안히 잠들어 있겠지. 너라면 그 무서운 밤들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하다!" 그러고는 제 처지가 너무 가엾어서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도련님은 원래 끔찍한 밤을 보내는 게 버릇이니까요." 내가 말했다. "도련님 잠을 망치는 건 아가씨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아무튼 아가씨는 다시는 도련님을 괴롭히지 않을 테고, 우리가 가고 나면 도련님도 좀 더 조용해지겠지요."

"가야 해?" 캐시가 그 애 위로 몸을 숙이며 서글프게 물었다. "내가 갔으면 좋겠어, 린턴?"

"네가 한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아이는 아가씨에게서 몸을 움츠리며 뾰로통하게 대답했다. "나를 들볶아서 열병에 걸리게 해서 더 나쁘게 되돌리는 거라면 몰라도."

"그럼 가야 해?" 아가씨가 되풀이해 물었다.

"적어도 나를 좀 내버려 둬." 아이가 말했다. "네 말소리를 못 견디겠어."

아가씨는 머뭇거리며 가자는 내 설득을 지겹도록 오래 마다했지만, 아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도 하지 않자 마침내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고, 나는 뒤따랐다. 그때 비명 소리가 우리를 불러 세웠다. 린턴은 자리에서 난롯돌 위로 미끄러져 내려와서, 응석받이로 자란 골칫덩이 아이가 될 수 있는 한 남을 괴롭히고 애태우기로 작정하고 부리는 순전한 억지로 몸을 비틀며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애가 하는 짓으로 그 성미를 속속들이 헤아렸고, 그 비위를 맞춰 주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다. 내 길동무는 그렇지 않아서, 겁에 질려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울고 달래고 빌었고, 아이는 아가씨를 괴롭힌 것을 뉘우쳐서가 결코 아니라 숨이 차서 조용해졌다.

"내가 저 애를 긴 의자에 올려놓을 테니 거기서 마음대로 뒹굴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 캐시 아가씨, 저 애를 낫게 해 줄 사람이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 애의 건강이 아가씨를 그리워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 이제

알았겠지요. 자, 저기 눕혔어요! 가요, 제 억지를 받아 줄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 저 애는 기꺼이 가만히 누워 있을 거예요."

아가씨는 아이의 머리 밑에 쿠션을 받쳐 주고 물을 권했지만, 아이는 물은 마다하고 쿠션 위에서 마치 그게 돌이나 나무토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아가씨는 쿠션을 더 편하게 고쳐 놓으려고 했다.

"그건 안 돼." 아이가 말했다. "높이가 모자라."

캐시는 쿠션을 하나 더 가져와서 그 위에 얹었다.

"그건 *너무* 높아." 그 약 올리는 녀석이 중얼거렸다.

"그럼 어떻게 해 줘야 해?" 아가씨가 절망해서 물었다.

아가씨가 긴 의자 곁에 반쯤 무릎을 꿇고 앉자, 아이는 아가씨에게 몸을 감듯 기대며 그 어깨를 베개로 삼았다.

"아니, 그건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쿠션으로 만족해야 해요, 히스클리프 도련님. 아가씨는 도련님 때문에 벌써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려서, 우리는 5분도 더 있을 수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있을 수 있어!" 캐시가 대답했다. "이제 린턴은 얌전하고 참을성 있게 굴잖아. 린턴도 이제 알기 시작했어. 내가 와서 저 애가 더 나빠졌다고 믿게 되면 오늘 밤 저 애보다 내가 훨씬 더 괴로울 거라는 걸, 그러면 내가 다시는 감히 못 오게 될 거라는 걸. 사실대로 말해 줘, 린턴.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면 나는 오면 안 되니까."

"나를 낫게 하려면 와야 해." 아이가 대답했다.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와야 해. 네가 나를 아주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네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처럼 아프지 않았어. 그렇지?"

"하지만 네가 울고 성을 내서 스스로 아프게 된 거야. 다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사촌이 말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너는 내가 필요하지? 정말로 가끔 나를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이가 참지 못하고 대답했다. "긴 의자에 앉아서 네 무릎에 기대게 해 줘, 엄마도 오후 내내 그렇게 해 줬어. 가만히 앉아서 말은 하지 마. 그래도 노래를 할 줄 알면 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나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던 재미있는 긴 민요를 읊어 줘도 되고, 아니면 이야기라도 해 줘. 그래도 민요가 더 좋아. 시작해."

캐시는 기억나는 가장 긴 민요를 읊었다. 둘 다 그 일을 몹시 좋아했다. 린턴은 내가 기를 쓰고 말리는데도 하나 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시계가 열두 시를 치고 헤어턴이 점심을 먹으러 마당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했다.

"그럼 내일은, 캐시, 내일도 올 거지?" 젊은 히스클리프가 마지못해 일어나는 아가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다.

"안 와요." 내가 대답했다. "모레도 안 오고요." 그러나 아가씨가 몸을 굽혀 아이의 귀에 무어라 속삭이자 아이의 이마가 환하게 펴진 것을 보면, 아가씨는 분명히 다른 대답을 한 모양이었다.

"내일은 안 갈 거예요, 잊지 말아요, 아가씨!" 집을 나서자 나는 말을 꺼냈다. "설마 갈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아가씨는 빙그레 웃었다.

"아, 내가 단단히 지킬 거예요."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자물쇠를 고쳐 놓을 테니, 다른 길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담을 넘으면 되지."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레인지는 감옥이 아니고 엘렌은 내 간수가 아니야. 게다가 나는 곧 열일곱 살이야. 이제 어른이라고. 그리고 내가 돌봐 주면 린턴은 틀림없이 금방 나을 거야. 알다시피 나는 그 애보다 나이도 많고 더 똑똑하잖아. 덜 어린애 같지, 안 그래? 그리고 살살 달래 주기만 하면 그 애는 곧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착하게 굴 때는 정말 귀여운 아이야. 그 애가 내 거라면 아주

귀여워해 줄 텐데. 서로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는 절대 다투지 않을 거야, 그렇지? 엘렌은 그 애가 좋지 않아?"

"좋으냐고요!" 내가 소리쳤다. "열몇 살까지 겨우 버텨 온 병약한 꼬맹이 가운데 그렇게 성미 고약한 건 처음 봐요. 다행히 히스클리프 씨가 짐작한 대로 그 애는 스무 살도 넘기지 못할 거예요. 정말이지 봄이나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언제 쓰러지든 그 집안에는 별 손해도 아닐 거고요. 그 애 아버지가 그 애를 데려간 게 우리한테는 다행이에요, 다정하게 대해 줄수록 더 지겹고 이기적으로 굴었을 테니까요. 아가씨가 그 애를 남편으로 맞을 일이 없어서 나는 기뻐요, 캐시 아가씨."

내 길동무는 이 말을 듣고 심각해졌다. 그 애가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아가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애는 나보다 어려." 아가씨는 한참 생각에 잠겨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그러니 제일 오래 살아야 해. 그 애는 살 거야. 적어도 나만큼은 살아야 해. 처음 북쪽에 왔을 때만큼 지금도 튼튼해. 그건 틀림없어. 그 애가 앓는 건 그냥 감기야. 아빠가 앓는 것하고 똑같은 감기. 엘렌은 아빠가 나으실 거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 애는 왜 낫지 못하겠어?"

"그래요, 그래요." 내가 소리쳤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일로 애태울 필요는 없어요. 잘 들어요, 아가씨. 그리고 명심해요, 나는 내 말을 꼭 지킬 거예요. 아가씨가 나하고든 혼자서든 다시 워더링 하이츠에 가려고 하면 나는 린턴 나리께 알릴 테고, 나리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촌하고 다시 가까이 지내서는 안 돼요."

"벌써 다시 가까이 지내게 됐는걸." 캐시가 뾰로통하게 중얼거렸다.

"그럼 계속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말했다.

"두고 봐." 아가씨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을 달려 떠나 버렸고, 나는 뒤에서 힘겹게 따라가야 했다.

우리는 둘 다 점심때 전에 집에 닿았고, 주인은 우리가 영지를 거닐다 온 줄로만 알고 왜 그렇게 오래 나가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서둘러 흠뻑 젖은 신발과 양말을 갈아 신었지만, 하이츠에서 그렇게 한참이나 앉아 있었던 탓에 이미 몸에 탈이 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몸져누워 세 주 동안 맡은 일을 하나도 돌볼 수 없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재난이었고 고맙게도 그 뒤로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우리 꼬마 아가씨는 천사처럼 나를 돌보러 와서 외로움을 달래 주었는데, 갇혀 지내다 보니 나는 몹시 기운이 꺾였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던 사람에게는 그게 참 지겨운 일이지만, 나만큼 불평할 까닭이 없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캐시는 린턴 씨의 방에서 나오는 순간 내 머리맡에 나타났다. 아가씨의 하루는 우리 둘 사이에 나뉘어서 어떤 놀이도 1분조차 빼앗지 못했고, 아가씨는 끼니도 공부도 놀이도 다 제쳐 두었으며, 세상에 그보다 더 다정하게 곁을 지키는 간호사는 없었다.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면서 나에게까지 그만큼 마음을 쏟았으니 아가씨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했던 게 틀림없다. 아가씨의 하루가 우리 둘 사이에 나뉘었다고 했지만, 주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도 여섯 시가 지나면 대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저녁은 아가씨의 몫이었다. 가엾은 것! 나는 아가씨가 차를 마신 뒤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가씨가 잘 자라는 인사를 하러 들여다볼 때면 뺨에 생생한 혈색이 돌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까지 발그레한 것을 자주 보았지만, 나는 그 빛깔이 추운 황야를 말 타고 건너오느라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서재의 뜨거운 불 탓으로만 돌렸다.

제24장

세 주가 지나자 나는 방에서 나와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녁에 일어나 앉아 있게 된 날, 나는 눈이 침침해서 캐시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했다. 주인은 잠자리에 들었고 우리는 서재에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아가씨는 꽤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고, 나는 내가 읽는 종류의 책이 아가씨에게 맞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다. 아가씨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서 한 시간쯤 꾸준히 읽어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꾸 묻기 시작했다.

"엘렌, 피곤하지 않아? 이제 누워야 하지 않아?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또 아프겠어, 엘렌."

"아니, 아니에요, 아가씨. 피곤하지 않아요." 나는 번번이 그렇게 대답했다.

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아가씨는 그 일이 싫다는 것을 드러낼 다른 방법을 써 보았다.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그러고는……

"엘렌, 나 피곤해."

"그럼 그만두고 이야기나 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게 더 고약해서, 아가씨는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며 여덟 시가 될 때까지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짜증 섞인 무거운 얼굴과 쉴 새 없이 눈을 비비는 꼴을 보니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게

분명했다. 이튿날 밤에는 더 안절부절못하는 것 같았고, 내가 다시 같이 지내게 된 지 사흘째 되는 밤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는 나를 두고 가 버렸다. 나는 아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한참 동안 혼자 있다가, 가서 좀 나았는지 물어보고 위층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내려와 소파에 누우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층에도 아래층에도 캐시는 없었다. 하인들도 아가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에드거 나리의 방문에 귀를 대 보았지만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아가씨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달이 환하게 비치고 땅에는 눈이 엷게 덮여 있어서, 나는 아가씨가 바람을 쐬려고 정원을 거닐어 볼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지 안쪽 울타리를 따라 살금살금 움직이는 사람 하나가 눈에 띄기는 했지만 우리 아가씨는 아니었고, 그 사람이 밝은 데로 나왔을 때 보니 마구간 일꾼 하나였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서서 영지를 가로지르는 마찻길을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알아챈 듯 잰걸음으로 떠났다가, 곧 아가씨의 조랑말을 끌고 다시 나타났는데, 바로 거기 방금 말에서 내린 아가씨가 말 곁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일꾼은 맡은 말을 몰래 풀밭 너머 마구간 쪽으로 끌고 갔다. 캐시는 응접실의 여닫이창으로 들어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올라왔다. 아가씨는 문을 살며시 닫고, 눈 묻은 신발을 벗고, 모자 끈을 풀고, 내가 엿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망토를 벗으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내가 불쑥 일어나 모습을 드러냈다. 아가씨는 놀라서 잠깐 돌처럼 굳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지르고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캐시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요 며칠 나에게 베푼 친절이 너무 생생해서 꾸지람을 퍼붓지는 못하고 말을 꺼냈다. "이 시간에 말을 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왜 꾸며 낸 이야기로 나를 속이려고 했어요? 어디 갔었어요? 말해요!"

"영지 아래쪽까지." 아가씨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꾸며 낸 이야기는 안 했어."

"다른 데는 안 가고요?" 내가 다그쳤다.

"응." 웅얼거리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 캐시 아가씨!" 나는 슬퍼서 소리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할 리가 없지요. 그게 정말 가슴 아파요. 아가씨가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 대는 걸 듣느니 차라리 석 달을 앓는 게 낫겠어요."

아가씨는 앞으로 뛰어나와 울음을 터뜨리며 내 목에 두 팔을 감았다.

"있잖아, 엘렌, 엘렌이 화낼까 봐 너무 무서워." 아가씨가 말했다.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사실을 그대로 다 말해 줄게, 숨기는 건 정말 싫으니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나는 아가씨의 비밀이 무엇이든 꾸짖지 않겠다고 다짐해 주었는데, 물론 나는 그게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가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워더링 하이츠에 갔었어, 엘렌. 엘렌이 앓아누운 뒤로, 엘렌이 방에서 나오기 전에 세 번, 나온 뒤에 두 번 빼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갔어. 마이클한테 책이랑 그림을 주고 저녁마다 미니를 채비해 놓았다가 다시 마구간에 넣어 달라고 했으니, *마이클*도 꾸짖으면 안 돼, 알았지. 나는 여섯 시 반이면 하이츠에 가 있었고, 대개 여덟 시 반까지 있다가 말을 달려 집에 왔어. 재미 보려고 간 게 아니야, 가 있는 동안 내내 비참할 때가 많았거든. 이따금은 행복했어. 아마 일주일에 한 번쯤. 처음에는 린턴하고 한 약속을 지키게 해 달라고 엘렌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을 줄 알았어, 그 애하고 헤어질 때 이튿날 또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엘렌이 위층에 누워 있어서 그 수고를 덜었지. 오후에 마이클이 영지 문 자물쇠를 다시 고치는 동안 나는 열쇠를 손에 넣고, 내

사촌이 아파서 그레인지에 올 수 없으니 나더러 보러 와 달라고 한다는 것과 아빠는 내가 가는 걸 반대하실 거라는 걸 마이클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조랑말 일로 흥정을 했어. 마이클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곧 결혼하려고 여기를 그만둘 생각이라서, 내가 서재에서 책을 빌려주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내 책을 주는 게 더 좋았고, 마이클도 그걸 더 좋아했어.

"두 번째 갔을 때 린턴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질라가(그 집 가정부야) 깨끗한 방에 불을 활활 피워 주고는, 조지프는 기도회에 가고 헤어턴 언쇼는 개들을 데리고 나갔으니(나중에 들으니 우리 숲에서 꿩을 훔치고 있었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했어. 질라는 따뜻한 포도주하고 생강빵을 갖다주었는데 아주 사람이 좋아 보였고, 린턴은 팔걸이의자에 앉고 나는 난롯돌 위 작은 흔들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아주 즐겁게 웃고 이야기했고,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던지 여름에는 어디 가서 무얼 할지 계획도 세웠어. 그 얘기는 되풀이하지 않을래. 엘렌은 시시하다고 할 테니까.

"그런데 한번은 하마터면 다툴 뻔했어. 린턴은 무더운 칠월 하루를 가장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벌들은 꽃 사이로 꿈결처럼 붕붕거리고 종다리는 머리 위 높은 데서 노래하고 파란 하늘과 환한 해가 구름 한 점 없이 한결같이 빛나는 날, 황야 한가운데 히스 둔덕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있는 거라고 했어. 그게 그 애가 생각하는 천국의 행복이 가장 완전한 모습이었고, 내 생각은, 서풍이 불고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머리 위로 빠르게 흘러가고, 종다리뿐 아니라 개똥지빠귀, 검은지빠귀, 홍방울새, 뻐꾸기가 사방에서 노래를 쏟아붓고, 멀리 보이는 황야는 서늘하고 어스름한 골짜기들로 갈라져 있고, 가까이에는 길게 자란 풀이 바람에 커다랗게 물결치고, 숲과 소리 내며 흐르는 물이 있고, 온 세상이 깨어나 기쁨에 겨워 들썩이는 날, 바스락거리는 푸른 나무에 올라

흔들리는 거였어. 린턴은 모든 것이 평화에 취해 가만히 누워 있기를 바랐고, 나는 모든 것이 눈부신 축제 속에서 반짝이며 춤추기를 바랐어. 나는 그 애의 천국은 반쯤밖에 살아 있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 애는 내 천국은 술에 취한 것 같을 거라고 했어. 나는 그 애의 천국에서는 잠이 들어 버릴 거라고 했고, 그 애는 내 천국에서는 숨을 쉴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 몹시 퉁명스러워지기 시작했어. 결국 우리는 알맞은 날씨가 오면 두 가지를 다 해 보기로 합의했고, 그러고는 서로 입을 맞추고 다시 사이좋게 지냈어.

"한 시간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는 양탄자도 깔리지 않은 반들반들한 바닥의 그 큰방을 둘러보았는데, 식탁을 치우면 거기서 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린턴한테 질라를 불러서 같이 눈가리고 술래잡기를 하자고 했어. 질라가 술래가 되어 우리를 잡는 거야. 엘렌도 전에 그랬잖아, 엘렌. 그 애는 그런 건 하나도 재미없다면서 싫다고 했지만, 나하고 공놀이는 하겠다고 했어. 찬장 속 낡은 장난감 더미에서 팽이랑 굴렁쇠랑 깃털 공치기 채랑 깃털 공 사이에 섞인 공을 두 개 찾았어. 하나에는 C 자가, 다른 하나에는 H 자가 적혀 있었는데, C는 캐서린, 내 이름의 머리글자고 H는 히스클리프, 그 애 성일 테니까 나는 C 자 공을 갖고 싶었어. 그런데 H 자 공에서 겨가 새어 나와서 린턴은 그걸 싫어했어. 내가 번번이 이기니까 그 애는 또 심통이 나서 기침을 하더니 의자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도 그날 밤 그 애는 금방 기분을 되찾았어. 예쁜 노래 두세 곡에 홀딱 반했거든. *엘렌의* 노래들 말이야, 엘렌.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때가 되니까 이튿날 저녁에도 와 달라고 조르고 애원해서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미니하고 나는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서 집에 왔고, 나는 아침까지 워더링 하이츠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내 사촌 꿈을 꾸었어.

"이튿날 나는 엘렌이 아프기도 하고 아빠가 내 나들이를 아시고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슬펐지만, 차를 마신 뒤에 달빛이 정말 아름다웠고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우울한 마음이 걷혔어. 오늘 저녁도 행복하겠지, 하고 나는 혼자 생각했어. 그리고 더 기쁜 건 내 귀여운 린턴도 행복하겠지. 나는 종종걸음으로 그 집 정원을 올라가서 뒤쪽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언쇼라는 녀석이 나를 맞더니 말고삐를 잡고 앞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녀석은 미니의 목을 토닥이며 예쁜 짐승이라고 하더니, 내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 나는 그냥 내 말을 건드리지 말라고, 안 그러면 말이 걷어찰 거라고만 했어. 녀석은 그 상스러운 말투로 '차 봐야 뭐 별로 다치지도 않겠다' 하고 대답하고는 웃으며 말의 다리를 훑어보았어. 나는 정말 차게 해 볼까 하는 마음이 반쯤 들었지만, 녀석은 문을 열러 가더니 빗장을 들면서 문 위에 새겨진 글씨를 올려다보고는, 어색함과 우쭐함이 멍청하게 뒤섞인 얼굴로 말했어. '캐시 아가씨! 이제 저거 읽을 줄 알아.'

"'놀랍네.' 내가 소리쳤어. '어디 한번 들어 보자. 정말 똑똑해졌구나!'

"녀석은 그 이름을 한 자 한 자 끊어서 느릿느릿 읽었어. '헤어턴 언쇼.'

"'그럼 숫자는?' 나는 녀석이 딱 막혀 버리는 걸 보고 부추기듯이 소리쳤어.

"'그건 아직 못 읽어.' 녀석이 대답했어.

"'아, 이 바보!' 나는 녀석이 못 읽는 걸 보고 마음껏 웃으며 말했어.

"그 멍청이는 입가에 히죽 웃음을 띠고 눈에는 찌푸림을 모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 나하고 같이 웃어도 될지, 그게 친해서 하는 기분 좋은 농담인지, 아니면 진짜 그대로 경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나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는 린턴을 보러 왔지 너를 보러 온 게 아니니 저리 가라고 해서 녀석의 의심을 풀어 주었어. 녀석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달빛에 보였어) 빗장에서 손을 떼고, 허영심이 꺾인 꼴 그대로 슬금슬금

가 버렸어. 아마 제 이름을 읽을 줄 알게 됐으니 린턴만큼 교양을 갖췄다고 생각했나 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놀랄 만큼 기가 죽은 거지."

"그만, 캐시 아가씨!" 내가 말을 끊었다. "꾸짖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아가씨가 한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헤어턴도 히스클리프 도련님만큼이나 아가씨 사촌이라는 걸 기억했다면, 그렇게 구는 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느꼈을 거예요. 적어도 린턴만큼 교양을 갖추고 싶어 한 건 헤어턴으로서는 칭찬받을 만한 마음먹이였고, 아마 그냥 뽐내려고 배운 것도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아가씨가 전에 그 애한테 무식한 걸 부끄럽게 만들었을 테고, 그 애는 그걸 고쳐서 아가씨 마음에 들고 싶었던 거예요. 서툴게나마 애쓴 걸 비웃는 건 아주 못 배운 짓이에요. *아가씨*가 그 애 같은 형편에서 자랐다면 그보다 덜 무례했을까요? 그 애도 어릴 때는 아가씨만큼 눈치 빠르고 영리한 아이였어요. 그 비열한 히스클리프가 그 애를 그토록 부당하게 대했다고 해서 이제 그 애가 멸시받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아파요."

"어머, 엘렌, 그 일로 울려는 건 아니지?" 아가씨는 내가 진지한 데 놀라서 소리쳤다. "하지만 기다려 봐. 녀석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글자를 익혔는지, 그런 짐승한테 공손하게 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들어 보면 알 거야. 나는 안으로 들어갔어. 린턴은 긴 의자에 누워 있다가 나를 맞으려고 반쯤 몸을 일으켰어.

"'캐시, 나 오늘 밤엔 아파.' 그 애가 말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듣게 해 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 네가 약속을 어기지 않을 줄 알았어. 가기 전에 또 약속하게 할 거야.'

"이제 그 애가 아프니까 들볶으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알았기에, 조용조용 말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떻게든 그 애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어. 나는 제일 좋은 책 몇 권을 그 애한테 주려고

가져갔는데, 그 애가 한 권을 조금 읽어 달라고 해서 막 그러려는 참에 언쇼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 곱씹을수록 독이 올랐던 거야. 녀석은 곧장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린턴의 팔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휙 끌어냈어.

"'네 방으로 꺼져!' 녀석은 분에 받쳐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얼굴은 부어오른 것처럼 보였고 사나웠어. '저 계집애가 너 보러 오거든 거기로 데려가. 네가 나를 여기서 내쫓지는 못할 거다. 둘 다 썩 꺼져!'

"녀석은 우리한테 욕을 퍼붓고 린턴한테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부엌으로 거의 내던지다시피 했고, 내가 따라 나가자 나를 때려눕히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어. 나는 잠깐 겁이 나서 책 한 권을 떨어뜨렸는데, 녀석은 그 책을 내 뒤로 걷어차 보내고 우리를 밖으로 내쫓고 문을 닫아 버렸어. 불가에서 심술궂게 갈라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그 밉살스러운 조지프가 뼈만 앙상한 손을 비비며 몸을 들썩이고 서 있었어.

"'저 녀석이 혼쭐을 내 줄 줄 알았구먼! 장한 녀석이여! 제대로 된 기백이 들었구먼! *저 녀석*은 알아. 암, 나만큼이나 잘 알지, 저기 누가 쥔이 돼야 하는지. 헤, 헤, 헤! 너희를 아주 제대로 쫓아냈구먼! 헤, 헤, 헤!'

"'우리 어디로 가야 해?' 나는 그 늙은이가 비웃는 건 못 들은 척하고 사촌한테 물었어.

"린턴은 하얗게 질려서 떨고 있었어. 그때 그 애는 예쁘지 않았어, 엘렌. 아, 정말 아니었어! 끔찍해 보였어. 그 여윈 얼굴과 커다란 눈이 미친 듯하면서도 아무 힘도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거든. 그 애는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흔들었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

"'안 들여보내 주면 죽여 버릴 거야! 안 들여보내 주면 죽여 버릴 거야!' 그 애는 말한다기보다 비명을 질렀어. '악마! 악마!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조지프가 또 까마귀 같은 웃음소리를 냈어.

"'저것 봐, 저게 그 애비여!' 조지프가 소리쳤어. '애비 그대로구먼! 우리 안엔 늘 양쪽 핏줄이 조금씩 들어 있는 법이여. 신경 쓰지 마라, 헤어턴, 겁낼 것 없다. 저게 너한테 손도 못 댄다!'

"나는 린턴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그 애가 어찌나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는지 감히 더는 그럴 수가 없었어. 마침내 그 애의 울부짖음은 무시무시한 기침 발작에 막혀 버렸고, 입에서 피가 쏟아지더니 그 애는 바닥에 쓰러졌어. 나는 겁에 질려 속이 메스꺼운 채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있는 힘껏 질라를 불렀어. 질라는 헛간 뒤 외양간에서 소젖을 짜고 있다가 곧 내 목소리를 듣고는, 하던 일을 놓고 서둘러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나는 설명할 숨도 없어서 질라를 끌고 들어가 린턴을 찾아 두리번거렸어. 언쇼가 제가 저지른 일을 살펴보러 나와 있었는데, 그때 그 가엾은 애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질라하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올라갔지만, 녀석은 계단 꼭대기에서 나를 막아서더니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 나는 네가 린턴을 죽였다고, 나는 꼭 들어가겠다고 소리쳤어. 조지프는 문을 잠그더니 나더러 '그런 짓은 못 한다'고 딱 잘라 말하고는, '너도 저 녀석처럼 미칠 작정이냐'고 물었어. 나는 가정부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서서 울었어. 질라는 린턴이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시끄럽게 굴면 견디지 못할 거라고 단언하더니, 나를 붙잡고 거의 안다시피 해서 큰방으로 데려갔어.

"엘렌,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어! 어찌나 흐느껴 울었는지 눈이 거의 멀 지경이었고, 엘렌이 그렇게 딱하게 여기는 그 불한당은 맞은편에 서서 이따금 감히 나더러 '쉿' 하라고 하고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겼어. 그러다 마침내 내가 아빠한테 다 이를 거라고,

그러면 너는 감옥에 갇혀서 교수형을 당할 거라고 하자 겁을 먹고는 저도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그 비겁하게 허둥대는 꼴을 감추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 버렸어. 그래도 녀석을 떨쳐 낸 건 아니었어. 마침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돌려보내서 내가 그 집에서 백 야드쯤 떨어졌을 때, 녀석이 길가 그늘에서 불쑥 나타나더니 미니를 세우고 나를 붙잡았어.

"'캐시 아가씨, 나도 참 속상한데.' 녀석이 말을 꺼냈어.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나는 혹시 녀석이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 채찍으로 한 대 갈겼어. 녀석은 그 끔찍한 욕을 한마디 벼락같이 내지르며 손을 놓았고, 나는 반쯤 넋이 나간 채 말을 달려 집으로 왔어.

"그날 저녁 나는 엘렌한테 잘 자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이튿날에는 워더링 하이츠에 가지 않았어. 몹시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서, 어떤 때는 린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까 봐 두려웠고 어떤 때는 헤어턴과 마주칠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거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용기를 냈어, 적어도 더는 마음 졸이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몰래 빠져나갔어. 다섯 시에 걸어서 갔는데,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집 안으로 숨어들어 린턴의 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개들이 내가 오는 걸 알렸어. 질라가 나를 맞더니 '도련님은 잘 낫고 있다우' 하고는, 작고 깔끔한 양탄자 깔린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쁘게도 린턴이 작은 소파에 누워 내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걸 보았어. 그런데 엘렌, 그 애는 꼬박 한 시간 동안 나한테 말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 애는 성미가 그렇게 불행해.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그 애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그 소동을 일으킨 건 나고 헤어턴은 잘못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야! 화를 내지 않고는 대꾸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일어나서

방을 나와 버렸어. 그 애는 내 뒤에 대고 힘없이 '캐시!' 하고 불렀어. 내가 그렇게 대꾸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고, 이튿날은 내가 집에 있었던 두 번째 날이었는데, 나는 다시는 그 애를 보러 가지 않겠다고 거의 마음을 굳혔어. 그런데 그 애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게 너무 비참해서, 그 결심은 채 다 굳기도 전에 허공으로 녹아 버렸어. 한 번 그 길을 가는 게 잘못으로 *보인*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가는 게 잘못으로 보였어. 마이클이 미니에 안장을 얹어야 하느냐고 물으러 왔길래 나는 '응' 하고 대답했고, 미니가 나를 태우고 언덕을 넘는 동안 나는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거라고 여겼어. 마당에 들어가려면 앞쪽 창들 앞을 지나야 해서 내가 온 걸 숨기려고 해 봐야 소용없었어.

"'젊은 도련님은 큰방에 계시우.' 내가 응접실로 가려는 걸 보고 질라가 말했어. 나는 들어갔는데, 언쇼도 거기 있었지만 곧바로 방을 나가 버렸어. 린턴은 커다란 팔걸이의자에 앉아 반쯤 졸고 있었고, 나는 불가로 걸어가서, 반쯤은 진심으로 그럴 작정을 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

"'린턴,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일부러 너를 괴롭히려고 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올 때마다 그런다고 우기니까, 이게 우리 마지막 만남이니 작별 인사를 하자,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한테 너는 나를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그 일로 더는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고 전해.'

"'앉아서 모자 벗어, 캐시.' 그 애가 대답했어. '너는 나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나보다 착해야 해. 아빠는 내 흠을 실컷 늘어놓고 나를 실컷 깔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것도 당연해. 나는 정말로 아빠 말처럼 내가 아주 쓸모없는 놈이 아닌가 자주 의심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쓰라려서 모든 사람이 다 미워! 나는 거의 언제나 *정말* 쓸모없고 성미도 고약하고 마음보도 고약하니까, 네가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해도

돼, 성가신 짐을 하나 덜게 될 거야. 다만, 캐시,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너만큼 상냥하고 다정하고 착할 수 있다면, 너만큼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기꺼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어 줘. 그리고 네가 친절하게 대해 줘서 나는 내가 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때보다도 더 깊이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믿어 줘. 나는 너한테 내 본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 아쉬워하고 뉘우쳐. 죽을 때까지 아쉬워하고 뉘우칠 거야!'

"나는 그 애가 참말을 한다고 느꼈고, 그 애를 용서해야 한다고, 다음 순간 또 다툰다 해도 또 용서해야 한다고 느꼈어. 우리는 화해했어. 하지만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둘 다 내내 울었어. 슬퍼서만은 아니었어. 그래도 린턴이 그렇게 비뚤어진 성미를 타고난 게 *정말* 슬펐어. 그 애는 친구들을 절대 편하게 두지 않을 거고, 자기 자신도 절대 편할 날이 없을 거야!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늘 그 애의 작은 응접실로 갔어, 이튿날 그 애 아빠가 돌아왔거든.

"우리가 첫날 저녁처럼 즐겁고 희망에 차 있었던 건 아마 세 번쯤이고, 나머지 방문은 어떤 때는 그 애의 이기심과 심술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애가 아파서 쓸쓸하고 괴로웠어. 그래도 나는 그 애가 아픈 걸 견디는 것만큼이나 그 애의 이기심과 심술도 거의 원망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웠어. 히스클리프 씨는 일부러 나를 피해서, 나는 그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는 내가 여느 때보다 일찍 갔더니, 그 사람이 가엾은 린턴을 전날 밤에 한 짓 때문에 잔인하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 엿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 린턴이 약올리게 군 건 틀림없어. 그래도 그건 나 말고는 아무도 상관할 일이 아니어서, 나는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고 히스클리프 씨의 훈계를 가로막았어. 그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본다니 기쁘다고 하면서 가 버렸어. 그 뒤로 나는 린턴한테 쓰라린 말은

속삭여서 하라고 일렀어. 자, 엘렌, 이제 다 들었지. 내가 워더링 하이츠에 가는 걸 막으려면 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 엘렌이 아빠한테만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건 아무의 평화도 흐트러뜨리지 않아. 말하지 않을 거지? 말하면 정말 매정한 거야."

"그 일은 내일까지 마음을 정할게요, 캐시 아가씨." 내가 대답했다. "좀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그러니 아가씨는 쉬게 두고 나는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나는 아가씨 방에서 곧장 주인 방으로 가서, 아가씨가 사촌과 나눈 이야기와 헤어턴에 관한 말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으로 그 일을 주인 앞에서 소리 내어 생각해 보았다. 린턴 씨는 나에게 내색하는 것보다 더 놀라고 괴로워했다. 아침에 캐시는 내가 자기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알았고, 몰래 다니던 나들이도 끝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 아가씨는 그 금지에 맞서 울고 몸부림치며 린턴을 가엾게 여겨 달라고 아버지에게 애원했지만 다 헛일이었고, 아가씨가 위안으로 얻은 것은, 아버지가 린턴에게 편지를 써서 언제든 오고 싶을 때 그레인지에 와도 좋다고 허락하겠다는 약속뿐이었다. 다만 앞으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캐시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일러 두겠다고 했다. 아마 주인이 조카의 성품과 건강 상태를 알았더라면 그 작은 위안마저 거두어들이는 게 옳다고 여겼을 것이다.

제25장

"이게 다 지난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리." 딘 부인이 말했다. "한 해 남짓밖에 안 됐지요. 지난겨울만 해도, 열두 달이 또 지나면 내가 이 집안과 아무 상관도 없는 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 드리며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도 나리가 언제까지 남으로 남아 계실지 누가 알겠어요? 나리는 늘 혼자 살면서 만족하기에는 너무 젊으세요. 그리고 나는 어쩐지 캐서린 린턴, 우리 캐시를 보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으시네요. 그런데 내가 아가씨 이야기를 할 때면 왜 그렇게 생기가 돌고 관심이 많아 보이세요? 그리고 왜 나리 방 벽난로 위에 아가씨 초상화를 걸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만하시오, 딘 부인!" 내가 소리쳤다. "*내*가 그 부인을 사랑하게 될 수도 충분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 부인이 나를 사랑하겠소? 나는 그게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유혹에 뛰어들어 내 마음의 평온을 걸 생각은 없소. 게다가 내 집은 여기가 아니오. 나는 분주한 세상의 사람이고,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하오.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오. 캐시는 아버지의 분부를 따랐소?"

"따랐어요." 가정부는 말을 이었다. "아가씨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정이 여전히 으뜸이었고,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말했다. 위험과 원수들 틈에 제 보물을 남겨 두고 떠나려는 사람이, 기억에 남을 자기 말만이 딸을 이끌어 줄 유일한 도움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는 깊은 다정함으로 말했다. 며칠 뒤 주인은 나에게 말했다. '조카가 편지를 쓰거나 찾아와 주면 좋겠소, 엘렌.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오? 더 나아졌소? 아니면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나아질 가망이 있소?'

'"아주 허약해요, 나리.' 내가 대답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도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애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시 아가씨가 불행히도 그 애와 결혼하게 된다 해도, 아가씨가 지나치게 어리석게 받아 주지만 않는다면 그 애가 아가씨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나리, 그 애를 알아 가면서 아가씨에게 맞을지 보실 시간은 넉넉해요. 그 애가 성년이 되려면 아직 네 해도 더 남았으니까요.'"

에드거는 한숨을 쉬더니 창가로 걸어가 기머턴 교회 쪽을 내다보았다. 안개 낀 오후였지만 이월의 해가 흐릿하게 비쳐서, 교회 마당의 전나무 두 그루와 드문드문 흩어진 묘비들이 겨우 보였다.

"나는 다가오는 그것이 어서 오기를 몇 번이고 기도했소." 주인은 반쯤 혼잣말하듯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두려워 움츠러들기 시작하는구려. 신랑이 되어 저 골짜기를 내려오던 그 시간의 기억은, 머지않아, 몇 달 뒤에, 어쩌면 몇 주 뒤에 저 위로 실려 올라가 그 외로운 구덩이에 눕게 될 거라는 기대보다 덜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소! 엘렌, 나는 우리 꼬마 캐시와 함께 지내며 무척 행복했소. 겨울밤에도 여름 낮에도 그 애는 내 곁에서 살아 있는 희망이었소. 하지만 저 오래된 교회 아래 묘비들 사이에서 혼자 생각에 잠길 때도 그만큼 행복했소. 긴 유월 저녁 내내 그 애 어머니 무덤의 푸른 봉분 위에 누워, 그 밑에 눕게 될 날을 바라고 또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내가 캐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어떻게 그 애를 두고 떠나야 하오? 린턴이 히스클리프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 아이가 캐시를 나한테서 데려간다는 것도, 그

아이가 나를 잃은 캐시를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겠소. 히스클리프가 제 뜻을 이루고 내 마지막 축복을 빼앗았다고 승리에 젖는대도 개의치 않겠소! 하지만 린턴이 보잘것없는 아이라면, 제 아비의 나약한 도구일 뿐이라면, 나는 그 애를 그 아이에게 내맡길 수 없소! 그리고 그 애의 들뜬 기운을 꺾는 것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나는 살아 있는 동안 그 애를 슬프게 하고 죽을 때는 그 애를 외롭게 남겨 둘 수밖에 없소. 우리 아가! 차라리 그 애를 하느님께 맡기고 나보다 먼저 땅에 누이는 게 낫겠소."

"지금 그대로 아가씨를 하느님께 맡기세요, 나리."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혹시 나리를 잃게 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런 일은 막아 주시기를 빌지만, 하느님의 뜻 아래 내가 끝까지 아가씨의 벗이 되고 의논 상대가 되어 드릴게요. 캐시 아가씨는 착한 아가씨예요. 아가씨가 일부러 그릇된 길로 갈까 봐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늘 보답을 받는 법이에요."

봄이 깊어 갔다. 그러나 주인은 딸과 함께 다시 영지를 거닐기 시작했는데도 정말로 기운을 되찾지는 못했다. 아가씨의 서투른 생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병이 나아 가는 표시였고, 게다가 주인은 뺨이 곧잘 붉어지고 눈이 반짝였으므로 아가씨는 아버지가 나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아가씨의 열일곱 번째 생일에 주인은 교회 묘지에 가지 않았다. 비가 오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엔 설마 나가지 않으시겠지요, 나리?"

주인은 대답했다. "그래, 올해는 조금 더 미뤄 두겠소."

주인은 다시 린턴에게 편지를 써서 몹시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병자가 남 앞에 내놓을 만한 몰골이었다면 아버지가 오는 것을 허락했을 거라는 데 나는 의심이 없다. 그러나 형편이 그러했으므로, 린턴은 시키는 대로 답장을 보냈다. 히스클리프 씨가 자기가 그레인지에

찾아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넌지시 알리면서도, 외삼촌이 다정하게 기억해 주어 무척 기쁘다고 했고, 이따금 산책길에서 외삼촌을 만나 사촌과 자기가 이렇게 아주 갈라진 채 오래 지내지 않게 해 달라고 몸소 청하고 싶다고 했다.

편지의 그 대목은 꾸밈이 없었고, 아마 그 애가 직접 쓴 것이었을 것이다. 히스클리프는 그 애가 캐시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그럴듯하게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캐시가 여기 와 달라고 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애는 이렇게 썼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캐시의 집에 가는 걸 막고 외삼촌은 캐시가 제 집에 오는 걸 막으시니, 저는 영영 캐시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이따금 캐시와 함께 하이츠 쪽으로 말을 타고 나와 주세요. 그리고 외삼촌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몇 마디 나눌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야 할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외삼촌도 저한테 화가 나신 게 아니잖아요. 외삼촌께서도 저를 싫어하실 까닭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외삼촌! 내일 다정한 쪽지 한 장 보내 주시고,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만 아니라면 어디든 외삼촌이 좋으신 곳에서 만나 뵙게 허락해 주세요. 만나 보시면 제 아버지의 성품이 제 성품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 외삼촌의 조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캐시에게 어울리지 않는 흠이 있지만 캐시는 그걸 용서해 주었으니, 캐시를 생각해서 외삼촌도 용서해 주셔야 해요. 제 건강을 물으셨지요. 좋아졌어요. 하지만 모든 희망에서 끊겨 외롭게 지내거나, 저를 좋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하고만 지내야 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제가 명랑하고 건강할 수 있겠어요?"

에드거는 그 아이가 가엾었지만, 자기가 캐시와 함께 갈 수 없었으므로 그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주인은 여름이 되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동안은 이따금 편지를 계속 보내 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집안에서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지 잘 알았으므로 편지로나마 할 수 있는 한 충고하고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린턴은 그대로 따랐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면 그 애는 아마 편지를 불평과 한탄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것을 망쳐 놓았겠지만, 아버지가 그 애를 날카롭게 지켜보았고, 물론 우리 주인이 보내는 편지는 한 줄도 빠짐없이 보여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애는 머릿속에서 늘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제 괴로움과 근심을 늘어놓는 대신, 벗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잔인한 처지를 되풀이해 하소연했고, 린턴 씨가 곧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일부러 빈 약속으로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넌지시 내비쳤다.

캐시는 집 안에서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주인을 설득해서, 내가 따라가고 그레인지에서 가장 가까운 황야에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쯤 함께 말을 타거나 거닐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냈다. 유월이 되어도 주인은 여전히 기울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해마다 수입의 일부를 우리 아가씨 몫으로 떼어 두었지만, 딸이 조상의 집을 지키거나 적어도 머지않아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상속자와 맺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주인은 그 상속자가 자기 못지않게 빠르게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이츠에는 의사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히스클리프 도련님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그 애의 상태를 전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로서는, 그 애가 황야에서 말을 타고 거닐자는 말을 꺼내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토록 열심인 것을 보고, 내 불길한 예감이 틀렸으며 그 애가 정말로 기운을 되찾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히스클리프는 그 애에게 그렇게 겉으로나마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

애를 포악하고 사악하게 다루었는데, 나는 어떤 아버지가 죽어 가는 자식을 그렇게 다룰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탐욕스럽고 무정한 그의 계획이 죽음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다가올수록 그의 수고는 곱절로 늘어났다.

제26장

여름이 이미 한고비를 넘겼을 무렵에야 에드거는 두 사람의 간청에 마지못해 동의했고, 캐시와 나는 사촌을 만나려고 처음으로 말을 타고 나들이에 나섰다. 후텁지근하고 무더운 날이었는데, 햇빛은 없었지만 하늘이 얼룩덜룩하고 뿌옇게 흐려서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고,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자리는 네거리의 길잡이 돌이었다. 그러나 거기 이르자 심부름꾼으로 보내진 꼬마 목동 하나가 이렇게 전했다. "린턴 도련님은 하이츠 바로 이쪽에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와 주시면 정말 고맙겠대요."

"그럼 린턴 도련님은 외삼촌의 첫째 당부를 잊어버렸네요." 내가 말했다. "나리는 우리더러 그레인지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번에 벗어나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 애한테 가면 말머리를 돌리면 되지." 내 길동무가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은 집 쪽으로 가면 돼."

그러나 그 애에게 가 보니, 그것도 그 애 집 문간에서 4분의 1마일도 채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 애는 말이 없어서 우리도 말에서 내려 말들을 풀을 뜯게 놓아두어야 했다. 그 애는 히스 위에 누워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몇 걸음 앞까지 다가가서야 일어났다. 그런데 걸음이 어찌나 힘이 없고 얼굴은 어찌나 창백한지, 나는 대번에 소리쳤다. "아니, 히스클리프 도련님, 오늘 아침엔 산책을 즐길 몸이 아니네요. 얼굴이 정말 안 좋아요!"

캐시는 슬프고 놀라서 그 애를 훑어보았고, 입술에 맺혔던 기쁨의 외침은 놀람의 외침으로 바뀌었고, 오래 미뤄 온 만남을 반기려던 인사는 여느 때보다 더 아프냐고 걱정스럽게 묻는 말로 바뀌었다.

"아니, 나아졌어, 나아졌다고!" 그 애는 떨면서 숨을 헐떡였고, 기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캐시의 손을 붙잡은 채 커다란 파란 눈으로 머뭇머뭇 캐시를 훑어보았는데, 눈 언저리가 움푹 꺼져서 한때 나른하던 그 눈빛은 초췌하고 거친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더 아팠던 거야." 사촌이 우겼다.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더 여위었고, 그리고……"

"피곤해서 그래." 그 애가 서둘러 말을 끊었다. "걷기엔 너무 더우니까 여기서 쉬자. 그리고 아침엔 자주 속이 메스꺼워. 아빠는 내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그렇대."

캐시는 마음이 놓이지 않은 채 앉았고, 그 애는 그 곁에 기대 누웠다.

"여기 좀 네 천국 같다." 캐시가 애써 명랑하게 말했다. "우리가 저마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틀을 보내 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 여기는 구름이 있는 것만 빼면 거의 네 천국인데, 그래도 구름이 이렇게 부드럽고 그윽하니 햇볕보다 더 좋아.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면 그레인지 영지로 말을 타고 내려가서 내 천국을 해 보자."

린턴은 캐시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어떤 이야기든 이어 가는 데 몹시 애를 먹는 게 분명했다. 캐시가 꺼내는 이야깃거리에 그 애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캐시를 즐겁게 해 줄 힘도 그만큼 없다는 게 너무나 뚜렷해서, 캐시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애의 온몸과 태도에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와 있었다. 쓰다듬어 주면 다정함으로 바뀔 수도 있던 그 짜증은 무기력한 무관심에 자리를 내주었고, 달래 주기를 바라고 일부러

칭얼대고 보채는 아이의 심술은 줄어들고, 위로를 물리치고 남들이 기분 좋게 웃는 것을 모욕으로 여길 채비가 된, 굳어 버린 병자의 제 안에 갇힌 뚱함이 늘어 있었다. 캐시도 나처럼, 그 애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움이라기보다 벌로 여기며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이내 서슴없이 그만 가자고 했다. 뜻밖에도 그 말이 린턴을 무기력에서 깨워 이상하게 들뜬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 애는 겁먹은 눈으로 하이츠 쪽을 흘끗 보더니, 적어도 30분만 더 있어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캐시가 말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너한테 더 편할 거야. 그리고 보아하니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재잘거려도 너를 즐겁게 해 줄 수 없겠어, 너는 이 여섯 달 동안 나보다 더 어른스러워져서 이제 내 놀이에는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즐겁게 해 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있을 텐데."

"쉬었다 가." 그 애가 대답했다. "그리고 캐시, 내가 *몹시* 아프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 내가 맥이 없는 건 날씨가 무겁고 더워서고, 네가 오기 전에 나로서는 꽤 많이 걸어 다녔거든. 외삼촌한테 나는 그럭저럭 건강하다고 전해 줘, 응?"

"*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할게, 린턴. 네가 건강하다고 내가 장담할 수는 없어." 우리 아가씨는 그 애가 뻔히 거짓말인 것을 끈질기게 우기는 데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그리고 다음 목요일에 또 여기 와." 그 애는 캐시의 어리둥절한 눈길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를 오게 해 주셔서 고맙다고 외삼촌한테 전해 줘. 정말 고맙다고, 캐시. 그리고, 그리고 혹시 네가 *정말로* 우리 아빠를 만나서 아빠가 내 얘기를 묻거든, 내가 몹시 말이

없고 멍청하게 굴었다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지금 *그러는* 것처럼 슬프고 풀 죽은 얼굴을 하지 마, 아빠가 화낼 거야."

"그 사람이 화내는 건 하나도 상관없어." 캐시는 그 화가 자기에게 향할 거라고 여기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상관있어." 사촌이 몸서리치며 말했다. "아빠가 나한테 화나게 *하지 마*, 캐시. 아빠는 아주 모질어."

"아버지가 도련님한테 엄하게 하세요, 히스클리프 도련님?" 내가 물었다. "오냐오냐하는 게 지겨워져서, 가만히 미워하던 걸 이제는 드러내 놓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린턴은 나를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캐시는 그 애 곁에 10분을 더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그 애는 졸린 듯 고개를 가슴에 떨구고 지치거나 아파서 억누른 신음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그러자 캐시는 월귤 열매를 찾으며 위안을 삼기 시작해서 찾아낸 것을 나와 나누어 먹었다. 그 애에게는 권하지 않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어 봐야 그 애를 지치고 성가시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30분 됐어, 엘렌?" 마침내 아가씨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 애는 잠들었고, 아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거야."

"그래도 잠든 채로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깰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떠날 때는 그렇게 서두르더니, 가엾은 린턴을 보고 싶던 마음이 금세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 애*는 왜 나를 보고 싶어 했을까?" 캐시가 맞받았다. "전에 그 애가 아무리 심통을 부릴 때도 지금처럼 이상한 기분일 때보다는 더 좋았어. 이 만남이 꼭 아버지한테 꾸중 들을까 봐 억지로 해치워야 하는 숙제 같아. 하지만 히스클리프 씨가 무슨 까닭으로 린턴한테 이런 고행을 시키든, 나는 그 사람을 즐겁게 해 주려고 올 생각은 없어. 그리고 그 애

건강이 나아진 건 기쁘지만, 그 애가 이렇게 훨씬 덜 상냥하고 나한테 훨씬 덜 다정해진 건 서운해."

"그럼 아가씨는 그 애가 건강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응." 아가씨가 대답했다. "알다시피 그 애는 아픈 걸 늘 엄청 부풀려서 말했잖아. 아빠한테 전하라고 한 것처럼 그럭저럭 건강한 건 아니지만, 아마 나아지기는 했을 거야."

"거기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캐시 아가씨." 내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때 린턴이 어리둥절해하며 겁에 질려 잠에서 깨더니, 누가 자기 이름을 불렀느냐고 물었다.

"아니." 캐시가 말했다. "꿈속에서라면 몰라도. 아침에 바깥에서 어떻게 그렇게 졸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빠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 그 애는 우리 머리 위로 험상궂게 솟은 언덕 머리를 올려다보며 헐떡였다. "정말 아무도 말 안 했어?"

"정말이야." 사촌이 대답했다. "엘렌하고 나하고 네 건강을 두고 말다툼했을 뿐이야. 린턴, 너 정말 겨울에 헤어졌을 때보다 튼튼해졌어? 그렇다면 한 가지만은 튼튼해지지 않은 게 틀림없어. 나를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말해 봐, 튼튼해졌어?"

"응, 응, 튼튼해졌어!" 린턴은 대답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여전히 상상 속 목소리에 홀린 채,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고 눈길을 이리저리 헤매었다.

캐시가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겠어." 아가씨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 몹시 실망했다는 걸 숨기지 않을게, 너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지만. 히스클리프 씨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야."

"쉿." 린턴이 중얼거렸다. "제발, 쉿! 아빠가 오고 있어." 그러고는 캐시를 붙잡아 두려고 팔에 매달렸지만, 그 말을 듣자 캐시는 서둘러 팔을 빼내고 미니에게 휘파람을 불었고, 미니는 개처럼 그 소리에 따랐다.

"다음 목요일에 올게." 캐시는 안장에 훌쩍 올라타며 소리쳤다. "잘 있어. 빨리, 엘렌!"

그렇게 우리는 그 애를 두고 떠났는데, 그 애는 아버지가 다가올 것만 생각하느라 온통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떠나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집에 닿기도 전에 캐시의 언짢은 마음은 누그러져서,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이 뒤섞인 어리둥절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린턴의 몸 상태와 그 애가 그 집에서 놓인 처지가 실제로 어떤지 막연하고 불안한 의심이 잔뜩 섞여 들었는데, 나도 그 의심을 함께 품었지만 두 번째로 가 보면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테니 아가씨에게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일렀다. 주인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다 왔는지 들려 달라고 했다. 조카가 고맙다고 한 말은 빠짐없이 전해졌고 캐시 아가씨는 나머지는 살짝 건드리기만 했으며, 나도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 잘 몰랐으므로 주인이 묻는 말에 별로 밝혀 드리지 못했다.

제27장

이레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하루가 갈 때마다 에드거 린턴의 상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기울었다. 앞서 몇 달에 걸쳐 일어난 허물어짐이 이제는 몇 시간 사이에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우리는 캐시를 될 수 있는 한 오래 속여 두고 싶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아가씨의 마음이 스스로 속기를 마다했다. 아가씨는 남몰래 짐작했고 그 끔찍한 가능성을 곱씹었으며, 그 가능성은 차츰 확신으로 무르익어 갔다. 목요일이 돌아왔을 때 아가씨는 말을 타고 나갈 일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다. 내가 대신 그 이야기를 꺼내 아가씨를 바깥에 내보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냈다. 아버지가 날마다 잠깐씩, 그러니까 앉아 버틸 수 있는 그 짧은 동안만 머무는 서재와 아버지의 침실이 아가씨의 온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아가씨는 아버지의 베개 위로 몸을 숙이고 있거나 곁에 앉아 있지 못하는 순간이면 1분 1초를 아까워했다. 밤을 새우고 슬퍼하느라 얼굴이 해쓱해졌다. 주인은 그 나들이가 즐겁게 바람을 쐬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스스로 믿으며 기꺼이 딸을 내보냈고, 이제 자기가 죽더라도 딸이 아주 혼자 남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에서 위안을 얻었다.

주인이 이따금 흘리는 말 몇 마디로 미루어 보건대, 주인은 조카가 생김새가 자기를 닮았으니 마음씨도 자기를 닮았을 거라고 굳게 믿는 듯했는데, 린턴의 편지에는 그 애의 모자란 성품이 거의, 아니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을 만한 마음

약함에서 그 잘못 생각을 바로잡지 않았고, 이제 와서 손쓸 힘도 기회도 없는 소식을 들려주어 마지막 시간을 어지럽혀 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스스로 물었다.

우리는 나들이를 오후로 미루었는데, 팔월의 금빛 오후였고,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한 줄기가 생기로 가득해서, 그 바람을 들이마시는 사람이면 죽어 가는 사람이라도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았다. 캐시의 얼굴은 꼭 그 풍경 같아서 그늘과 햇살이 번갈아 빠르게 스쳐 갔지만, 그늘은 오래 머물렀고 햇살은 금세 사라졌으며, 가엾은 그 작은 가슴은 잠깐이나마 근심을 잊었다는 것조차 스스로 나무랐다.

린턴은 지난번에 골라 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아가씨는 말에서 내리더니, 아주 잠깐만 있다 갈 작정이니 나는 조랑말을 붙잡고 말 위에 그대로 있는 게 낫겠다고 했지만, 나는 내게 맡겨진 아가씨를 한순간이라도 눈 밖에 두는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서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히스 비탈을 올라갔다. 히스클리프 도련님은 이번에는 더 들뜬 기색으로 우리를 맞았는데, 기운이 나서 들뜬 것도 아니고 기뻐서 들뜬 것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오히려 겁에 질린 쪽에 가까워 보였다.

"늦었네!" 린턴은 짧게, 힘겹게 말했다. "외삼촌이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야? 안 올 줄 알았어."

"*왜* 솔직하게 말을 못 해?" 캐시가 인사말을 삼키고 소리쳤다. "내가 오는 게 싫다고 왜 대놓고 말을 못 하냐고? 이상하잖아, 린턴, 두 번이나 일부러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 놓고는 보아하니 우리 둘 다 괴롭히는 것 말고는 아무 까닭도 없잖아!"

린턴은 몸을 떨며 반은 애원하고 반은 부끄러워하는 눈으로 캐시를 흘끗 보았지만, 그 사촌은 이 알 수 없는 행동을 참아 줄 만큼 참을성이 많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정말 *많이* 편찮으셔." 캐시가 말했다. "그런데 왜 나를 아빠 머리맡에서 불러내는 거야? 내가 약속을 안 지켰으면 싶었으면 약속은 없던 일로 하자고 왜 기별을 안 했어? 자! 설명해 봐. 장난이고 놀이고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싹 지워졌으니까, 이제는 네 꾸민 짓에 비위를 맞춰 줄 수가 없어!"

"내가 꾸민 짓이라니!" 린턴이 중얼거렸다. "그게 뭔데? 제발, 캐시, 그렇게 화난 얼굴 하지 마! 얼마든지 나를 경멸해, 나는 쓸모없고 비겁한 못난이라서 아무리 업신여김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네가 화를 낼 가치도 없는 하찮은 놈이야.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고, 나는 경멸만 하고 봐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캐시가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녀석! 저것 봐! 내가 정말로 손이라도 댈 것처럼 벌벌 떨잖아! 경멸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어, 린턴, 누구라도 저절로 너를 경멸해 줄 테니까. 저리 가! 난 집에 갈 거야. 너를 난롯가에서 끌어내고 무슨 시늉을…… 우리가 무슨 시늉을 하는 거지? 내 치마 놔! 네가 울고 그렇게 겁에 질린 꼴을 하는 게 딱해서 내가 동정을 한다 해도 너는 그런 동정은 걷어차 버려야 해. 엘렌, 이런 짓이 얼마나 창피한 건지 얘한테 말해 줘. 일어나, 비천한 버러지처럼 굴지 마. 그러지 *마*!"

린턴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고 괴로움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기운 없는 몸뚱이를 땅바닥에 내던져 놓고 있었는데, 극심한 공포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아!" 린턴이 흐느꼈다. "못 견디겠어! 캐시, 캐시, 나는 배신자이기도 한데 감히 너한테 말을 못 하겠어! 그래도 네가 나를 두고 가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사랑하는* 캐시, 내 목숨이 네 손에 달렸어,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렇다면 너한테 해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안 갈 거지? 친절하고 착하고 다정한 캐시! 그리고

어쩌면 네가 승낙해 *줄지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너랑 같이 죽게 해 줄 거야!"

우리 아가씨는 그 애가 몹시 괴로워하는 꼴을 보고는 일으켜 주려고 허리를 굽혔다. 너그럽게 감싸 주던 예전의 다정한 마음이 짜증을 이겨 내자, 아가씨는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덜컥 겁이 났다.

"뭘 승낙해?" 아가씨가 물었다. "여기 있는 거? 이 이상한 말이 무슨 뜻인지 말해 주면 있을게. 너는 네가 한 말을 네가 뒤집어서 나를 미치게 해! 침착하게, 솔직하게, 마음을 짓누르는 걸 당장 다 털어놔. 넌 나를 해치지 않을 거지, 린턴, 그렇지?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떤 원수도 나를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지? 너 자신을 위해서라면 겁쟁이라고 믿어 줄 수 있지만,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는 겁쟁이라고는 믿지 않을래."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협박했어." 소년은 바싹 여윈 손가락을 맞잡으며 숨을 헐떡였다. "난 아버지가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감히* 말을 못 하겠어!"

"아, 그래!" 캐시가 경멸 섞인 동정을 담아 말했다. "네 비밀은 너나 지켜, *나*는 겁쟁이가 아니니까. 너나 몸 사려. 나는 무섭지 않아!"

캐시가 이렇게 너그럽게 나오자 그 애는 도리어 울음이 터져서, 자기를 붙들어 주는 캐시의 손에 입을 맞추며 미친 듯이 울었지만 털어놓을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다. 나는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곰곰이 따져 보면서, 내가 막을 수 있는 한 캐시가 그 애에게든 다른 누구에게든 득이 되자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때 히스 덤불 사이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어 보니 히스클리프 씨가 하이츠에서 내려와 거의 우리 코앞에 와 있었다. 린턴의 흐느낌이 들릴 만큼 가까이 있었는데도 히스클리프 씨는 내 일행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대신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않는 거의

정다운 말투로 나를 불렀는데, 나는 그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 집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를 보다니 반가운 일이로군, 넬리. 그레인지는 어떻게 지내? 어디 들어 보자. 소문에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에드거 린턴이 임종 자리에 누웠다던데, 다들 병을 부풀려 말하는 건가?"

"아니요, 주인 나리는 돌아가시는 중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그분께는 복이지요!"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그의 눈길 아래 붙박여 있었는데, 린턴은 감히 몸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들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았고 캐시는 그 애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걸 묻는 건, 저기 저 녀석이 기어이 나를 이겨 먹을 작정인 것 같으니 외삼촌이 서둘러서 저 녀석보다 먼저 가 주면 고맙겠기 때문이야! 이봐! 저 강아지 새끼가 저 짓을 오래 했나? 질질 짜는 버릇에 대해서는 내가 따끔하게 가르쳤는데 *말이야*. 저 녀석이 린턴 아가씨하고 있을 때 대개 꽤 생기가 있어?"

"생기요? 아니요, 몹시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엔 언덕에서 애인하고 거닐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안에 그렇게 될 거야." 히스클리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나, 린턴! 일어나!" 그가 고함쳤다. "거기 땅바닥에서 기지 말고 일어나, 당장!"

린턴은 또다시 어찌할 수 없는 공포의 발작에 휩싸여 땅에 엎어져 있었는데, 아마 아버지가 자기 쪽을 쳐다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 애를 그토록 비굴하게 만들 것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린턴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지만 얼마 안 되는 기운이 그 순간 싹 꺼져 버려서 신음을 내며 도로 쓰러졌고, 히스클리프 씨가 다가가 그 애를 들어 올려 뗏장 둔덕에 기대 앉혔다.

"자." 그는 사나운 기운을 억누르며 말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기 시작했으니 네가 그 못난 기를 다잡지 못하면…… *빌어먹을* 녀석! 당장 일어나!"

"일어날게요, 아버지." 린턴이 헐떡였다. "그냥 가만 놔두세요, 안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시키신 대로 했어요. 캐시가 말해 줄 거예요, 제가…… 제가…… 즐겁게 지냈다고요. 아! 내 곁에 있어 줘, 캐시, 손 좀 줘."

"내 손을 잡아." 아버지가 말했다. "제 발로 서. 그래, 이제 됐다, 이 아가씨가 팔을 빌려줄 거다. 그렇지, *이 아가씨*를 보라고. 린턴 아가씨, 저 녀석이 저렇게 질겁하는 걸 보면 내가 악마인 줄 알겠군. 미안하지만 저 녀석하고 같이 집까지 걸어가 주겠어? 내가 손을 대면 저 녀석은 벌벌 떨거든."

"린턴, 얘." 캐시가 속삭였다. "나는 워더링 하이츠에 못 가.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셨어. 저분은 너를 해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

"나는 다시는 그 집에 못 들어가." 린턴이 대답했다. "너 없이는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만!" 그 아버지가 소리쳤다. "캐시가 딸로서 지키려는 도리는 존중해 주지. 넬리, 네가 이 녀석을 데리고 들어가. 의사 문제는 네 말대로 당장 하마."

"그러시면 잘하시는 거지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 곁에 있어야 해요. 아드님을 돌보는 건 제 일이 아니에요."

"고집 한번 세군, 그건 나도 알아."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네 자비심을 움직이려고 내가 아기를 꼬집어서 울리기라도 해야겠어. 자, 그럼 우리 영웅, 내가 데려다주면 돌아갈 생각이 있나?"

그는 다시 한번 다가가 그 연약한 것을 낚아챌 듯한 시늉을 했지만, 린턴은 움츠러들며 사촌에게 매달려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졸라 대며 같이 가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못마땅했지만 아가씨를 말릴 수 없었는데, 사실 아가씨 자신인들 어떻게 그 애를 뿌리칠 수 있었겠는가? 무엇이 그 애를 그토록 공포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아낼 길이 없었지만, 그 애는 그 공포의 손아귀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었고, 무엇이든 하나만 더 보태지면 충격으로 넋이 나가 버릴 것만 같았다. 우리는 문간에 이르렀다. 캐시가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아가씨가 병자를 의자에 앉혀 주고 곧장 나올 줄 알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히스클리프 씨가 나를 앞으로 떠밀며 외쳤다. "우리 집에 역병이 든 건 아니야, 넬리. 그리고 오늘은 손님 대접을 좀 하고 싶은 기분이니까 앉아, 문은 내가 닫을 테니."

그는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채웠다. 나는 흠칫 놀랐다.

"집에 가기 전에 차를 들고 가." 그가 덧붙였다. "나 혼자뿐이야. 헤어턴은 소 몇 마리를 끌고 리스에 갔고 질라와 조지프는 놀러 나갔으니, 나는 혼자 있는 데 익숙하지만 될 수만 있다면 재미있는 말동무가 있는 편이 낫지. 린턴 아가씨, *저 녀석* 곁에 앉아.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야, 받을 만한 선물은 못 되지만 그것 말고는 줄 게 없거든. 린턴 말이야. 저렇게 노려보는 것 좀 봐! 나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면 어째서 이렇게 잔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 법이 덜 엄하고

사람들 입맛이 덜 까다로운 데서 태어났더라면 저녁 심심풀이로 저 두 녀석을 산 채로 천천히 해부하는 재미를 누렸을 텐데."

그는 숨을 들이켜고 탁자를 내리치더니 혼자 욕을 내뱉었다. "제기랄! 저것들이 미워."

"나는 당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뒷말을 듣지 못한 캐시가 소리쳤다. 아가씨는 바싹 다가섰고, 그 검은 눈이 분노와 결심으로 번득였다. "그 열쇠 이리 줘요, 내가 가져야겠어요!" 아가씨가 말했다. "굶어 죽게 되더라도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실 거예요."

히스클리프는 탁자 위에 얹어 둔 손에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는데, 아가씨의 대담함에 어쩐지 놀란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그 목소리와 눈빛을 보고 아가씨가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을 떠올린 것 같기도 했다. 아가씨는 열쇠를 낚아채 느슨해진 손가락에서 반쯤은 빼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 몸짓이 그를 현재로 불러들여서 그는 재빨리 열쇠를 되찾았다.

"자, 캐서린 린턴." 그가 말했다. "물러서, 안 그러면 때려눕힐 거야. 그러면 딘 부인이 미쳐 날뛰겠지."

캐시는 이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쇠를 쥔 그 주먹을 다시 붙잡았다. "우리는 *기어이* 갈 거예요!" 아가씨는 그 강철 같은 근육을 풀어 보려고 온 힘을 다하면서 되풀이했고, 손톱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자 이빨로 꽤 세게 물어뜯었다. 히스클리프가 나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 나는 잠깐 끼어들지 못했다. 캐시는 그의 손가락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손가락을 펴서 다툼거리를 내주었지만, 아가씨가 그것을 미처 제대로 쥐기도 전에 풀려난 손으로 아가씨를 붙잡아 무릎 위로 끌어당기고는 다른 손으로 아가씨의 머리 양쪽을 무섭게 연달아 후려쳤는데, 아가씨가

쓰러질 수만 있었다면 한 대 한 대가 다 그의 위협을 이루어 주고도 남았을 만큼 세찼다.

이 악마 같은 폭력을 보고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 악당!" 나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악당아!" 가슴을 한 번 툭 건드리자 나는 말문이 막혔는데, 나는 몸이 뚱뚱해서 금세 숨이 차는 데다 그 때문에, 또 분해서 비틀비틀 어지럽게 뒷걸음질 쳤고, 숨이 막히거나 핏줄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 일은 2분 만에 끝났고, 풀려난 캐시는 두 손을 관자놀이에 대고 귀가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가엾게도 아가씨는 갈대처럼 떨면서 넋이 나간 채로 탁자에 기대섰다.

"보다시피 나는 아이들 혼내는 법을 알지." 그 악당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다시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며 험악하게 말했다.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린턴한테 가서 실컷 울어! 내일이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거고 며칠 뒤면 너한테 남을 아버지는 나 하나뿐일 텐데, 그러면 이런 걸 실컷 맛보게 될 거다. 너는 약골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테고, 네 눈에 또 그런 악마 같은 성깔이 보이기만 하면 날마다 맛보게 해 주마!"

캐시는 린턴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고 화끈거리는 뺨을 내 무릎에 묻으며 소리 내어 울었다. 그 사촌은 긴 의자 한구석에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는데, 장담하건대 그 벌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 것을 속으로 다행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는 우리가 모두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손수 날래게 차를 끓였다. 찻잔과 받침은 미리 차려져 있었고, 그는 차를 따라 나에게 한 잔을 건넸다.

"그 성질 좀 씻어 내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네 버릇없는 귀염둥이하고 내 귀염둥이한테도 따라 줘. 내가 끓이긴 했지만 독은 안 탔어. 나는 너희 말을 찾으러 나갔다 오겠다."

그가 나가자 우리는 맨 먼저 어디로든 억지로라도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했다. 부엌문을 열어 보았지만 바깥에서 잠겨 있었고, 창을 살펴보았지만 캐시의 작은 몸집으로도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좁았다.

"린턴 도련님." 우리가 영락없이 갇혔다는 것을 알고 나는 소리쳤다. "도련님은 그 악마 같은 아버지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고 있으니 우리한테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촌한테 한 것처럼 나도 도련님 따귀를 때릴 거예요."

"그래, 린턴, 말해야 해." 캐시가 말했다. "내가 온 건 너 때문이었는데 네가 말을 안 하겠다면 그건 지독한 배은망덕이야."

"차 좀 줘, 목말라, 그러면 말해 줄게." 린턴이 대답했다. "딘 부인은 저리 가요. 내 앞에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 싫어요. 아이, 캐시, 너 내 잔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잖아. 그건 안 마실래, 다른 거 줘."

캐시는 다른 잔을 밀어 주고 얼굴을 훔쳤다. 그 못난 녀석이 이제 자기 몸이 겁날 일은 없어졌다고 태연해진 꼴을 보니 나는 구역질이 났다. 황야에서 보이던 괴로움은 그 애가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서자마자 가라앉았으므로, 나는 그 애가 우리를 거기까지 꾀어 오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벌을 받을 거라는 위협을 받았고 그 일을 해내고 나자 당장은 더 겁날 것이 없어졌다고 짐작했다.

"아빠는 우리가 결혼하기를 바라." 린턴은 차를 몇 모금 홀짝인 뒤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 아빠가 지금은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기다리다가는 내가 죽을까 봐 겁을 내니까, 우리는 아침에 결혼하고 너는 밤새 여기 있어야 하는데, 네가 아빠 뜻대로 하면 이튿날 집에 돌아가도 되고 나를 데리고 가도 돼."

"아가씨가 도련님을 데리고 간다고요, 이 딱한 허깨비 같으니!" 내가 외쳤다. "*도련님*이 결혼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미쳤군요! 아니면 우리를 하나같이 바보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쁜 아가씨가, 그

튼튼하고 씩씩한 아가씨가 도련님처럼 시들어 가는 작은 원숭이한테 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캐시 아가씨는 고사하고 *누구든* 도련님을 남편으로 삼으려 할 거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비열하고 칭얼대는 술수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매를 맞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보 같은 얼굴은 하지 말아요! 그 비열한 배신하고 얼빠진 자만심 때문에라도 호되게 흔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나는 정말로 그 애를 살짝 흔들었는데, 그 바람에 기침이 터지자 그 애는 늘 써먹던 수단대로 앓는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고, 캐시는 나를 나무랐다.

"밤새 있으라고? 싫어." 캐시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엘렌, 저 문을 불태워서라도 나는 나갈 거야."

그리고 아가씨는 당장이라도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기려 했을 텐데, 린턴이 또다시 귀한 제 몸이 걱정되어 펄쩍 일어났다. 그 애는 힘없는 두 팔로 아가씨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나를 받아 주고 살려 주지 않을 거야? 나를 그레인지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아, 사랑하는 캐시! 이제 와서 나를 두고 가 버리면 안 돼. 너는 우리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 들어야 *한단* 말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 캐시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애태움에서 아빠를 놓아 드려야 해. 밤새도록이라니!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벌써 걱정하고 계실 거야. 이 집을 부수든 불태우든 해서 길을 내고 나갈 거야. 조용히 해! 너는 아무 위험도 없지만 네가 나를 막으면…… 린턴, 나는 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

히스클리프 씨의 노여움이 죽도록 무서웠던지라 소년은 겁쟁이의 말솜씨를 되찾았다. 캐시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가야 한다고 고집하며 이번에는 자기가 애원해 보았고, 제 몸만

생각하는 그 괴로움을 좀 억눌러 보라고 린턴을 달랬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간수가 다시 들어왔다.

"너희 짐승들은 종종걸음으로 달아나 버렸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런, 린턴! 또 질질 짜는 거냐? 이 아가씨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자, 자, 그만하고 가서 자. 한두 달 지나면, 얘야, 이 아가씨가 지금 부리는 횡포를 네가 억센 손으로 되갚아 줄 수 있을 거다. 너는 그저 사랑 때문에 애가 타는 거지, 안 그래? 세상에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이 아가씨는 너를 갖게 될 거다! 자, 가서 자! 오늘 밤엔 질라가 없으니 옷은 네가 벗어야 해. 쉿! 시끄러워! 네 방에 들어가면 나는 너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 테니 겁낼 것 없어. 어쩌다 보니 꽤 잘 해냈구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는 아들이 지나가도록 문을 붙잡고 서서 이런 말을 했고, 아들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짓궂게 꽉 쥐어짤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는 스패니얼이 빠져나가듯 꼭 그렇게 빠져나갔다. 자물쇠가 다시 채워졌다. 히스클리프는 아가씨와 내가 말없이 서 있는 난롯가로 다가왔다. 캐시는 고개를 들고는 저도 모르게 손을 뺨에 갖다 댔는데, 그가 가까이 오자 아픈 느낌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어린애 같은 몸짓을 엄하게 바라보지 못했을 텐데, 그는 아가씨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아! 나를 안 무서워한다고? 용기를 아주 잘도 감춰 뒀구나, 지독하게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무서워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아빠가 비참해지실 텐데, 아빠를 비참하게 만드는 걸 내가 어떻게 견뎌요, 아빠가…… 아빠가…… 히스클리프 씨, 나를 집에 *보내* 줘요! 린턴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빠도 그러기를 바라실 거고 나도 린턴을 사랑해요. 내가 기꺼이 스스로 할 일을 왜 억지로 시키려고 하세요?"

"억지로 시킬 테면 시켜 보라지요." 내가 외쳤다. "이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하느님 고맙게도! 있고말고요, 아무리 우리가 외진 곳에 산다 해도요. 내 친아들이라도 나는 고발할 거예요, 이건 성직자 특권으로도 면할 수 없는 중죄니까요!"

"닥쳐!" 그 불한당이 말했다. "그 시끄러운 소리는 악마한테나 가져가! *너*더러 말하라고 한 적 없어. 린턴 아가씨, 네 아버지가 비참해할 생각을 하니 나는 아주 유쾌해서 흐뭇한 나머지 잠도 안 오겠어. 앞으로 스물네 시간 동안 네가 내 지붕 아래 묵게 만드는 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일러 주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을 너로서는 생각해 낼 수 없었을 거야. 린턴과 결혼하겠다는 약속 말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못할 테니 네가 꼭 지키도록 내가 챙겨 주지."

"그럼 엘렌을 보내서 내가 무사하다고 아빠한테 알려 줘요!" 캐시가 서럽게 울며 외쳤다. "아니면 지금 당장 결혼시켜 줘요. 불쌍한 우리 아빠! 엘렌, 아빠는 우리가 길을 잃은 줄 아실 거야. 어떡하지?"

"그럴 리가! 네가 병구완에 지쳐서 잠깐 재미 좀 보려고 달아난 줄 알겠지." 히스클리프가 대답했다. "너는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제 발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걸 부인하지 못해. 네 나이에 재미를 찾는 것도, 병자를 돌보는 데 진력이 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 병자가 *고작* 네 아버지라면 더더욱 그렇지. 캐시, 네 날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의 가장 행복한 날은 끝났어.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네가 세상에 나왔다고 너를 저주했을 테니(적어도 나는 저주했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를 저주한다면 딱 맞아떨어지겠지. 나도 같이 저주해 주마.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실컷 울어. 내가 보기에는 린턴이 다른 잃은 것들을 갚아 주지 않는 한 앞으로 그게 네 으뜸가는 낙이 될 텐데, 너의 그 앞날을 내다보는 아비는 린턴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모양이야. 그

사람이 보낸 충고와 위로의 편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 마지막 편지에서는 내 보물한테 자기 보물을 아껴 주고 손에 넣으면 잘해 주라고 당부하더군. 아껴 주고 잘해 주라니, 그거 참 아비다운 말이지. 하지만 린턴은 제가 가진 아낌과 다정함을 몽땅 제 몸에 써야 할 판이야. 린턴은 꼬마 폭군 노릇을 잘해서, 고양이 이빨을 뽑고 발톱을 깎아 주기만 하면 몇 마리든 맡아서 괴롭힐 녀석이지. 집에 돌아가면 외삼촌한테 그 녀석의 *다정함*에 대해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다, 장담하지."

"그 말은 맞네요!" 내가 말했다. "아드님 성품이 어떤지 밝혀 보세요. 나리를 얼마나 닮았는지 보여 주시면 캐시 아가씨도 그 괴물 뱀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요!"

"이 아가씨는 그 녀석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너희 주인이 죽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갇혀 지내든지 둘 중 하나니까, 이제는 그 녀석의 훌륭한 점을 말해 줘도 별로 상관없어." 그가 대답했다. "너희 둘을 여기에 감쪽같이 잡아 둘 수 있어. 못 믿겠으면 저 아가씨더러 약속을 물리라고 부추겨 봐, 그러면 판단할 기회가 생길 테니!"

"약속은 물리지 않겠어요." 캐시가 말했다. "그다음에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가도 된다면 한 시간 안에라도 결혼하겠어요. 히스클리프 씨,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지만 마귀는 아니니까 *그저* 심술만으로 내 행복을 돌이킬 수 없게 다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아빠를 버리고 떠났다고 아빠가 생각하시고, 내가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는 건 그만뒀지만 여기 당신 무릎 앞에 꿇어앉을 거고, 당신이 나를 마주 볼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당신 얼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요, 고개 돌리지 마세요! 좀 *보세요*! 화나게 할 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때린 것도 화나지 않아요. 고모부는 평생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아! 한 번은 봐 주셔야 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니까 고모부도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도롱뇽 같은 손가락 치우고 비켜, 안 그러면 걷어차 버릴 테다!" 히스클리프가 아가씨를 사납게 밀쳐 내며 소리쳤다. "차라리 뱀한테 안기는 게 낫겠다. 대체 무슨 수로 나한테 아양을 떨 꿈을 꾸는 거야? 나는 네가 *질색*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하다 못해 혐오감에 살갗에 소름이라도 돋은 것처럼 아예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의자를 뒤로 밀쳤고, 그사이 나는 일어나서 욕을 한바탕 퍼부어 주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한 마디만 더 하면 나를 방에 따로 가둬 버리겠다는 으름장에 나는 첫 문장 중간에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정원 문간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주인은 즉시 서둘러 나갔는데,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2~3분 동안 이야기 소리가 나더니 그는 혼자 돌아왔다.

"나는 아가씨 사촌 헤어턴인 줄 알았어요." 내가 캐시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와 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편을 들어 줄지 누가 알아요?"

"그레인지에서 너희를 찾으라고 보낸 하인 세 명이었어." 히스클리프가 내 말을 엿듣고 말했다. "격자창을 열고 소리를 질렀어야지. 하지만 장담하건대 저 계집애는 네가 그러지 않아서 기뻐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여기 남게 되어서 좋아하는 거야, 틀림없이."

놓쳐 버린 기회를 알고 나자 우리 둘은 걷잡을 수 없이 서러움을 쏟아냈고, 그는 아홉 시까지 우리가 울부짖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부엌을 지나 위층 질라의 방으로 올라가라고 했고, 나는 어쩌면 거기 창으로 빠져나가거나 다락으로 올라가 지붕 채광창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말을 따르자고 아가씨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방 창도 아래층 창처럼 좁았고, 다락 들창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끄떡없었는데, 아까처럼 이번에도 바깥에서 문이 잠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둘 다 눕지 않았고, 캐시는 격자창 곁에 자리를 잡고 애타게 아침을 기다렸고, 좀 쉬어 보라고 내가 아무리 거듭 빌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깊은 한숨뿐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내가 저지른 수많은 직무 소홀을 모질게 꾸짖었는데, 그때는 내 주인들의 불행이 모두 거기서 비롯된 것만 같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그 음산한 밤 내 머릿속에서는 그랬고, 나는 히스클리프보다 내가 더 죄가 많다고 생각했다.

일곱 시에 그가 와서 린턴 아가씨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아가씨는 곧장 문으로 달려가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럼 이리 와." 그는 문을 열고 아가씨를 끌어냈다. 나도 따라 나가려고 일어났지만 그는 다시 자물쇠를 잠갔고, 나는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참아." 그가 대답했다. "조금 있다가 아침을 올려 보낼 테니."

나는 문짝을 두드리고 걸쇠를 사납게 덜컹거렸고, 캐시가 왜 엘렌은 아직도 가둬 두느냐고 묻자 그는 내가 한 시간만 더 참아야 한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가 버렸다. 나는 두세 시간을 참았고, 마침내 발소리가 들렸는데 히스클리프의 발소리는 아니었다.

"먹을 거 가져왔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말했다. "문 열어!"

나는 얼른 문을 열었고, 헤어턴이 하루 종일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잔뜩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받아." 그는 쟁반을 내 손에 떠안기며 덧붙였다.

"잠깐만 있어 봐." 내가 말을 꺼냈다.

"싫어." 그는 소리치고는, 붙잡아 두려고 내가 쏟아 내는 온갖 애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러갔다.

그렇게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이튿날 밤 내내, 또 그다음, 또 그다음 날까지 갇혀 있었다. 모두 합쳐 닷새 밤 나흘 낮을 갇혀 지내며 아침마다 한 번씩 오는 헤어턴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헤어턴은 간수의 본보기여서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그의 정의감이나 동정심을 움직여 보려는 어떤 시도에도 귀를 막았다.

제28장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아니 오후라고 해야 맞겠지만, 그때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는데 더 가볍고 종종거리는 걸음이었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질라였는데, 진홍색 숄을 두르고 머리에는 검은 비단 보닛을 쓰고 팔에는 버들 바구니를 걸치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딘 부인!" 질라가 외쳤다. "글쎄! 기머턴에선 부인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나는 주인 나리가 부인을 찾아내서 여기 묵게 했다고 말해 줄 때까지는 부인이 아가씨하고 같이 블랙호스 늪에 빠진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럼 늪 한가운데 섬에라도 올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구덩이에는 얼마나 빠져 있었어요? 주인 나리가 부인을 건져 주셨어요, 딘 부인? 그런데 그리 마르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많이 앓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너희 주인은 진짜 악당이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값은 치르게 될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소문을 퍼뜨릴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다 드러나고 말 거야!"

"무슨 말이에요?" 질라가 물었다. "그건 주인 나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인이 늪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마을에서 다들 하던걸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언쇼 도련님한테 소리쳤지요. '아이고, 헤어턴 도련님,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별난 일이 다 있었다우. 그 얌전하고 예쁜 아가씨하고 똑똑한 넬리 딘이 그렇게 되다니 참 딱하기도 하지.' 도련님은 멀뚱히 쳐다만 봤어요. 아무것도 못 들은

모양이다 싶어서 내가 그 소문을 들려줬지요. 그랬더니 주인 나리가 듣고 계시다가 혼자 슬그머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늪에 빠졌었다면 이제는 빠져나왔어, 질라. 넬리 딘은 지금 이 시간에 네 방에 묵고 있으니, 위층에 올라가거든 이제 나가도 된다고 일러 줘. 여기 열쇠가 있다. 늪물이 머리에 스며드는 바람에 정신이 나가서 집으로 마구 달려가려는 걸 내가 제정신이 들 때까지 붙잡아 뒀지. 기운이 나거든 곧장 그레인지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해. 아가씨는 늦지 않게 따라가서 지주의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에드거 나리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 질라, 질라!"

"아니, 아니에요. 앉아요, 우리 딘 부인." 질라가 대답했다. "아직도 많이 편찮아 보이는데요.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케네스 선생님 말로는 하루는 더 버티실 거래요. 오다가 길에서 만나서 물어봤다우."

나는 앉기는커녕 바깥옷을 낚아채듯 걸치고는 길이 열려 있었으므로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다. 큰방에 들어서서 캐시의 소식을 알려 줄 사람이 없나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햇살이 가득하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가까이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당장 떠날지, 아니면 되돌아가 아가씨를 찾을지 내가 망설이고 있는데, 가벼운 기침 소리에 난롯가로 눈길이 갔다. 린턴이 혼자 긴 의자에 누워서 막대 사탕을 빨며 무심한 눈으로 내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캐시 아가씨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붙잡으면 겁을 주어 이것저것 털어놓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는 엄하게 다그쳤다.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처럼 사탕만 계속 빨았다.

"아가씨는 가 버렸어요?" 내가 말했다.

"아니요." 린턴이 대답했다. "위층에 있어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보내 줄 거예요."

"안 보내 준다고요, 이 꼬마 바보!" 내가 외쳤다. "당장 아가씨 방으로 데려다줘요, 안 그러면 따끔하게 비명을 지르게 해 줄 거예요."

"거기 가려고 하면 아빠가 엘렌한테 비명을 지르게 할걸요." 그 애가 대답했다. "아빠는 내가 캐시한테 무르게 굴면 안 된대요. 캐시는 내 아내니까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건 창피한 일이래요. 아빠 말로는 캐시가 나를 미워하고 내 돈을 차지하려고 내가 죽기를 바란대요. 하지만 그 돈은 절대 못 가져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실컷 울고 실컷 아프든지 말든지요!"

그 애는 하던 짓을 다시 하면서 잠이라도 들 작정인 듯 눈을 감았다.

"히스클리프 도련님." 내가 다시 말을 꺼냈다. "지난겨울 도련님이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가씨가 책을 가져다주고 노래를 불러 주고 몇 번이나 바람을 맞고 눈을 헤치며 도련님을 보러 왔을 때, 그때 캐시 아가씨가 도련님한테 베푼 친절을 다 잊었어요? 하룻저녁 못 오게 되었을 때 아가씨는 도련님이 실망할 거라고 울었고, 그때는 도련님도 아가씨가 자기한테 백 배는 과분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두 사람을 다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그 아버지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편이 되어 아가씨를 괴롭히고요. 참 훌륭한 은혜 갚음이네요, 안 그래요?"

린턴의 입꼬리가 축 처졌고, 그 애는 입에서 막대 사탕을 뗐다.

"아가씨가 도련님을 미워해서 워더링 하이츠에 왔겠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스스로 생각해 봐요! 도련님 돈으로 말하자면 아가씨는 도련님한테 돈이 생긴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도련님은 아가씨가 아프다면서도 그 낯선 집 위층에 혼자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 본 *도련님*이 말이에요! 도련님은 자기 괴로움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아가씨도 그 괴로움을 함께 불쌍히 여겨 주었는데, 도련님은 아가씨의 괴로움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군요!

보다시피 나는 눈물을 흘려요, 히스클리프 도련님, 나이 든 여자이고 고작 하인일 뿐인데도요. 그런데 도련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척을 해 놓고, 아가씨를 거의 떠받들어야 할 까닭이 있으면서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아껴 두고 거기 아주 편하게 누워 있네요. 아! 도련님은 정도 없고 제 몸만 아는 아이예요!"

"나는 캐시하고 같이 못 있어요." 그 애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혼자서는 안 있을 거예요. 캐시는 너무 울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겠다고 해도 그치지를 않아요. 한 번은 정말로 불렀더니 아버지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목을 졸라 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 아버지가 방을 나가자마자 캐시는 또 시작해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서러워했어요. 나는 잠을 못 자서 약이 올라 소리를 질렀는데도요."

"히스클리프 씨는 나가고 없어요?" 그 딱한 것이 제 사촌이 겪는 마음의 고통에 공감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는 물었다.

"마당에 있어요." 그 애가 대답했다. "케네스 선생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케네스 선생 말로는 외삼촌이 드디어 정말로 죽어 간대요. 나는 기뻐요, 외삼촌이 죽고 나면 내가 그레인지 주인이 될 테니까요. 캐시는 늘 그레인지를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그건 캐시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에요. 아빠 말로는 캐시가 가진 건 다 내 거래요. 캐시의 좋은 책도 다 내 거예요. 캐시는 내가 우리 방 열쇠를 가져다가 자기를 내보내 주면 그 책들하고 예쁜 새들하고 조랑말 미니를 나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캐시한테는 줄 게 하나도 없다고, 그건 다, 다 내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캐시는 울더니 목에서 작은 그림을 벗어서 그걸 나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금으로 된 갑에 그림이 두 개 들어 있는데, 한쪽은 캐시 엄마고 다른 쪽은 외삼촌이에요, 젊었을 때요. 그게 어제였어요. 나는 *그것*도 내 거라고 하면서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심술궂은 게 안 주려고 나를 밀쳐서 다치게 했어요.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그러면

캐시가 겁을 먹거든요,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듣고 캐시는 경첩을 부러뜨려서 갑을 둘로 나누고 자기 엄마 초상화를 나한테 줬어요. 다른 하나는 숨기려고 했는데,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내가 다 말했어요. 아빠는 내가 가진 걸 빼앗아 가고 캐시한테 가진 걸 나한테 내놓으라고 했는데, 캐시가 싫다고 하니까 아빠가…… 아빠가 캐시를 때려눕히고 그걸 줄에서 비틀어 떼서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도련님은 아가씨가 맞는 걸 보고 기뻤어요?" 나는 그 애가 계속 말을 하게 만들 속셈으로 물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 애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개나 말을 때리는 걸 보면 나는 눈을 감아요, 아버지는 너무 세게 때리니까요. 그래도 처음엔 기뻤어요, 캐시는 나를 밀쳤으니까 벌을 받아도 싸요. 그런데 아빠가 가고 나니까 캐시가 나를 창가로 오라고 하더니 이에 부딪혀서 안쪽이 찢어진 뺨하고 피가 고이는 입을 보여 줬고, 그러고는 그림 조각을 주워 모아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가서 앉았는데, 그 뒤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으니, 가끔은 아파서 말을 못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캐시는 줄곧 우니까 나쁜 애예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사나워 보여서 나는 캐시가 무서워요."

"그럼 도련님은 마음만 먹으면 열쇠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네, 위층에 있을 때는요." 그 애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위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열쇠는 어느 방에 있어요?" 내가 물었다.

"아." 그 애가 소리쳤다. "*엘렌*한테는 어디 있는지 말 안 할 거예요. 그건 우리 비밀이에요. 헤어턴도 질라도,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저것 봐! 엘렌 때문에 피곤해졌잖아요. 가요, 가 버려요!" 그러고는 팔에 얼굴을 묻고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히스클리프 씨를 만나지 않고 떠나서 그레인지에서 아가씨를 구해 낼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가장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레인지에 닿자 나를 본 동료 하인들은 몹시 놀라고 또 몹시 기뻐했고, 작은 아가씨가 무사하다는 말을 듣자 두세 사람이 에드거 나리의 방문 앞으로 달려 올라가 그 소식을 외치려 했지만, 나는 그 소식만은 내가 전하겠다고 했다. 그 며칠 사이에 주인은 어찌나 변해 있던지! 주인은 슬픔과 체념의 모습 그대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젊어 보였는데, 실제 나이는 서른아홉이었지만 누가 봐도 적어도 열 살은 젊게 보았을 것이다. 주인은 캐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나는 주인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캐시 아가씨가 와요, 나리!" 내가 속삭였다. "아가씨는 살아 있고 무사해요. 바라건대 오늘 밤에는 여기 올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인이 맨 처음 보인 반응에 나는 몸이 떨렸는데, 주인은 몸을 반쯤 일으켜 방 안을 애타게 둘러보더니 기절해서 도로 쓰러졌다. 주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는 우리가 억지로 하이츠에 끌려가 갇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히스클리프가 나를 억지로 들어가게 했다고 했는데, 그건 꼭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린턴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줄였고 그 아버지가 저지른 잔인한 짓도 다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넘치도록 찬 주인의 잔에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면 쓴맛을 한 방울도 더 보태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주인은 원수가 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땅뿐 아니라 동산까지 아들에게, 아니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넘기려는 데 있다고 짐작했지만, 왜 히스클리프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지는 주인에게 수수께끼였는데, 주인은 자기와 조카가 얼마나 비슷한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무튼 주인은 유언장을 고치는 게 낫겠다고 느꼈고, 캐시의 재산을 캐시 마음대로 쓰게 남겨 두는 대신

수탁인들 손에 맡겨서 캐시가 살아 있는 동안은 캐시가 쓰게 하고 그 뒤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 두면 린턴이 죽더라도 그 재산이 히스클리프 씨에게 넘어갈 수 없었다.

명을 받자 나는 사람 하나를 보내 변호사를 데려오게 하고, 쓸 만한 무기를 갖춘 네 사람을 더 보내서 간수에게 아가씨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했다. 두 편 다 아주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혼자 간 하인이 먼저 돌아왔다. 그 하인 말로는 자기가 그린 변호사의 집에 갔을 때 변호사는 나가고 없어서 돌아올 때까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린 변호사가 마을에 꼭 봐야 할 볼일이 좀 있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네 사람도 아가씨를 데려오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 사람들은 캐시가 아프다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 방에서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몹시 아파서 히스클리프가 아가씨를 만나게 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곧이듣고 왔다고 그 멍청한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었고, 그 이야기는 주인에게 전하지 않기로 하고, 날이 밝으면 한 떼를 몰고 하이츠에 올라가서 갇힌 아가씨를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쳐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는 *기어이* 딸을 보게 될 것이다, 저 악마가 그걸 막으려다가 제 집 문간 돌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다행히 나는 그 길을 가는 수고를 덜었다. 나는 새벽 세 시에 물 한 주전자를 가지러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그걸 손에 들고 현관을 지나던 참이었는데, 앞문을 날카롭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 그린 변호사구나."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린 변호사일 뿐이야."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시켜 문을 열게 할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는데, 크지는 않아도 여전히 끈질겼다. 나는 주전자를 난간 기둥 위에 올려놓고 내가 직접 맞아들이려고 서둘러

갔다. 바깥에는 추수 무렵의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변호사가 아니었다. 사랑스러운 우리 작은 아가씨가 흐느끼며 내 목에 매달렸다. "엘렌, 엘렌! 아빠는 살아 계셔?"

"그럼요." 내가 소리쳤다. "그럼요, 우리 천사 같은 아가씨, 살아 계세요. 하느님 고맙게도 아가씨가 무사히 우리한테 돌아왔네요!"

아가씨는 숨이 턱에 닿은 그대로 위층 린턴 씨의 방으로 달려 올라가려 했지만, 나는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물을 마시게 하고 창백한 얼굴을 씻긴 뒤, 앞치마로 문질러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핏기가 돌게 했다. 그러고는 내가 먼저 가서 아가씨가 왔다고 알려야겠다고 말하고, 젊은 히스클리프와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말해 달라고 아가씨에게 애원했다. 아가씨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지만, 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이르는지 곧 알아듣고는 불평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나는 차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15분 동안 침실 문밖에 서 있었고, 그러고 나서도 침대 가까이에는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고요했다. 캐시의 절망은 아버지의 기쁨만큼이나 소리가 없었다. 아가씨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고, 주인은 황홀해서 크게 열린 듯한 눈을 들어 딸의 얼굴에 박고 있었다.

주인은 행복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록우드 나리, 정말 그렇게 떠났어요. 주인은 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나는 네 엄마한테 간다. 그리고 너도, 내 귀여운 아이야, 우리한테 오게 될 거야!" 그러고는 다시는 몸을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맥박이 어느새 멎고 영혼이 떠나갈 때까지 넋을 잃은 듯 환하게 빛나는 그 눈길은 그대로였다. 몸부림 한 번 없었으므로 아무도 주인이 죽은 그 정확한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캐시는 눈물이 말라 버렸는지, 아니면 슬픔이 너무 무거워서 눈물이 흐르지 못했는지, 해가 뜰 때까지 눈물 한 방울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낮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으며, 내가 그만 나와서 좀 쉬라고 우기지 않았다면 그 임종 자리 곁에서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아가씨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잘한 일이었는데, 점심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지시를 받으러 워더링 하이츠에 들렀다 오는 길에 변호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히스클리프 씨에게 몸을 팔았던 것이고, 주인이 불렀는데도 늦게 온 까닭이 그것이었다. 다행히 딸이 돌아온 뒤로는 세상일에 대한 생각이 주인의 마음을 스쳐 어지럽히는 일은 없었다.

그린 변호사는 제멋대로 집 안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이래라저래라 했다. 변호사는 나를 뺀 하인들 모두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 변호사는 맡은 권한을 거기까지 밀어붙여서 에드거 린턴을 아내 곁이 아니라 예배당 안 집안 묘소에 묻어야 한다고 우기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언장이 그것을 막았고, 유언장의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 내가 큰 소리로 항의했다.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고, 캐시, 이제는 린턴 히스클리프 부인이 된 아가씨는 아버지의 시신이 그레인지를 떠날 때까지만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받았다.

아가씨가 나에게 들려준 바로는, 아가씨의 괴로움이 마침내 린턴을 움직여서 린턴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가씨를 풀어 주었다고 했다. 아가씨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 문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히스클리프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그 때문에 아가씨는 필사적이 되었다. 내가 떠나고 얼마 안 되어 작은 응접실로 옮겨져 있던 린턴은 겁에 질린 나머지 아버지가 다시 올라오기 전에 열쇠를 가져왔다. 린턴은 꾀를 내어 문을 닫지 않은 채 자물쇠만 열었다가 다시 잠가 두었고, 잠자리에 들 때가 되자 헤어턴과 같이 자게 해 달라고

졸랐는데, 그 부탁이 이번만은 받아들여졌다. 캐시는 날이 새기 전에 몰래 빠져나왔다. 개들이 짖어 댈까 봐 문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빈방들을 돌아다니며 창을 살펴보다가, 운 좋게도 어머니가 쓰던 방에 이르러 그 방 격자창으로 쉽게 빠져나가서 바로 곁에 있는 전나무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 공범은 겁 많은 꾀를 부렸는데도 탈출을 거든 죗값을 치렀다.

제29장

장례를 치른 날 저녁, 아가씨와 나는 서재에 앉아서 때로는 우리가 잃은 것을 서글프게 곱씹고(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때로는 음울한 앞날을 이리저리 짐작해 보았다.

우리는 캐시를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명은 적어도 린턴이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레인지에 계속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것이고, 린턴도 거기 와서 함께 살고 나도 가정부로 남는 것이라고 막 의견을 모은 참이었다. 그것은 바라기에는 너무 좋은 일 같았지만 그래도 나는 바랐고, 내 집과 내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씨를 지킬 수 있겠다는 기대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인 하나가, 쫓겨났지만 아직 떠나지 않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와서 "그 악마 같은 히스클리프"가 마당을 지나오고 있는데 면전에서 문을 잠가 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우리가 미쳐서 그렇게 하라고 일렀더라도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대는 격식도 차리지 않았는데, 주인이었으므로 주인의 특권을 써서 아무 말 없이 곧장 걸어 들어왔다. 그는 우리에게 알리러 온 하인의 목소리를 듣고 서재로 와서 들어오더니, 손짓으로 하인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 방은 열여덟 해 전 그가 손님으로 안내되어 들어왔던 바로 그 방이었는데, 같은 달이 창으로 비쳐 들었고 같은 가을 풍경이 바깥에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아직 촛불을 켜지 않았지만 방 안이 다 보였고

벽에 걸린 초상화들까지 보였는데, 린턴 부인의 빼어난 얼굴과 그 남편의 단아한 얼굴이었다. 히스클리프는 난롯가로 걸어갔다. 세월은 그의 모습도 별로 바꾸어 놓지 못했다. 거기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검은 얼굴이 조금 더 누렇고 더 차분해졌고, 몸무게가 1스톤이나 2스톤쯤 늘었을까, 그 밖에는 달라진 데가 없었다. 캐시는 그를 보자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일어서 있었다.

"멈춰!" 그는 아가씨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더는 달아나지 마! 어디로 가려고? 나는 너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으니, 너는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어서 내 아들을 부추겨 또 말을 안 듣게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 일에서 그 녀석이 한 짓을 알았을 때 어떻게 벌을 줘야 할지 난감했는데, 그 녀석은 거미줄 같아서 한 번만 꼬집어도 없어져 버릴 테니까, 하지만 그 녀석 얼굴을 보면 받을 벌은 다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저께 저녁에 그 녀석을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의자에 앉혀만 놓고 그 뒤로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 헤어턴은 내보냈으니 방에는 우리 둘뿐이었지. 두 시간 뒤에 조지프를 불러서 그 녀석을 다시 위층으로 데려가게 했는데, 그 뒤로는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령이 나타난 것만큼이나 그 녀석 신경에 세게 먹혀서, 내가 가까이 있지 않을 때도 그 녀석은 나를 자주 보는 모양이야. 헤어턴 말로는 그 녀석이 밤에 깨어나서 몇 시간이고 비명을 질러 대며 나한테서 지켜 달라고 너를 부른다는군, 그러니 그 귀한 짝을 좋아하든 말든 너는 와야 해. 이제 그 녀석은 네 몫이니, 그 녀석에게 걸린 내 몫은 몽땅 너한테 넘기마."

"캐시 아가씨를 여기 그냥 있게 하고 린턴 도련님을 이리 보내면 어때요?" 내가 애원했다. "두 사람을 다 미워하시니 없어도 아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리의 인정머리 없는 마음에 날마다 골칫거리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레인지에 세입자를 들일 생각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내 자식들은 내 곁에 두고 싶지. 게다가 저 계집애는 제가 먹는 빵값으로 나한테 일을 해 줘야 해. 린턴이 죽은 뒤에 저 아이를 사치와 게으름 속에서 길러 줄 생각은 없어. 자, 서둘러 채비를 해. 억지로 끌고 가게 만들지 말고."

"갈게요." 캐시가 말했다.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린턴밖에 없고, 당신은 린턴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린턴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곁에 있을 때 린턴을 해칠 테면 해쳐 보고, 나를 겁줄 테면 겁줘 보세요!"

"큰소리치는 투사로군." 히스클리프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 녀석을 해칠 만큼 너를 좋아하지는 않으니, 그 괴로움이 이어지는 동안 너는 그걸 고스란히 누리게 될 거다. 그 녀석을 너한테 미운 놈으로 만드는 건 내가 아니라 그 녀석의 그 고운 마음씨야. 그 녀석은 네가 자기를 버리고 간 일과 그 뒤에 벌어진 일 때문에 쓸개즙처럼 쓰디쓴 마음이 되어 있으니, 그 갸륵한 헌신에 고맙다는 말은 기대하지 마. 그 녀석이 나만큼 힘이 세다면 무슨 짓을 하겠다고 질라한테 재미난 그림을 그려 보이는 걸 들었는데, 마음은 벌써 그쪽으로 기울어 있으니, 바로 그 허약함이 꾀를 날카롭게 갈아서 힘 대신 쓸 것을 찾아낼 거다."

"린턴의 성품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캐시가 말했다. "당신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걸 용서할 만큼 더 나은 성품을 가져서 기뻐요. 그리고 린턴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도 린턴을 사랑해요. 히스클리프 씨, *당신*에게는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아무리 비참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당신의 잔인함이 당신이 우리보다 더 비참한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전히 복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비참*하지요*, 안 그래요?

악마처럼 외롭고, 악마처럼 남을 시샘하지요?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죽어도 *아무도* 울어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캐시는 일종의 쓸쓸한 승리감에 차서 말했는데, 장차 함께 살 식구들의 기질에 기꺼이 물들어서 원수의 슬픔에서 기쁨을 얻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거기 1분만 더 서 있으면 곧 네 꼴이 서러워질 거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썩 꺼져, 마녀 같으니, 가서 짐이나 챙겨!"

아가씨는 경멸하듯 물러갔다. 아가씨가 없는 사이 나는 하이츠의 질라 자리를 내게 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내 자리는 질라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나더러 입을 다물라고 하더니, 그제야 처음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초상화들을 바라보았다. 린턴 부인의 초상화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서 그가 말했다. "저건 집에 가져가야겠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는 갑자기 불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을 이었는데, 그 얼굴에 떠오른 것은 더 나은 말이 없으니 미소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다.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 주지! 린턴의 무덤을 파던 교회지기한테 그 사람 관 뚜껑 위의 흙을 걷어 내게 하고 관을 열었어. 그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한순간은 차라리 거기 머물러 버릴까 생각했어. 아직도 그 사람 얼굴 그대로였어! 교회지기가 나를 떼어 내느라 애를 먹었지만, 바람이 닿으면 얼굴이 변할 거라고 해서 나는 관 한쪽 옆판을 헐겁게 떼어 놓고 다시 덮었어, 린턴 쪽 옆판은 아니고, 빌어먹을 놈! 그놈은 납으로 땜질해서 봉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거기 묻히면 그 옆판을 빼내고 내 관 옆판도 빼내 달라고 교회지기한테 돈을 주었고 내 관도 그렇게 짜게 할 테니, 린턴이 우리한테 올 무렵에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겠지!"

"정말 몹쓸 짓을 하셨네요, 히스클리프 씨!" 내가 외쳤다. "죽은 사람을 어지럽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아무도 어지럽히지 않았어, 넬리."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했지. 이제는 훨씬 편해질 거고, 내가 거기 묻히면 너희는 나를 땅속에 붙잡아 둘 가망이 더 커질 거다. 그 사람을 어지럽혔다고?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어지럽혔지, 밤이고 낮이고 열여덟 해 동안 쉬지 않고, 사정없이, 어젯밤까지, 그리고 어젯밤에야 나는 평온했어. 나는 그 잠든 사람 곁에서 마지막 잠을 자는 꿈을 꾸었어, 심장은 멎고 내 뺨은 그 사람 뺨에 닿은 채로 얼어붙어서."

"그런데 그분이 흙으로 녹아 버렸거나 그보다 더 흉하게 변해 있었다면, 그때는 무슨 꿈을 꾸셨을까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과 함께 녹아서 더 행복해지는 꿈이지!"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런 변화를 두려워할 것 같아? 뚜껑을 들어 올릴 때 그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 각오했지만, 내가 함께 나눌 때까지 그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편이 더 좋아. 게다가 감정이 다 빠져나간 그 얼굴을 또렷이 보지 않았더라면 그 이상한 느낌은 좀처럼 걷히지 않았을 거다. 그건 묘하게 시작됐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내가 미쳐 날뛰었다는 건 너도 알지. 새벽부터 새벽까지 끝도 없이, 그 영혼을 나한테 돌려 달라고 그 사람에게 빌었다는 것도! 나는 유령을 굳게 믿어. 유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고 확신해! 그 사람을 묻던 날 눈이 내렸어. 저녁에 나는 교회 묘지에 갔지. 겨울처럼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사방이 쓸쓸했어. 그 사람의 그 바보 같은 남편이 그렇게 늦게 골짜기를 올라헤매고 다닐 리는 없었고, 그 밖에는 누구도 거기 올 일이 없었지. 혼자였고, 헐거운 흙 2야드가 우리 사이를 막는 단 하나뿐인 장벽이라는 걸 알았으니, 나는 속으로 말했어. '그 사람을 다시 내 품에 안을 거야! 차갑다면 *나*를 얼게 하는 게 이 북풍이라고 생각할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잠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연장 넣어 두는 헛간에서 삽을 가져와 있는 힘을 다해 파기 시작했고, 삽이 관에 긁혔고, 나는 맨손으로 덤벼들었고, 나사못 언저리에서 나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막 바라던 것을 손에 넣으려는 참이었는데, 그때 누군가 위에서, 무덤 바로 가장자리에서 몸을 굽히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이것만 떼어 낼 수 있다면,' 나는 중얼거렸지. '사람들이 우리 둘 위에 흙을 퍼 덮어도 좋아!' 그리고 나는 더 필사적으로 관을 비틀어 젖혔어. 또 한숨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바로 내 귓가였어. 그 따뜻한 숨결이 진눈깨비 실은 바람을 밀어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 피와 살을 가진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는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어떤 단단한 물체가 다가오는 걸 틀림없이 느끼듯이, 그만큼 틀림없이 나는 캐서린이 거기 있다는 걸 느꼈어, 내 밑이 아니라 땅 위에. 갑자기 마음이 탁 놓이는 느낌이 가슴에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 퍼졌어. 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그만두고 곧바로 위안을 얻어 돌아섰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위안을 얻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어. 내가 무덤을 다시 메우는 동안에도 곁에 있었고,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어. 웃고 싶으면 웃어. 하지만 나는 집에 가면 거기서 그 사람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고 확신했고, 그 사람한테 말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이츠에 닿자 나는 애타게 문으로 달려갔어. 문은 잠겨 있었고, 기억하기로는 그 저주받을 언쇼와 내 아내가 나를 못 들어오게 막았어. 멈춰 서서 언쇼를 걷어차 숨이 넘어가게 만들고는 서둘러 위층으로, 내 방이자 그 사람 방으로 올라간 게 기억나. 나는 조바심을 치며 둘러보았고,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느껴졌고 *거의* 보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나는 피땀을 흘렸어야 했어, 그리움에 몸부림치며,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빌었으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살아 있을 때

자주 그랬듯이 그 사람은 나한테 악마처럼 굴었어! 그리고 그 뒤로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덜하게, 나는 그 견딜 수 없는 고문의 노리개가 되어 왔어! 지옥 같은 고문이었지! 내 신경을 그토록 팽팽하게 당겨 놓았으니, 양 창자로 꼰 줄처럼 질기지 않았다면 내 신경은 벌써 오래전에 늘어져서 린턴의 신경만큼 약해졌을 거다. 헤어턴하고 큰방에 앉아 있으면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았고, 황야를 걷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걸 만날 것만 같았어. 집을 떠나 있으면 서둘러 돌아왔지. 그 사람은 하이츠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방에서 자려고 하면, 나는 거기서 쫓겨났어. 거기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사람이 창밖에 있거나, 판자를 밀어 열거나, 방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릴 적에 그랬듯이 그 사랑스러운 머리를 같은 베개에 누이기까지 해서, 나는 눈을 떠서 봐야만 했어. 그래서 하룻밤에도 백 번씩 눈을 떴다 감았다 했지만 번번이 헛일이었어! 그게 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 나는 자주 소리 내어 신음했는데, 그 늙은 악당 조지프는 틀림없이 내 양심이 내 속에서 마귀 노릇을 한다고 믿었을 거다. 이제 그 사람을 보았으니 나는 마음이 가라앉았어, 조금은. 그건 참 이상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어. 한 치씩도 아니고 머리카락 한 올의 몇 분의 일씩, 열여덟 해 동안 희망의 허깨비로 나를 꾀어 가며 죽이다니!"

히스클리프 씨는 말을 멈추고 이마를 훔쳤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벌건 잉걸불에 박혀 있었는데, 눈썹은 찌푸려 있지 않고 관자놀이 쪽으로 치켜 올라가 있어서 험상궂은 얼굴빛은 덜했지만, 이상하게 괴로워 보이는 표정과 한 가지 일에 온 마음을 빼앗겨 정신이 고통스럽게 팽팽히 당겨진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나한테 반쯤만 말을 걸고 있었고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다시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초상화를 떼어 내서 더 잘 들여다보려고 소파에 기대 세워 놓았는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캐시가 들어와서 조랑말에 안장만 얹으면 떠날 채비가 다 되었다고 알렸다.

"저건 내일 보내." 히스클리프가 나한테 말하더니 아가씨 쪽으로 돌아서서 덧붙였다. "조랑말은 없어도 돼, 날씨가 좋은 저녁이고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조랑말이 필요 없을 거다, 네가 어디를 다니든 네 발이면 충분할 테니까. 가자."

"잘 있어, 엘렌!" 사랑하는 우리 작은 아가씨가 속삭였다. 아가씨가 나에게 입을 맞추는데 그 입술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를 보러 와, 엘렌. 잊지 마."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 딘 부인!" 아가씨의 새 아버지가 말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이리 올 거다. 우리 집에 와서 엿보고 다니는 건 질색이야!"

그가 앞장서라고 손짓하자, 아가씨는 내 가슴을 에는 눈길을 돌려보내고는 그 말을 따랐다. 나는 창가에서 두 사람이 정원을 걸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히스클리프는 캐시의 팔을 제 팔 밑에 단단히 끼었는데, 처음에는 아가씨가 분명히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성큼성큼 걸어 아가씨를 재촉해서 나무들이 두 사람을 가려 버리는 오솔길로 들어갔다.

제30장

나는 하이츠에 한 번 찾아가 보았지만 아가씨가 떠난 뒤로는 아가씨를 보지 못했는데, 안부를 물으러 갔더니 조지프가 문을 붙잡고 서서 나를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 조지프는 젊은 마님이 '정신없이 바쁘고' 주인은 집에 없다고 했다. 질라가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들려주었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도 거의 몰랐을 것이다. 질라는 캐시를 거만하다고 여기고 좋아하지 않는데, 그건 질라가 하는 말로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아가씨는 처음 거기 갔을 때 질라에게 도움을 좀 청했지만, 히스클리프 씨가 질라에게 네 일이나 하고 며느리는 제 앞가림을 하게 내버려 두라고 했고, 질라는 속 좁고 제 몸만 아는 여자라서 기꺼이 그 말에 따랐다. 캐시는 이렇게 내버려지자 아이처럼 골이 나서 그것을 경멸로 갚았고, 그래서 질라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확실하게, 내게 소식을 전해 주는 이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말았다. 나리가 이리 오기 조금 전, 그러니까 여섯 주쯤 전에 나는 어느 날 황야에서 질라와 마주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질라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젊은 마님이 하이츠에 와서 맨 처음 한 일은," 질라가 말했다. "나하고 조지프한테 저녁 인사도 안 하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간 거였어요. 린턴 도련님 방에 틀어박혀서 아침까지 안 나왔지요. 그러고는 주인 나리하고 언쇼 도련님이 아침을 들고 있는데 큰방에 들어와서 온몸을 덜덜 떨면서 의사를 불러 줄 수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사촌이 몹시 아프다고요.

"'그건 우리도 알아!' 히스클리프 나리가 대답했지요. '하지만 그 녀석 목숨은 한 푼어치도 안 되니 나는 그 녀석한테 한 푼도 안 쓸 거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님이 말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면 린턴은 죽고 말 거예요!'

"'방에서 나가.' 주인 나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녀석 얘기는 다시는 한마디도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 여기선 아무도 그 녀석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너는 상관이 있다면 간호사 노릇을 하고, 상관없다면 그 녀석을 방에 가둬 놓고 내버려 둬.'

"그러자 마님이 나를 귀찮게 굴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성가신 것 때문에 이미 고생할 만큼 했다, 우리는 저마다 할 일이 있고 마님 일은 린턴 도련님 시중드는 거다, 하고 말했지요. 히스클리프 나리가 그 일은 마님한테 맡겨 두라고 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나도 몰라요. 짐작건대 도련님은 줄곧 짜증을 내면서 밤이고 낮이고 끙끙 앓았고, 마님은 쉴 틈이라고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마님의 하얗게 질린 얼굴하고 무거운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지요. 마님은 이따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빌고 싶은 얼굴을 했지만, 나는 주인 나리 말씀을 어길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그분 말씀을 어길 엄두를 한 번도 못 내요, 딘 부인. 그리고 케네스 선생님을 부르지 않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 나는 늘 끼어들지 않았다우. 우리가 잠자리에 든 뒤에 한두 번은 어쩌다 문을 다시 열었다가 마님이 계단 꼭대기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흔들려서 끼어들게 될까 봐 얼른 문을 닫고 들어앉았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시다시피 내 자리를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마님이 겁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혼비백산했지요. '히스클리프 씨한테 아들이 죽어 간다고 전해. 이번엔 틀림없어. 당장 일어나서 가서 말해.'

"마님은 그 말만 하고 다시 사라졌어요. 나는 15분 동안 누운 채로 귀를 기울이며 떨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고 집 안은 조용했어요.

"마님이 잘못 안 거야, 나는 속으로 그랬지요. 도련님은 고비를 넘긴 거야. 사람들을 깨울 것 없어. 그러고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 날카로운 종소리에 또 잠이 깨고 말았어요. 우리 집에 하나뿐인 종인데, 린턴 도련님 때문에 일부러 달아 놓은 거였지요. 그리고 주인 나리가 나를 부르더니 무슨 일인지 가 보고, 그 소리를 다시 내지 말라고 일러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님이 한 말을 전했어요. 주인 나리는 혼자 욕을 하더니 몇 분 뒤에 촛불을 켜 들고 나와서 두 사람 방으로 갔어요. 나도 따라갔지요. 히스클리프 부인은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침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다가가서 불빛을 린턴 도련님 얼굴에 비춰 보고, 들여다보고, 만져 보더니, 그다음에 마님 쪽으로 돌아섰어요.

"'자, 캐시.' 나리가 말했지요. '기분이 어때?'

"마님은 말이 없었어요.

"'기분이 어떠냐니까, 캐시?' 나리가 다시 물었지요.

"'린턴은 이제 안전하고 나는 자유예요.' 마님이 대답했어요. '기분이 좋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마님은 감추지 못하는 쓰라림을 담아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나 혼자 죽음하고 싸우도록 그토록 오래 내버려 두었으니 나는 죽음밖에는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 같아 보였다니까요! 나는 마님한테 포도주를 조금 주었어요. 종소리하고 발소리에 잠이 깨서 밖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헤어턴 도련님하고 조지프가 그제야 들어왔어요. 조지프는 린턴 도련님이 없어져서 좋아하는 것 같았고, 헤어턴 도련님은 좀 마음이 쓰이는 눈치였지만 죽은 도련님 생각보다는 마님을 쳐다보는 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 나리가 도련님더러 도로 가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도련님 도움이 필요 없었거든요. 나리는 그다음에 조지프를 시켜서 시신을 조지프 방으로 옮기게 하고 나더러는 내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혼자 남았지요.

"아침에 나리는 마님한테 아침 먹으러 내려와야 한다고 전하라고 나를 보냈어요. 마님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놀랄 일도 아니었지요. 내가 히스클리프 나리한테 그렇게 알렸더니 나리가 대답했어요. '그래,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내버려 둬. 그리고 이따금 올라가서 필요한 걸 갖다주고, 좀 나아 보이면 바로 나한테 알려.'"

질라의 말로는 캐시는 두 주 동안 위층에 머물렀는데, 질라가 하루에 두 번씩 들여다보았고 좀 더 다정하게 대해 주고 싶었지만, 차츰 친절을 더해 보려던 질라의 노력은 오만하게, 그리고 곧바로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히스클리프는 린턴의 유언장을 보여 주려고 한 번 올라갔다. 린턴은 제 동산을 모두, 그리고 아가씨 것이었던 동산까지 다 제 아버지에게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 딱한 것은 외삼촌이 죽던 무렵 아가씨가 한 주 동안 떠나 있던 사이에 위협을 받았거나 꾐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땅은 린턴이 미성년이었으므로 손댈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제 아내의 권리와 제 권리를 내세워 그 땅을 차지하고

놓지 않는데, 아마 법대로 한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돈도 친구도 없는 캐시는 그가 차지한 것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

"그 한 번 말고는," 질라가 말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마님 방문 가까이 가지 않았고 마님에 대해 묻는 사람도 하나 없었어요. 마님이 처음으로 큰방에 내려온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내가 점심을 들고 올라갔더니 마님이 더는 추운 데서 못 견디겠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 나리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가실 거고 언쇼 도련님하고 나는 마님이 내려오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마님은 히스클리프 나리의 말이 종종걸음으로 떠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타났는데, 검은 옷을 입고 노란 곱슬머리는 귀 뒤로 넘겨 빗어서 퀘이커 교도처럼 수수하게 하고 있었어요. 빗질을 해서 곱슬머리를 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조지프하고 나는 일요일이면 대개 예배당에 가요." (교회에는 지금 목사가 없어요, 하고 딘 부인이 설명했다. 그리고 기머턴에 있는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회소를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조지프는 갔는데," 질라가 말을 이었다. "나는 집에 남아 있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늘 나이 든 사람이 지켜봐 주는 게 나으니까요. 그리고 헤어턴 도련님은 그렇게 수줍음을 타도 몸가짐이 썩 바른 본보기는 아니거든요. 나는 도련님한테 사촌이 아마 우리하고 같이 앉아 있을 텐데 그 아가씨는 늘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자랐으니, 아가씨가 있는 동안은 총이고 집 안에서 하는 잔일이고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고 일러 주었지요. 도련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져서 제 손하고 옷을 훑어보더라고요. 고래기름하고 화약은 금세 눈에 안 띄는 데로 밀쳐졌어요. 나는 도련님이 마님하고 같이 있어 줄 작정이라는 걸 알았고, 하는 꼴을 보니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짐작했지요.

그래서 주인 나리가 계실 때는 감히 웃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깔깔 웃으면서, 도련님이 원하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도련님이 쩔쩔매는 걸 놀렸어요. 도련님은 뾰로통해지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딘 부인." 내가 자기 말투를 언짢아하는 것을 보고 질라는 말을 이었다. "부인은 아마 부인네 아가씨가 헤어턴 도련님한테는 너무 귀하신 몸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마 부인 말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 콧대를 한풀 꺾어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우.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많은 학식이고 그 고상함이고 마님한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마님은 부인이나 나만큼 가난하고, 장담하건대 우리보다 더 가난하다우. 부인은 돈을 모으고 있고 나도 그 길로 내 딴에는 힘껏 애쓰고 있으니까요."

헤어턴은 질라가 거들어 주는 것을 받아들였고 질라는 헤어턴을 추어올려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캐시가 왔을 때 헤어턴은 예전에 들은 모욕을 반쯤 잊고 상냥하게 굴어 보려고 애썼다고 가정부는 전했다.

"마님은 고드름처럼 차갑게, 공주님처럼 도도하게 들어왔어요." 질라가 말했다. "나는 일어나서 팔걸이의자를 내드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예의를 차리니까 마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언쇼 도련님도 일어나서 긴 의자로 와서 불 가까이 앉으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몸이 꽁꽁 얼었을 거라고요.

"'나는 한 달도 넘게 꽁꽁 얼어 있었어.' 마님은 그 말에 될 수 있는 대로 경멸을 실어 힘주어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마님은 손수 의자를 하나 가져다 우리 둘한테서 멀찍이 떨어진 데 놓았어요. 몸이 녹을 때까지 앉아 있더니 둘레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찬장 위에 책이 여러 권 있는 걸 알아채고는 곧장 다시 일어나서 그 책을 꺼내려고 팔을 뻗었는데, 책이 너무 높은 데 있었지요.

사촌은 마님이 애쓰는 걸 한동안 지켜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도와주었어요. 마님이 치마폭을 벌리자 도련님은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꺼내 거기 채워 주었지요.

"그 젊은이로서는 큰 진전이었어요. 마님은 고맙다는 말도 안 했지만, 그래도 도련님은 마님이 자기 도움을 받아 준 걸 흐뭇하게 여겨서, 마님이 책을 들여다보는 동안 감히 뒤에 서 있기도 하고 몸을 굽혀서 책에 든 낡은 그림 가운데 눈에 띄는 걸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기까지 했는데, 마님이 도련님 손가락 밑에서 책장을 건방지게 홱 잡아채도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도련님은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책 대신 마님을 바라보는 걸로 만족했지요. 마님은 계속 책을 읽거나, 읽을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도련님의 눈길은 차츰 마님의 숱 많은 비단 같은 곱슬머리를 살피는 데로만 쏠렸는데, 도련님은 마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마님도 도련님을 볼 수 없었지요. 그리고 아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아이가 촛불에 끌리듯 끌려서, 마침내 도련님은 쳐다보기만 하다가 만지기에 이르렀는데, 손을 내밀어서 곱슬머리 한 가닥을 새라도 만지듯 살그머니 쓰다듬었어요. 마님이 어찌나 펄쩍 뛰며 돌아서던지, 도련님이 마님 목에 칼이라도 꽂은 줄 알았다니까요.

"'당장 저리 가! 감히 나를 만져?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마님이 질색하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는 정말 못 봐주겠어! 가까이 오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갈 거야.'

"헤어턴 도련님은 더할 나위 없이 바보 같은 얼굴로 뒤로 물러나서 아주 조용히 긴 의자에 앉았고, 마님은 반 시간 동안 더 책장을 넘겼는데, 마침내 언쇼 도련님이 건너와서 나한테 속삭였어요.

"'질라, 저 사람한테 우리한테 책 좀 읽어 달라고 해 줄래? 뭣도 안 하고 있으려니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나는 정말…… 듣고 싶기는 하겄어! 내가 원했다고는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부탁해 봐.'

"'헤어턴 도련님이 마님께서 우리한테 책을 읽어 주시면 좋겠대요.' 나는 곧바로 말했지요. '그래 주시면 아주 고맙게 여길 거래요. 무척 고마워할 거래요.'

"마님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헤어턴 도련님도, 너희 모두도, 너희가 위선을 떨며 내미는 친절한 척은 내가 다 거절한다는 걸 똑똑히 알아 둬! 나는 너희를 경멸하고, 너희 누구하고도 할 말이 없어!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면, 너희 얼굴 하나라도 보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았을 때 너희는 다들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 하지만 너희한테 하소연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내려온 건 추워서지, 너희를 즐겁게 해 주려거나 너희하고 어울려 즐기려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었겄어?' 언쇼 도련님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너는 예외야.' 히스클리프 부인이 대답했어요. '너 같은 건 아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몇 번이나 해 주겠다고 했고, 부탁도 했어.' 도련님이 마님의 건방진 말에 발끈해서 말했어요. '히스클리프 나리한테 내가 너 대신 밤을 새워 주겠다고……'

"'닥쳐! 네 그 듣기 싫은 목소리를 귀에 담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든 어디로든 가 버리겠어!' 우리 마님이 말했어요.

"헤어턴 도련님은 자기로서는 마님이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중얼거리더니, 총을 어깨에서 내려 들고는 일요일에 하던 일을 더는 참지 않았어요. 이제는 꽤 거리낌 없이 말도 했고요. 그러자 마님은 곧제 외톨이 방으로 물러가는 게 낫겠다고 여겼지만,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터라 그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자주 우리하고 어울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 나는 내 호의가 또다시 업신여김을 받는

일은 없게 조심했어요. 그 뒤로 나도 마님만큼 뻣뻣하게 굴었는데, 마님은 우리 가운데 좋아해 주는 사람도 아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돼요. 누가 조금만 말을 걸어도 누구든 가리지 않고 발끈해서 쏘아붙이니까요. 주인 나리한테도 대들고, 때릴 테면 때려 보라고 거의 덤비는 판이에요. 그리고 다치면 다칠수록 더 독살스러워진다니까요."

처음에 질라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 자리를 그만두고 오두막을 하나 얻어서 캐시를 데려와 함께 살 작정을 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씨가 그걸 허락하느니 차라리 헤어턴에게 따로 살림을 차려 주려 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아가씨가 다시 결혼이라도 하지 않는 한 아무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계획은 내가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딘 부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의사의 예언과 달리 나는 빠르게 기운을 되찾고 있고, 아직 일월 둘째 주밖에 안 되었지만 하루 이틀 안에 말을 타고 나가서 워더링 하이츠까지 가 볼 작정인데, 집주인에게 앞으로 여섯 달은 런던에서 지낼 테니 원한다면 시월 이후로 이 집을 맡을 다른 세입자를 찾아보아도 좋다고 알려 줄 생각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또 한 번 겨울을 나고 싶지는 않다.

제31장

어제는 맑고 고요하고 서리가 내린 날이었다. 나는 작정한 대로 하이츠에 갔는데, 가정부가 자기 아가씨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그 착한 부인은 자기 부탁에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으므로 나도 거절하지 않았다. 앞문은 열려 있었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처럼 샘 많은 대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내가 문을 두드리고 꽃밭 사이에 있던 언쇼를 부르자 그가 사슬을 풀어 주어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이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잘생긴 시골 사람이다. 이번에는 그를 특별히 눈여겨보았는데, 보아하니 그는 제가 타고난 장점을 될 수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양이다.

히스클리프 씨가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없지만 점심때는 들어올 거라고 대답했다. 열한 시였으므로 나는 들어가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러자 그는 곧바로 연장을 내던지고, 집주인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집 지키는 개 노릇을 하려고 나를 따라 들어왔다.

우리는 함께 들어갔는데, 캐시가 거기서 곧 차릴 끼니에 쓸 채소를 다듬으며 제 몫을 하고 있었고,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부인은 나를 알은체하려고 눈을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예전처럼 흔한 예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고개 숙여 한 아침 인사에 조금도 답례하지 않았다.

"딘 부인이 내게 믿게 하려던 것만큼 상냥한 사람은 아닌 것 같군." 나는 생각했다. "미인인 건 맞지만 천사는 아니다."

언쇼가 퉁명스럽게 그 물건들을 부엌으로 치우라고 했다. "네가 치워." 부인은 일을 마치자마자 그것들을 밀어내며 그렇게 말하고는 창가의 걸상으로 물러가 앉더니, 무릎에 놓인 순무 껍질로 새와 짐승 모양을 깎기 시작했다. 나는 정원을 구경하고 싶은 척하며 부인에게 다가가서, 내 딴에는 헤어턴이 눈치채지 못하게 솜씨 좋게 딘 부인의 쪽지를 부인의 무릎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인이 큰 소리로 "이게 뭐예요?" 하고 묻더니 그것을 툭 털어 냈다.

"옛 친구분, 그레인지 가정부가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내가 베푼 친절을 부인이 다 드러내 버린 데 짜증이 났고, 그것이 내가 보낸 편지로 여겨질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대답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기꺼이 편지를 집어 들려 했지만 헤어턴이 한발 앞서서, 편지를 낚아채 조끼 속에 넣으며 히스클리프 씨가 먼저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캐시는 말없이 우리한테서 얼굴을 돌리고 아주 남몰래 손수건을 꺼내 눈에 갖다 댔고, 그 사촌은 한동안 누그러지는 마음을 억누르려고 애쓰다가 편지를 꺼내 될 수 있는 대로 무뚝뚝하게 부인 곁 바닥에 내던졌다. 캐시는 편지를 집어 들고 열심히 읽더니, 옛집에 사는 사람이며 짐승들에 대해 나에게 몇 가지를 묻고는, 언덕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미니를 타고 저 아래로 달려 내려가고 싶어!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 아! 나는 지쳤어. *지겨워 죽겠어*, 헤어턴!" 그러고는 반은 하품이고 반은 한숨인 숨을 내쉬며 그 예쁜 머리를 창턱에 기대고는 넋 나간 듯한 서글픈 얼굴로 빠져들었는데, 우리가 자기를 보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히스클리프 부인."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내가 말했다. "제가 부인과 아는 사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너무도 가까운 사이라서,

부인께서 제게 와서 말을 건네지 않으시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인데요. 우리 가정부는 부인 이야기를 하며 부인을 칭찬하는 데 지칠 줄을 모르니, 부인께서 편지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부인에 대한 소식도 부인이 보내는 소식도 없이 제가 돌아가면 크게 실망할 겁니다!"

부인은 이 말에 의아해하는 것 같더니 물었다.

"엘렌이 당신을 좋아해요?"

"네, 꽤 좋아합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엘렌한테 전해 주세요." 부인이 말을 이었다. "편지에 답장을 하고 싶지만 쓸 거리가 없다고요. 한 장 찢어 쓸 책 한 권도 없다고요."

"책이 없다니요!" 내가 외쳤다. "외람되지만 여쭤봐도 된다면, 책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큰 서재가 있는데도 그레인지에서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제 책을 빼앗아 가면 저는 절망에 빠질 겁니다!"

"책이 있을 때는 나는 늘 읽었어요." 캐시가 말했다. "그런데 히스클리프 씨는 책을 읽지 않으니까 내 책을 없애 버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몇 주째 책이라곤 구경도 못 했어요. 딱 한 번 조지프가 쌓아 둔 신학 책을 뒤져 봤는데 조지프가 몹시 성을 냈지요. 그리고 한 번은, 헤어턴, 네 방에서 몰래 쌓아 둔 책을 찾아냈어. 라틴어 책하고 그리스어 책 몇 권, 이야기책하고 시집 몇 권, 다 내 옛 친구들이었어. 그 이야기책하고 시집은 내가 여기 가져온 건데, 너는 까치가 은수저를 주워 모으듯 그저 훔치는 게 좋아서 그걸 모아 놓았지! 너한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야. 아니면 너는 누리지 못하니 남도 못 누리게 하겠다는 고약한 마음으로 그걸 숨겨 놓은 거겠지. 어쩌면 *네* 시샘이 히스클리프 씨더러 내 보물을 빼앗으라고 부추긴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 책들을 거의 다 머릿속에 적어 두고 가슴에 새겨 두었으니, 그건 네가 빼앗지 못해!"

사촌이 그렇게 자기가 남몰래 모아 둔 책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자 언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런 비난은 당치도 않다고 더듬더듬 성을 내며 부인했다.

"헤어턴 씨는 지식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그를 구해 주려고 말했다. "부인의 학식을 *시샘하는* 게 아니라 *본받으려는* 거지요. 몇 년 안에 똑똑한 학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바보가 되어 가라는 거지요." 캐시가 대답했다. "그래요, 저 애가 혼자서 철자를 짚어 가며 읽으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리는데, 틀리는 게 아주 가관이에요! 어제처럼 「체비 체이스」를 외워 봐. 엄청 웃겼어. 다 들었어. 어려운 말을 찾으려고 사전을 뒤적이다가 그 풀이를 못 읽으니까 욕을 하는 것도 다 들었어!"

그 젊은이는 무식하다고 비웃음을 사고, 그 무식을 벗어나려고 애쓴다고 또 비웃음을 사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여기는 게 분명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었으므로, 그가 자라 온 어둠을 밝혀 보려고 처음 애썼던 일에 관해 딘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부인, 우리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고, 누구나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휘청거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대신 비웃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있을 겁니다."

"아!" 부인이 대답했다. "저 애가 배우는 걸 막고 싶지는 않지만, 저 애한테는 내 것을 제 것으로 삼아서 그 지독한 실수하고 엉터리 발음으로 나한테 우스꽝스럽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그 책들은 산문이든 시든 다른 추억 때문에 나한테는 거룩한 것인데, 저 애 입에서 그게 천해지고 더럽혀지는 건 싫어요! 게다가 저 애는 일부러 심술이라도 부리듯, 내가 가장 즐겨 외우는 좋아하는 대목들만 골라 놓았어요."

헤어턴은 잠깐 말없이 가슴을 들썩였는데, 쉽게 억누를 수 없는 지독한 굴욕감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그의 난처함을 덜어 주려는 신사다운 생각에서 문간에 자리를 잡고 서서 바깥 경치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따라 방을 나갔지만 곧 책 대여섯 권을 손에 들고 다시 나타나서는 캐시의 무릎에 내던지며 외쳤다. "가져가! 다시는 듣고 싶지도, 읽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안 가질래." 부인이 대답했다. "너하고 엮어서 생각하게 될 테니 그 책들도 미워질 거야."

부인은 여러 번 펼쳐 본 게 분명한 책 한 권을 펼쳐서, 처음 글을 배우는 사람처럼 질질 끄는 말투로 한 대목을 읽더니, 깔깔 웃고는 그 책을 내던졌다. "그리고 들어 봐." 부인은 약을 올리며 말을 잇더니, 같은 투로 옛 민요 한 절을 읊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고, 그 건방진 혀에 손찌검으로 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만 여기지는 않았다. 그 못된 아가씨는 사촌의, 다듬어지지는 않았어도 예민한 마음을 다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으니, 그로서는 셈을 맞추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대가를 되갚는 방법이 몸으로 따지는 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는 그다음에 책을 모아서 불속에 내던졌다. 울화를 못 이겨 그런 희생을 바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나는 그 얼굴에서 읽었다. 책이 타들어 가는 동안 그는 그 책들이 이미 안겨 준 즐거움과, 그 책들에서 얻으리라 기대했던 승리감과 나날이 커 가는 즐거움을 떠올리는 것 같았고, 나는 그가 남몰래 공부한 까닭도 짐작이 가는 듯했다. 그는 캐시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날마다 하는 일과 거친 짐승 같은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았다. 캐시의 경멸에 대한 부끄러움과 캐시에게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그를 처음으로 더 높은 것을 찾도록 몰아세웠는데, 제 몸을 일으키려던

그의 노력은 그를 경멸에서 지켜 주고 인정을 얻게 해 주기는커녕 바로 그 반대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래, 너 같은 짐승이 그 책들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캐시는 다친 입술을 빨며 분한 눈으로 활활 타는 불길을 지켜보면서 소리쳤다.

"이제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그가 사납게 대답했다.

그는 흥분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문간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 주었다. 그러나 그가 문간 돌을 다 건너기도 전에, 둑길을 올라오던 히스클리프 씨가 그와 마주치더니 그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얘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서 슬픔과 분노를 삭이려고 뿌리치고 가 버렸다.

히스클리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가로막는다면 이상한 일이겠지." 그는 내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 녀석 얼굴에서 그 아비를 찾아보면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 더 보이니! 대체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는 땅으로 눈을 떨구고 시무룩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들뜨고 불안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몸도 더 말라 보였다. 그의 며느리는 창 너머로 그를 알아보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달아났고,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

"다시 바깥에 나다니게 되셨다니 반갑소, 록우드 씨." 내 인사에 그가 대답했다. "얼마쯤은 내 욕심 때문이기도 하오. 이 적막한 곳에서 당신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를 쉽게 채울 수 없을 것 같거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한두 번 궁금해했던 게 아니오."

"아마 하찮은 변덕 때문이었겠지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면 이번에는 하찮은 변덕이 저를 이곳에서 데려가려는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런던으로 떠날 작정이라, 빌리기로 약정한 열두 달이 지나면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더 붙들고 있을 생각이 없다는 걸 미리 알려 드려야겠습니다. 다시는 그곳에서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소. 세상에서 쫓겨나 사는 데 진력이 났나 보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살지도 않을 집의 집세를 깎아 달라고 사정하러 온 거라면 헛걸음했소. 나는 누구한테서든 받을 것은 사정없이 받아 내니까."

"전혀 그런 사정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꽤 화가 나서 외쳤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셈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니, 아니오."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은 두고 갈 테니, 나는 그렇게 급하지 않소. 앉아서 우리와 같이 점심을 드시오. 다시 찾아올 염려가 없는 손님이라면 대개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법이지. 캐시! 상 차릴 것을 가져와. 어디 있는 거야?"

캐시가 나이프와 포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너는 조지프하고 먹어." 히스클리프가 따로 낮게 말했다. "그리고 이분이 갈 때까지 부엌에 있어."

부인은 그 지시를 아주 꼼꼼히 따랐다. 아마 어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리라. 촌뜨기들과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 틈에서 살다 보니, 아마 더 나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한쪽에는 음울하고 침울한 히스클리프 씨가, 다른 쪽에는 아예 벙어리가 된 헤어턴이 있었으니 나는 다소 쓸쓸한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작별을 고했다. 캐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늙은 조지프의 약도 올릴

겸 뒷길로 나가고 싶었지만, 헤어턴이 내 말을 끌고 오라는 명을 받았고 집주인이 몸소 문까지 나를 배웅하는 바람에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저 집에서는 삶이 얼마나 음울하게 흘러가는가!" 말을 타고 길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다. "그 착한 유모가 바랐던 대로 린턴 히스클리프 부인과 내가 서로 정이 들어서 함께 활기찬 도시의 공기 속으로 옮겨 갔다면, 부인에게는 동화보다 더 낭만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셈이었을 텐데!"

제32장

1802년. 이번 구월에 나는 북쪽에 사는 친구에게서 그 집 황야에 와서 사냥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달라는 초대를 받았는데,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기머턴에서 15마일 안쪽까지 오게 되었다. 길가 주막의 마부가 내 말들에게 물 한 통을 들이대어 목을 축여 주고 있는데, 갓 베어 낸 아주 푸른 귀리를 실은 수레 한 대가 지나가자 그가 한마디 했다. "저건 기머턴에서 오는 거구먼, 그려! 그 동네는 늘 남들보다 추수가 세 주씩 늦는구먼."

"기머턴?" 나는 되풀이했다. 그 고장에 머물렀던 일이 벌써 흐릿하고 꿈결 같아져 있었다. "아! 알지. 여기서 얼마나 멀지?"

"언덕 넘어 14마일쯤 되겠소. 길도 험하고." 그가 대답했다.

갑자기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직 한낮도 되지 않았으니 여관에서 묵느니 내 집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하루쯤은 쉽게 내서 집주인과 일을 매듭지을 수 있었고, 그러면 그 근방에 또 쳐들어가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잠시 쉬고 나서 나는 하인에게 마을로 가는 길을 물어 오게 했고, 짐승들을 몹시 지치게 하면서 세 시간쯤 걸려 그 거리를 해냈다.

나는 하인을 거기 남겨 두고 혼자 골짜기를 내려갔다. 잿빛 교회는 더 잿빛으로 보였고 외로운 교회 묘지는 더 외로워 보였다. 황야 양 한 마리가 무덤 위의 짧은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달콤하고 따뜻한 날씨였는데, 여행하기에는 너무 더웠지만 그 더위도 위아래로

펼쳐진 기분 좋은 경치를 즐기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았고, 팔월에 더 가까울 때 이 경치를 보았더라면 틀림없이 그 적막 속에서 한 달쯤 허송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언덕에 갇힌 그 골짜기들과 깎아지른 듯 우뚝 솟은 히스 벌판의 굽이만큼 겨울에 음울한 것도 없고, 여름에 거룩한 것도 없다.

나는 해가 지기 전에 그레인지에 닿아 들여보내 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부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푸른 연기 한 줄기로 짐작하건대 집안사람들은 뒤채로 물러가 있어서 내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말을 탄 채 마당으로 들어갔다. 현관 차양 밑에 아홉 살이나 열 살쯤 된 여자아이가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늙은 여자 하나가 현관 계단에 비스듬히 기대어 생각에 잠긴 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딘 부인은 안에 있소?" 나는 그 노파에게 물었다.

"딘 부인 말이오? 아니요!" 노파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여기 안 살우. 하이츠에 가 있구려."

"그럼 당신이 가정부요?" 내가 말을 이었다.

"그렇소, 내가 집을 보고 있소." 노파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집 주인인 록우드요. 내가 묵을 방이 있겠소? 오늘 밤 여기서 묵고 싶은데."

"쥔 나리라고요!" 노파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나리가 오실 줄 누가 알았겄소? 기별이라도 주셨어야지. 이 집엔 마른 데도 번듯한 데도 하나 없소. 하나도 없다니까!"

노파는 담뱃대를 내던지고 부산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아이가 뒤따랐고, 나도 들어갔다. 노파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과, 게다가 반갑지 않은 내가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노파가 거의 넋이 나갔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고 나는 진정하라고 일렀다. 나는 산책을 하러 나갈 테니 그동안 거실 한구석에 저녁 먹을 자리와 잠잘 침실을 마련해 보라고

했다. 쓸고 먼지 털 것 없이, 불만 잘 피우고 마른 홑이불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노파는 최선을 다하려는 것 같았지만, 부지깽이인 줄 알고 난로 솔을 쇠살대에 쑤셔 넣는가 하면 제 살림 도구 몇 가지를 엉뚱하게 쓰기도 했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쉴 곳을 마련해 놓으리라고 노파의 열성을 믿고 물러 나왔다. 내가 생각한 나들이의 목적지는 워더링 하이츠였다. 마당을 벗어났을 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 나는 다시 돌아갔다.

"하이츠는 다 잘 지내오?" 나는 노파에게 물었다.

"그렇소, 내가 아는 한은!" 노파는 뜨거운 재가 담긴 냄비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가며 대답했다.

딘 부인이 왜 그레인지를 떠났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판국에 노파를 붙잡아 둘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돌아서서 집을 나서서, 등 뒤로는 지는 해가 빛을 내뿜고 앞으로는 떠오르는 달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하나는 스러지고 하나는 밝아지는 그 사이를 나는 느긋하게 걸어 영지를 벗어나서 히스클리프 씨의 집으로 갈라지는 돌투성이 샛길을 올라갔다. 집이 보이는 데까지 가기도 전에 낮의 흔적이라고는 서쪽 하늘을 따라 남은 빛줄기 없는 호박색 빛뿐이었지만, 그 휘황한 달빛 덕분에 길 위의 조약돌 하나, 풀잎 하나까지 다 보였다. 대문을 기어오를 필요도 두드릴 필요도 없었다. 손을 대자 대문이 열렸다. 나아진 점이로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코 덕분에 또 하나 나아진 점을 알아챘는데, 소박한 과일나무들 사이에서 비단향꽃무와 꽃무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왔다.

문도 격자창도 다 열려 있었지만, 탄광 지방에서 흔히 그렇듯 굴뚝에는 붉은 불길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을 보며 눈이 얻는 위안 덕분에 덤으로 따라오는 더위도 견딜 만한 법이다. 그러나 워더링 하이츠의 큰방은 아주 넓어서 집안사람들이 그 불기운에서

얼마든지 멀찍이 물러나 있을 수 있었으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창 하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므로 그대로 보고 들었는데, 서성이는 동안 점점 커지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뒤섞인 마음에 이끌려서였다.

"*반*-대!" 은방울처럼 고운 목소리가 말했다. "그게 세 번째야, 이 멍청아! 다시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잘 기억해, 안 그러면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거야!"

"그럼, 반대." 또 하나의 목소리가 낮지만 부드러워진 말투로 대답했다. "자, 이렇게 잘 기억했으니까 입 맞춰 줘."

"싫어. 먼저 하나도 틀리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 봐."

남자가 읽기 시작했는데, 점잖게 옷을 차려입고 탁자 앞에 앉아 책을 펴 놓은 젊은이였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눈은 자꾸만 조바심을 치며 책장에서 그의 어깨 너머에 있는 작고 흰 손으로 헤매었는데, 그 손은 주인이 그런 딴전의 기색을 알아챌 때마다 뺨을 찰싹 때려서 그를 불러들였다. 그 손의 주인은 뒤에 서 있었는데, 그의 공부를 살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밝게 빛나는 그 고수머리가 이따금 그의 갈색 머리칼에 섞여 들었고, 그 얼굴은, 그가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다행이었는데, 보았더라면 그렇게 차분히 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을 기회를 내던져 버렸다는 생각에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과제는 끝났는데, 또 몇 군데 틀리기는 했지만 학생은 상을 달라고 해서 적어도 다섯 번은 입맞춤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그 입맞춤을 아낌없이 되돌려 주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문 쪽으로 왔고, 나누는 이야기로 짐작하건대 밖으로 나가 황야를 거닐려는 참이었다. 그때 내가

불운한 이 몸을 그 근처에 드러냈다가는 헤어턴 언쇼의 입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지라는 선고를 받으리라고 나는 짐작했고, 몹시 비열하고 심술궂은 기분이 되어 부엌으로 피하려고 슬그머니 돌아갔다. 그쪽도 가로막는 것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문간에는 내 옛 친구 넬리 딘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노래는 안에서 들려오는 거칠게 비웃고 못마땅해하는 말소리에 자주 끊겼는데, 그 말소리는 음악과는 거리가 먼 가락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귓가에서 욕지거리를 듣는 게 차라리 백번 낫지, 네 그 노랫소리는 듣고 싶지 않구먼!" 넬리가 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대꾸로 부엌을 차지한 사람이 말했다. "그 거룩한 성경을 펴기만 하면 네가 사탄을 기리는 그 노래하고 이 세상에 생겨난 온갖 소름 끼치는 죄악을 죄다 늘어놓으니, 이건 이만저만한 망신이 아니여! 아! 넌 정말 쓸모없는 것이고 그 계집애도 마찬가지니, 저 불쌍한 녀석은 너희 둘 틈에서 망하고 말겄구먼. 불쌍한 녀석!" 그는 신음하며 덧붙였다. "그 녀석은 홀렸어. 암, 틀림없구먼. 오, 주여, 저것들을 심판하소서. 우리 윗사람들한테는 법도 정의도 없구먼!"

"그렇겠지! 아니면 우린 벌써 활활 타는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었을 테니까." 노래하던 이가 받아쳤다. "하지만 쉿, 영감,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이나 읽고 나는 상관하지 마. 이건 「요정 애니의 혼례」라는 고운 곡인데, 춤출 때 부르는 노래야."

딘 부인이 다시 노래를 시작하려는 참에 내가 다가갔다. 부인은 곧바로 나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아이고, 세상에, 록우드 나리! 어떻게 이렇게 불쑥 돌아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는 다 닫아 두었는데요. 미리 알려 주셨어야지요!"

"머무는 동안 지낼 곳은 거기 마련해 두었소." 내가 대답했다. "내일 다시 떠날 거요. 그런데 딘 부인, 어떻게 여기로 옮겨 오게 되었소? 그 얘기 좀 해 주시오."

"질라가 떠나서 나리가 런던으로 가시고 얼마 안 되어 히스클리프 씨가 나더러 여기 와서 나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그건 그렇고,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에 기머턴에서 걸어오셨어요?"

"그레인지에서 왔소." 내가 대답했다. "거기서 내 잠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부인네 주인과 볼일을 마무리 짓고 싶소. 서둘러 다시 기회를 만들 생각은 없으니까."

"무슨 볼일이세요, 나리?" 넬리가 나를 큰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분은 지금 나가고 없고 곧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집세 문제요." 내가 대답했다.

"아! 그럼 히스클리프 부인하고 셈을 하셔야 해요." 부인이 말했다. "아니, 그보다는 나하고 하셔야지요. 아가씨는 아직 제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내가 대신 맡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나는 놀란 얼굴을 했다.

"아! 히스클리프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으셨군요." 부인이 말을 이었다.

"히스클리프가 죽었다고!" 나는 깜짝 놀라 외쳤다. "언제?"

"석 달 전이에요. 그건 그렇고 앉으세요, 모자 이리 주시고요. 다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드셨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소. 집에 저녁을 시켜 두었으니까. 부인도 앉으시오. 그 사람이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소! 어떻게 된 일인지 들려주시오. 젊은 사람들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네, 저녁마다 늦게까지 쏘다닌다고 나무라는데도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집 묵은 맥주라도 한잔 드세요. 몸에 좋을 거예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내가 사양하기도 전에 부인은 서둘러 맥주를 가지러 갔고, 조지프가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나이에 사내들을 꾀어 들이다니 이게 통곡할 망신 아니겄어? 게다가 쥔 나리 술 창고에서 술 단지까지 꺼내 가다니! 가만히 서서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다 창피해 죽겄구먼."

부인은 대꾸하려고 멈춰 서지도 않고 곧 거품이 넘치는 은 맥주잔을 들고 다시 들어왔고, 나는 그 맛을 마땅히 진심을 다해 칭찬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히스클리프의 이야기 그 뒷부분을 들려주었다. 부인의 말을 빌리면 그는 '기이한' 최후를 맞았다.

◆

나리가 우리를 떠나시고 두 주도 안 되어 나는 워더링 하이츠로 불려 갔어요, 하고 부인은 말했다. 나는 캐시를 위해서 기꺼이 따랐다. 처음 아가씨를 만났을 때 나는 마음이 아프고 깜짝 놀랐는데, 헤어진 뒤로 아가씨가 그만큼 많이 변해 있었다. 히스클리프 씨는 왜 마음을 바꿔 나를 여기 오게 했는지 까닭은 밝히지 않았고, 그저 내가 필요하고 캐시를 보는 데 진력이 났다고 하면서, 나더러 작은 응접실을 내 거처로 삼고 아가씨를 내 곁에 데리고 있으라고 했다. 하루에 한두 번 아가씨를 보는 것만도 그에게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아가씨는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고, 나는 그레인지에서 아가씨가 즐기던 책이며 다른 물건들을 조금씩 많이 몰래 들여왔으며, 우리가 그런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스스로 흐뭇해했다.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만족하던 캐시가 얼마 안 되어 짜증을 내고 안절부절못하게 되었다.

하나는 아가씨가 정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봄이 다가오는데 그 좁은 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몹시 속을 태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집안일을 돌보느라 아가씨 곁을 자주 떠나야 해서 아가씨가 외롭다고 투덜거렸기 때문이다. 아가씨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느니 부엌에서 조지프와 다투는 쪽을 더 좋아했다. 나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이 큰방을 혼자 쓰고 싶어 할 때면 헤어턴도 부엌으로 와야 할 때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아가씨가 헤어턴이 다가오면 부엌을 떠나거나 조용히 내 일을 거들며 헤어턴을 두고 말을 하거나 헤어턴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했고, 헤어턴도 늘 더할 나위 없이 뚱하고 말이 없었지만, 얼마 지나자 아가씨는 태도를 바꾸어 헤어턴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못했다. 들으라는 듯이 빈정거리고, 그가 멍청하고 게으르다고 꼬집고, 어떻게 그런 삶을 견디는지, 어떻게 저녁 내내 불만 바라보며 꾸벅꾸벅 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저 애는 꼭 개 같아, 안 그래, 엘렌?" 아가씨가 한번은 그렇게 말했다. "아니면 짐수레 끄는 말이든가? 일하고, 먹고, 끝도 없이 자기만 하잖아! 마음속이 얼마나 텅 비고 음울할까! 헤어턴, 너도 꿈을 꾸니? 꾼다면 무슨 꿈이야? 하지만 너는 나하고 말을 못 하지!"

그러고는 아가씨가 헤어턴을 쳐다보았지만, 헤어턴은 입을 열지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쩌면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 아가씨가 말을 이었다. "주노가 어깨를 씰룩이듯이 어깨를 씰룩였어. 물어봐, 엘렌."

"아가씨가 얌전히 굴지 않으면 헤어턴 도련님이 주인 나리한테 아가씨를 위층으로 올려 보내라고 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헤어턴은 어깨를 씰룩였을 뿐 아니라, 그 주먹을 쓰고 싶은 듯이 주먹까지 꽉 쥐고 있었다.

"내가 부엌에 있을 때 헤어턴이 왜 한마디도 안 하는지 알아." 또 한번은 아가씨가 외쳤다. "내가 비웃을까 봐 겁이 나는 거야. 엘렌, 어떻게 생각해? 저 애가 한번은 혼자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웃었다고 책을 불태우고 그만둬 버렸어. 바보 아니야?"

"아가씨가 짓궂었던 건 아니고요?" 내가 말했다. "그것부터 대답해 봐요."

"그랬을지도 몰라." 아가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 애가 그렇게 어리석게 굴 줄은 몰랐어. 헤어턴, 내가 책을 주면 이제는 받을래? 어디 해 볼게!"

아가씨는 읽고 있던 책 한 권을 헤어턴의 손에 얹었는데, 헤어턴은 그것을 내던지고는 그만두지 않으면 목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럼 여기 탁자 서랍에 넣어 둘게." 아가씨가 말했다. "나는 자러 갈 거야."

그러고는 헤어턴이 그 책에 손을 대는지 지켜보라고 나한테 속삭이고는 가 버렸다. 그러나 헤어턴은 그 책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침에 내가 그렇게 알려 주자 아가씨는 몹시 실망했다. 나는 아가씨가 헤어턴의 끈질긴 뚱함과 게으름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헤어턴이 스스로 나아지려는 것을 겁주어 그만두게 했다고 아가씨의 양심이 아가씨를 나무랐고, 아가씨는 정말로 그 일을 단단히 해낸 셈이었다. 그러나 아가씨는 그 상처를 바로잡으려고 꾀를 짜냈다. 내가 다림질을 하거나 응접실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붙박이 일을 하고 있으면 아가씨는 재미있는 책을 가져와서 나한테 소리 내어 읽어 주곤 했다. 헤어턴이 거기 있으면 아가씨는 대개 재미있는 대목에서 읽기를 멈추고 책을 아무렇게나 놓아두었는데, 그런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지만, 헤어턴은 노새처럼 고집이 세서 아가씨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기는커녕, 비 오는 날이면 조지프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난로 양쪽에 하나씩 앉아 태엽 인형처럼 앉아 있었는데, 늙은 쪽은 다행히 귀가 너무 어두워서 자기 말대로라면 아가씨의 그 못된 헛소리를 알아듣지 못했고, 젊은 쪽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느라 애를 썼다. 날씨가 좋은 저녁이면 젊은 쪽은 사냥을 나갔고, 캐시는 하품을 하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해 달라고 나를 졸랐다가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마당이나 정원으로 뛰쳐나갔고, 마지막 수단으로는 울면서 사는 게 지겹다고, 자기 삶은 쓸모가 없다고 했다.

히스클리프 씨는 점점 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서 언쇼를 자기 방에서 거의 내쫓다시피 했다. 삼월 초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언쇼는 며칠 동안 부엌에 붙박여 지냈다. 혼자 언덕에 나가 있다가 총이 터졌는데, 파편에 팔을 베어서 집에 닿기도 전에 피를 꽤 많이 흘렸다. 그 바람에 언쇼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난롯가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다. 그가 거기 있는 것이 캐시에게는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튼 그 때문에 아가씨는 위층 제 방을 어느 때보다 더 싫어하게 되었고, 나를 따라 내려올 수 있도록 나더러 아래층에서 할 일을 찾아내라고 졸라 대곤 했다.

부활절 다음 월요일에 조지프는 소 몇 마리를 끌고 기머턴 장에 갔고, 오후에 나는 부엌에서 빨래를 손질하느라 바빴다. 언쇼는 여느 때처럼 시무룩하게 난롯가 구석에 앉아 있었고, 우리 작은 아가씨는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며 한가한 시간을 달래고 있었는데, 노래를 흥얼거리다 삼키고, 속삭이듯 무어라 혼잣말을 하고, 짜증스럽고 조바심 나는 눈길로 사촌 쪽을 흘끗거리며 심심풀이에 변화를 주었지만, 사촌은 꿋꿋이 담배를 피우며 난로 쇠살대만 들여다보았다. 아가씨가 계속 빛을 가리면 일을 못 하겠다고 내가 한마디 하자, 아가씨는 난롯돌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아가씨가 무엇을 하는지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윽고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있잖아, 헤어턴, 나는 알게 됐어, 나는 네가…… 나는 기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성질부리고 거칠게 굴지만 않았으면, 이제는 네가 내 사촌이었으면 좋겠어."

헤어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헤어턴, 헤어턴, 헤어턴! 듣고 있어?" 아가씨가 말을 이었다.

"저리 가!" 헤어턴이 한 치도 양보 없이 퉁명스럽게 으르렁거렸다.

"그 담뱃대 이리 줘." 아가씨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헤어턴의 입에서 담뱃대를 빼내며 말했다.

헤어턴이 되찾으려고 손을 쓰기도 전에 담뱃대는 부러져서 불 뒤로 들어가 있었다. 헤어턴은 아가씨에게 욕을 퍼붓고 다른 담뱃대를 집어 들었다.

"잠깐." 아가씨가 소리쳤다. "먼저 내 말을 들어야 해. 그 연기구름이 내 얼굴 앞에서 떠다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악마한테나 가 버려!" 헤어턴이 사납게 외쳤다. "그리고 나 좀 가만 놔둬!"

"싫어." 아가씨가 고집했다. "안 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나하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는 알아듣지 않기로 작정했잖아. 내가 너더러 멍청하다고 할 때 아무 뜻도 없는 거야. 너를 경멸한다는 뜻이 아니야. 자, 나를 좀 봐 줘, 헤어턴. 너는 내 사촌이니까 나를 사촌으로 인정해야 해."

"너하고 네 그 더러운 자존심하고 그 빌어먹을 놀려 대는 짓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안 하겠어!" 헤어턴이 대답했다. "다시 너를 곁눈질이라도 하느니 몸이고 영혼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 썩 비켜, 지금 당장!"

캐시는 얼굴을 찡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창가 자리로 물러가서, 괴상한 가락을 흥얼거리며 차츰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감추려고 애썼다.

"아가씨가 버릇없이 군 걸 뉘우치고 있으니 사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헤어턴 도련님." 내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도련님한테 아주 좋을 거야. 아가씨를 말동무로 두면 도련님은 딴사람이 될 거야."

"말동무라고!" 헤어턴이 소리쳤다. "나를 미워하고, 제 신발 닦을 자격도 없는 놈으로 아는데! 싫어, 그걸로 왕이 된다 해도, 저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쓰다가 다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거야."

"너를 미워하는 건 내가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건 너야!" 캐시가 더는 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울며 말했다. "너는 히스클리프 씨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를 미워해."

"이 빌어먹을 거짓말쟁이." 언쇼가 말을 꺼냈다. "그럼 내가 왜 백 번도 넘게 네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화나게 했겠어? 그것도 네가 나를 비웃고 경멸할 때 말이야, 그리고…… 계속 나를 괴롭혀 봐, 저기 들어가서 네가 들볶아서 부엌에서 쫓겨났다고 말할 테니!"

"네가 내 편을 들어 준 줄은 몰랐어." 아가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비참해서 모두한테 독이 올라 있었어. 하지만 이제 고마워.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빌게. 그것 말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아가씨는 난롯가로 돌아와서 솔직하게 손을 내밀었다. 헤어턴은 먹구름처럼 얼굴이 시커메지고 험상궂어져서 주먹을 단단히 움켜쥔 채 땅바닥만 노려보았다. 캐시는 본능으로, 이 고집스러운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 싫은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옹고집이라는 것을 알아챈 게 틀림없었는데, 잠깐 망설이며 서 있더니 몸을 숙여 헤어턴의 뺨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 꼬마 장난꾸러기는 내가 보지 못한 줄 알고, 물러나서 아주 얌전하게 아까 있던 창가 자리로 돌아갔다. 내가

나무라듯 고개를 젓자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엘렌? 악수도 안 하려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저 애를 좋아한다는 걸,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 줘야 했잖아."

그 입맞춤이 헤어턴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헤어턴은 몇 분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몰라 몹시 쩔쩔맸다.

캐시는 근사한 책 한 권을 흰 종이로 깔끔하게 싸서 리본 한 가닥으로 묶고 겉에 '헤어턴 언쇼 씨께'라고 쓰더니, 나더러 사절이 되어 그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받겠다고 하면 내가 가서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전해 줘." 아가씨가 말했다. "그리고 거절하면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시는 저 애를 놀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 책을 가져가서 그 말을 전했고, 내 주인 아가씨는 애타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헤어턴은 손가락을 펴려 하지 않아서 나는 그 책을 무릎 위에 놓았다. 헤어턴은 그것을 쳐내지도 않았다. 나는 하던 일로 돌아갔다. 캐시는 탁자에 머리와 두 팔을 얹고 엎드려 있다가 책을 싼 종이가 벗겨지는 가벼운 바스락 소리를 듣자, 살그머니 다가가서 사촌 곁에 조용히 앉았다. 헤어턴은 몸을 떨었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 무례함도 그 뚱한 거친 성미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처음에는 아가씨의 묻는 눈길과 속삭이는 부탁에 한마디도 대답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용서한다고 말해 줘, 헤어턴, 응. 그 짧은 한마디만 해 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헤어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다.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 줄 거지?" 캐시가 묻듯이 덧붙였다.

"아니, 너는 평생 날마다 나를 부끄러워할 거야." 헤어턴이 대답했다. "나를 알면 알수록 더 부끄러워할 텐데, 나는 그걸 못 견뎌."

"그래서 내 친구가 안 되어 주겠다고?" 아가씨가 꿀처럼 달콤하게 웃으며 바싹 다가앉았다.

그 뒤로는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가 더 들리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보니 받아들인 책의 책장 위로 숙인 두 얼굴이 어찌나 환하게 빛나던지, 나는 양쪽이 조약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원수들은 그때부터 굳게 맹세한 동맹이 되었다.

두 사람이 들여다보는 책에는 값비싼 그림이 가득했는데, 그 그림들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그 자리가 어찌나 좋았던지 두 사람은 조지프가 집에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엾게도 조지프는 캐시가 헤어턴 언쇼와 한 의자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광경에 기가 막혀 버렸고, 자기가 아끼는 녀석이 아가씨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참고 있다는 데 어리둥절했다. 그 일이 너무 깊이 충격을 주어서 조지프는 그날 밤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마음은 그가 큰 성경책을 엄숙하게 탁자 위에 펴고 그날 장사해서 번 더러운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그 위에 늘어놓으면서 내쉬는 어마어마한 한숨으로만 드러났다. 마침내 조지프는 헤어턴을 자리에서 불러냈다.

"이걸 쥔 나리한테 갖다드려라, 이 녀석아." 조지프가 말했다. "그리고 거기 있어.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겠다. 이 구덩이는 우리한테 번듯하지도 점잖지도 않으니, 우린 자리를 떠서 딴 데를 찾아야겠구먼."

"자, 캐시 아가씨." 내가 말했다. "우리도 '자리를 떠야'겠어요. 다림질은 다 끝냈어요. 갈 준비 됐어요?"

"아직 여덟 시도 안 됐잖아!" 아가씨가 마지못해 일어나며 대답했다. "헤어턴, 이 책은 벽난로 선반 위에 두고 갈게. 내일 더 가져올게."

"네가 두고 가는 책은 뭣이든 내가 큰방에 갖다 놓겠다." 조지프가 말했다. "그러면 그 책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거여. 그러니 네 맘대로 해 봐라!"

캐시는 그러면 조지프의 책이 자기 책 대신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헤어턴 곁을 지나며 방긋 웃고 노래를 부르며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감히 말하건대 린턴을 처음 찾아가던 무렵을 빼면 그 지붕 아래에서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친밀함은 이따금 끊기기도 했지만 빠르게 자라났다. 언쇼는 바란다고 해서 한순간에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고, 우리 아가씨도 철학자도 아니고 참을성의 본보기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한 사람은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서 존경받고 싶어 했으므로, 두 사람은 마침내 거기 닿아 내고 말았다.

보시다시피, 록우드 나리, 히스클리프 부인의 마음을 얻기는 꽤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리가 그러려고 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내가 바라는 일 가운데 으뜸은 저 두 사람이 맺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는 날이면 나는 아무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잉글랜드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제33장

그 월요일 이튿날, 언쇼는 아직도 늘 하던 일을 할 수 없어서 집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나는 지금까지처럼 아가씨를 내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은 안 되겠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아가씨는 나보다 먼저 아래층에 내려가서, 사촌이 손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둔 정원으로 나갔는데, 내가 아침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러 갔을 때 보니 아가씨는 헤어턴을 구슬려서 까치밥나무와 구스베리 덤불을 뽑아 넓은 땅을 치우게 해 놓았고, 두 사람은 그레인지에서 화초를 옮겨 올 계획을 함께 짜느라 바빴다.

불과 반 시간 사이에 저질러 놓은 그 쑥대밭을 보고 나는 질겁했는데, 검은 까치밥나무는 조지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것이었고, 아가씨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꽃밭 자리를 골라 놓은 참이었다.

"저런! 이걸 들키는 순간 주인 나리한테 다 보여 드리게 될 거예요." 내가 외쳤다.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제멋대로 해 놓고 무슨 핑계를 댈 거예요? 이 일로 머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두고 봐요! 헤어턴 도련님, 아가씨가 시킨다고 가서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을 만큼 도련님한테 꾀가 없다니 기가 막히네."

"조지프 거라는 걸 잊고 있었어." 언쇼가 조금 어리둥절해서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그랬다고 말할게."

우리는 늘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끼니를 먹었다. 나는 차를 따르고 고기를 써는 안주인 노릇을 했으므로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캐시는 대개 내 곁에 앉았지만 오늘은 헤어턴 쪽으로 살그머니 다가앉았는데, 나는 곧 아가씨가 미워할 때 분별이 없었던 것처럼 우정에서도 분별이 없겠다는 것을 알아챘다.

"자, 사촌하고 너무 이야기하거나 너무 눈길 주지 않도록 조심해요." 우리가 방에 들어설 때 나는 그렇게 속삭여 일렀다. "틀림없이 히스클리프 씨 비위를 건드릴 테고, 그러면 두 사람한테 다 불같이 화를 낼 거예요."

"안 그럴게."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아가씨는 헤어턴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의 귀리죽 접시에 앵초꽃을 꽂고 있었다.

헤어턴은 거기서 아가씨에게 감히 말을 걸지도 못했고 쳐다보지도 거의 못 했는데, 그래도 아가씨는 계속 놀려 대서 그가 두 번이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자 아가씨는 주인 쪽을 흘끗 보았는데, 주인은 얼굴빛으로 보아 함께 앉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일에 마음이 가 있었고, 아가씨는 잠깐 진지해져서 아주 심각하게 주인을 살폈다. 그러더니 아가씨는 돌아앉아 다시 장난을 시작했고, 마침내 헤어턴이 억눌린 웃음소리를 냈다. 히스클리프 씨는 흠칫하더니 재빨리 우리 얼굴을 훑어보았다. 캐시는 늘 하던 대로 불안하면서도 대드는 눈빛으로 그 눈길을 마주했는데, 그는 그 눈빛을 몹시 싫어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데 있으니 다행인 줄 알아." 그가 외쳤다. "무슨 마귀가 씌어서 그 지옥 같은 눈으로 자꾸 나를 마주 노려보는 거야? 눈 깔아! 그리고 다시는 네가 있다는 걸 나한테 떠올리게 하지 마. 웃는 버릇은 내가 고쳐 놓은 줄 알았는데."

"나였어." 헤어턴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주인이 다그쳤다.

헤어턴은 제 접시만 내려다보며 그 고백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히스클리프 씨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다시 아침을 먹으며 끊겼던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거의 다 먹었을 무렵 두 젊은이는 슬기롭게 서로 더 멀찍이 떨어져 앉았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서는 더 시끄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때 조지프가 문간에 나타났고, 떨리는 입술과 성난 눈을 보니 그 귀한 덤불에 저질러진 몹쓸 짓이 들통난 게 분명했다. 덤불을 살펴보기 전에 캐시와 그 사촌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게 틀림없었는데,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턱을 우물거리느라 말을 알아듣기 힘든 가운데 조지프가 말을 꺼냈다.

"내 품삯을 받아야겄소, 그리고 떠나야겄소! 예순 해를 섬긴 이 집에서 죽을 작정이었는*데* 말이오. 내 책이랑 자질구레한 살림을 죄다 다락으로 끌고 올라가고 부엌은 저것들한테 내줄 생각이었소, 조용히 살자고 말이오. 내 난롯가를 내주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그건 *할* 수 있겄다 싶었소! 허나 이제 저 계집애가 내 정원까지 빼앗아 갔으니, 쥔 나리, 정말이지 이건 못 참겄소! 나리는 맘만 먹으면 그 멍에를 지고 고개를 숙이겄지만 나는 그런 데 익숙하지 않소. 늙은이는 새 짐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법이구려. 차라리 길바닥에서 망치질을 해서 내 먹을 것 마실 것을 버는 게 낫겄소!"

"자, 자, 이 바보야!" 히스클리프가 말을 끊었다. "짧게 해! 불만이 뭐야? 너하고 넬리가 싸우는 데는 끼어들지 않을 거야. 넬리가 너를 석탄 광에 처박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넬리가 아니오!" 조지프가 대답했다. "넬리 때문이라면 내가 움직이지도 않겄소. 그 여편네도 고약하고 못된 것이긴 하지만 말이오. 주님 고맙게도 *그 여편네*는 누구 영혼도 훔치지 못하오! 그 여편네는 눈깜짝 않고 쳐다볼 수 있을 만큼 잘생긴 적이 없으니까 말이오. 우리

녀석을 홀린 건 저 소름 끼치는 불경한 계집애요, 그 뻔뻔한 눈이랑 그 앞서 나서는 짓거리로 말이오. 그러다 결국…… 아니! 이건 정말 가슴이 터지겄소! 그 녀석은 내가 해 준 것, 내가 키워 준 것을 죄다 잊어버리고 가서 정원에서 제일 훌륭한 까치밥나무를 한 줄 몽땅 뽑아 버렸구먼!" 그러고는 쓰라린 상처와 언쇼의 배은망덕과 그 위태로운 처지를 생각하며 사내답지도 못하게 대놓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 바보가 취했나?" 히스클리프 씨가 물었다. "헤어턴, 저 영감이 탓하는 게 너냐?"

"덤불을 두세 그루 뽑았어." 젊은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 심을 거야."

"그건 왜 뽑았어?" 주인이 말했다.

캐시가 슬기롭게 끼어들었다.

"우리가 거기 꽃을 좀 심고 싶었어요." 아가씨가 소리쳤다. "잘못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에요. 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체 누가 *너*더러 이 집 막대기 하나라도 건드려도 된다고 했어?" 시아버지가 몹시 놀라서 다그쳤다. "그리고 누가 *너*더러 이 애 말을 들으라고 했어?" 그는 헤어턴 쪽으로 돌아서며 덧붙였다.

헤어턴은 말을 잃었고, 그 사촌이 대답했다. "내 땅을 다 빼앗아 갔으면서 내가 꾸밀 흙 몇 야드쯤 아까워하면 안 되지요!"

"네 땅이라고, 이 건방진 년! 너는 땅을 가져 본 적이 없어."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그리고 내 돈도요." 아가씨는 성난 그의 눈길을 마주 쏘아보며, 그러면서도 아침 먹다 남긴 빵 껍질 한 조각을 씹으며 말을 이었다.

"닥쳐!" 그가 외쳤다. "다 먹었으면 꺼져!"

"그리고 헤어턴의 땅하고 헤어턴의 돈도요." 그 겁 없는 것이 멈추지 않고 말했다. "헤어턴하고 나는 이제 친구예요. 당신에 대해 다 말해 줄

거예요!"

주인은 잠깐 어안이 벙벙한 것 같더니 얼굴이 창백해져서 일어섰는데, 그러는 내내 죽일 듯한 증오가 서린 얼굴로 아가씨를 노려보았다.

"나를 때리면 헤어턴이 당신을 때릴 거예요." 아가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앉는 게 좋을걸요."

"헤어턴이 너를 이 방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녀석을 때려서 지옥에 처박아 버릴 테다." 히스클리프가 벼락같이 소리쳤다. "빌어먹을 마녀! 감히 그 녀석을 부추겨서 나한테 대들게 할 셈이야? 저년을 끌어내! 내 말 안 들려? 부엌에 내던져 버려! 엘렌 딘, 저년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게 했다가는 저년을 죽여 버릴 거야!"

헤어턴은 숨죽인 목소리로 아가씨에게 나가자고 달래 보았다.

"끌어내!" 히스클리프가 사납게 외쳤다. "거기 서서 이야기나 할 거야?" 그러고는 자기 명령을 몸소 실행하려고 다가갔다.

"이제 헤어턴은 다시는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이 나쁜 사람." 캐시가 말했다. "그리고 곧 나만큼 당신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쉿! 쉿!" 젊은이가 나무라듯 중얼거렸다. "네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아. 그만해."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때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지?" 아가씨가 소리쳤다.

"그럼 가자." 헤어턴이 간절하게 속삭였다.

너무 늦었다. 히스클리프가 아가씨를 붙잡아 버렸다.

"자, *너*는 가!" 그가 언쇼에게 말했다. "저주받을 마녀!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나를 건드렸으니 영영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그는 아가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헤어턴은 그 머리채를 풀어 주려고 애쓰며 이번 한 번만 다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빌었다.

히스클리프의 검은 눈이 번득였는데, 그는 캐시를 갈기갈기 찢어 버릴 기세였고, 나도 막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러 나서려고 마음을 다잡던 참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풀렸다. 그는 붙잡은 손을 아가씨의 머리에서 팔로 옮기더니 아가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눈을 쓸어내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듯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캐시 쪽으로 돌아서서 짐짓 침착하게 말했다.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거다, 안 그러면 언젠가 정말로 너를 죽이고 말 테니! 딘 부인하고 같이 가서 그 곁에 붙어 있어. 그리고 그 건방은 딘 부인 귀에다만 떨어. 헤어턴 언쇼는, 그 녀석이 네 말을 듣는 걸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어디든 빵을 얻을 수 있는 데로 가서 빌어먹게 내쫓아 버릴 거다! 네 사랑이 그 녀석을 떠돌이에 거지로 만들 거다. 넬리, 이 애를 데려가. 그리고 다들 나가! 나가!"

나는 아가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가씨는 빠져나온 게 너무 기뻐서 버티지도 않았고, 다른 하나도 뒤따라 나왔으며, 히스클리프 씨는 점심때까지 그 방을 혼자 차지했다. 나는 캐시에게 점심은 위층에서 먹으라고 일렀지만, 그는 아가씨의 빈자리를 알아차리자마자 나더러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했다. 그는 우리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주 조금만 먹고는 곧바로 나가면서 저녁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넌지시 알렸다.

그가 없는 동안 새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큰방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나는 캐시가 그 시아버지가 헤어턴의 아버지에게 한 짓을 들추어내려 하자 헤어턴이 엄하게 사촌을 막는 소리를 들었다. 헤어턴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한마디도 못 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악마라 해도 상관없고, 자기는 그 사람 편에 설 것이며, 아가씨가 히스클리프 씨 험담을 시작하느니 차라리 예전처럼 자기를 욕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캐시는 이 말에 점점 골이 났지만, 헤어턴은 *자기*가

아가씨 아버지를 헐뜯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서 아가씨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제야 아가씨는 언쇼가 주인의 평판을 자기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이성으로는 끊을 수 없는 더 강한 끈으로, 오랜 버릇이 벼려 낸 사슬로 매여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가씨는 그 뒤로 히스클리프에 대한 불평도 미워하는 말도 삼가며 착한 마음씨를 보였고, 그와 헤어턴 사이에 나쁜 마음을 부추기려 했던 것을 뉘우친다고 나에게 털어놓았는데, 정말이지 그 뒤로 아가씨는 헤어턴이 듣는 데서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에 대해 한마디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은 말다툼이 끝나자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어 학생과 선생으로서 저마다 할 일에 더없이 바빴다. 나는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두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자니 마음이 어찌나 누그러지고 위로가 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아시겠지만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둘 다 내 자식 같았는데, 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내 자랑이었고, 이제는 틀림없이 다른 한 사람도 그만큼 흐뭇함을 안겨 줄 터였어요. 정직하고 따뜻하고 영리한 헤어턴의 천성은 그가 자라 온 무지와 천대의 먹구름을 빠르게 떨쳐 냈고, 캐시의 진심 어린 칭찬은 그의 부지런함에 박차가 되었다. 밝아지는 마음이 얼굴을 밝혀서 그 모습에 생기와 기품을 더해 주었으니, 내가 바위산으로 나들이를 갔던 우리 작은 아가씨를 워더링 하이츠에서 찾아낸 그날 보았던 그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내가 감탄하고 두 사람이 애쓰는 사이에 어스름이 내렸고, 그와 함께 주인이 돌아왔다. 주인은 앞문으로 들어와서 아주 뜻밖에 우리 앞에 나타났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도 전에 우리 셋을 다 보았다. 글쎄, 이보다 더 보기 좋고 이보다 더 해 될 것 없는 광경은 없었고 두 사람을 꾸짖는다면 정말 망신스러운 일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붉은 불빛이 두 사람의 고운

머리를 비추며 아이들처럼 열심히 흥미에 차 생기가 도는 얼굴을 드러냈는데, 헤어턴은 스물셋이고 아가씨는 열여덟이었지만, 둘 다 새로 느끼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어느 쪽도 꿈이 깨어 버린 어른의 차분한 감정을 겪지도 드러내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눈을 들어 히스클리프 씨와 마주쳤는데, 나리는 혹시 알아채지 못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두 사람의 눈은 꼭 닮았고, 그건 캐서린 언쇼의 눈이에요. 지금의 캐시는 넓은 이마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도도해 보이게 만드는 콧방울의 어떤 휘어짐 말고는 어머니를 닮은 데가 없다. 헤어턴은 더 많이 닮았는데, 그 닮음은 언제라도 눈에 띄지만 *그때*는 유난히 두드러졌는데, 그의 감각이 깨어 있고 정신이 여느 때와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이 닮음이 히스클리프 씨의 기세를 꺾은 것 같았는데, 그는 눈에 띄게 마음이 흔들린 채로 난롯가로 걸어갔지만, 젊은이를 바라보는 사이에 그 흔들림은 곧 가라앉았는데, 아니, 그 성질이 바뀌었다고 해야겠다. 흔들림은 아직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헤어턴의 손에서 책을 받아 펼쳐진 책장을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려주고는, 캐시에게만 나가라고 손짓했고, 그 동무도 아가씨 뒤를 곧 따라 나갔고, 나도 나가려는데 그가 나더러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다.

"한심한 결말이지, 안 그래?" 그는 방금 본 광경을 한동안 곱씹고 나서 말했다. "그토록 사납게 애쓴 끝이 이런 터무니없는 마무리라니? 나는 두 집을 허물어 버리려고 지렛대와 곡괭이를 마련하고, 헤라클레스처럼 일할 수 있게 나 자신을 단련했는데, 모든 채비가 다 되고 내 손아귀에 들어오니까, 어느 지붕에서든 슬레이트 한 장 들어낼 마음조차 사라져 버린 걸 알게 됐어! 옛 원수들이 나를 이긴 것도 아니니, 지금이야말로 그자들을 대신하는 것들한테 복수할 바로 그때고, 나는 그럴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하지만 그래서 무슨 소용이야? 나는 내리치는

데 관심이 없어. 손을 드는 수고조차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줄곧 너그러운 아량을 보여 주려고 애써 온 것처럼 들리겠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그것들이 망하는 걸 즐길 힘을 잃었고, 아무 보람도 없이 부수기에는 너무 게을러.

"넬리, 이상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나는 지금 그 그림자 속에 있어. 나는 날마다의 삶에 관심이 너무 없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야. 방금 방을 나간 그 두 사람만이 나한테 또렷한 형체를 가진 것으로 남아 있는데, 그 모습이 나한테는 고통을, 극심한 괴로움에 이르는 고통을 줘. *그 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애가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 그 애가 있으면 미칠 것 같은 느낌만 드니까. *그 녀석*은 나를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런데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녀석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 녀석이 일깨우거나 그 몸에 담고 있는 지난날의 추억과 생각의 천 가지 모습을 내가 설명하려 들면,"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너는 내가 차라리 미쳐 가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남한테 옮기지 않을 테고, 내 마음은 언제까지나 제 안에 갇혀 있어서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들어.

"5분 전만 해도 헤어턴은 사람이 아니라 내 젊은 날이 사람의 모습을 한 것 같았고, 그 녀석한테 너무나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서 그 녀석에게 이성적으로 말을 거는 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야. 무엇보다 먼저, 그 녀석이 캐서린을 놀랄 만큼 닮아서 그 녀석은 그 사람과 무섭게 이어져 있었어. 하지만 너는 그게 내 상상을 가장 세게 붙잡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은 그게 가장 약해. 나한테 그 사람과 이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 이 바닥을 내려다보기만 해도 판석에 그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어! 구름마다,

나무마다, 밤이면 허공을 가득 채우고 낮이면 물건마다 언뜻언뜻 비치며 그 사람 모습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 아주 평범한 남자들 여자들 얼굴도, 내 얼굴도 그 사람을 닮은 데가 있다고 나를 비웃어. 온 세상이 그 사람이 정말로 있었다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적어 둔 무시무시한 쪽지 더미야! 그래, 헤어턴의 모습은 내 불멸의 사랑의 유령이었고, 내 권리를 지키려던 미친 몸부림, 내 타락, 내 자존심, 내 행복, 내 고통의 유령이었어……

"하지만 이런 생각을 너한테 되풀이하는 건 미친 짓이지만, 다만 이걸 들으면, 늘 혼자 있기는 싫으면서도 왜 그 녀석과 함께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줄곧 겪는 고통을 더 덧나게 하는지 알게 될 테고, 그 녀석이 사촌과 어떻게 지내든 내가 아랑곳하지 않게 된 데도 그게 얼마쯤 한몫을 해. 나는 이제 그것들한테 눈길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변화*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히스클리프 씨?" 그의 태도에 놀라서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정신을 잃을 위험도 죽을 위험도 없었는데, 그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했고, 정신으로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어두운 일을 곱씹고 이상한 공상을 품기를 즐겼다. 세상을 떠난 그 우상에 대해서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모든 일에서는 그의 정신은 나만큼이나 멀쩡했다.

"그건 닥쳐 봐야 알겠지." 그가 말했다. "지금은 반쯤만 느끼고 있을 뿐이야."

"어디 아프신 느낌은 없으시지요?" 내가 물었다.

"아니, 넬리,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럼 죽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이어서 물었다.

"두렵냐고? 아니!" 그가 대답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죽음의 예감도 없고, 죽음을 바라지도 않아. 내가 왜 그러겠어? 이 튼튼한 몸에, 절제하며 사는 데다, 위험할 것 없는 일을 하니, 나는

머리에 검은 머리카락이 거의 한 올도 남지 않을 때까지 땅 위에 살아 있어야 마땅하고,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도 이대로는 계속 살 수가 없어! 숨 쉬는 것도 스스로 일깨워야 하고, 심장이 뛰는 것조차 일깨워야 할 지경이야! 그건 뻣뻣한 용수철을 뒤로 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생각이 시키지 않는 일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억지로 해야 하고, 그 하나의 온 세상을 덮는 생각과 이어지지 않는 것은 살았든 죽었든 억지로 눈여겨봐야 해. 나한테는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고, 내 온 존재와 온 힘이 그걸 이루고 싶어 애태우고 있어. 그토록 오래, 그토록 흔들림 없이 그걸 향해 애태워 왔으니 반드시 그걸 이루게 *될* 거라고, 그것도 *곧* 이루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게 내 존재를 집어삼켜 버렸으니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통째로 삼켜져 있어. 이렇게 털어놓아도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내가 보이는,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 없는 기분의 변덕 몇 가지는 설명이 될 거다. 오, 하느님! 이건 기나긴 싸움이야. 어서 끝났으면 좋겠어!"

그는 무시무시한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조지프가 그렇다고 한 대로 양심이 그의 마음을 이 세상의 지옥으로 바꿔 놓았다고 믿고 싶어졌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몹시 궁금했다. 전에는 그가 이런 마음 상태를 눈빛으로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늘 그런 기분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그렇다고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몸가짐만으로는 누구도 그것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리도 그를 보셨을 때 짐작하지 못하셨지요, 록우드 나리,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무렵에 그는 그때와 똑같았는데, 다만 혼자 있기를 더 좋아했고, 사람들 틈에서는 아마 말이 더 적었을 거예요.

제34장

그날 저녁 뒤로 며칠 동안 히스클리프 씨는 식사 때 우리와 마주치기를 피했지만, 그렇다고 헤어턴과 캐시를 식탁에서 내쫓겠다고 대놓고 정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는 제 감정에 그렇게 고스란히 굴복하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쪽을 택했고, 스물네 시간에 한 번 먹는 것으로 그에게는 충분한 끼니가 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든 뒤에 나는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앞문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다시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 그는 아직도 나가고 없었다. 그때는 사월이었는데, 날씨는 달콤하고 따뜻했고, 풀은 소나기와 햇볕이 만들 수 있는 만큼 푸르렀으며, 남쪽 담장 가까이에 선 키 작은 사과나무 두 그루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캐시는 나더러 의자를 가지고 나가서 집 끝 전나무 밑에 앉아 바느질을 하라고 졸랐고, 사고에서 말끔히 나은 헤어턴을 구슬려서 제 작은 꽃밭을 파고 가꾸게 했는데, 그 꽃밭은 조지프가 투덜거리는 바람에 그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다. 나는 둘레의 봄 향기와 머리 위의 곱고 부드러운 푸른 하늘을 편안히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꽃밭 가장자리에 심을 앵초 뿌리를 캐러 대문 가까이까지 뛰어 내려갔던 아가씨가 손에 반쯤만 든 채 돌아와서 히스클리프 씨가 들어오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었어." 아가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덧붙였다.

"뭐라고 했는데?" 헤어턴이 물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꺼지라고 했어."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런데 여느 때하고 너무 다른 얼굴이어서 잠깐 멈춰 서서 쳐다봤어."

"어떻게?" 헤어턴이 물었다.

"글쎄, 거의 밝고 즐거워 보였어. 아니, *거의*가 아니라…… *아주 많이* 들떠 있고, 사납고, 기뻐 보였어!"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럼 밤에 쏘다니는 게 재미있나 보네요." 나는 무심한 척하며 말했지만, 실은 아가씨만큼이나 놀랐고 아가씨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어 조바심이 났는데, 주인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은 날마다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아닐 테니까. 나는 핑계를 지어내서 안으로 들어갔다. 히스클리프는 열린 문간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눈에는 분명히 이상하게 기쁜 빛이 번득여서 얼굴 생김새가 온통 달라 보였다.

"아침 좀 드시겠어요?" 내가 말했다. "밤새 돌아다니셨으니 시장하시겠어요!" 나는 그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대놓고 묻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배 안 고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는데, 그가 기분이 좋은 까닭을 내가 알아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듯 꽤 경멸하는 투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참에 한마디 충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바깥을 돌아다니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아무튼 이렇게 축축한 철에는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지독한 감기나 열병에 걸리실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 탈이 나셨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가만 내버려 두기만 하면 더없이 기꺼이 견딜 거야. 들어가, 성가시게 굴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따랐는데, 지나가면서 보니 그는 고양이처럼 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앓아눕게 생겼구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짐작도 안 가.'

그날 한낮에 그는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앉아서, 그동안 굶은 것을 벌충하려는 듯 수북이 담은 접시를 내 손에서 받아 들었다.

"감기도 열병도 안 걸렸어, 넬리." 그는 아침에 내가 한 말을 빗대어 말했다. "그리고 네가 주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 줄 참이야."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 들고 막 먹기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신 것 같았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애타는 눈길로 창 쪽을 바라보더니, 일어나서 나가 버렸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는 동안 그가 정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는데, 언쇼는 우리가 무슨 일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다며 왜 점심을 안 드는지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래, 오신대?" 사촌이 돌아오자 캐시가 소리쳤다.

"아니." 헤어턴이 대답했다. "하지만 화가 난 건 아니야. 정말 보기 드물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 다만 내가 두 번이나 말을 거니까 조바심을 내더니 너한테 가 있으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그의 접시를 식지 않게 난로 울 위에 올려놓았다. 한두 시간 뒤에 방이 비었을 때 그가 다시 들어왔는데, 조금도 가라앉아 있지 않았다. 그 검은 눈썹 밑에는 여전히 그 부자연스러운,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기쁨의 빛이 서려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빛도 그대로였으며, 이따금 웃음 같은 것을 지을 때면 이가 드러났고, 몸은 떨고 있었는데, 추위나 기운이 없어서 떠는 것이 아니라 팽팽히 당겨진 줄이 울리듯 떠는 것이어서, 떨림이라기보다 세찬 진동이었다.

물어봐야겠어,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묻겠어? 그래서 나는 외쳤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들으셨어요, 히스클리프 씨? 유난히 생기가 넘쳐 보이세요."

"나한테 좋은 소식이 어디서 오겠어?" 그가 말했다. "배가 고파서 생기가 넘치는 거야. 그런데 보아하니 나는 먹으면 안 되는 모양이야."

"점심은 여기 있어요." 내가 말했다. "왜 안 드세요?"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 그가 서둘러 중얼거렸다. "저녁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넬리, 이번 한 번만 부탁하는데, 헤어턴하고 그 다른 애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줘.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이곳을 나 혼자 쓰고 싶어."

"이렇게 쫓아내시는 데 무슨 새로운 까닭이라도 있어요?" 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이상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히스클리프 씨.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쓸데없는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쓸데없는 호기심에서 묻는 거지." 그는 웃으며 내 말을 끊었다. "그래도 대답은 해 주마. 어젯밤에 나는 지옥의 문턱에 있었어. 오늘은 내 천국이 눈에 보이는 데 있어. 내 눈은 거기 박혀 있는데, 나를 거기서 떼어 놓는 건 3피트도 안 돼! 그러니 이제 가는 게 좋을 거야! 엿보지만 않으면 너를 놀라게 할 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할 테니."

나는 난롯가를 쓸고 식탁을 닦고 나서 어느 때보다 더 어리둥절한 채 물러 나왔다.

그는 그날 오후에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고독을 방해하지 않았는데, 여덟 시가 되자 나는 부르지는 않았지만 촛불과 저녁을 가져다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열린 격자창 턱에 기대어 있었지만 바깥을 내다보고 있지는 않았고, 얼굴은 방 안의 어둠 쪽을 향하고 있었다. 불은 사그라져 재가 되어 있었고, 방 안은 흐린 저녁의 축축하고 포근한 공기로 가득했으며, 어찌나 고요한지 기머턴

아래쪽 개울의 졸졸거리는 소리뿐 아니라, 조약돌 위로 물결이 이는 소리며 물이 미처 덮지 못한 큰 돌 사이로 꾸르륵거리며 흐르는 소리까지 가려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쓸쓸한 난로를 보고 못마땅한 소리를 내뱉고는 여닫이창을 하나씩 닫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가 있는 창에 이르렀다.

"이것도 닫을까요?" 그가 꼼짝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신이 들게 하려고 내가 물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불빛이 그의 얼굴에 확 비쳤다. 아, 록우드 나리, 그 얼굴을 언뜻 본 순간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놀랐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깊고 검은 눈! 그 웃음과 송장 같은 창백함! 내 눈에는 그게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라 도깨비로 보였고, 나는 겁에 질려 촛불을 벽 쪽으로 기울이는 바람에 어둠 속에 남고 말았다.

"그래, 닫아." 그가 귀에 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런, 순전히 서투른 탓이로군! 왜 초를 옆으로 눕혀 들었어? 얼른 가서 다른 초를 가져와."

나는 어리석게도 겁에 질려 서둘러 나가서 조지프에게 말했다. "주인 나리가 불을 가져다 드리고 난롯불을 다시 피워 달래요." 그때는 내가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지프는 부삽에 불덩이를 덜그럭덜그럭 담아 가지고 갔지만, 곧 그것을 도로 가지고 왔는데, 다른 손에는 저녁 쟁반을 들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씨가 잠자리에 들 거라서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곧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늘 쓰던 방으로 가지 않고 참나무 상자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 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넓어서, 나는 그가 우리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한밤의 나들이를 또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송장 귀신일까, 흡혈귀일까?'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 끔찍한 악마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내가 그를 갓난아기 때부터 돌보았고, 그가 젊은이로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한평생을 거의 끝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런 무서운 느낌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 조그맣고 시커먼 것은 어디서 왔을까, 착한 사람이 품어 주었다가 화를 입은 그것은?" 내가 까무룩 잠이 들 때 미신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는 반쯤 꿈을 꾸면서 그에게 걸맞은 부모가 누구였을까 상상하느라 기진했고, 깨어 있을 때 하던 생각을 되풀이하며 그의 한살이를 처음부터 다시 더듬어 갔는데, 거기에 음산한 변주가 덧붙었고, 마침내 그의 죽음과 장례를 그려 보았다. 그 가운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묘비에 새길 글을 불러 주는 일을 맡아 몹시 속을 끓이며 교회지기와 그 일을 의논했다는 것뿐인데, 그는 성이 없고 우리는 그의 나이도 알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히스클리프'라는 한 마디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교회 묘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의 묘비에는 그 이름과 그가 죽은 날짜만 적혀 있을 거예요.

새벽이 오자 나는 제정신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서, 사물이 보이자마자 정원으로 나가 그의 창 밑에 발자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발자국은 없었다. '집에 있었구나.' 나는 생각했다. '오늘은 괜찮겠지.' 나는 늘 하던 대로 식구들 아침을 준비했지만, 주인이 늦게까지 누워 있었으므로 헤어턴과 캐시에게는 주인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했다. 두 사람은 바깥 나무 밑에서 먹고 싶어 해서 나는 두 사람이 쓸 작은 탁자를 차려 주었다.

다시 들어가 보니 히스클리프 씨가 아래층에 있었다. 그는 조지프와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의논하는 일에 대해 똑똑하고 꼼꼼하게 지시를 내리기는 했지만 말이 빨랐고 자꾸만 고개를 옆으로 돌렸으며, 그 들뜬 표정은 그대로인 데다 더 심해져 있었다. 조지프가 방을 나가자 그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고, 나는 그 앞에 커피 한 사발을 놓았다. 그는 사발을 끌어당기더니 식탁에 두 팔을 괴고 맞은편 벽을 바라보았는데, 내가 짐작하기로는 번득이는 불안한 눈으로 벽의 어느 한 부분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고, 어찌나 열심히 들여다보는지 반 분 동안이나 숨을 멈추고 있었다.

"자, 어서요." 나는 그의 손에 빵을 밀어 주며 외쳤다. "따뜻할 때 이걸 드시고 마시세요. 거의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그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웃었다. 그렇게 웃는 걸 보느니 차라리 이를 가는 걸 보는 게 나았을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 주인 나리!" 내가 소리쳤다. "제발, 이 세상 것이 아닌 환영이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마." 그가 대답했다. "돌아서 봐, 그리고 말해 봐, 여기 우리 둘뿐이야?"

"물론이지요." 내가 대답했다. "물론 우리 둘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꼭 그렇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그의 말을 따랐다. 그는 손을 휘저어 아침 그릇들 사이 앞쪽에 빈자리를 치우더니, 더 편하게 바라보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제야 나는 그가 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 사람 하나만 눈여겨보면 그가 2야드 안쪽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기쁨과 고통을 둘 다 더할 나위 없이 극단으로 안겨 주는 듯했다. 적어도 그의 얼굴에 서린, 괴로워하면서도 황홀해하는 표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상상의 대상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서, 그의 눈은 지칠 줄 모르고 부지런히 그것을 좇았고, 나한테 말을 할 때조차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지만 헛일이었는데, 내가 비는 대로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움직이거나 빵 한 조각을 집으려고 손을 뻗을 때도, 그의 손가락은 빵에 닿기도 전에 오그라들어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린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머물렀다.

나는 참을성의 본보기처럼 앉아서 그가 빠져 있는 생각에서 그의 눈길을 끌어내려고 애썼는데, 마침내 그는 짜증을 내며 일어서더니, 왜 자기가 끼니를 먹고 싶을 때 먹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묻고는, 다음부터는 기다릴 필요 없이 음식만 차려 놓고 가도 된다고 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집을 나가 정원 길을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내려가더니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시간은 조마조마하게 느릿느릿 흘러갔고, 또 저녁이 왔다. 나는 늦게까지 자리에 들지 않았고, 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정이 넘어 돌아왔는데, 잠자리에 드는 대신 아래층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귀를 기울이며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마침내 옷을 입고 내려갔다. 거기 누워 백 가지 쓸데없는 걱정으로 머리를 들볶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다.

방바닥을 쉬지 않고 서성이는 히스클리프 씨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신음 같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주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띄엄띄엄 낱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캐서린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었는데, 그 이름에는 무언가 사랑에 미친 말이나 괴로움에 찬 말이 붙어 있었고,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그 이름을 불렀는데, 낮고 간절하게, 영혼 밑바닥에서 쥐어짜듯 했다. 나는 곧장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를 그

몽상에서 끌어내고 싶어서, 부엌 불을 공연히 들쑤시고 휘저으며 재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생각보다 빨리 그가 나왔다. 그는 곧바로 문을 열고 말했다. "넬리, 이리 와 봐. 아침이야? 불 가지고 들어와."

"네 시를 치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위층에 가져가실 초가 필요하시군요. 이 불에서 붙이시면 되잖아요."

"아니, 위층에는 가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들어와서 *나*한테 불을 좀 피워 주고, 방에서 할 일이 있으면 뭐든 해 줘."

"불을 옮겨 가려면 먼저 석탄을 불어서 빨갛게 달궈야 해요." 나는 의자와 풀무를 가져오며 대답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서성였는데, 무거운 한숨이 어찌나 잇달아 쏟아지는지 그 사이에 여느 숨을 쉴 틈도 없었다.

"날이 새면 그린 변호사를 부르러 보낼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런 일에 생각을 쏟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 법률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어. 나는 아직 유언장을 쓰지 않았는데, 재산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정할 수가 없어. 할 수만 있다면 땅 위에서 그 재산을 깡그리 없애 버리고 싶어."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히스클리프 씨." 내가 끼어들었다. "유언장은 잠시 미뤄 두세요. 그 많은 몹쓸 짓을 뉘우칠 날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나리 신경이 탈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은 정말 놀라울 만큼 탈이 났고, 그건 거의 다 나리 탓이에요. 요 사흘을 그렇게 보내셨으니 거인이라도 녹초가 되었을 거예요. 제발 뭘 좀 드시고 좀 쉬세요. 거울만 들여다보셔도 둘 다 얼마나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볼은 움푹 꺼지고 눈은 핏발이 서서, 꼭 굶주려 죽어 가고 잠을 못 자서 눈이 멀어 가는 사람 같아요."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건 내 탓이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분명히 말하는데 무슨 작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둘 다 할 거야. 하지만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물가가 팔 하나 길이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먼저 거기 닿아야 하고, 그다음에 쉴 거야. 그래, 그린 변호사는 신경 쓰지 마. 내 몹쓸 짓을 뉘우치라는 말인데, 나는 아무 몹쓸 짓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아.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도 충분히 행복하지는 않아. 내 영혼의 더없는 기쁨이 내 몸을 죽이는데, 그래도 그 기쁨은 채워지지 않아."

"행복하시다고요, 주인 나리?" 내가 외쳤다. "참 이상한 행복이네요! 화내지 않고 들어 주신다면, 나리를 더 행복하게 해 드릴 충고를 하나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뭔데?" 그가 물었다. "말해 봐."

"히스클리프 씨도 아시다시피," 내가 말했다. "나리는 열세 살 때부터 제 몸만 아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동안 아마 성경을 손에 들어 보신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도 잊어버리셨을 테고, 지금은 성경을 찾아볼 겨를도 없으실지 몰라요. 그러니 누군가를, 어느 교파든 상관없으니 목사님을 한 분 불러서 성경을 풀이해 달라고 하고, 나리가 그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빗나가셨는지,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얼마나 맞지 않는 사람이 될지 보여 달라고 하면 해로울 게 있을까요?"

"화가 나기는커녕 고맙구나, 넬리." 그가 말했다. "네 덕분에 내가 어떻게 묻히고 싶은지 생각났으니까. 저녁에 교회 묘지로 실려 가고 싶어. 너하고 헤어턴은 원한다면 따라와도 좋아. 그리고 두 관에 대한 내 지시를 교회지기가 따르는지 특히 잘 봐 둬! 목사는 올 필요 없고, 내

무덤 위에서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정말이지 나는 *내* 천국에 거의 다 닿았고, 남들의 천국은 나한테는 아무 가치도 없고 탐나지도 않아."

"그런데 나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굶다가 그 때문에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나리를 교회 울타리 안에 묻어 주지 않겠다고 하면요?" 그의 하느님을 모르는 무심함에 충격을 받아 내가 말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런다면 네가 나를 몰래 옮겨 줘야 해. 그 일을 소홀히 했다가는 죽은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네 눈으로 똑똑히 알게 될 거다!"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는 제 굴로 물러갔고, 나는 숨을 좀 더 편히 쉬었다. 그러나 오후에 조지프와 헤어턴이 일하러 나가 있는 사이에 그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서, 사나운 눈빛으로 나더러 큰방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누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면서, 그의 이상한 말과 태도가 무섭고 단둘이 그의 곁에 있을 배짱도 마음도 없다고 똑똑히 말했다.

"너는 나를 마귀로 여기는 모양이구나." 그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점잖은 지붕 밑에서 살기에는 너무 끔찍한 무언가로." 그러고는 거기 있다가 그가 다가오자 내 뒤로 숨은 캐시 쪽으로 돌아서서 반쯤 비웃듯이 덧붙였다. "*너*는 오겠니, 아가? 해치지 않을게. 아니야! 너한테 나는 악마보다 더 고약한 놈이 되어 버렸지. 그래, 내 곁에 있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 맙소사! 그 사람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 아, 빌어먹을! 피와 살을 가진 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내 몸으로도."

그는 더는 누구에게도 같이 있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어스름이 내리자 그는 제 방으로 들어갔다.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한참 될

때까지, 그가 신음하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헤어턴은 들어가 보고 싶어 애를 태웠지만, 나는 케네스 선생을 모셔 오라고 하고 선생이 오면 들어가서 그를 보라고 했다. 선생이 와서 내가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며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우리더러 지옥에나 가라고 했다. 자기는 좀 나아졌으니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했고, 그래서 의사는 돌아갔다.

이튿날 저녁에는 비가 몹시 내렸는데, 정말이지 새벽까지 억수같이 퍼부었고, 아침에 집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나는 주인 방의 창이 활짝 열린 채 흔들거리고 비가 곧장 들이치는 것을 보았다. 침대에 누워 있을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저런 소나기라면 흠뻑 젖고 말았을 테니까. 일어나 있거나 나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더는 법석 떨지 말고 대담하게 가서 들여다보자.

다른 열쇠로 문을 여는 데 성공하자 나는 방이 비어 있었으므로 판자를 열려고 달려갔고, 재빨리 판자를 밀어젖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히스클리프 씨가 거기 반듯이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이 어찌나 날카롭고 사납게 내 눈과 마주쳤던지 나는 흠칫 놀랐는데, 그러자 그가 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과 목은 빗물에 씻겨 있었고 이불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으며 그는 완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덜컹거리던 격자창이 창턱에 얹힌 한쪽 손을 스쳐 놓았는데, 그 벗겨진 살갗에서 피 한 방울 흘러나오지 않았고, 내가 손가락을 대 보자 더는 의심할 수 없었는데, 그는 죽어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창을 걸쇠로 잠그고, 그의 이마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고, 그의 눈을 감기려고 애썼는데, 될 수만 있다면 다른 누가 보기 전에 그 무시무시하고 살아 있는 것 같은 의기양양한 눈길을 꺼 버리고 싶었다. 눈은 감기지 않았고, 내가 애쓰는 것을 비웃는 것 같았으며,

벌어진 입술과 날카로운 흰 이도 비웃고 있었다! 또다시 겁이 덜컥 나서 나는 조지프를 불렀다. 조지프는 발을 질질 끌며 올라와서 법석을 떨었지만, 시신에는 끝까지 손대려 하지 않았다.

"마귀가 저 영혼을 낚아채 갔구먼." 조지프가 소리쳤다. "덤으로 저 송장까지 가져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여! 에이! 죽음을 보고 이를 드러내며 웃는 꼴이 참 사악하기도 하구먼!" 그러고는 그 늙은 죄인도 비웃듯이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나는 조지프가 침대 둘레를 돌며 깡충깡충 춤이라도 출 작정인 줄 알았는데, 조지프는 갑자기 마음을 가다듬더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정당한 주인과 오랜 핏줄이 제 권리를 되찾았다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나는 그 끔찍한 일에 넋이 나간 듯했고, 어쩔 수 없이 옛 시절이 떠올라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정말로 몹시 괴로워한 사람은 가장 큰 해를 입은 가엾은 헤어턴 하나뿐이었다. 헤어턴은 밤새 시신 곁에 앉아서 서럽게, 진심으로 울었다. 그는 시신의 손을 꼭 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마 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그 비웃는 듯한 사나운 얼굴에 입을 맞추었으며, 담금질한 강철처럼 단단하기는 해도 너그러운 마음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그 강한 슬픔으로 그를 애도했다.

케네스 선생은 주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판정하지 못해 쩔쩔맸다. 나는 그가 나흘 동안 아무것도 삼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말씀이 될까 봐 감추었는데, 나는 그가 일부러 굶은 게 아니라고 믿는데, 굶은 것은 그 이상한 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

우리는 그가 바란 대로 그를 묻었고, 온 동네가 그 일로 수군거렸다. 언쇼와 나, 교회지기, 그리고 관을 메고 간 여섯 사람이 장례에 온 사람의 전부였다. 여섯 사람은 관을 무덤 속에 내려놓고는 떠났고, 우리는 남아서 무덤이 덮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헤어턴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푸른 뗏장을 떠다가 갈색 흙 위에 손수 덮었는데, 지금 그 무덤은 곁에 있는 무덤들만큼이나 반반하고 파랗고, 나는 그 무덤 임자도 그만큼 곤히 잠들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 고장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가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거고, 교회 근처에서, 황야에서, 심지어 이 집 안에서 그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시겠지요, 나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부엌 난롯가의 저 늙은이는 그가 죽은 뒤로 비 오는 밤이면 언제나 그 둘이 그의 방 창으로 내다보는 걸 보았다고 우기는데, 한 달쯤 전에는 나한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레인지로 가는 길이었는데, 천둥이 칠 것 같은 캄캄한 저녁이었고, 하이츠 모퉁이를 막 도는데 양 한 마리와 새끼 양 두 마리를 앞세운 어린 사내아이와 마주쳤는데, 아이가 몹시 울고 있어서, 나는 새끼 양들이 날뛰며 말을 안 듣는 줄로만 알았지요.

"무슨 일이니, 꼬마야?" 내가 물었다.

"저기 바위 밑에 히스클리프하고 어떤 여자가 있어요." 아이가 엉엉 울며 말했다.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양도 아이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아서 아이에게 아래쪽 길로 가라고 일렀다. 아마 그 아이는 혼자 황야를 지나면서 부모와 동무들이 되뇌던 헛소리를 떠올리다가 그런 허깨비를 지어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제 어두울 때 바깥에 나가는 게 싫고, 이 음산한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것도 싫은데 어쩔 수가 없으니, 그 사람들이 이 집을 떠나 그레인지로 옮겨 가면 나는 기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레인지로 가는 거요?" 내가 말했다.

"네." 딘 부인이 대답했다. "결혼하자마자요. 혼례는 설날에 올려요."

"그럼 여기는 누가 살게 되오?"

"글쎄요, 조지프가 집을 돌볼 거고, 아마 말동무로 젊은 녀석이 하나 같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지내고 나머지는 닫아 둘 거예요."

"여기 살고 싶어 하는 유령들이 쓰라고 말이오?"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록우드 나리." 넬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들을 두고 가볍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때 정원 문이 덜컥 닫혔다. 산책 나갔던 이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군." 창 너머로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투덜거렸다. "둘이 함께라면 사탄과 그 군대라도 맞서겠군."

두 사람이 문간 돌에 올라서서 달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달빛에 비친 서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려고 멈춰 섰을 때, 나는 또다시 두 사람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딘 부인의 손에 정표를 쥐여 주고, 무례하다고 말리는 부인의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이 큰방 문을 여는 사이에 부엌으로 빠져나가 사라졌는데, 다행히 조지프가 발밑에서 울리는 1파운드 금화의 고운 소리를 듣고 나를 점잖은 사람으로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동료 하인이 경박하게 사내를 끌어들인다는 조지프의 생각을 굳혀 주고 말았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교회 쪽으로 돌아가느라 길이 길어졌다. 교회 담장 밑에 이르러 보니 일곱 달 사이에도 허물어짐이 꽤 진행되어 있었다. 창 여러 개가 유리가 빠진 채 시커먼 구멍을 드러내고 있었고, 슬레이트가 여기저기 지붕의 반듯한 선 밖으로 비죽 삐져나와 있어서 다가오는 가을 폭풍에 차츰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나는 황야 쪽 비탈에 있는 묘비 세 개를 찾아다니다가 곧 찾아냈다. 가운데 것은 잿빛이고 반쯤 히스에 파묻혀 있었고, 에드거 린턴의 것은

그 밑동을 타고 올라온 뗏장과 이끼로 겨우 어우러져 있었으며, 히스클리프의 것은 아직 맨 그대로였다.

나는 그 너그러운 하늘 아래 무덤 곁을 서성였다. 히스와 초롱꽃 사이를 팔랑이며 나는 나방들을 바라보고, 풀잎 사이로 숨 쉬듯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토록 고요한 땅 밑에 잠든 이들에게 고요하지 못한 잠이 있으리라고 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판권면

폭풍의 언덕

원제 · Wuthering Heights

지은이 · 에밀리 브론테 (Emily Brontë, 1818~1848). 초판 필명 엘리스 벨 (Ellis Bell)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847년 12월, 런던 토머스 코틀리 뉴비 출판사, 전 3권(제1~2권. 제3권은 앤 브론테의 『애그니스 그레이』).

저본 · 1847년 초판 계열의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 영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115,871단어 · 34장 · 1,942문단(원문과 같음) · 옮긴이 주 2개

저작권 · 지은이가 1848년에 사망해 원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